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 (제3차) 읽기, 문법·규범 영역 -

연구 책임자 | 구본관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1월

2024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구본관(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한국개발조사연구소

연구책임자: 구본관

공동연구원: 민병곤, 김혜정, 강민규, 조진수, 박성석, 최소영, 장지혜, 이성준,
박종관, 장호원, 백형근

보조연구원: 김다연, 이상재, 안이진, 이정민, 이진현, 지서영, 이혜린, 김고은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에 개발한 읽기 영역 및 문법·규범 영역의 조사 도구를 활용해 각 영역의 국어능력 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읽기 능력 및 문법·규범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2025년에 시행될 쓰기 영역의 실태 조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정교화함으로써 2025년에 실시될 본조사의 시행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가 영역별 연차 조사의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의 본조사는 읽기 영역 및 문법·규범 영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 문법·규범 영역은 언어생활에서의 규범적 언어 사용 능력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의 문법 영역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조사의 조사 도구는 2023년에 이루어진 기초 연구 및 예비 조사에 기반을 두어 설계하되, 전문가 자문을 비롯하여 예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문항의 변별도와 곤란도, 답지 반응을, 변인별 차이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배경 변인을 확장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련 변인 외에도, 2018년과 2023년 본조사에서 설정한 변인을 수정한 공통 배경 변인 및 각 영역별 변인을 설정하였다. 공통 배경 변인으로는 전공, 독서량, 매체 사용 빈도, 인터넷 사용 시간, 국어 관련 학습 활동 및 분야를 설정하였고, 읽기 영역은 읽기 빈도, 읽기 경험과 가치관 등을, 문법·규범 영역은 어문 규범 검색 빈도, 국어사전을 비롯한 국립국어원 서비스 활용 정도 등을 추가하였다.

본조사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만 두 달여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69세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1 방문 면접 조사로 시행하였다. 조사 참여자 선정 시 인구 분포 통계를 활용한 2단계 층화 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 및 크기 비례 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사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방안 탐색 차원에서 집합 조사 50명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본조사의 총 인원은 5,050명이거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의 주요 대상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5,000명의 응답으로 하고 집합 조사 50명의 응답은 방문 면접 조사 방식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하였다.

원점수의 평균은 읽기 영역이 197.93점(300점 만점, 표준편차 69.36), 문법·규범 영역이 98.46점(150점 만점, 표준편차 32.93)을 보였다. 능력 점수(T점수) 평균으로는 읽기 영역이 49.53점(100점 만점, 표준편차 9.10)이었고, 문법·규범 영역이 50점(100점 만점, 표준편차 8.59)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인원 분포를 보면, 읽기 영역은 4수준이 22.7%(1,134명), 3수준이 40.0%(2,000명), 2수준이 27.1%(1,353명), 1수준이 10.3%(513명)로 나타났다. 문법·규범 영역은 4수준이 28.3%(1,414명), 3수준이 30.0%(1,500명), 2수준이 26.6%(1,330명), 1수준이

15.1%(756명)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읽기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능력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정신노동, 기타, 육체노동의 순으로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대해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 고졸, 고졸 미만 순으로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간 독서량은 최대량에 해당하는 선택지인 '7권 이상'에答한 경우의 능력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규범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능력 점수 차이는 중소 도시, 대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소 도시와 대도시, 중소 도시와 읍면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군별로는 정신노동, 기타, 육체노동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대학교 재학 이상, 고졸, 고졸 미만 순으로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간 독서량은 최대량에 해당하는 선택지인 '7권 이상'에答한 경우의 능력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2013년과 2018년의 조사 도구 간 동등화를 바탕으로 연도별 국어능력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검사 동등화를 통해 2018년과 2024년 국어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읽기 영역의 경우 2018년 조사 대비 2024년 조사에서 4수준의 비율이 21.9%에서 22.7%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3수준은 42.6%에서 40.0%, 2수준은 29.5%에서 27.1%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수준의 경우에는 6.0%에서 10.3%로 4.3%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규범 영역의 경우 4수준의 비율이 6.9%에서 28.3%로 21.4%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수준은 49.2%에서 30.0%로 19.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 36%에서 26.6%로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1수준의 경우 8%에서 15.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25년에 실시될 쓰기 영역의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지난 2013년과 2018년에 이루어진 실태 조사의 설계를 계승하면서도, 언어생활의 변화 및 국어능력의 개념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내용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도구의 수정 및 정교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변화된 문식 환경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쓰기 영역의 예비 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69세의 성인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이때 300명은 1:1 방문 면접 조사로, 30명은 집합 조사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역시 본조사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변인의 5개 공통 변인을 설정하여 각 변인별로 실제 인구 분포 비율에 비례하게 조사 대

상이 표집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읽기 영역 및 문법·규범 영역과 달리, 쓰기 영역은 응답 결과가 쓰기를 수행한 결과물로서의 ‘글’이므로, 세부 채점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채점자 배열을 나선형으로 하는 등 채점 설계를 정교화하였다. 또한 사전 채점 연습 및 채점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채점자 개인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점자 훈련을 강화하고 채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는 문항별 난이도(용이도), 변별도, 채점 일관성과 채점자 간 일치도를 분석하여 평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및 연구진 워크숍, 국어교육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내용 및 실행 방식을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조사 대상자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조사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024년 본조사 및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이루어질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쓰기 영역 본조사 시행 및 심층 분석 연구를 위한 일차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과 관련한 상세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정책적 지원, 평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국어능력, 국어능력 평가, 국민의 국어능력, 읽기 능력, 문법·규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차 례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2. 연구의 범위	6
1.3. 연구의 추진 과정	9

제 2 장 읽기, 문법·규범 영역 본조사

2.1. 조사 도구의 확정	17
1) 최종 문항 선정	18
2) 조사 도구의 이원화	21
3) 문항별 수정 사항	23
4) 영역별 영역 배경 변인 구성	31
2.2. 표본 집단 추출	37
1) 방문 면접 조사	37
(1) 모집단 정의	37
(2) 모집단 층화	37
(3) 표본 크기 결정	38
(4) 집락 크기 결정	38
(5)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통한 집락 추출	44
(6) 집락 내 개인 할당 추출	45
(7) 할당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45
(8) 표본 배분	46
(9) 할당 변인별 표본 수	48
2) 집합 조사	51

차 례

2.3. 본조사 방식	52
1) 방문 면접 조사	52
(1) 조사 방법	52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52
(3) 비표본 오차 최소화	54
2) 집합 조사	57
2.4. 본조사 결과 분석	59
1) 방문 면접 조사 결과	59
(1) 영역별 국어능력 조사 결과 분석	59
(2) 국어능력 조사 문항(문항 카드)	67
(3) 배경 변인에 따른 영역별 국어능력의 차이 분석	131
(4) 국민의 국어 활동 실태 및 인식 분석	137
2) 집합 조사 결과와의 비교	158
3)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타당성 종합 검토 결과	158
2.5. 동등화 결과 분석	161
1) 영역별 동등화 결과	161
2) 국민의 읽기, 문법·규범 능력 성취 수준 변화 추이 분석	161
2.6. 외국의 자국어 능력 조사와의 비교 분석	164
1) 읽기 영역 비교 분석	164
2) 문법·규범 영역 비교 분석	172

차 례

제 3 장 쓰기 영역 도구 개발 및 예비 조사

3.1. 이론적 검토	177
1) 1, 2차 국민의 국어능력 쓰기 영역 실태 조사에 대한 평가	177
(1) 조사 도구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77
(2) 조사 인원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77
(3) 조사 방식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78
(4) 조사 결과 해석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78
(5) 5년 주기 국어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연차별 정례화	179
2) 국어 사용 환경 및 현황 분석에 따른 쓰기 능력의 범위, 개념	180
(1) 국민의 쓰기 능력과 관련된 국어 사용 환경 및 현황 분석	180
(2)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에 따른 쓰기 능력의 범위 및 개념 수립	181
3) 국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182
(1) 국내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182
(2) 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189
(3)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도구 검토	197
3.2. 쓰기 영역 조사 도구의 구성	202
1) 세부 조사 영역 및 요소 설정	202
(1) 쓰기 영역의 핵심 역량 분석	202
(2)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204
2) 가교 문항 검토	204
3) 문항 형식	205
4) 쓰기 영역 예비 조사 검사지 구성	206
5) 쓰기 영역 예비 조사 문항	208

차 례

3.3. 예비 조사의 시행	222
1) 방문 면접 조사	222
(1) 표본 설계	222
(2) 예비 조사 방식	225
2) 집합 조사	225
(1) 표본 설계	225
(2) 집합 조사 방식	226
3.4. 예비 조사 결과의 채점	227
1) 채점 설계	227
2) 채점자 훈련	228
3) 채점 절차	233
3.5. 예비 조사 결과 분석	234
1) 분석 방법	234
2) 예비 조사 결과 분석	236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236
(2) 기초 분석 결과	236
(3)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분석 결과	237
3) 배경 변인별 분석	250
4) 개별 문항별 분석(문항 카드)	252
5) 방문 면접 조사와 집합 조사 결과 비교	263
3.6. 쓰기 영역 최종 도구 확정	264

차 례

제 4 장 제 언

4.1. 2025년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시행 방안	269
1) 조사 도구 구성	269
2) 조사 인원 및 방식	269
3) 성취 수준의 등급화	270
4.2. 본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270
1) 심층 연구를 위한 제언	270
(1) 읽기 영역의 배경 변인에 관한 후속 분석	270
(2) 문법 능력과 규범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분석	277
(3) 새로운 성취 수준 및 분할 점수 마련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278
2)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279
(1) 읽기 교육 정책에 관한 제언	279
(2) 문법·규범 교육 정책에 관한 제언	283
(3) ‘조사-심층 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순환 체계 구축	284

참고 문헌	286
-------------	-----

<Abstract>	290
------------------	-----

<부록>	294
------------	-----

[붙임 1] 본조사 문항 최종본: 읽기 영역, 문법·규범 영역	294
--	-----

[붙임 2] 예비 조사 문항: 쓰기 영역	356
------------------------------	-----

표 차례

<표 I -1> 연구의 좌표	3
<표 I -2> 연구 내용의 범위(읽기, 문법·규범 영역)	6
<표 I -3> 연구 내용의 범위(쓰기 영역)	8
<표 I -4>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사업 내용(읽기, 문법·규범 영역)	9
<표 I -5>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사업 내용(쓰기 영역)	11
<표 II -1> 조사 도구의 구성(방문 면접 조사)	17
<표 II -2> 조사 도구의 구성(집합 조사)	17
<표 II -3> 문항 검토 및 선정 절차	18
<표 II -4> 읽기 영역 외부 전문가	18
<표 II -5> 읽기 본조사의 문항 구성	19
<표 II -6> 문법·규범 영역 외부 전문가	20
<표 II -7> 문법·규범 본조사의 문항 구성	20
<표 II -8>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	21
<표 II -9> 읽기 본조사 ‘가’형과 ‘나’형 문항 수 배정 결과	22
<표 II -10> 읽기 본조사 ‘가’형과 ‘나’형 문항 배정 결과	22
<표 II -11> 방문 면접 조사 및 집합 조사 개요	37
<표 II -12> 모집단 층화 변수 및 현황	37
<표 II -13> 표본 크기 결정	38
<표 II -14> 17개 시도별 읍면동 현황(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38
<표 II -15> 본조사 추출 집락 및 집락별 조사 완료 표본 수	39
<표 II -16> 크기비례확률 추출을 이용한 동(집락) 추출 과정	45
<표 II -17> 본조사 표본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45
<표 II -18> 본조사(방문면접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46

표 차례

<표 II-19> 본조사(방문면접조사) 표본 배분	47
<표 II-20>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 수	48
<표 II-21> 시도별/학력별 표본 수	49
<표 II-22> 시도별/직업별 표본 수	50
<표 II-23> 본조사 집합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51
<표 II-24> 본조사 집합조사 표본 배분	51
<표 II-25> 본조사(방문 면접 조사) 진행 절차	52
<표 II-26> 본조사(방문 면접 조사) 조사원 교육 결과	54
<표 II-27> 지역 사무소별 검증 현황	55
<표 II-28> 검증 스크립트	55
<표 II-29> 본조사 집합조사 진행 과정	58
<표 II-30> 본조사 집합 조사 진행 일시 및 장소	58
<표 II-31> 본조사 집합 조사 진행 내용	58
<표 II-32> 영역별 원점수 요약(읽기)	59
<표 II-33> 읽기 영역 문항 특성 분석 결과	60
<표 II-34> 영역별 원점수 요약(문법·규범)	64
<표 II-35> 문법·규범 영역 문항 특성 분석 결과	65
<표 II-36> 본 연구에서 상정한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	131
<표 II-37> 읽기 영역의 능력 점수(T점수) 요약	132
<표 II-38>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	132
<표 II-39>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성별 차이	132
<표 II-40>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연령대별 차이	133
<표 II-41>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지역 규모별 차이	133

표 차례

<표 II-42>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직업군별 차이	133
<표 II-43>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학력별 차이	134
<표 II-44>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대학 전공별 차이	134
<표 II-45>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월간 독서량별 차이	134
<표 II-46> 문법·규범 영역의 능력 점수(T점수) 요약	135
<표 II-47> 문법·규범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	135
<표 II-48>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성별 차이	135
<표 II-49>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연령대별 차이	135
<표 II-50>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지역 규모별 차이	136
<표 II-51>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직업군별 차이	136
<표 II-52>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학력별 차이	136
<표 II-53>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대학 전공별 차이	137
<표 II-54>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월간 독서량별 차이	137
<표 II-55> 조사 방식에 따른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158
<표 II-56> 조사 방식에 따른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158
<표 II-57> 가교 문항	161
<표 II-58> 2018년과 2024년의 영역별·수준별 인원 및 비율 비교	162
<표 II-59> 국외의 읽기 능력 조사 도구	166
<표 II-60> PISA의 읽기 소양에 대한 정의 비교	168
<표 II-61> PISA 주기별 읽기 평가 틀(구자옥 외, 2016: 20)	168
<표 II-62> PIAAC 2주기 평가 틀의 주요 자질(version 2023)	171
<표 III-1> 1차, 2차 실태 조사의 표본 수	177
<표 III-2> 1차, 2차 실태 조사 성과 분석 및 시사점	179

표 차례

<표 III-3> 국내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183
<표 III-4>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쓰기 영역 세부 요소	186
<표 III-5>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틀(국어과)	187
<표 III-6>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서술형 문항 예시	187
<표 III-7> 교육과정 성취수준 4수준	188
<표 III-8> ToKL 예시 문항 평가 기준	189
<표 III-9> 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190
<표 III-10> ALL 등급 및 채점 기준	191
<표 III-11> SAT 평가 체제	193
<표 III-12> NAEP 쓰기 영역 내용 요소	194
<표 III-13> NAEP 평가 준거	195
<표 III-14> NSBWT 평가 기준	196
<표 III-15>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실태 조사 사례	197
<표 III-16> PISA 읽기 과제의 유형	200
<표 III-17>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소양 개념	202
<표 III-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쓰기 역량	203
<표 III-19> 쓰기 영역의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204
<표 III-20> 2018년 평가 도구 개발	205
<표 III-21> 쓰기 영역의 문항 형식	206
<표 III-22> 쓰기 영역 평가 문항 개발 계획(안)	206
<표 III-23> 쓰기 영역 예비 조사 검사지 구성	207
<표 III-24> 방문 면접 조사 및 집합 조사 개요	222
<표 III-25> 예비 조사 추출 집락 및 집락별 조사 완료 표본 수	223

표 차례

<표 III-26> 예비 조사 표본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224
<표 III-27> 예비 조사(방문 면접 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224
<표 III-28> 예비 조사(방문 면접 조사) 표본 배분	225
<표 III-29> 예비 조사(집합 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225
<표 III-30> 예비 조사(집합 조사) 표본 배분	225
<표 III-31> 예비 조사(집합 조사) 진행 일시	226
<표 III-32> 예비 조사(집합 조사) 진행	226
<표 III-33> 채점 자료 할당	228
<표 III-34> 예비 조사 채점단	228
<표 III-35> 신규 문항 유형 세부 채점 기준안(가형 디지털 문항)	231
<표 III-36> 신규 문항 유형 세부 채점 기준안(나형 디지털 문항)	232
<표 III-37> 채점 결과 분석 방법	235
<표 III-38> 쓰기 영역(예비 조사) 검사지별 문항 구성	236
<표 III-39> 쓰기 영역(예비 조사) 문항 반응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237
<표 III-40> 쓰기 영역 예비문항 1번(공통)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39
<표 III-41>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41
<표 III-42>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42
<표 III-43>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44

표 차례

<표 III-44>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46
<표 III-45>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48
<표 III-46>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250
<표 III-47> 예비 조사 쓰기 영역 배경 변인별 분석	251
<표 III-48> 조사 방식에 따른 예비 조사 쓰기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263
<표 III-49> 쓰기 영역 자문 전문가 명단	264
<표 III-50> 쓰기 영역 최종 선정 문항	264
<표 IV-1> 2025년 쓰기 영역 본조사의 조사 도구 구성 방식	269
<표 IV-2> 읽기 능력의 변화	271
<표 IV-3> 1·2·3차 실태 조사의 조사 영역 및 세부 요소	272
<표 IV-4> 2023 조사에서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과 문항 수	272
<표 IV-5> 배경 변인 설문 문항의 내용	273
<표 IV-6> 참가국별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결과	276
<표 IV-7>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018:212)	278
<표 IV-8> 읽기 능력 1~2수준의 비율	279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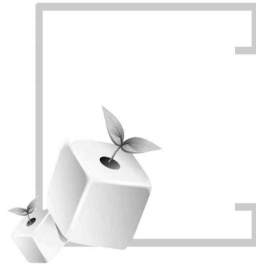
[그림 I -1]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5
[그림 II -1] 단순확률추출과 확률비례추출의 추출 확률 비교	44
[그림 II -2] 본조사 표본 설계	46
[그림 II -3] 조사원 교육 절차	53
[그림 II -4] 조사원 교육 내용	53
[그림 II -5] 조사원 안내문 및 지침서	56
[그림 II -6] 조사원 안내문	57
[그림 II -7] 읽기 영역 원점수의 확률 분포	59
[그림 II -8] 읽기 영역 문항별 ICC	62
[그림 II -9] 문법·규범 영역 원점수의 확률 분포	64
[그림 II -10] 문법·규범 영역 문항별 ICC	66
[그림 II -11] 한 달 평균 독서량	139
[그림 II -12] 매체 사용 빈도(종이 신문, 잡지)	140
[그림 II -13] 매체 사용 빈도(텔레비전, 라디오)	141
[그림 II -14] 매체 사용 빈도(인터넷 포털(검색용))	141
[그림 II -15] 매체 사용 빈도(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	142
[그림 II -16] 매체 사용 빈도(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	143
[그림 II -17] 매체 사용 빈도(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144
[그림 II -18] 매체 사용 빈도(게임, 웹툰, 웹소설)	145
[그림 II -19]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직무 내)	146
[그림 II -20]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직무 외)	147
[그림 II -21] 국어 관련 학습활동 참여 경험	148

그림 차례

[그림 II-22] 국어 관련 학습활동 참여 분야	148
[그림 II-23] 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49
[그림 II-24] 글로 된 자료를 읽는 빈도	150
[그림 II-25]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	151
[그림 II-26] 독서에 대한 가치관	151
[그림 II-27] 읽기 능력 진단	152
[그림 II-28] 한 번의 독서 시 읽는 분량	153
[그림 II-29] 디지털 기기(컴퓨터, 휴대전화 등) 사용 시간	153
[그림 II-30] 주로 보는 매체	154
[그림 II-31] 독서 문화(도서관 행사, 저자 강연, 독서클럽 등) 참여 경험 ..	155
[그림 II-32] 어문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관련된 정보 탐색 빈도 ..	156
[그림 II-33]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우리말샘’ 서비스 이용 빈도	157
[그림 II-34] 국립국어원 제공 ‘온라인가나다’ 서비스 이용 빈도	157
[그림 II-35] 2018년과 2024년의 읽기 영역 수준별 비율 비교	163
[그림 II-36] 2018년 문법 영역과 2024년 문법·규범 영역의 수준별 비율 비교	163
[그림 II-37] WEF의 21세기 능력	166
[그림 III-1] 인터넷 기반 매체 이용률 추이(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181
[그림 III-2]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연구 중 설명적 글쓰기 문항 초안	184
[그림 III-3]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 평가 문항 사례	185

그림 차례

[그림 Ⅲ-4] ToKL 쓰기 문항	188
[그림 Ⅲ-5] PIAAC 리터러시 문항 예시	199
[그림 Ⅲ-6] PISA 2018 예시 문항	201
[그림 Ⅲ-7] 2018년 쓰기 영역 W-2번 문항	205
[그림 Ⅲ-8] 채점 설계	227
[그림 Ⅲ-9] 사전 채점 연습	229
[그림 Ⅲ-10] 채점 워크숍	229
[그림 Ⅲ-11] 채점 결과 입력 화면	233
[그림 Ⅲ-12] 채점단 모바일 메신저 화면	233
[그림 Ⅲ-13] 쓰기 영역 예비문항 1번(공통)의 라이트 맵	238
[그림 Ⅲ-14]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가형)의 라이트 맵	240
[그림 Ⅲ-15]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가형)의 라이트 맵	242
[그림 Ⅲ-16]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가형)의 라이트 맵	244
[그림 Ⅲ-17]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나형)의 라이트 맵	245
[그림 Ⅲ-18]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나형)의 라이트 맵	247
[그림 Ⅲ-19]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나형)의 라이트 맵	249
[그림 Ⅳ-1] 2주기 PIAAC의 평가 설계(Assessment Design: PIAAC Cycle 2)	282
[그림 Ⅳ-2] 국민의 국어능력 연구 단계 모형 예시(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473)	285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개발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국어능력 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읽기, 문법·규범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한다. 둘째,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쓰기 영역의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정교화함으로써 2025년에 실시될 본조사의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표 < I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조사는 연차별 실태 조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본 연구는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2012)’,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2017)’,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개선 기초 연구(2022)’,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3)’를 바탕으로,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4)’로 이어지는 영역별, 연차별 실태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어능력에 대한 기존 연구, 특히,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3)’와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해당 연구를 통해 기개발된 읽기, 문법·규범 영역 실태 조사 도구를 보완 및 활용함으로써 국어능력 추이 분석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2025년에 이루어질 쓰기 영역 실태 조사를 위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 및 정교화한다.

이러한 조사 시행의 근거는 국어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국어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어능력 조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 실태 조사에 관한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국어의 발전을 위한 국어능력 조사가 5년을 주기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I -1> 연구의 좌표

1차 조사 정례적 조사 체계 마련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	
	■평가 영역(5영역) 설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영역별 가교 문항의 설정 ■영역별 국어능력의 절대적 정도 측정, 국어능력 수준의 등급화	
↓		
2차 조사 조사 도구 개발 및 안정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2017)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평가 도구의 내용 문제	■타당도, 변별도, 신뢰도 낮은 문항 재설계 ■(문법/읽기) 디지털 문식력 측정 항목 보완
	평가 도구 개발상의 문제	■전국 단위의 표본 선정, 연령대 확대 ■국어능력 측정을 위한 변인 다양화 ■채점자 간 신뢰도 강화, 주관식 채점 정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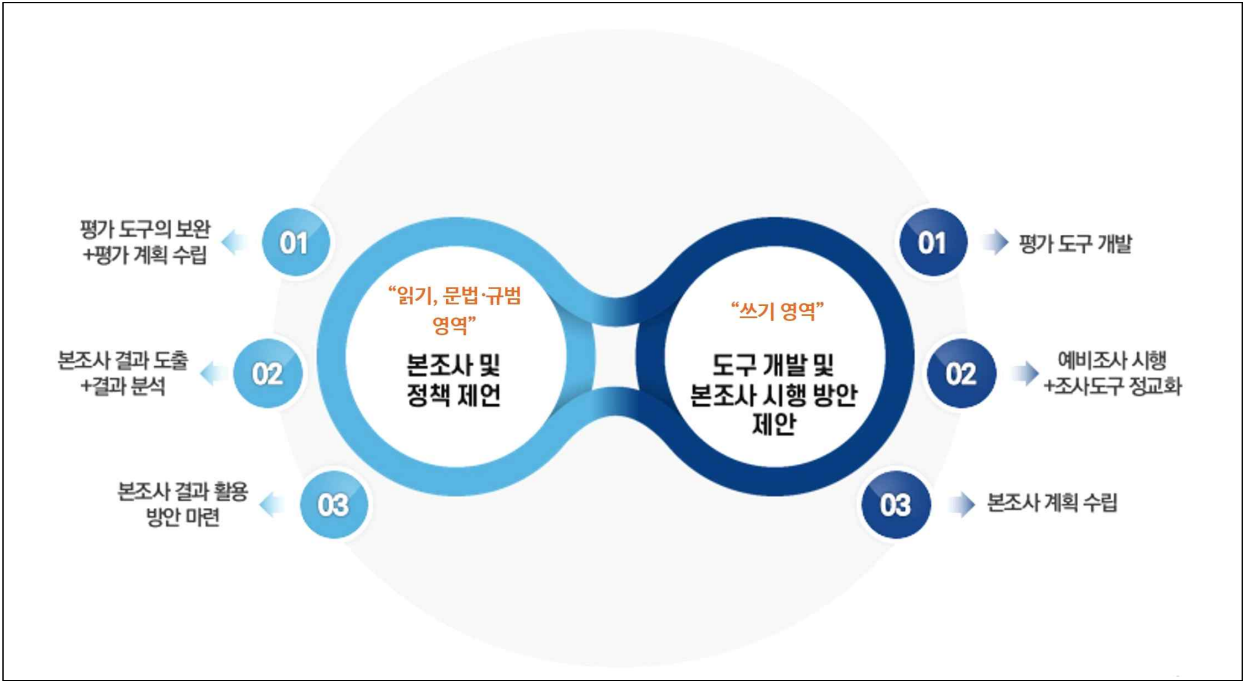
	평가 도구 구현 및 실행상의 문제	■컴퓨터 기반의 평가 도구 구현 ■충분한 조사 시간 확보 및 사례 상향
--	--------------------	--

↓

3차 조사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개선 기초 연구(2022)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3)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4)
실태 조사 고도화	■영역별 ‘분할 조사’ 실시: “듣기·말하기” 영역 초점화 ■구어 의사소통의 실제성 강화 - 다양한 담화 유형 고려 - 듣기, 말하기 영역의 연계 고려 - 동영상을 활용한 문항 구성 - 서답형 문항 개발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 반영 및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영역별 ‘분할 조사’ 실시: “읽기”, “문법·규범” 영역 초점화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디지털 리터러시 등 디지털 언어 환경)을 고려 ■문항 내 텍스트 및 담화 맥락의 실제성 강화 ■‘규범’을 하위 영역으로 추가하여 ‘문법’ 영역을 ‘문법·규범’ 영역으로 개편	■영역별 ‘분할 조사’ 실시: “쓰기” 영역 초점화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디지털 리터러시 등 디지털 언어 환경)을 고려 ■문항 내 텍스트 및 담화 맥락의 실제성 강화
대규모 실태 조사의 본조사 시행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3) ■기개발된 평가 도구 보완 - 담화 맥락의 실제성 반영 - 구어 담화의 역동성과 쌍방향적 소통의 특성 반영 ■3,000명 대상의 대규모 듣기·말하기 영역의 실태 조사(본조사) 시행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 입론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4) ■기개발된 평가 도구 보완 - 담화 맥락의 실제성 반영 -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반영 ■5,050명 대상의 대규모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실태 조사(본조사) 시행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 입론	

2024년의 연도별, 영역별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2023년에 이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로, 본 연구는 작년에 이어 대규모의 영역별 분할 조사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조사 시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읽기, 문법·규범 능력의 변화 추이를 탐색하고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입론한다. 아울러 2025년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본조사가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화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국어 정책 수립을 고려하여 디지털 언어 사용 환경 등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국어 사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세부 평가 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목표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영역 공통으로는 이전 조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내용적, 실행적 차원에서 실제성 있고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을 반영한 실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영역별 특성과 성격에 맞는 평가 방식을 수립하고, 문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개발한다. 나아가, 영역별 분할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변인별 분석을 통해 국어능력의 영역별·연차별 실태 조사 고도화 방안 계획을 점검 및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문해력 향상 지원 등 국립국어원 진행 사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그림 1-1]에서 제시한 영역별 세부 연구 목표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읽기, 문법·규범 영역
상위 목표: 본조사 실시 및 정책 방안 수립
하위 목표 1. 기개발된 평가 도구의 보완 및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하위 목표 2. 본조사 결과 도출 및 분석
하위 목표 3. 국민의 읽기, 문법·규범 능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마련

‘읽기, 문법·규범’ 영역에서는 2023년 기개발된 평가 도구를 내용적·실행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연구 팀 내 회의를 거친다. 이때 읽기, 문법·규범 내용 및 평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 도구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며, 설문 조사에 근거를 두는 변인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평가 도구의 실

행적 측면을 보완한다.

(2) 쓰기 영역

상위 목표: 조사 도구 개발 및 2025년 본조사 시행 방안 제안

하위 목표 1. 쓰기 능력 평가 도구 개발

하위 목표 2. 예비 조사 시행 및 조사 도구의 정교화

하위 목표 3. 쓰기 영역 본조사 계획 수립

‘쓰기’ 영역에서는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에 따라 쓰기 능력의 개념을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넘어, 오늘날의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이를 통해 상황 맥락·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소통 문화에 참여하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또한, 쓰기 영역의 세부 평가 및 요소에 기존에 시행되었던 ‘설명적, 논증적, 친교적 글쓰기’ 외에 ‘디지털 매체 글쓰기’를 추가하여 이러한 쓰기 능력에 대한 정의를 평가 도구에 반영한다. 디지털 매체 글쓰기에서는 한 가지 목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며, 온라인 글쓰기 환경에서 상호교섭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상황을 문항으로 구현하여 실제적인 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세부 목표의 달성에 따라 기대되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국어능력 측정 조사이다. 2024년에 이루어지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실태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에 따른 변화된 국민의 실제적인 읽기, 문법·규범 능력을 측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조사 방안을 체계화하고, 5,0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읽기, 문법·규범 영역에 특화된 정책 환류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2025년에 실시될 쓰기 영역의 본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쓰기 영역의 문항을 개발하되,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해 조사 도구의 안정화 및 정교화를 도모하여 추후 이루어질 영역별 연차 조사에 참조점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를 본조사와 예비 조사의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자면 읽기, 문법·규범 영역은 <표 1-2>, 쓰기 영역은 <표 1-3>과 같다.

<표 1-2> 연구 내용의 범위(읽기, 문법·규범 영역)

기개발된 평가 도구의 보완 및 전문가 워크숍	■ 실태 조사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를 내용적·실행적 차원에서 보완 ■ 내용적 차원에서는 읽기, 문법·규범 평가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보완 ■ 실행적 차원에서는 교육 평가 전공자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에 근거를 두는
-----------------------------	--

	변인의 다양화를 꾀함																														
	■ 국민의 국어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관여하는 변인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평가 도구 설계 및 제작	■ 2023년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에 사용할 1배수 문항 선별 및 보완(읽기 28문항, 문법·규범 13문항) ■ 단, 응시자 피로도를 고려하여 읽기 28문항은 아래와 같이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함. (‘가형’과 ‘나형’의 읽기 문항은 각각 ‘8문항+공통 문항 12문항’으로 구성됨. <table><tr><th colspan="3">가형</th><th colspan="3">나형</th></tr><tr><th>영역</th><th>문항 수</th><th>시간</th><th>영역</th><th>문항 수</th><th>시간</th></tr><tr><td>읽기</td><td>20문항</td><td>40분</td><td>읽기</td><td>20문항</td><td>40분</td></tr><tr><td>문법·규범</td><td>13문항</td><td>13분</td><td>문법·규범</td><td>13문항</td><td>13분</td></tr><tr><td>계</td><td>33문항</td><td>53분</td><td>계</td><td>33문항</td><td>53분</td></tr></table>	가형			나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가형			나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 평가 사전 시연 단계를 거쳐 문제점 분석 및 보완 ■ 태블릿 피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종이 답안지 제작																														
평가 실행 방식 수립 및 본조사 실시	■ ‘세대, 지역, 직업, 성별, 학력’ 변인을 고려한 표집 집단의 설정(층화 표본 추출) ■ 태블릿 피시를 통한 조사 방식 안정화 ■ 조사 요원 훈련 및 능숙도 제고 ■ ‘세대, 지역, 직업, 성별, 학력’ 변인을 고려하여 5,050명 표본 추출 ■ 전문 조사 요원을 활용한 1:1 방문 면접 조사(5,000명) ■ 평가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집합 조사(50명)																														
본조사 결과 채점 및 결과 분석	■ 선택형 문항: 데이터로 변환 후 채점 ■ 전체 결과 도출 -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 객관적인 지표 도출 ■ 세부 결과 도출 - 변인별 결과 도출 측면에서 기본적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외에도 국어능력의 획득, 개발, 유지, 손실과 관련된 요인과 국어능력의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고 세부 결과 도출 - ‘읽기, 문법·규범’의 영역별 결과 도출 - 문항별 결과 도출 - 검사 동등화 분석을 통해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 분석																														

연구진 워크숍 및 정책 방향 입론	■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점검 및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진 워크숍
	■ 결과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입론
	■ 주기별 국어능력 평가의 추이 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표 I -3> 연구 내용의 범위(쓰기 영역)

성과 평가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의 쓰기 영역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점 및 반영 사항 도출 ■ 조사 도구 및 실행 관련 유의 사항 분석																								
국어 사용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실태 조사 사례 검토	■ 국민의 국어 사용 환경 변화 및 분석 ■ 디지털 언어 사용 환경에서 쓰기 능력의 개념 설정, 국민의 글쓰기 관련 요구 분석 ■ 쓰기 능력의 범위 및 개념 수립 ■ 국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도구 검토 ■ 평가 영역 및 요소, 조사 대상 및 방법 관련 시사점 도출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도구 개발	■ 쓰기 영역의 실태 조사 방향 수립 ■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 ■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쓰기 영역 검사 설계 ■ 쓰기 영역의 핵심 역량 분석 ■ 쓰기 영역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 쓰기 가교 문항 검토 및 문항 형식 결정 ■ 쓰기 영역 검사지 구성 ■ 개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전체 검토 회의 <table><tr><th>영역</th><th>가형</th><th>나형</th><th>시간(분)</th></tr><tr><td>설명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0분</td></tr><tr><td>논증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5분</td></tr><tr><td>친교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5분</td></tr><tr><td>디지털 매체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0분</td></tr><tr><td>계</td><td>4문항</td><td>4문항</td><td>40분</td></tr></table>	영역	가형	나형	시간(분)	설명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논증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5분	친교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5분	디지털 매체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계	4문항	4문항	40분
영역	가형	나형	시간(분)																						
설명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논증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5분																						
친교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5분																						
디지털 매체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계	4문항	4문항	40분																						
예비 조사 실시 및 채점	■ 갤럽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실시 ■ 예비 조사 표본 집단 추출: 330명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예비 조사로 1:1 방문 면접 조사(300명) 및 집합 조사(30명) 시행 ■ 채점 - 사전 워크숍(채점자 훈련 프로그램) 진행, 쓰기 답안 공동 채점, 채점 결과 및 채점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조정																								

	- 수행형 문항: 쓰기 영역의 수행형 문항은 각 영역의 문항별로 전문가 2인씩 교차 채점을 수행하여 채점의 신뢰도 제고 - 수행형 문항 채점을 위한 문항별 '채점 기준 및 척도' 개발 - 채점 중 중간 점검(연구진 문의 및 실시간 누리소통망 소통)을 통한 채점자 신뢰도 확보
예시 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도구 보정	■ 문항 양호도(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등) 분석 ■ 조사 시행의 난점, 적합성 정도 분석 ■ 조사 도구 정교화 및 확정(최종 문항의 1.2배수 문항으로 확정) ■ 쓰기 영역 논의 및 전체 회의
본조사 시행 방안 마련 및 결과 활용 방안 제안	■ 쓰기 영역의 본조사 계획 수립 ■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조사 결과 활용 및 정책 환류 방안 마련 ■ 2025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시행을 위한 제안

1.3. 연구의 추진 과정

본 연구의 추진 경과를 본조사와 예비 조사의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자면 읽기, 문법·규범 영역은 <표 I-4>, 쓰기 영역은 <표 I-5>와 같다.

<표 I-4>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사업 내용(읽기, 문법·규범 영역)

단계	추진 일정	세부 사업 내용
1단계 1, 2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및 2023년 연구 성과 평가	착수 ~ 4월 30일	■ 계약 및 연구 착수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2023년 연구에서의 예비 조사 성과 및 한계 분석 ■ 평가 도구 및 실행 관련하여 보완점 마련 ■ 2024년 실태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 사항 도출 [국립국어원 보고] ■ 착수 보고
	↓	↓
2단계 전문가 워크숍	5월 1일 ~ 5월 31일	■ 국민의 국어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관여하는 변인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	↓
3단계 평가 도구 최종 설계	6월 1일 ~ 6월 13일	■ 2023년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에 사용할 1배수 문항 선별 및 보완(읽기 28문항, 문법·규범 13문항)

		▪ 단, 응시자 피로도를 고려하여 읽기 28문항은 아래와 같이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함. (‘가형’과 ‘나형’의 읽기 문항은 각각 ‘8문항+공통 문항 12문항’으로 구성됨. <table><tr><th colspan="3">가형</th><th colspan="3">나형</th></tr><tr><td>영역</td><td>문항 수</td><td>시간</td><td>영역</td><td>문항 수</td><td>시간</td></tr><tr><td>읽기</td><td>20문항</td><td>40분</td><td>읽기</td><td>20문항</td><td>40분</td></tr><tr><td>문법· 규범</td><td>13문항</td><td>13분</td><td>문법· 규범</td><td>13문항</td><td>13분</td></tr><tr><td>계</td><td>33문항</td><td>53분</td><td>계</td><td>33문항</td><td>53분</td></tr></table> [국립국어원 보고] ▪ 중간 보고(본조사 계획 보고)	가형			나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 규범	13문항	13분	문법· 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가형			나형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 규범	13문항	13분	문법· 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	↓																														
4단계 평가 실행 방식 수립	6월 14일 ~ 6월 30일	▪ ‘세대, 지역, 직업, 성별, 학력’ 변인을 고려한 표집 집단의 설정(층화 표본 추출) ▪ 태블릿 피시를 통한 조사 방식 안정화 ▪ 조사 요원 훈련 및 능숙도 제고																														
	↓	↓																														
5단계 평가 도구 제작	7월 1일 ~ 7월 11일	▪ 사전 시연 단계를 거쳐 문제점 분석 및 보완 ▪ 태블릿 피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종이 답안지 제작																														
	↓	↓																														
6단계 본조사 실시	7월 12일 ~ 9월 25일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변인을 고려하여 5,050명 표본 추출 (20~69세) ▪ 전문 조사 요원을 활용한 1:1 방문 면접 조사(5,000명) ▪ 평가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집합 조사(50명)																														
	↓	↓																														
7단계 본조사 결과 채점	9월 26일 ~ 9월 30일	▪ 선택형 문항: 데이터로 변환 후 채점																														
	↓	↓																														
8단계 본조사 결과 도출 및 분석	10월 1일 ~ 11월 15일	▪ 전체 결과 도출 -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 5,050명의 객관적인 지표 도출 ▪ 세부 결과 도출 - 변인별 결과 도출 측면에서 기본적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외에도 국어능력의 획득, 개발, 유지, 손실과 관련된 요인과 국어능력의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된 변인을 설정하고 세부 결과 도출 - ‘읽기, 문법·규범’의 영역별 결과 도출 및 방문 조사와 집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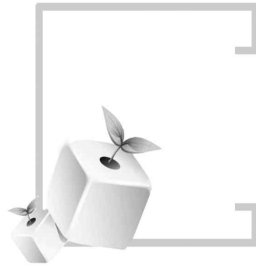
		비교 - 문항별 결과 도출 - 검사 동등화 분석을 통해 읽기, 문법·구법 영역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 분석 [국립국어원 보고] ■ 본조사 결과 보고
9단계 연구진 워크숍	11월 16일 ~11월 20일	■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점검 및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진 워크숍
10단계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 입론	11월 21일 ~11월 30일	■ 결과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입론 ■ 5년 주기 국어능력 평가의 추이 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국립국어원 보고] ■ 용역 사업 최종 보고

<표 I -5>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사업 내용(쓰기 영역)

단계	추진 일정	세부 사업 내용
1단계 1, 2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성과 평가	착수 ~ 5월 31일	■ 계약 및 연구 착수 ■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2013)',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에서 쓰기 영역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평가 도구 및 실행 관련하여 보완점 마련 ■ 2024년 실태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 사항 도출 [국립국어원 보고] ■ 착수 보고
2단계 국어 사용 환경 및 현황 분석	6월 1일 ~6월 7일	■ 국민의 국어 사용 환경 변화 및 분석 ■ 디지털 언어 사용 환경에서 쓰기 능력의 개념 설정, 국민의 글쓰기 관련 요구 분석 ■ 쓰기 능력의 범위 및 개념 수립
3단계 국내외 실태 조사 사례 검토	6월 8일 ~6월 15일	■ 국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도구 검토 ■ 평가 영역 및 요소, 조사 대상 및 방법 관련 시사점 도출
4단계 실태 조사 계획 수립	6월 15일 ~6월 30일	■ 쓰기 영역의 실태 조사 방향 수립 ■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
5단계	7월 1일	■ 국어능력 조사를 위한 쓰기 영역 검사 설계

조사 도구 설계 및 개발	~8월 27일	- 쓰기 영역의 핵심 역량 분석 - 쓰기 영역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 쓰기 가교 문항 검토 및 문항 형식 결정 - 쓰기 영역 검사지 구성 - 개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전체 검토 회의 [국립국어원 보고] - 중간 보고(예비 조사 계획 보고)																								
↓ ↓ ↓																										
6단계 예비 조사 실시	8월 28일 ~9월 18일	- 예비 조사 표본 집단 추출: 330명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예비 조사로 1:1 방문 면접 조사(300명) 및 집합 조사(30명) 시행 <table><tr><th>영역</th><th>가형</th><th>나형</th><th>시간(분)</th></tr><tr><td>설명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0분</td></tr><tr><td>논증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5분</td></tr><tr><td>친교적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5분</td></tr><tr><td>디지털 매체 글쓰기</td><td>1문항</td><td>1문항</td><td>10분</td></tr><tr><td>계</td><td>4문항</td><td>4문항</td><td>40분</td></tr></table>	영역	가형	나형	시간(분)	설명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논증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5분	친교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5분	디지털 매체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계	4문항	4문항	40분
영역	가형	나형	시간(분)																							
설명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논증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15분																							
친교적 글쓰기	1문항	1문항	5분																							
디지털 매체 글쓰기	1문항	1문항	10분																							
계	4문항	4문항	40분																							
↓ ↓ ↓																										
7단계 예비 조사 자료 채점	9월 19일 ~10월 10일	- 국내외 쓰기 채점 수행 사례 검토 - 채점 설계: 채점 특성에 따라 채점자 안배, 나선형으로 채점자 배정하여 신뢰도 제고 - 사전 워크숍(채점자 훈련 프로그램) 진행, 쓰기 답안 공동 채점, 채점 결과 및 채점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조정 - 수행형 문항: 쓰기 영역의 수행형 문항은 각 영역의 전문가를 문항별로 2인씩 교차 채점하게 하여 채점의 신뢰도 제고 - 수행형 문항 채점을 위한 문항별 ‘채점 기준 및 척도’ 개발 - 채점 중 연구진과의 직접 소통 및 협의회(중간 점검) 실시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																								
↓ ↓ ↓																										
8단계 예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도구 보정	10월 11일 ~11월 10일	- 문항 양호도(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등) 분석 - 피험자의 거부감, 피로도 분석 - 조사 시행의 난점, 적합성 정도 분석 - 조사 도구 정교화 및 확정(최종 문항의 1.2배수 문항으로 확정) - 쓰기 영역 논의 및 전체 회의 - 문항 수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 ↓ ↓																										
9단계 본조사 시행 방안 마련	11월 11일 ~ 11월 20일	- 쓰기 영역의 본조사 계획 수립 -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보고] - 예비 조사 개요 및 결과 보고(인원, 소요 예산, 평가지 등)																								

	↓	↓	↓
10단계 결과 활용 방안 제언	11월 21일 ~11월 30일	■ 조사 결과 활용 및 정책 환류 방안 마련 ■ 2025년 쓰기 영역의 본조사 시행을 위한 제언	
		[국립국어원 보고] ■ 용역 사업 최종 보고	



제 2 장

읽기, 문법·규범 영역 본조사



2.1. 조사 도구의 확정

본조사 조사 도구의 경우 2023년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도구의 영역, 문항 수, 평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때 2023년 예비 조사 당시에 개발된 문항 중 본조사에 사용할 1배수 문항을 선별 및 보완하여 최종 읽기 28문항, 문법·규범 13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 방식은 이원화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응시자가 ‘(가)형’, ‘(나)형’ 중 하나의 검사지에만 응시하도록 하였다. 본조사에서 읽기 영역은 총 28문항이지만, 문법·규범 13문항도 함께 풀어야 한다. 이처럼 총 31개 문항을 풀 경우 총 69분(읽기 56분+문법·규범 13분)의 시험 시간이 소요되며,¹⁾ 나아가 각 영역의 배경 변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도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시험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읽기 영역 총 28문항을 가형 20문항(8문항+공통 12문항), 나형 20문항(8문항+공통 12문항)으로 이원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그간 1:1 방문 면접 조사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조사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응시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집합 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2024년 본조사에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모여서 조사에 임하는 ‘내방형’ 집합 조사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대규모 ‘방문형’ 면접 조사 방식과 병행하였다. 이는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의 유무나 정도성 등에 따라 향후 조사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50명 규모의 집합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방문형 면접 조사와 동일하게 ‘가’형, ‘나’형으로 응시 인원을 나눴다. 조사 도구 구성은 각각 <표 II-1>, <표 II-2>와 같다.

<표 II-1> 조사 도구의 구성(방문 면접 조사)

가형-2,500명			나형-2,500명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 읽기 20문항에는 가형과 나형 공통 문항 12개가 포함됨.

<표 II-2> 조사 도구의 구성(집합 조사)

가형-25명			나형-25명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 읽기 20문항에는 가형과 나형 공통 문항 12개가 포함됨.

1)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경우, 국어능력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항을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능력을 상정한다. 그러나 OECD의 성인역량조사(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서는 문해력(읽기),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광범위한 기능(skills)을 평가하는데, 배경 설문 시간은 평균 30분(25~40분) 소요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문항 평가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OECD Skills Studies, 2021:14).

1) 최종 문항 선정

[읽기 영역]

2024년 본조사에서는 2023년 예비 조사에서 설계한 읽기 영역 본조사의 조사지 구성 방식에 따라 읽기 영역에 사용할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다. 먼저 공동 연구원들이 예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예비 조사의 시행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검토하였으며(2024년 4월), 이를 반영하여 2023년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1.2배수 문항을 조정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5월)를 의뢰하였다.

<표 II-3> 문항 검토 및 선정 절차

단계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4차 검토
	내부 검토	외부 검토	내부 검토	내부 검토
내용	■ 발주 기관 요청 검토 ■ 문항 교체 및 1.2배수에서 최종 문항 선정	■ 1.2배수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	■ 연구책임자 검토 ■ 발주 기관 검토 의견 반영 및 최종 문항 선정	■ 디자인 수정 및 TAPI 판본 검토 ■ 본조사 문항 확정

서면 자문과 대면 회의를 통해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고, 연구진 내에서도 수정 방향을 협의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 II-4> 읽기 영역 외부 전문가

전문가	소속	자문 기간
김봉순	공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024.05.01.~05.10.
이인화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2024.05.01.~05.10.

전문가 협의회 후 공동 연구원은 전문가 의견과 예비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별 난이도, 변별도, 답지 반응을 등의 문항 반응 이론 결과와 각 변인별 차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조사에서 활용할 조사 도구에 들어갈 문항을 최종 선별하였다. 선별된 최종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 -5> 읽기 본조사의 문항 구성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문항 구성							조사 방식	
			201 8	202 3	문항 번호	2018 ~가교	가형	가/나 공통	나형		다지 털
읽기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4	4	R-4	○		○			선택 형 (객관 식)
					R-8			○			
					R-13		○				
					R-14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1	3	R-9			○		○	
					R-14		○				
					R-15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 개 방식 파악	2	3	R-2	○		○			
					R-15		○				
					R-13				○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1	2	R-10			○			
					R-11			○		○	
		함축적 의미 파악	2	2	R-17		○				
					R-16				○		
		필자의 의도 파악	2	2	R-1	○		○			
					R-16		○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 문화적 배경 추론	1	2	R-7	○		○			
					R-17				○		
	평가	표현의 적절성 판단	2	3	R-12			○		○	
					R-18		○				
					R-18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1	2	R-6	○		○			
	재구성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1	2	R-19		○				
					R-19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 조직	3	3	R-3			○			
					R-5			○			
					R-20				○		
	총계			20	28	5	8	12	8	3	

*‘가교’는 2018년과의 동등화를 위한 동일 문항, ‘공통’은 (가)형과 (나)형 간의 동일 문항을 뜻함.

[문법·규범 영역]

2024년 본조사에서 사용할 문법·규범 영역 최종 문항은, 2023년 예비 조사에서 설계한 문항을 토대로 하여, 외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예비 조사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예비 조사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1.2배수 문항의 적절성 및 수정 방안, 그리고 문법·규범 영역의 결과 분석에서 활용될 배경 변인 등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다. 문항 검토 및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 II -6> 문법·규범 영역 외부 전문가

구분	외부 전문가	소속
본조사	이관희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박혜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외부 전문가와의 검토 및 협의는 서면 및 비대면 회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 선택지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내용 및 형식의 수정 시 가능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이후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 예비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항별 난이도(곤란도), 변별도, 답지 반응을 등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조사에서 활용할 최종 1배수의 조사 도구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배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 -7> 문법·규범 본조사의 문항 구성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평가 요소)	문항 번호
문법	어휘	의미와 용법(한자어)	문법_04(가형)
		의미와 용법(관용 표현)	문법_05(나형)
	문장	의미와 용법(조사와 어미)	문법_06(가형)
		의미와 용법(양태)	문법_01(공통)
		의미와 용법(문장 성분의 호응)	문법_02(공통)
	담화	의미와 용법(지시)	문법_03(공통)
		의미와 용법(담화 표지)	문법_07(나형)
규범	한글 맞춤법	맞춤법(발음과 표기)	규범_08(가형)
		맞춤법(형태와 표기)	규범_09(나형)
		맞춤법(형태와 표기)	규범_10(나형)
	표준어 규정	표준어(복수 표준어)	규범_11(가형)
		표준 발음법(표준 발음)	규범_12(나형)
	외래어 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표기 세칙 적용)	규범_13(가형)

문법_01(공통), 문법_02(공통), 문법_03(공통)은 2018년 수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가교 문항으로서 최종 1배수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문법_05(가형), 문법_06(나형), 규범_08(나형), 규범_09(가형), 규범_10(가형), 규범_11(나형), 규범_13(나형)의 경우 예비 조사 분석 결과에서 변별도가 음수로 나와, 본조사에서 역변별의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이에 동일 유형의 다른 검사지

문항을 최종 1배수 문항에 포함하였다.

한편 문법_04(가형), 문법_07(나형), 규범_12(나형)의 경우 다른 검사지 문항에 비해 문항의 변별도 측면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 주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본조사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항의 난이도(곤란도)가 적절하면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용이한 문항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3개 문항을 최종 1배수 문항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문법_01(공통), 문법_02(공통), 문법_03(공통), 문법_04(가형), 문법_05(나형), 문법_06(가형), 문법_07(나형), 규범_08(가형), 규범_09(나형), 규범_10(나형), 규범_11(가형), 규범_12(나형), 규범_13(가형)의 총 13개 문항을 1배수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2) 조사 도구의 이원화

2024년 본조사에서는 2023년 예비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도구를 ‘가’형과 ‘나’형으로 이원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2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조사 대상자의 피로도를 유발하여 국어능력을 온전하게 포착해 낼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²⁾ 이러한 ‘공통 문항 비동등 집단 설계(common item non-equivalent design) 방식’은 국가 수준의 대단위 성취도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조사 도구를 다음과 같이 이원적으로 설계하였다.

<표 II-8> 조사 도구의 이원적 설계

‘가’형 (방문 조사 2,500명, 집합 조사 25명)			‘나’형 (방문 조사 2,500명, 집합 조사 25명)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본조사는 문법·규범 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의 문항이 동일한 반면, 읽기 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은 공통 문항 12문항을 포함한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읽기 영역의 문항을 구성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문항 3문항을 공통 문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이는 날로 중요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함께, 변화하는 문식 자원(literary resources)을 조사 도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다음과 같이 중영역에서 ‘가’형과 ‘나’형에 최대한의 문항 수가 동일하게 배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가형과 나형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 이는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김종철)(2013)에서부터 쓰였던 방식을 2018년도 조사에 이어 적용한 것이다.

<표 II -9> 읽기 본조사 ‘가’형과 ‘나’형 문항 수 배정 결과

중영역	평가 요소	문항 수					비고
		공통	가형		나형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2(가교1)	1	3	1	3	*가교 문항 5개 *디지털 문항 3개
	글의 중심 내용 파악	1(디지털)	1		1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1(가교)	1		1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2(디지털1)		2		2	
	함축적 의미 파악		1		1		
	필자의 의도 파악	1(가교)	1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1(가교)			1		
평가	표현의 적절성 판단	1(디지털)	1	2	1	1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1(가교)	1				
재구성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1	1	1	2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2			1		
문항 수 합계		12	8		8		

셋째, 문항을 배정할 때는 하나의 지문에 둘 이상의 문항이 연동되는 ‘세트(set) 문항’을 먼저 배정하고, ‘가’형과 ‘나’형의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구성하였다.³⁾ 최종적으로 선정된 1배수 문항(총 28개)의 ‘가’형과 ‘나’형 문항 배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 -10> 읽기 본조사 ‘가’형과 ‘나’형 문항 배정 결과

중영역	평가 요소	문항 번호		
		공통	가형	나형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읽기_04(공통) 읽기_08(가형)	읽기_09(가형)	읽기_11(가형)(set1)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읽기_15(나형)(디지털)	읽기_14(나형)	읽기_13(나형)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읽기_02(공통)	읽기_16(나형)(set2)	읽기_10(가형)(set1)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읽기_19(가형)(디지털) 읽기_18(나형)		
	함축적 의미 파악		읽기_21(나형)	읽기_22(가형)
	필자의 의도 파악	읽기_01(공통)	읽기_17(나형)(set2)	

3) 예비 조사의 문항별 난이도는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3) 참조.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읽기_07(공통)		읽기_24(가형)
평가	표현의 적절성 판단	읽기_20(나형)(디지털)	읽기_25(가형)	읽기_25(나형)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읽기_06(공통)	읽기_26(나형)	
재구성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읽기_27(나형)	읽기_28(나형)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읽기_03(공통) 읽기_05(공통)		읽기_11(나형)
문항 수 합계		12	8	8

3) 문항별 수정 사항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의 문항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 국립국어원의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연구진 내부 회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때 문항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국어 정서법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문항을 윤문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선지의 의미 파악이 보다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교 5문항⁴⁾ 중 R-2(공통), R-4(공통), R-6(공통)의 3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윤문하였다. R-2(공통)의 경우 선택지에서 ‘첫머리’와 ‘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호하여 이를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가교, 공통)	본조사	R-2(가교, 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R-4(공통)는 변화된 매체 환경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내일’ 방문해도 될지를 묻기 위해 메일을 쓰기보다는 문자나 누리소통망을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모레’로 수정하였다. 또한 지문 수정에 맞추어 선택지를 수정하였다.

4) 예비 조사에서는 R-1~7(공통)의 7개 문항을 가교 문항으로 설계하였는데, 김성훈(2022: 147)에서 IRT 척도 연계에서 이상점에 위치한 문항을 가교로 추정할 때 제외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R-1, 2, 4, 6, 7(공통)의 5문항을 가교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4(가교, 공통)	본조사	R-4(가교, 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지문 및 선지 수정					

R-5(공통)의 경우 선택지 ③의 ‘처해지더라도’에 피동의 의미가 불필요하여 ‘처하더라도’로 수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5(가교, 공통)	본조사	R-5(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또한 예비 조사 결과, 전문가 검토와 연구진 자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문항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 결과 R-3(공통)은 선택지 ③의 ‘~한다고 ~는 아니지 않습니까?’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택지 길이가 짧아져서 선택지 순서가 변경되었지만, 정답은 ④라 정답이 바뀌지는 않았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3(가교, 공통)	본조사	R-3(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R-9(가형)의 경우에는 변별도가 적절하고, 난이도는 중간인 편으로 나타나 문항의 양호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선택지 ①의 답지 반응률은 다른 선지들에 비해 약간 낮았는데, 이는 수식어구의 수식 범위가 중의적이기 때문으로 예측되어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④의 경우 이의 제기의 소지가 있어 지문에 제시된 그대로 용어를 사용하여, 답지의 의미 파악이 더 명료해지도록 어휘를 수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9(가형)	본조사	R-13(가형)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다음으로 디지털 문항인 R-20(나형)은 변별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난이도가 중간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문항이었다. 다만 문두의 표현이 선지의 내용을 전부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선지의 표현을 수정하여 진술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0(나형)	본조사	R-12(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문두 및 선지 수정					

R-25(가형)는 정답인 선택지 ③에서 ‘가족의 화합’이라는 표현의 경우 반려견도 가족에 포함된다고 보면 ‘정답 없음’이 될 수 있기에 좀 더 명확한 오답으로 수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5(가형)	본조사	R-18(가형)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R-26(나형) 역시 정답인 선택지 ③이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지역 주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3문단의 관점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6(나형)	본조사	R-19(가형)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R-27(나형)의 경우도 기상 안내에서 주말을 보면 최저 기온은 주중(금요일)보다 2도 더 높으므로 최고 기온만 1도 낮아졌다고 해서 정답인 선택지 ②에서 “더 덥겠군”으로 판단하는 것이 틀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본문의 기상 안내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7(나형)	본조사	R-20(가형)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본문 수정					

마지막으로 R-28(나형)의 경우 선택지 ③의 답지 반응률은 다른 선지들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가정법이 제시되어 있어 답을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영역	읽기	예비 조사	R-28(나형)	본조사	R-19(나형)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문법·규범 영역]

문법·규범 영역의 문항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 국립국어원의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연구진 내부 회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가교 문항에 해당하는 문법_01(공통), 문법_02(공통), 문법_03(공통)의 3개 문항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는 수정 사항이 없었다. 다만, 형식 측면에서는 문법_03(공통) 문항의 문두 중 ‘다른’에 밑줄을 추가하고, 본문의 ‘그러게,’ 부분에 사용된 마침표를 쉼표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수정된 부분은 기울임체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3(공통)	본조사	G-3(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문두 수정					
본문 수정					

한편 문법_04(가형), 규범_08(가형), 규범_09(나형) 등의 3개 문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항 수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문항들은 변별도 및 난이도(곤란도)가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문항의 내용 및 형식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선 6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 해당하는 문법_05(나형), 문법_06(가형), 문법_07(나형), 규범_10(나형), 규범_11(가형), 규범_12(나형), 규범_13(가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문항별로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_05(나형)의 경우 오답인 ③번 선지에 대한 반응률이 높아, 연구진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오답 선지에 대한 반응률을 낮추고, 정답 선지에 대한 반응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③번 선지 및 이에 따른 해설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5(나형)	본조사	G-5(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해설 수정					

문법_06(가형)의 경우 문항의 변별도가 매우 높고, 곤란도가 쉬운 문항으로 파악되어, 문항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만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하지만’을 대신하여, 구어 맥락에서 쓰일 법한 접속 부사 ‘그래도’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다른 문항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문의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들어갈 말’로 간략화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6(가형)	본조사	G-6(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문두 수정					
본문 수정					

문법_07(나형)의 경우, 문항의 해결 및 정답률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겠지만, 제시된 글의 흐름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불필요하게 사용된 접속 부사를 삭제하여 문맥을 매끄럽게 가다듬고자 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7(나형)	본조사	G-7(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본문 수정					

규범_10(나형)의 경우 변별도가 적절하고 난이도(곤란도)가 매우 어려운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답 선택지에 대한 반응률이 지나치게 낮고, 오답인 ③번 선택지에 대한 반응률이 높아 본조사에서는 역변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존에 ‘삼가다/*삼가하다’의 표기를 구분하는 선택지의 경우, 기본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표기 층위의 문제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표기 문제와 관련되는 ‘되-/돼-’의 사례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되었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10(나형)	본조사	G-10(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본문 수정					
해설 수정					

규범_11(가형)은 복수 표준어에 대한 문항으로서 국민의 국어능력을 대변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만,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곤란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답 선택지에 대한 반응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내용에 대한 수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의미가 다소 불분명했던 문항의 문두만을 수정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11(가형)	본조사	G-11(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문두 수정					

규범_12(나형)은 문항의 변별도가 적절하고 난이도(곤란도)가 중간인 문항이었다. 하지만 일부 선택지에 사용된 어휘나 표현이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항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제가 되는 어휘 및 표현을 동일한 음운 환경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문항의 문두 또한 다른 문항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보다 간략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12(나형)	본조사	G-12(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문두 수정					
선지 수정					
해설 수정					

끝으로 규범_13(가형)의 경우 문항의 일부 표현 수정 및 선택지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먼저 ①, ④번 선택지는 문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 대신에 구어적인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결 어미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③번 선택지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어휘가 피험자의 연령대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문 내용을 수용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의 ‘케이크’로 수정하였다.

영역	문법·규범	예비 조사	G-13(가형)	본조사	G-13(공통)
수정 내용	수정 사항				
	전		후		
선지 수정					

이와 같이 본조사에서 사용할 13개의 최종 1배수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3개의 가교 문항은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의 동등화 검사를 위해 수정하지 않았으며, 최종 선정된 문항 중 3개 문항의 경우 별다른 오류 및 미비점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문항을 확정하였다. 남은 7개 문항에 대해서는 발문과 선택지의 표현 조정, 문맥에 적절한 어휘의 점검 및 선택,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곤란도)를 고려한 선택지의 교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이후 다시 한번 문항 전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항을 완성하였다.

4) 영역별 영역 배경 변인 구성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본조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공통 배경 변인은 2023년 본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2023년 본조사에서는 전공, 독서량, 인터넷 이용량(ICT 친숙도), 국어 관련 학습 활동 및 분야를 중심으로 변인을 구성했던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변인을 이어받으면서 ‘다양한 매체 유형과 사용량’을 추가한 바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인들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점,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변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련 변인>

● 해당되는 항목에 V나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변인	발문 및 내용			
1. 시·도	① 서울 ⑤ 인천 ⑨ 경기 ⑬ 전북 ⑰ 제주	② 부산 ⑥ 대전 ⑩ 강원 ⑭ 전남	③ 대구 ⑦ 울산 ⑪ 충북 ⑮ 경북	④ 광주 ⑧ 세종 ⑫ 충남 ⑯ 경남
2. 읍면동 코드		3. 지역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4.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5. 나이	●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연령대) =>응답자에게 노출되지 않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6.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직업 군인 ⑪ 주부 ⑫ 무직/퇴직/기타 ⑬ 학생
7.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재학 ⑦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교 재학 ⑨ 대학교 졸업 ⑩ 대학원 재학 ⑪ 대학원 졸업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 공통 배경 변인>

● 다음의 배경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7. 최종학력이 ⑧⑨⑩⑪인 경우에 질문) 귀하의 최종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어문 계열 ② 인문 계열(어문 계열 제외) ③ 상경 계열 ④ 사회 계열
 ⑤ 법정 계열 ⑥ 의학/약학 계열 ⑦ 이공 계열 ⑧ 자연 계열
 ⑨ 사범/교육 계열 ⑩ 예술/체능 계열 ⑪ 기타 ()

2. 귀하께서는 한 달 평균 몇 권의 책(종이책, 전자책)을 읽습니까?

- ① 전혀 읽지 않음 ② 1~2권 정도 ③ 3~4권 정도
 ④ 5~6권 정도 ⑤ 7권 이상

3.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매체를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매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2번)	어느 정도 사용한다. (하루에 1~4번)	매우 자주 사용한다. (하루에 5번 이상)
종이신문, 잡지	①	②	③	④	⑤
텔레비전, 라디오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포털(검색용)	①	②	③	④	⑤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①	②	③	④	⑤
게임, 웹툰, 웹소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모바일 포함)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직무 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무 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현재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참여했던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교양 글쓰기 강좌 수강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1) 귀하가 참여한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문화센터 국어 관련 강좌 수강 ② 학교 교육과정
 ③ 온라인 학습 사이트 ④ 개인 교습
 ⑤ 학원 수강 ⑥ 문화 학교 국어 관련 강좌 수강
 ⑦ 기타() ⑧ 참여한 적 없음

(5-2) (앞 문항 ①~⑦응답자만) 귀하의 국어 관련 학습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규범 ⑥ 기타()

(5-3) 귀하의 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골라 주십시오.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규범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의 경우 배경 변인과 국민의 국어능력 사이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읽기 영역의 경우 매체 환경의 변화가 국민의 읽기 능력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읽기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문 문항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읽기에 대한 친숙도와 읽기 분량 및 빈도, 다양한 유형의 매체들 사이의 선호도 비교를 설문에 포함하는 한편, 디지털 매체와 결합한 텍스트도 읽기 대상으로 포함하여 배경 변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설문 문항을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본조사 듣기·말하기 배경 변인 설문의 구성 방식도 함께 참조하였다.

<읽기 영역 배경 변인>

(1) 귀하께서는 글로 된 자료(책, 디지털 문서 등)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전혀 읽지 않음	1년에 2~3회	1달에 2~3회	1주일에 2~3회	거의 매일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 자신의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직장, 학업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독서에 흥미가 없어서	핸드폰이나 게임 등을 더 좋아해서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글 읽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 읽기는 다른 일에 방해가 됨	글 읽기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글 읽기는 시간 보내기용으로 좋음	글 읽기는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됨	글 읽기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데 필수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읽기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글자는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사진이나 그림 위주의 글은 이해할 수 있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있음	글 내용을 대체로 이해함	어떤 글이든지 어려움 없이 이해함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 보통 한 번 독서하실 때 읽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 읽음	짧은 요약 글 (카드 뉴스 정도)	교과서 1쪽 (블로그 글 정도)	교과서 2~4쪽 정도	교과서 5쪽 이상 (대체로 긴 글)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의 디지털 기기(컴퓨터, 휴대폰 등)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연락 외엔 전혀 사용하지 않음	하루 1시간 정도	하루 3시간 전후	하루 5시간 전후	하루 5시간 이상 ~하루 종일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주로 보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 매체	텔레비전 (뉴스, 드라마)	글로 된 인터넷 자료 (기사, 블로그, 웹소설, 웹툰 등)	짧은 동영상 (틱톡, 숏츠 등 15초 내외)	긴 동영상 (유튜브, 드라마 등 30분 이상)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독서 문화(도서관 행사, 저자 강연, 독서클럽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음	한두 번 참여한 적이 있음	가끔 참여함 (몇 년에 1번)	시간 나면 자주 참여함 (1년에 1회 이상)	회원이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문법·규범 영역]

문법·규범 영역 조사 결과 분석 시 활용할 변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초안에서는 ‘문법’과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업무와 관련하여 문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문법’과 ‘규범’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 업무를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변인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문 규범 관련 정보를 찾는 빈도’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를 문법·규범 영역의 배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문법·규범 영역 배경 변인>

(1) 귀하께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십니까?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검색하지 않음.)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찾아본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찾아본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우리말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이용한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이용한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참고 사항>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 대사전으로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말샘: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이다.

(2-2)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가나다’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이용한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이용한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참고 사항>

- 온라인가나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어 생활에서 생기는 궁금한 점 따위를 문의하면 답변해 준다.

2.2. 표본 집단 추출

본 연구의 조사 시행 방식으로는 ‘집합 조사’와 ‘1:1 방문 면접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치 비교를 위해 ‘소규모 내방형 평가’와 ‘개별 가구 방문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II-11> 방문 면접 조사 및 집합 조사 개요

구분	방문 면접 조사	집합 조사
모집단	만 나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조사 대상	전국 만 나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수도권 거주 만 나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표본 크기	5,000명	50명
표본 배분	모집단의 인구특성(성, 연령, 지역, 직업, 학력)에 비례하도록 표본 할당	성, 연령대별 동일 표본 할당
조사 방법	태블릿 피시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	
조사 일정	2024년 7월 12일~9월 24일	2024년 8월 28일

1) 방문 면접 조사

(1) 모집단 정의

본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이며, 이에 따른 조사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섬 지역, 집단 시설(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가구를 제외)으로 설정한다.

(2) 모집단 층화

층화 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그룹들, 즉 층들(strata)로 나누고 각 층에서 확률 혹은 비확률 표본을 뽑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인 층화(stratification)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조사에서 활용한 모집단 층화 변수와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층화는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2차 층화는 동부와 읍면부(서울, 광주, 대전은 제외)로 층화하였다.

<표 II-12> 모집단 층화 변수 및 현황

구분	시/도	층수
1차 층화: 시도	17개 시도	17개
2차 층화: 동부, 읍면부	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지역	14개
합계		31개

(3) 표본 크기 결정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산할 주요 통계의 허용 목표 오차의 크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와 통계 생산 단위의 수준 등이다. 본조사에서의 주요 통계 생산 단위와 허용 목표 오차,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표본 규모는 5,000명으로 결정하였다. 전국적으로 5,000명을 조사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pm 1.4\%$ 이다.

<표 II-13> 표본 크기 결정

구분	내용
표본크기	5,000명
표본오차	비율 추정 시 95% 신뢰수준 $\pm 1.4\%$

(4) 집락 크기 결정

조사의 모집단 조사단위(unit)는 개인이지만 각 개인의 목록을 모두 나열하고 있는 추출 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사단위들이 모여 있는 집락(cluster)의 추출 틀을 확보하고, 이 집락에서 개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 집락추출(cluster sample)이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Richard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비교적 획득하기 쉬운 집락인 읍면동을 먼저 추출하고 여기에서 조사단위 표본을 얻는 집락추출을 진행한다.

<표 II-14> 17개 시도별 읍면동 현황(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지역	읍면동 수	지역	읍면동 수
서울	426	강원	194
부산	205	충북	154
대구	152	충남	210
인천	160	전북	243
광주	96	전남	324
대전	82	경북	335
울산	55	경남	310
세종	24	제주	43
경기	602	전국	3,615

*전국 출장소 포함(단, 거주자가 0명인 출장소 제외)

집락의 크기와 집락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크기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는 목표 표본 수를 먼저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집락의 수를 늘린다면 집락에서 추출되는 표본 수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집락의 수를 줄인다면 각 집락별 표본 수는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집락에서 10명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500개의 집락(읍면

동)을 추출한 후 5,000명을 조사하였다.

<표 II -15> 본조사 추출 집락 및 집락별 조사 완료 표본 수

층 구분	집락(읍면동)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2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1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4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1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제1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1가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제2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제1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2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1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제2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4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제1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제2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제1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제2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제1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제2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제2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제2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제7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제2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1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4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제2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제1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제3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3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4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제1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제3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5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제2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2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2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1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4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제2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제1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제2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제2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제3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제1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층 구분	집락(읍면동)	
부산_동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제2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제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제1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제3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제1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제3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제1동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제5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제2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제2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제2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제3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제2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제4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제1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제2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제1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3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제2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제1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제9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제2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제1동
부산_읍면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대구_동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4동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2동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1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대구_읍면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인천_동부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1.3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5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2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2동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대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인천_읍면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1동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층 구분	집락(읍면동)	
대전_동부	대전광역시 동구 신인동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2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울산_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울산_읍면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세종_동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세종_읍면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경기_동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2동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1동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경기도 오산시 대원1동 경기도 오산시 신장2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2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경기도 파주시 금촌3동

층 구분	집락(읍면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 경기도 평택시 송북동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경기도 파주시 운정2동 경기도 파주시 운정4동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경기도 안성시 안성2동 경기도 김포시 김포본동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2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3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7동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기도 광주시 광남1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2동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경기도 양주시 옥정1동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1동
경기_읍면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남부출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강원_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남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2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내곡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삼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교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강원_읍면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충북_동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안림동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충북_읍면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충남_동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동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층 구분	집락(읍면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3동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1동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충남_읍면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전북_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흥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전북_읍면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전남_동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2동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동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동 전라남도 순천시 왕조1동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동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전라남도 순천시 왕조2동
전남_읍면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경북_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동 경상북도 안동시 중구동 경상북도 구미시 임오동	경상북도 구미시 양포동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동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4동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2동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1동
경북_읍면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남_동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동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경상남도 사천시 별용동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동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1동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동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경남_읍면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층 구분	집락(읍면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제주_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_읍면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5)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통한 집락 추출

집락 추출 방식은 크게 단순확률추출과 크기비례확률추출(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 이하 PPS)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확률추출에서는 각 집락이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다. 그러나 집락들의 규모가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대규모 집락이 전체 모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여 뽑는 방법인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집락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이 있고, 총인구수는 1,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단순확률추출 시에는 10개 집락 중 하나를 선택하므로 모든 집락의 추출 확률이 동일하다. 반면, 크기비례확률추출(PPS)을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집락이 추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A동부터 J동까지로 구성된 층이 있고, 이 층에서 3개의 집락(동)을 추출한다고 가정하면, 크기비례확률추출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과거 조사와 동일하게 집락 추출 방식은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이용한다.

집락1	집락2	집락3	집락4	집락5	집락6	집락7	집락8	집락9	집락10
200명	2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200명

* 10개 집락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의 총 인구수는 1,000명으로 가정

단순확률추출 시 추출확률(예시)				1 ÷ 총 집락 수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10개 집락 중 하나를 선택하므로 모든 집락의 추출확률이 동일

확률비례추출 시 추출확률(예시)				집락별 인구 수 ÷ 총 인구 수					
200/1000	200/1000	100/1000	50/1000	50/1000	50/1000	50/1000	50/1000	50/1000	200/1000

* 규모가 큰 집락이 추출될 확률이 더 높음

[그림 II-1] 단순확률추출과 확률비례추출의 추출 확률 비교

<표 II -16> 크기비례확률 추출을 이용한 동(집락) 추출 과정

- 가장 먼저 각 집락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누적 인구수를 계산함
- 추출간격 계산 : 전체 누적 인구수 / 추출 집락 수
- 본 예시에서 추출 간격은 400 ($1,200 / 3 = 400$)
- 첫 번째 추출 간격 사이의 난수를 추출한 뒤, 이 난수가 속한 집락을 1차 추출 지점으로 선정. 이후부터는 일정한 간격(추출간격, 등간)에 따라 표본을 추출
- 첫 번째 추출 간격인 0부터 400 사이의 난수를 추출해 시작점 확정: 무작위로 120이 선정되면, 누적 인구수에서 120이 포함된 'B동'이 최초로 추출됨
- 최초 기준 수치에 추출 등간인 매 400을 더하여 얻은 값을 포함하고 있는 집락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

(6) 집락 내 개인 할당 추출

이론적으로 가구뿐 아니라 응답자 선정까지 확률적인 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조사와 동일하게 할당추출로 설계한다.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이란, 표본의 주요 변수별 분포를 미리 할당한 후, 해당 조건의 표본을 찾아서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이다. 표본의 원하는 분포를 얻어 낼 수 있고, 조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7) 할당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는 과거 본조사와 동일한 성별, 세대(연령), 지역, 직업, 학력(교육 수준)의 5개 변인을 할당 변수로 선정한다. 변인의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각각의 변인에 속하는 표본 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져 연구 실행의 타당성을 잃을 위험이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5개 변인 및 변인별 요소를 적용한다.

<표 II -17> 본조사 표본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변인	구분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역	17개 시도(서울, 대전, 광주를 제외한 지역은 동부, 읍면부로 구분)
직업	-정신노동(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육체노동(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 노무 종사자, ⑩직업 군인) -기타(⑪주부, ⑫무직/퇴직/기타, ⑬학생)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총화부터 개인 할당 추출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2] 본조사 표본 설계

(8) 표본 배분

각 변인별 표본 수는 연구 목적을 감안해 비례 배분이나 임의 배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조사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야 하므로 모집단의 인구특성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할당하였다. 예컨대, 전국을 17개 시도로 나누고, 서울과 광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구분하여 31개 지역, 성별과 연령은 20대 남/여, 30대 남/여, 40대 남/여, 50대 남/여, 60대 남/여로 총 310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구간별,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 할당표를 작성하며, 직업과 학력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⁵⁾으로 표본 할당표를 미리 작성하였다.

방문 면접 조사의 전체 표본은 총 5,000명이지만, 검사지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2가지 유형의 검사지가 고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2,500명씩 배분하였다.

다만, 지역, 성, 연령별 배분 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가형과 나형 각각 2,500명의 표본을 확보하며, 최종적으로는 5,000명의 인구 비례에 맞춰 조사하였다.

<표 II-18> 본조사(방문면접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구분	가형	나형	합계
알기, 문법·규범	2,500	2,500	5,000

5) 할당을 고려할 때 성별, 연령, 지역 변인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과 학력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변인은 각 층별 할당표에 정확히 맞추어 조사하고, 직업과 학력 변인은 할당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 -19> 본조사(방문면접조사) 표본 배분

구 분 (단위: 명)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5,000	431	393	465	427	538	522	596	587	511	530
서울	940	86	95	97	96	93	95	98	102	84	94
부산_동부	300	24	23	26	24	30	30	34	36	34	39
부산_읍면부	20	1	1	2	2	3	3	2	2	2	2
대구_동부	200	17	16	17	15	20	21	24	26	21	23
대구_읍면부	30	2	2	3	3	4	3	4	3	3	3
인천_동부	290	24	23	29	27	32	31	33	34	28	29
인천_읍면부	10	1	1	1	1	1	1	1	1	1	1
광주_동부	140	13	12	12	12	15	16	17	17	12	14
대전_동부	140	14	13	13	12	14	15	16	16	13	14
울산_동부	90	8	6	9	7	10	10	11	11	9	9
울산_읍면부	20	2	1	2	1	2	2	3	3	2	2
세종_동부	30	2	2	3	4	5	5	3	3	1	2
세종_읍면부	10	1	1	1	1	1	1	1	1	1	1
경기_동부	1,150	101	93	116	108	131	129	133	135	101	103
경기_읍면부	200	17	13	17	14	22	19	27	23	25	23
강원_동부	90	8	7	8	7	9	9	11	11	10	10
강원_읍면부	60	5	3	4	3	6	5	8	7	10	9
충북_동부	90	9	7	8	7	10	9	11	11	9	9
충북_읍면부	60	5	3	5	4	6	5	8	7	9	8
충남_동부	100	10	8	10	9	12	12	12	11	8	8
충남_읍면부	100	7	5	8	7	11	9	14	11	14	14
전북_동부	120	11	10	10	9	13	13	15	15	12	12
전북_읍면부	40	3	2	2	2	4	3	6	5	7	6
전남_동부	70	7	5	6	5	8	7	9	9	7	7
전남_읍면부	90	6	5	6	5	9	7	14	11	14	13
경북_동부	130	12	9	11	10	14	14	16	16	13	15
경북_읍면부	110	7	5	8	6	11	9	16	13	18	17
경남_동부	200	17	13	17	15	23	22	26	26	20	21
경남_읍면부	110	7	5	8	7	12	11	15	13	16	16
제주_동부	40	3	3	4	3	5	4	5	5	4	4
제주_읍면부	20	1	1	2	1	2	2	3	3	3	2

(9) 할당 변인별 표본 수

각 시도의 성별, 연령대 표본 수는 2024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실제 조사된 표본 수와 모집단 통계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에서는 전체 모집단 비율 추정 과정에서 실제 모집단 구성비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할 경우 가중치 보정 등의 사후 총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조사에서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집단 통계를 기준으로 한 비례할당추출을 사용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시도별, 성별, 연령별 할당표를 최대한 지켜 가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된 표본의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구성비는 모집단 구성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중치 보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표 II-20>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 수

대분류	구분	표본		모집단 통계(20~69세) (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	
		표본 수(명)	구성비(%)	인구수(명)	구성비(%)
합계		5,000	100.0	36,753,486	100.0
시도별	서울	940	18.8	6,934,877	18.9
	부산	320	6.4	2,328,605	6.3
	대구	230	4.6	1,689,658	4.6
	인천	300	6.0	2,209,497	6.0
	광주	140	2.8	1,010,663	2.7
	대전	140	2.8	1,046,409	2.8
	울산	110	2.2	805,808	2.2
	세종	40	0.8	266,347	0.7
	경기	1,350	27.0	9,946,209	27.1
	강원	150	3.0	1,058,447	2.9
	충북	150	3.0	1,123,401	3.1
	충남	200	4.0	1,473,454	4.0
	전북	160	3.2	1,184,179	3.2
	전남	160	3.2	1,195,113	3.3
	경북	240	4.8	1,742,724	4.7
	경남	310	6.2	2,269,461	6.2
	제주	60	1.2	468,634	1.3
성별	남자	2,541	50.8	18,678,681	50.8
	여자	2,459	49.2	18,074,805	49.2
연령별	20대	824	16.5	6,074,874	16.5
	30대	892	17.8	6,557,541	17.8
	40대	1060	21.2	7,777,875	21.2
	50대	1183	23.7	8,662,367	23.6
	60대	1041	20.8	7,680,829	20.9

각 시도의 학력별 표본 수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다. 조사 시점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시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활용 가능한 모집단 정보 중 가장 최신의 자료였으며, 만 20~69세 인구의 학력 분포가 4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조사된 표본 수와 모집단 통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본 집단의 학력별 분포는 모집단 분포 대비 최소 80%를 맞추도록 하였다.

<표 II-21> 시도별/학력별 표본 수

	표본 수(명)			모집단 통계(20~69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합계(%)	9.2	34.4	56.5	9.5	34.0	56.6
합계(명)	458	1718	2824	3,409,724	12,235,255	20,370,831
서울	66	259	615	483,633	1,881,817	4,529,585
부산	36	105	179	268,115	791,698	1,322,134
대구	24	70	136	181,520	536,867	995,577
인천	26	130	144	193,440	845,432	1,053,172
광주	11	44	85	79,039	323,346	629,627
대전	10	45	85	91,975	316,623	654,189
울산	11	44	55	77,968	314,773	424,631
세종	3	8	29	12,721	50,918	173,312
경기	102	468	780	715,141	3,242,896	5,411,683
강원	18	58	74	138,717	377,419	528,163
충북	13	62	75	137,227	418,728	554,856
충남	26	76	98	174,031	564,703	684,122
전북	17	54	89	143,681	433,680	612,969
전남	24	63	73	171,412	448,893	530,516
경북	32	93	115	243,574	676,433	850,817
경남	34	120	156	260,107	868,972	1,149,549
제주	5	19	36	37,423	142,057	265,929

각 시도의 직업별 표본 수는 조사 준비 시점에서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1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자 통계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집계한다는 점에서 본조사의 모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중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수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자료를 가공하고, 이를 직업별 취업자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 20~69세 인구 중 취업자(정신노동, 육체노동)와 비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의 규모를 추정했다. 그런 다음 각 직업별 분포에 비례하도록 시도별 표본을 할당하였다.

실제 조사된 표본 수와 모집단 통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표본 집단의 직업별 분포는 모집단 분포 대비 최소 80%를 맞추도록 하였다.

<표 II-22> 시도별/직업별 표본 수

	표본 수(명)			모집단 통계(20~69세) (2024년 1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정신노동	육체노동	비경제활동 인구(추정치)
합계(%)	30.0	41.0	29.0	29.8	41.0	29.2
합계(천명)	1,501	2,050	1,449	11,005	15,143	10,801
서울	381	288	271	2,819	2,154	2,017
부산	83	135	102	594	962	761
대구	61	97	72	452	694	539
인천	87	123	90	634	927	647
광주	42	57	41	286	443	317
대전	45	54	41	344	400	327
울산	25	48	37	172	359	269
세종	17	11	12	117	79	77
경기	440	532	378	3,276	3,944	2,815
강원	38	68	44	235	462	333
충북	38	74	38	265	580	311
충남	45	94	61	365	727	445
전북	38	78	44	260	577	347
전남	32	86	42	225	609	301
경북	49	123	68	341	897	522
경남	68	147	95	499	1083	674
제주	12	35	13	121	246	100

2) 집합 조사

집합 조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20대 남/여, 30대 남/여, 40대 남/여, 50대 남/여, 60대 남/여의 총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로 동일 크기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본 규모가 50명으로 크지 않으므로 수도권에 한정하여 조사하며, 응답자의 지역과 직업, 학력 변수는 고르게 배분하였다.

방문 면접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지 유형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2가지 유형의 검사지가 고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25명씩 배분하였다.

<표 II-23> 본조사 집합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구분	가형	나형	합계
읽기, 문법·규범	25	25	50

<표 II-24> 본조사 집합조사 표본 배분

구분 (단위: 명)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50	5	5	5	5	5	5	5	5	5	5

2.3. 본조사 방식

1) 방문 면접 조사

(1) 조사 방법

본조사는 1:1 방문 면접 조사로 진행하며, 태블릿 피시의 디지털 검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본 조사에 특화된 TAPI(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화면 속 링크나 아이콘, 메뉴를 클릭하여 글을 읽거나 스크롤을 내리거나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의 디지털 문항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23년 예비 조사에서도 활용한 기능으로 본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응답자 편의성과 실사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될 위험이 있거나 응답자가 태블릿 피시를 이용한 조사 방식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는 종이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원이 응답 결과를 TAPI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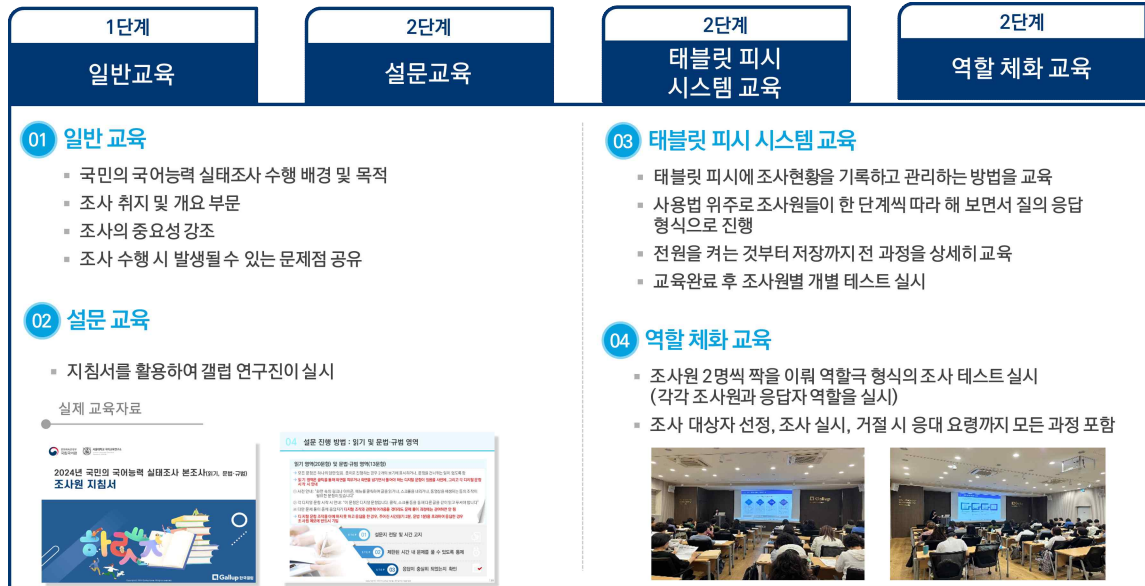
다만, 외국인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사에 끝까지 응답한 자료만 유효한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선정된 응답자가 모든 문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사례품을 전달하였다.

<표 II -25> 본조사(방문 면접 조사) 진행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조사원 선발	• 한국갤럽 소속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조사원 중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수행 경험 및 TAPI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선발
조사원 교육	• 선발된 조사원에게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실사 설계, 조사 시 유의 사항, TAPI 조작법 등 교육 실시
조사원 관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실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원이 전송한 조사 진행 상황 및 내용 모니터링 • 검증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주의를 통해 조사원 통제 및 감독,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안내
검증	• 전화 검증팀 검증(전체 조사 대상 중 20%를 임의로 선정하여 응답자에게 전화 검증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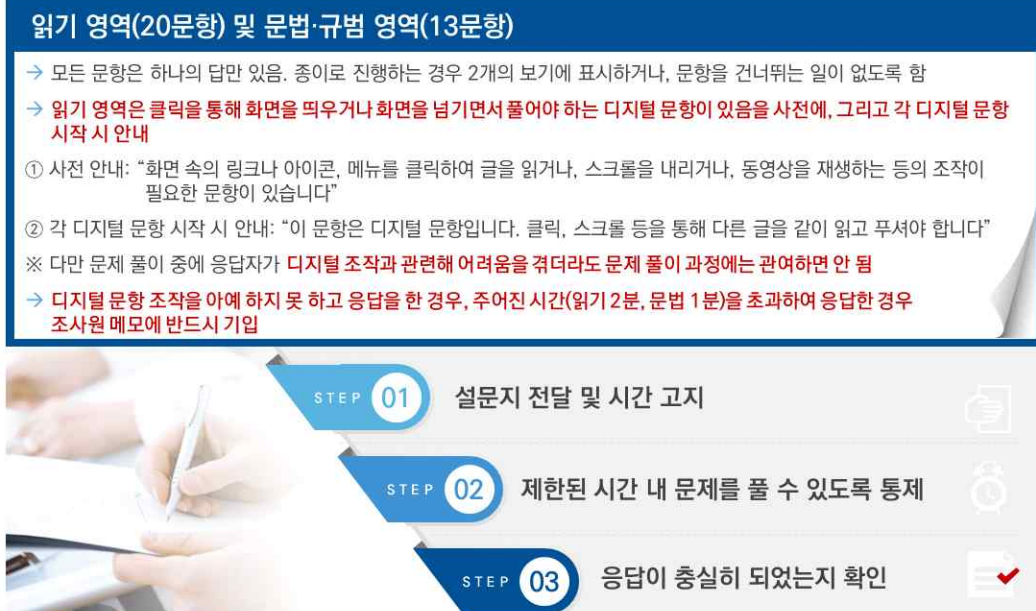
방문 면접 조사 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면접 조사 경험과 TAPI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조사원 교육은 아래와 같이 4단계의 표준화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II-3] 조사원 교육 절차

조사원 교육 내용은 이론 중심 교육과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조사원이 피험자가 되어 본 연구의 평가 도구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조사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04 설문 진행 방법 : 읽기 및 문법·규범 영역



[그림 II-4] 조사원 교육 내용

조사원 교육은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조사원을 모아 각 지사에서 다음과 같이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본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총 16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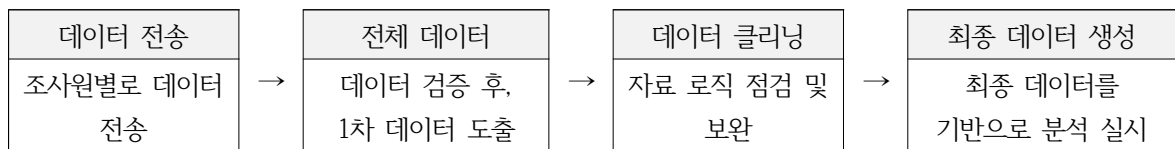
<표 II -26> 본조사(방문 면접 조사) 조사원 교육 결과

실사 지점	해당 지역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참여 인원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7/5(금) 10시	갤럽 본사	55
대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7/5(금) 15시	갤럽 대전지사	30
대구	대구, 경북	7/8(월) 10시	갤럽 대구지사	24
광주	광주, 전남, 전북	7/9(화) 13시	갤럽 광주지사	28
부산	부산, 울산, 경남	7/10(수) 13시	갤럽 부산지사	24

(3) 비표본 오차 최소화

(1) 자료 처리

조사원이 전송한 데이터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친 후, 1차 데이터를 확정하였으며, 기본 로직 점검 및 보완한 최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데이터 도출 과정에서 비표본 오차 최소화를 위해 조사원이 완성해서 전송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사부서와는 독립된 검증 팀이 사후 검증을 진행하여 전체 응답자의 최소 20%에 대해 무작위로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전화검증 비율은 10% 내외이고 통계청 역시 10%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나, 본조사의 경우 통계청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총 조사 샘플의 20% 이상 검증 완료를 목표로 사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 내용은 조사 응답 여부, 주소지, 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에 대해 물어 실제 응답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표 II -27> 지역 사무소별 검증 현황

실사 사무소	해당 지역	표본 수			검증 내용
		완료	검증	비율	이상 있음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800	804	28.7%	0
부산	부산, 울산, 경남	740	199	26.9%	0
대구	대구, 경북	470	119	25.3%	0
광주	광주, 전남, 전북	460	116	25.3%	0
대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30	146	27.6%	0

<표 II -28> 검증 스크립트

전화검증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개발조사연구소의 ○○○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질문 내용	기록 내용
응답 여부	선생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주셨나요?	1. 예 2. 아니오
주소	선생님의 주소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1. 일치 2. 불일치
성별	문지 않고 목소리로 판단	1. 일치 2. 불일치
연령대	실례지만 선생님의 만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일치 2. 불일치
직업	선생님의 직업은 ○○○이 맞나요?	1. 일치 2. 불일치
학력	실례지만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이 맞나요?	1. 일치 2. 불일치
답례품 수령여부	조사 완료 후 답례품은 받으셨나요?	1. 예 2. 아니오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조사원 안내문 및 지침서 제작

개별 방문 조사에서는 피험자들이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방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 개요와 조사 진행 지침을 담은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여 본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조사원 교육과 조사 진행 시에 활용하였다.

조사원 지침서는 조사 배경 및 목적, 설문 문항에 대한 해설 및 보조 이해 자료를 담아 조사원이 조

[illegible]

(3) 실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한 지침 마련

- 56 -

2024 본조사 관련 전달 사항

1.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본조사 실시

가형 (방문조사 2,500명, 집합조사 25명)			나형 (방문조사 2,500명, 집합조사 25명)		
영역	문항 수	시간	영역	문항 수	시간
읽기	20문항	40분	읽기	20문항	40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문법·규범	13문항	13분
계	33문항	53분	계	33문항	53분

- ※ '가형'과 '나형'의 읽기 문항 20문항은 각각 <8문항+공통 문항 12문항>으로 구성됨.
- ※ 문법·규범은 총 13문항으로 가형과 나형 모두 완전히 동일함.

2. 문항 풀이 순서 및 시간

- [읽기 영역 문제 풀이]>[문법·규범 문제 풀이]>[각종 변인별 설문문항에 응답] 순으로 진행
- 읽기 영역은 문항당 2분, 문법·규범은 문항당 1분 이내에 풀도록 진행

3. 조사원 유의 사항 안내 자료

1. 읽기 영역 문항 풀이 후 문법 영역 문항 풀이로 이어집니다. 검사지별로 읽기 영역은 20문항 40분, 문법 문항은 13문항 13분입니다. <u>읽기 영역과 문법 영역의 시간이 각각 독립적으로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u> 즉, 특정 영역의 풀이 시간을 줄여 다른 영역에 써서는 안 됩니다.
2. 읽기 영역은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2분이고 문법은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1분입니다. <u>한 문항당 주어진 풀이 시간을 넘겨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u>
3. <u>읽기 문항 풀이 이전에 클릭을 통해 화면을 띄우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풀어야 하는 디지털 문항이 있음을 사전에, 그리고 각 디지털 문항 시작 시 안내해 주십시오.</u>
✓ <u>사전 안내:</u> "화면 속의 링크나 아이콘, 메뉴를 클릭하여 글을 읽거나, 스크롤을 내리거나, 동영상 재생하는 등의 조작이 필요한 문항이 있습니다."
✓ <u>각 디지털 문항 시작 시 안내:</u> "이 문항은 디지털 문항입니다. 클릭, 스크롤을 통해 다른 글을 같이 읽고 푸셔야 합니다."
* 다만 안내 후 문제 풀이 중에 참여자가 디지털 조작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직접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등 문제 풀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아 주십시오.

[그림 II-6] 조사원 안내문

2) 집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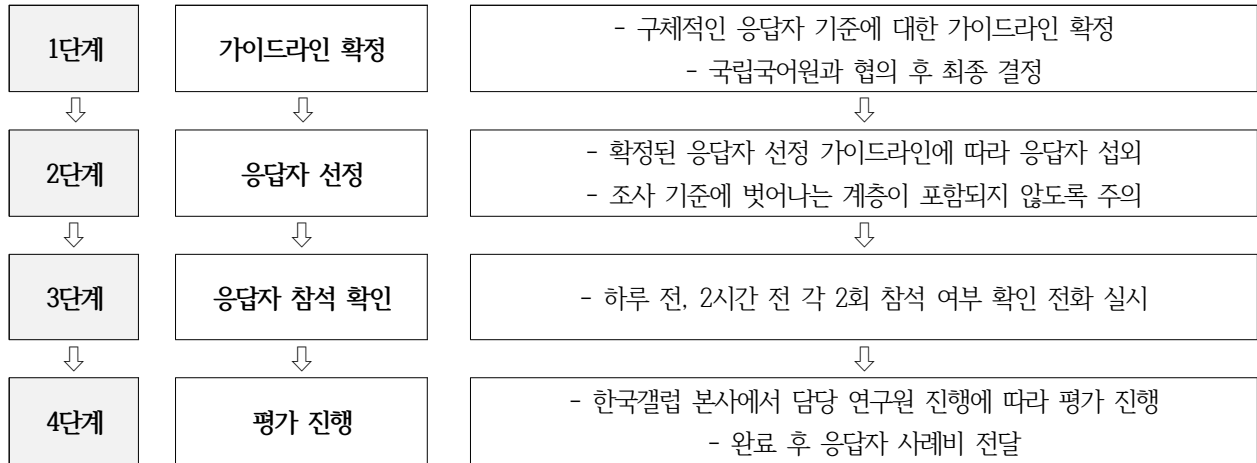
본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디지털 문항'이 읽기와 문법·규범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집합 조사에서도 방문 면접 조사와 동일하게 태블릿 피서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방문 면접 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기 위해 디지털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종이 설문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담당 연구원의 주도로 조사 진행 방법 및 조사 시 유의 사항을 안내 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만, 집합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와의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평가 시간만 안내 후 풀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통제를 하지 않았다.

당일 참석 취소를 고려하여 5명의 예비 인원을 포함한 총 55명이 집합조사에 참여하였다. 55명 중 예비 인원 5명을 제외한 50명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II -29> 본조사 집합조사 진행 과정



<표 II -30> 본조사 집합 조사 진행 일시 및 장소

집합 조사 일시	조사 장소	참여 인원
8월 28일 17시 30분~18시 30분	갤럽 본사 1층 세미나실	27
8월 28일 19시 30분~20시 30분	갤럽 본사 1층 세미나실	28

<표 II -31> 본조사 집합 조사 진행 내용

내용	소요 시간	비고
참석자 확인 및 접수	30분	-
조사 진행 안내 및 유의 사항 전달	10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원 진행
조사 진행	60분	① 읽기 영역 40분(문항당 2분) ② 문법·규범 영역 13분(문항당 1분) ③ 응답자 배경 질문 7분
합계	100분	-



2.4. 본조사 결과 분석

1) 방문 면접 조사 결과

(1) 영역별 국어능력 조사 결과 분석

[읽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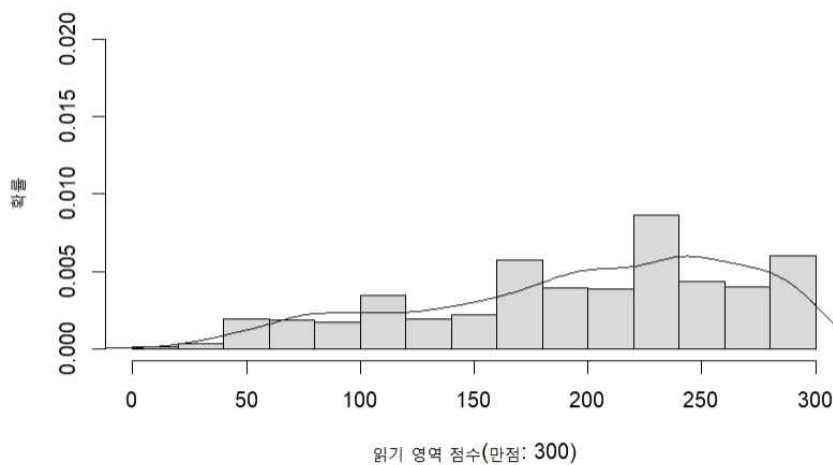
읽기 영역의 원점수 요약 즉,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최솟값 및 최댓값)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 -32> 영역별 원점수 요약(읽기)

영역	N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읽기	5,000	300	197.93	69.36	15	300

5,000명의 읽기 영역 점수(만점 300점) 중 가장 낮은 점수는 15점, 가장 높은 점수는 300점이었고, 평균은 197.53점, 표준편차는 69.36으로 분석되었다.

읽기 영역의 문항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 -7] 읽기 영역 원점수의 확률 분포

<표 II -33> 읽기 영역 문항 특성 분석 결과

문항 번호	N	CTT		IRT*				신뢰도**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SE	난이도	SE	제거	포함
읽기 1번	5,000	.46	.75	1.17	.06	-1.19	.05	.84/.84	
읽기 2번	5,000	.55	.63	1.31	.06	-.53	.03	.83/.83	
읽기 3번	5,000	.37	.41	.71	.04	.58	.05	.84/.84	
읽기 4번	5,000	.48	.70	1.17	.05	-.90	.04	.84/.83	
읽기 5번	5,000	.58	.72	1.87	.08	-.01	.03	.83/.83	
읽기 6번	5,000	.46	.50	1.02	.05	-.01	.03	.84/.83	
읽기 7번	5,000	.60	.75	2.09	.09	-.90	.03	.83/.83	
읽기 8번	5,000	.48	.77	1.37	.06	-1.19	.05	.84/.84	
읽기 9번	5,000	.48	.70	1.21	.06	-.92	.04	.84/.84	
읽기 10번	5,000	.51	.62	1.25	.05	-.51	.03	.84/.83	
읽기 11번	5,000	.51	.58	1.29	.06	-.35	.03	.83/.84	
읽기 12번	5,000	.52	.80	1.62	.07	-1.22	.04	.83/.83	
읽기 가형 13번	2,500	.43	.72	.98 (.99)	.07	-1.13 (-1.23)	.08	.84	.84/.84
읽기 가형 14번	2,500	.48	.72	1.17 (1.18)	.07	-1.02 (-1.12)	.06	.84	
읽기 가형 15번	2,500	.50	.62	1.20 (1.21)	.07	-.54 (-.64)	.05	.84	
읽기 가형 16번	2,500	.61	.66	1.82 (1.83)	.10	-.59 (-.69)	.04	.83	
읽기 가형 17번	2,500	.51	.71	1.33 (1.34)	.08	-.91 (-1.01)	.05	.84	
읽기 가형 18번	2,500	.49	.59	1.12 (1.13)	.07	-.42 (-.51)	.05	.84	
읽기 가형 19번	2,500	.49	.73	1.23 (1.24)	.07	-1.03 (-1.13)	.06	.84	
읽기 가형 20번	2,500	.55	.81	1.87 (1.89)	.11	-1.22 (-1.33)	.05	.83	
읽기 나형 13번	2,500	.58	.61	1.54	.08	-.41	.04	.83	
읽기 나형 14번	2,500	.60	.71	1.85	.10	-.76	.04	.83	
읽기 나형 15번	2,500	.42	.51	.82	.06	-.07	.06	.84	
읽기 나형 16번	2,500	.48	.75	1.21	.08	-1.19	.07	.83	
읽기 나형 17번	2,500	.55	.69	1.48	.08	-.77	.05	.83	
읽기 나형 18번	2,500	.48	.67	1.15	.07	-.78	.06	.84	
읽기 나형 19번	2,500	.37	.40	.74	.06	.61	.07	.84	
읽기 나형 20번	2,500	.54	.64	1.37	.08	-.56	.0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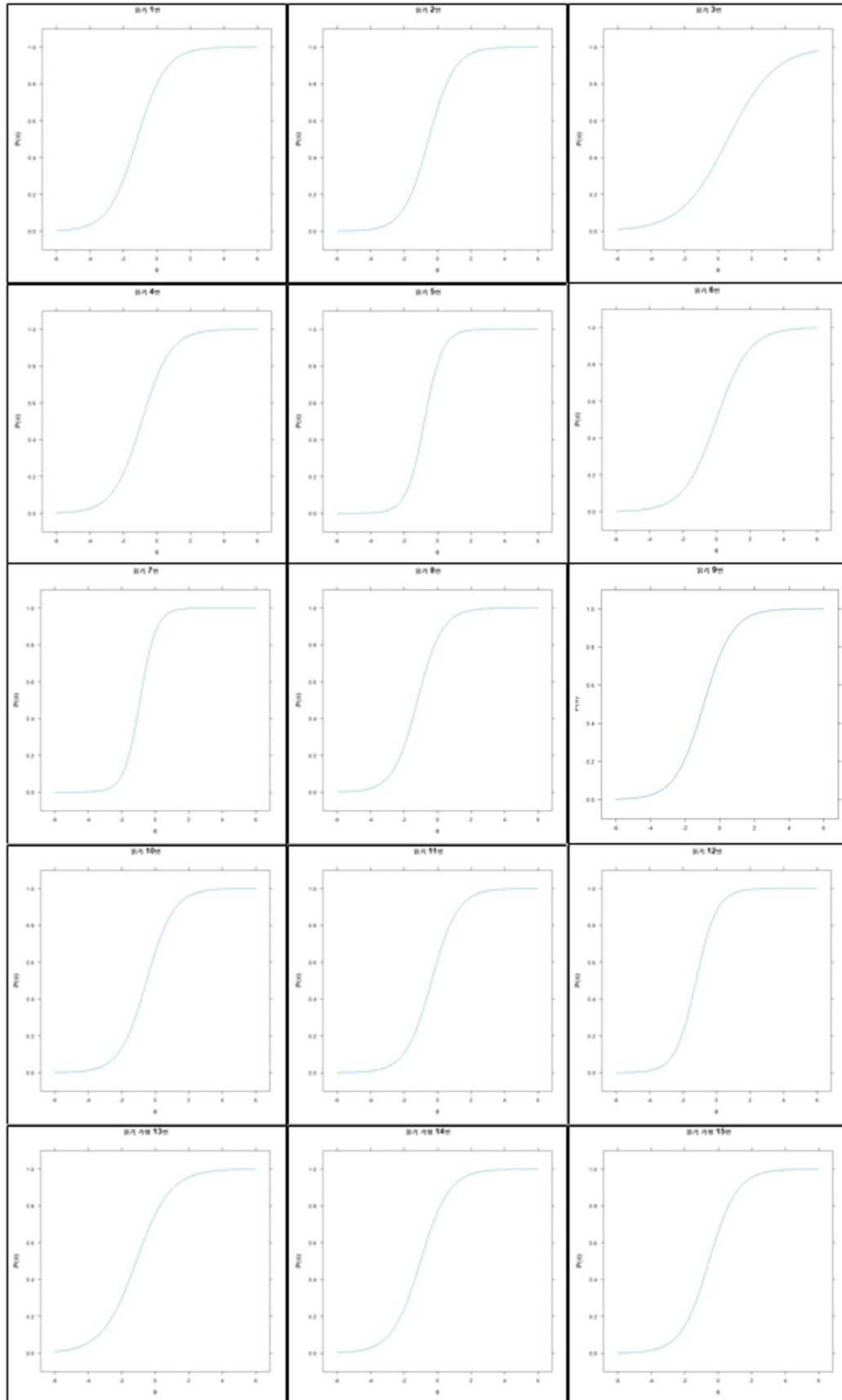
*괄호 안은 동등화를 통해 가형의 문항 모수를 나형의 문항 모수 척도에 맞춰 변환한 값임.

**‘/’의 앞뒤에 가형(앞)과 나형(뒤)에서의 신뢰도를 각각 계산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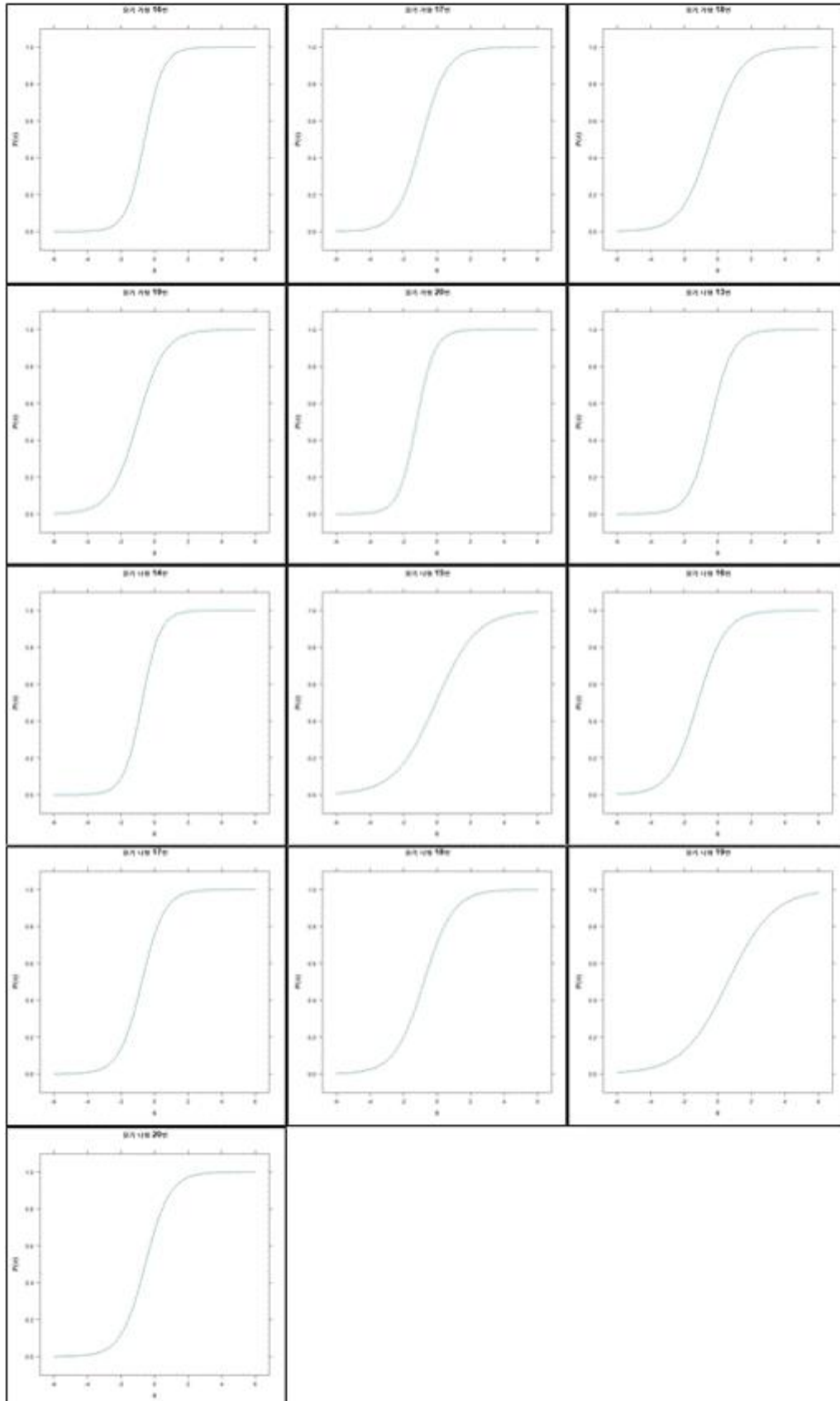
먼저, 고전 검사 이론(CTT)에 따른 문항별 변별도는 전체 문항이 0.37에서 0.6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문항(3번, 나형 19번)이 변별도가 ‘있음’(0.3 이상 0.4 미만)이고 나머지 26개 문항은 ‘높음’(0.4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전 검사 이론(CTT)에 따른 문항별 난이도(용이도)는 ‘중간’(0.4 이상 0.6 미만)인 문항이 6개(3번, 6번, 11번, 가형 18번, 나형 15번, 나형 19번), ‘쉬움’(0.6 이상 0.8 미만)인 문항이 20개(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가형 13번, 가형 14번, 가형 15번, 가형 16번, 가형 17번, 가형 19번, 나형 13번, 나형 14번, 나형 16번, 나형 17번, 나형 18번, 나형 20번), ‘매우 쉬움’(0.8 이상)인 문항이 2개(12번, 가형 20번)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문항별 변별도는 ‘거의 없음’(0.35 미만)이나 ‘낮음’(0.35 이상 0.65 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었고, ‘적절함’(0.65 이상 1.35 미만)은 18개 문항(1번, 2번, 3번, 4번, 6번, 9번, 10번, 11번, 가형 13번, 가형 14번, 가형 15번, 가형 17번, 가형 18번, 가형 19번, 나형 15번, 나형 16번, 나형 18번, 나형 19번), ‘높음’(1.35 이상 1.70 미만)은 5개 문항(8번, 12번, 나형 13번, 나형 17번, 나형 20번), ‘매우 높음’(1.70 이상)은 5개 문항(5번, 7번, 가형 16번, 가형 20번, 나형 14번)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문항별 난이도(곤란도)는 ‘쉬움’(-2.0 이상 -0.5 미만)인 문항이 20개(1번, 2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가형 13번, 가형 14번, 가형 15번, 가형 16번, 가형 17번, 가형 19번, 가형 20번, 나형 14번, 16번, 17번, 18번, 20번), ‘중간’(-0.5 이상 0.5 미만)인 문항이 6개(5번, 6번, 11번, 가형 18번, 나형 13번, 나형 15번), ‘어려움’(0.5 이상 2.0 미만)인 문항이 2개(3번, 나형 19번)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읽기 영역 문항 특성의 분석 결과를 아래의 문항 특성 곡선(ICC)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8] 읽기 영역 문항별 ICC(계속)



[그림 II-8] 읽기 영역 문항별 ICC(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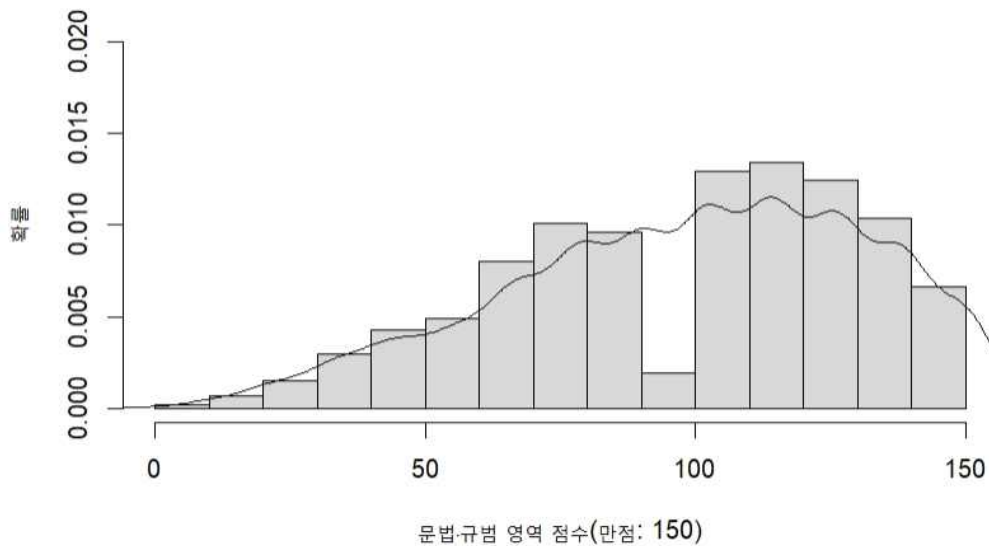
[문법·규범 영역]

문법·규범 영역의 원점수, 즉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최솟값 및 최댓값) 등의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때, 원점수의 만점은 150점으로, 문항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한 문법_01, 문법_02, 문법_04의 3개 문항에 각 10점씩, 나머지 10개 문항에는 각 12점씩 배점하여 계산하였다.

<표 II -34> 영역별 원점수 요약(문법·규범)

영역	N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법·규범	5,000	150	98.46	32.93	0	150

5,000명의 문법·규범 영역 원점수(만점 150점) 중 가장 낮은 점수는 0점, 가장 높은 점수는 150점이었고, 평균은 98.46점, 표준편차는 32.93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 -9] 문법·규범 영역 원점수의 확률 분포

문법·규범 영역의 문항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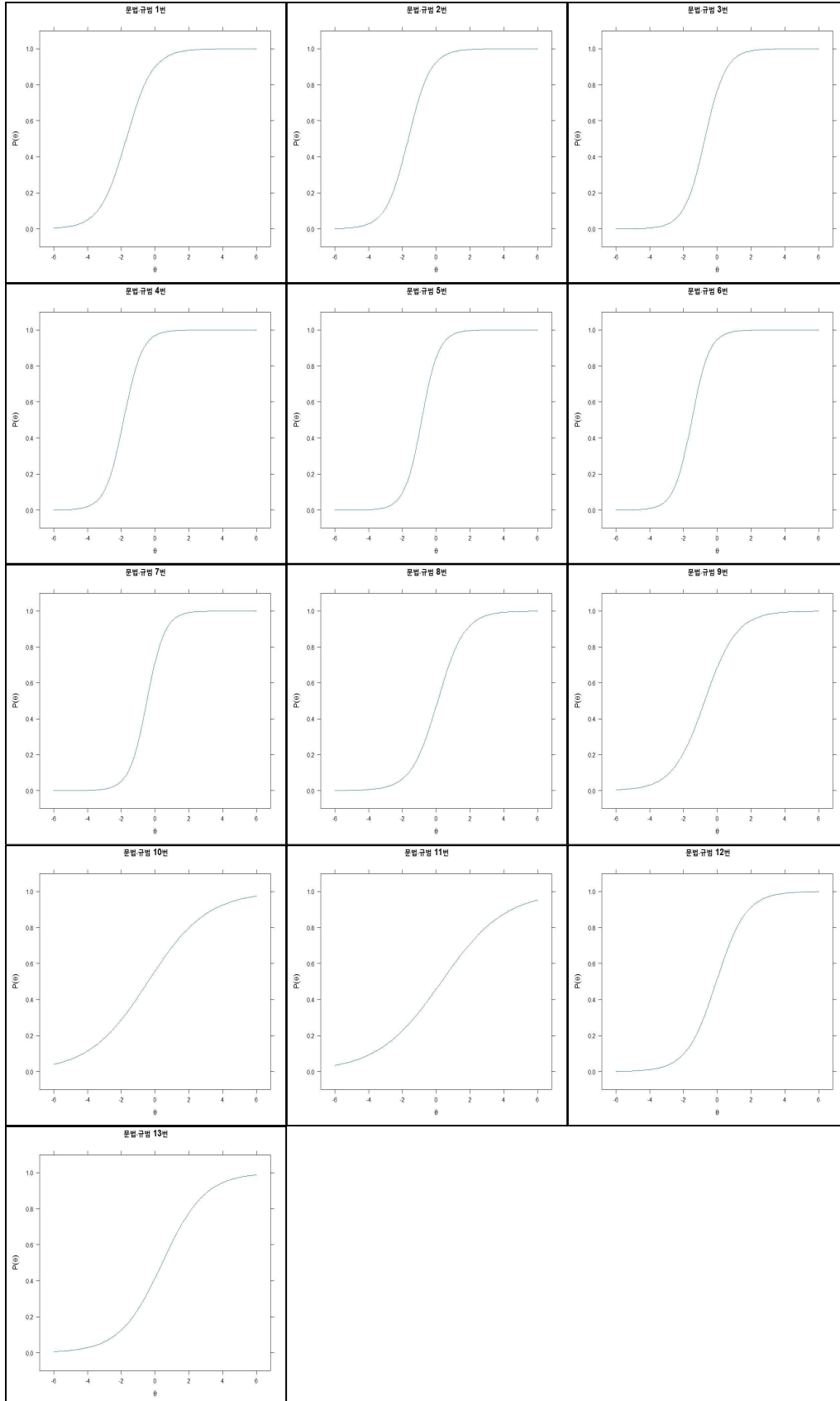
<표 II -35> 문법·규범 영역 문항 특성 분석 결과

문항 번호	N	CTT		IRT			신뢰도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SE	난이도	SE	제거	포함
문법_01	5,000	.44	.85	1.29	.07	-1.71	.07	.72	.74
문법_02	5,000	.46	.86	1.52	.08	-1.66	.06	.72	
문법_03	5,000	.58	.69	1.64	.07	-.74	.03	.71	
문법_04	5,000	.44	.91	1.84	.10	-1.86	.06	.72	
문법_05	5,000	.61	.74	1.98	.09	-.86	.03	.70	
문법_06	5,000	.50	.87	1.91	.10	-1.52	.05	.72	
문법_07	5,000	.63	.64	1.91	.08	-.48	.03	.70	
규범_08	5,000	.55	.48	1.27	.05	.09	.03	.71	
규범_09	5,000	.50	.65	1.06	.05	-.75	.04	.72	
규범_10	5,000	.39	.55	.57	.04	-.42	.06	.74	
규범_11	5,000	.38	.46	.53	.04	.31	.06	.74	
규범_12	5,000	.53	.51	1.14	.05	-.06	.03	.72	
규범_13	5,000	.44	.43	.80	.04	.43	.05	.73	

먼저, 고전 검사 이론(CTT)에 따른 문항별 변별도는 0.38~0.63의 범위를 보였다. 2개 문항(규범_10, 규범_11)은 변별도가 ‘있음’(0.3 이상 0.4 미만)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1개 문항의 경우 변별도가 ‘높음’(0.4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문항별 난이도(용이도)는 0.43~0.91의 범위를 보였다. 문항 난이도가 ‘중간’(0.4 이상 0.6 미만)인 문항이 5개(규범_08, 규범_10, 규범_11, 규범_12, 규범_13), ‘쉬움’(0.6 이상 0.8 미만)인 문항이 4개(문법_03, 문법_05, 문법_07, 규범_09), ‘매우 쉬움’(0.8 이상)이 4개(문법_01, 문법_02, 문법_04, 문법_06)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문법 영역에 비해 규범 영역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문항별 변별도는 0.53~1.98의 범위를 보였다. ‘낮음’(0.35 이상 0.65 미만)인 2개 문항(규범_10, 규범_11)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항이 ‘적절함’ 이상의 변별도를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절함’(0.65 이상 1.35 미만)인 문항은 5개(문법_01, 규범_08, 규범_09, 규범_12, 규범_13), ‘높음’(1.35 이상 1.7 미만)인 문항은 2개(문법_02, 문법_03), ‘매우 높음’(1.7 이상)인 문항은 4개(문법_04, 문법_05, 문법_06, 문법_07)였다.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문항 난이도(곤란도)는 -1.86~0.43의 범위를 보였다. 문항 난이도가 ‘쉬움’(-2.0 이상 -0.5 미만)인 문항은 7개(문법_01, 문법_02, 문법_03, 문법_04, 문법_05, 문법_06, 규범_09)로 나타났고, ‘중간’(-0.5 이상 0.5 미만)인 문항은 6개(문법_07, 규범_08, 규범_10, 규범_11, 규범_12, 규범_13)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문법·규범 영역 문항 특성의 분석 결과를 아래의 문항 특성 곡선(ICC)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II -10] 문법·규범 영역 문항별 I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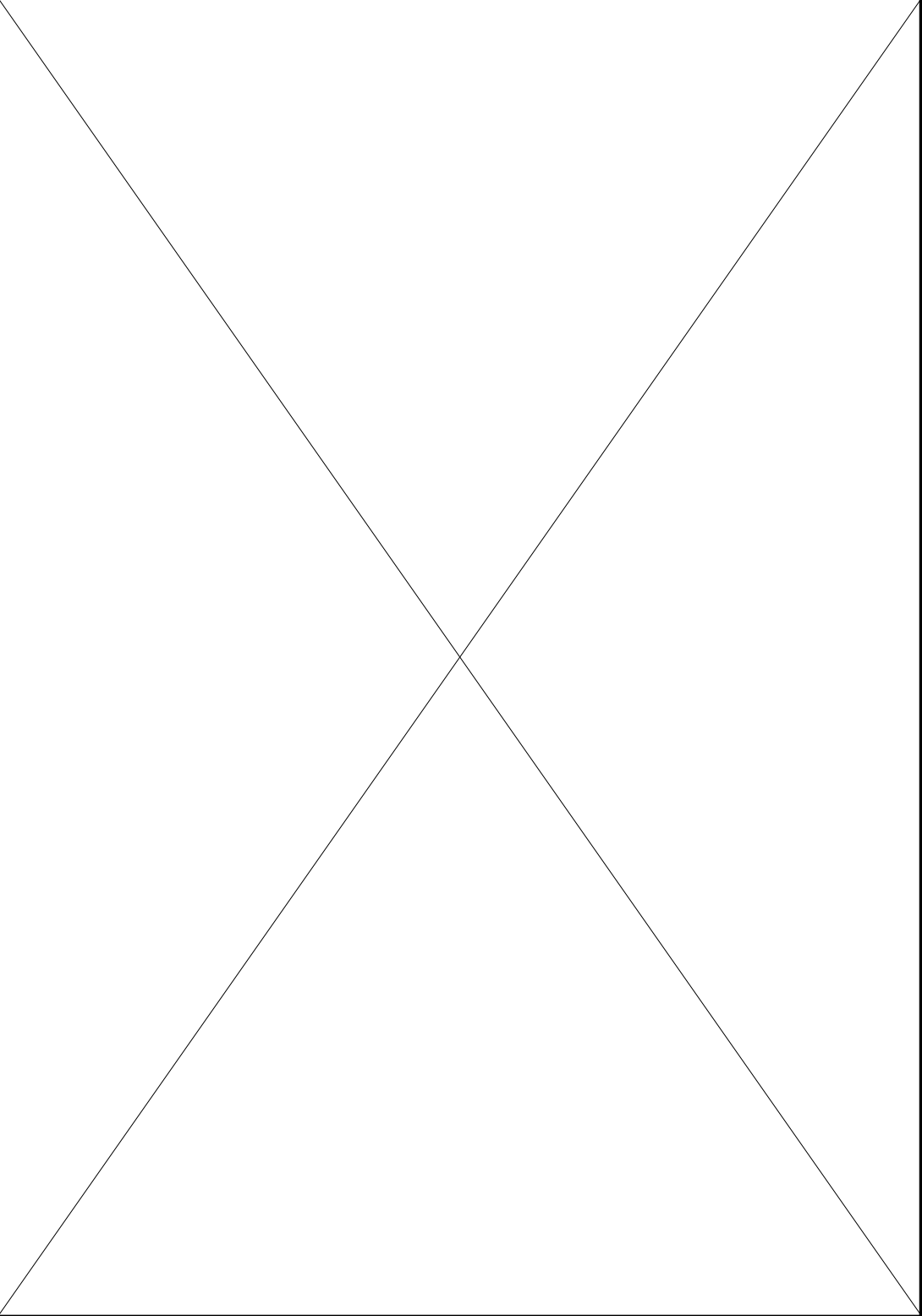
(2) 국어능력 조사 문항(문항 카드)

[읽기 영역]

여기에서는 읽기 영역의 개별 문항별 본조사 분석 결과를 문항 카드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 카드에는 각 문항별 평가 요소, 정답 및 해설, 본조사 결과에 대한 난이도와 변별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고전 검사 이론뿐만 아니라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를 모두 제시하였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3.8%</td><td colspan="2">14.8%</td><td colspan="2">75.0%</td><td colspan="2">6.5%</td></tr></table>										①		②		③		④		3.8%		14.8%		75.0%		6.5%																			
	①		②		③		④																																						
	3.8%		14.8%		75.0%		6.5%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6					난이도(용이도: b): 0.75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17					난이도(곤란도: β): -1.19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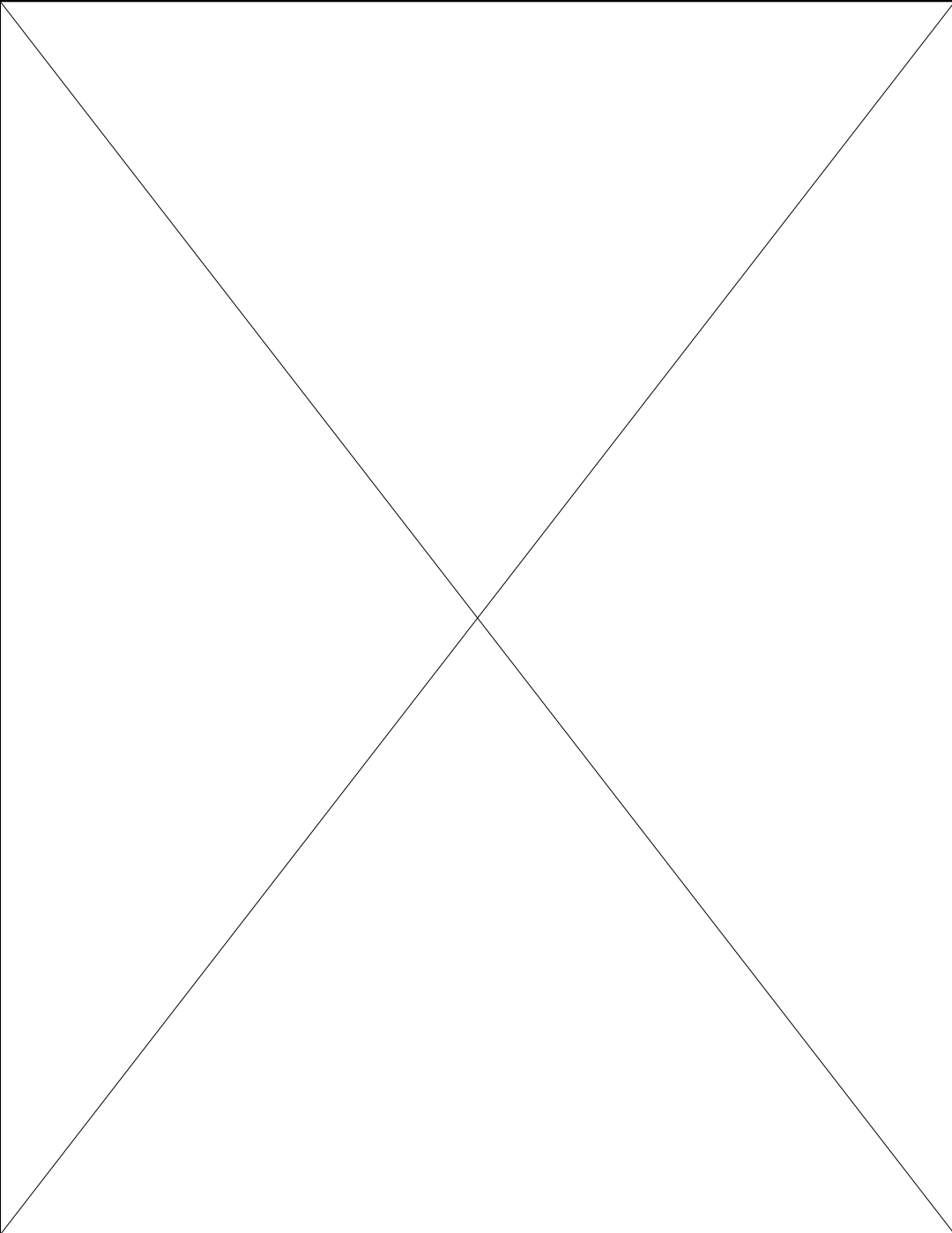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h colspan="2">①</th><th colspan="2">②</th><th colspan="2">③</th><th colspan="2">④</th></tr><tr><td colspan="2">62.6%</td><td colspan="2">15.0%</td><td colspan="2">11.5%</td><td colspan="2">11.0%</td></tr></table>										①		②		③		④		62.6%		15.0%		11.5%		11.0%	
	①		②		③		④																				
	62.6%		15.0%		11.5%		11.0%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5					난이도(용이도: b): 0.63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31					난이도(곤란도: β): -0.53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3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19.9%</td><td colspan="2">27.5%</td><td colspan="2">11.7%</td><td colspan="2">40.9%</td></tr></table>										①		②		③		④		19.9%		27.5%		11.7%		40.9%																								
		①		②		③		④																																										
	19.9%		27.5%		11.7%		40.9%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37					난이도(용이도; b): 0.41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0.71					난이도(곤란도; β): 0.58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4(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4.5%</td><td colspan="2">6.2%</td><td colspan="2">69.6%</td><td colspan="2">19.8%</td></tr></table>					①		②		③		④		4.5%		6.2%		69.6%		19.8%																									
	①		②		③		④																																							
	4.5%		6.2%		69.6%		19.8%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8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7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17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0.9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2.0</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2.0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2.0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5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71.6%</td><td colspan="2">6.6%</td><td colspan="2">12.3%</td><td colspan="2">9.6%</td></tr></table>						①		②		③		④		71.6%		6.6%		12.3%		9.6%																									
	①		②		③		④																																								
	71.6%		6.6%		12.3%		9.6%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8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72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87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0.01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6(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0.2%</td><td>21.3%</td><td>24.2%</td><td>4.4%</td></tr></table>						①	②	③	④	50.2%	21.3%	24.2%	4.4%																																
	①	②	③	④																																											
	50.2%	21.3%	24.2%	4.4%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6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5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02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0.01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7(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인물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9.3%</td><td>6.7%</td><td>8.5%</td><td>75.5%</td></tr></table>	①	②	③	④	9.3%	6.7%	8.5%	75.5%			
①	②	③	④										
9.3%	6.7%	8.5%	75.5%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60					난이도(용이도; b): 0.75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2.09					난이도(곤란도; β): -0.9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8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①	②	③	④
		4.2%	6.0%	12.7%	77.1%

	CTT 분석 결과	변별도(α): 0.48					난이도(용이도: b): 0.77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37					난이도(곤란도: β): -1.19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9(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5"></td></tr><tr><td>①</td><td>②</td><td>③</td><td colspan="2">④</td></tr><tr><td>7.5%</td><td>70.3%</td><td>14.3%</td><td colspan="2">7.9%</td></tr></table>						①	②	③	④		7.5%	70.3%	14.3%	7.9%																																			
	①	②	③	④																																															
7.5%	70.3%	14.3%	7.9%																																																
CTT 분석 결과	<table><tr><td colspan="5">변별도(a): 0.48</td><td colspan="5">난이도(용이도: b): 0.70</td></tr><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변별도(a): 0.48					난이도(용이도: b): 0.7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1	0.2	0.3	0.4	1.0	0.2	0.4	0.6	0.8	1.0
변별도(a): 0.48					난이도(용이도: b): 0.7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1	0.2	0.3	0.4	1.0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1					난이도(곤란도: β): -0.92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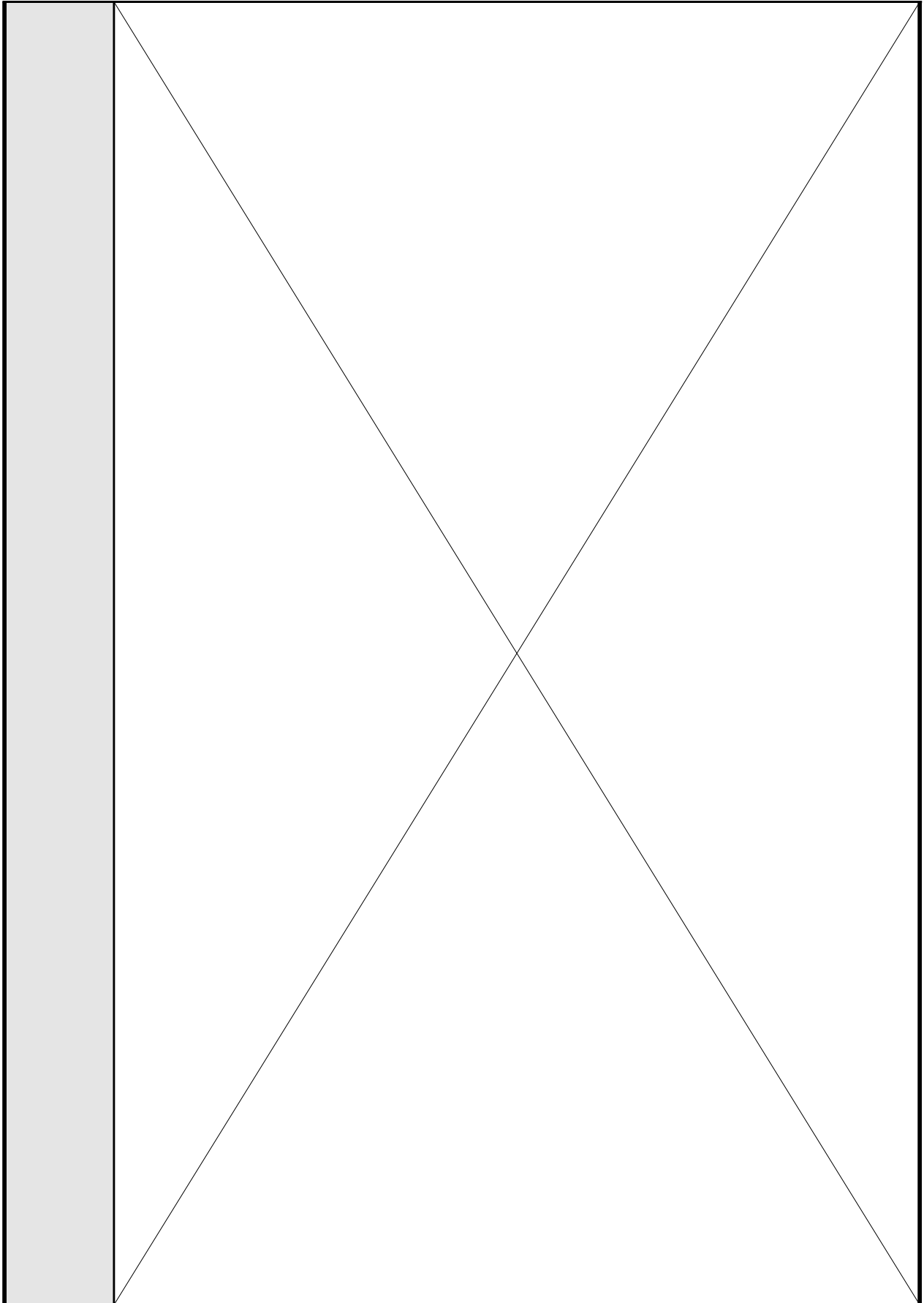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0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생략된 정보 재구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4.7%</td><td>20.8%</td><td>12.6%</td><td>61.8%</td></tr></table>					①	②	③	④	4.7%	20.8%	12.6%	61.8%																												
	①	②	③	④																																						
	4.7%	20.8%	12.6%	61.8%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1			난이도(용이도: b): 0.62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 a <</td><td>≤ a <</td><td>≤ a <</td><td>≤ a <</td><td>≤ a ≤</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 a <	≤ a <	≤ a <	≤ a <	≤ a ≤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 b <</td><td>≤ b <</td><td>≤ b <</td><td>≤ b <</td><td>≤ b ≤</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 b <	≤ b <	≤ b <	≤ b <	≤ b ≤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 a <	≤ a <	≤ a <	≤ a <	≤ a ≤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 b <	≤ b <	≤ b <	≤ b <	≤ b ≤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5					난이도(곤란도: β): -0.5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1(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생략된 정보 재구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8.3%</td><td>11.0%</td><td>8.2%</td><td>22.5%</td></tr></table>									①	②	③	④	58.3%	11.0%	8.2%	22.5%																																
	①	②	③	④																																														
	58.3%	11.0%	8.2%	22.5%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1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58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29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0.35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2(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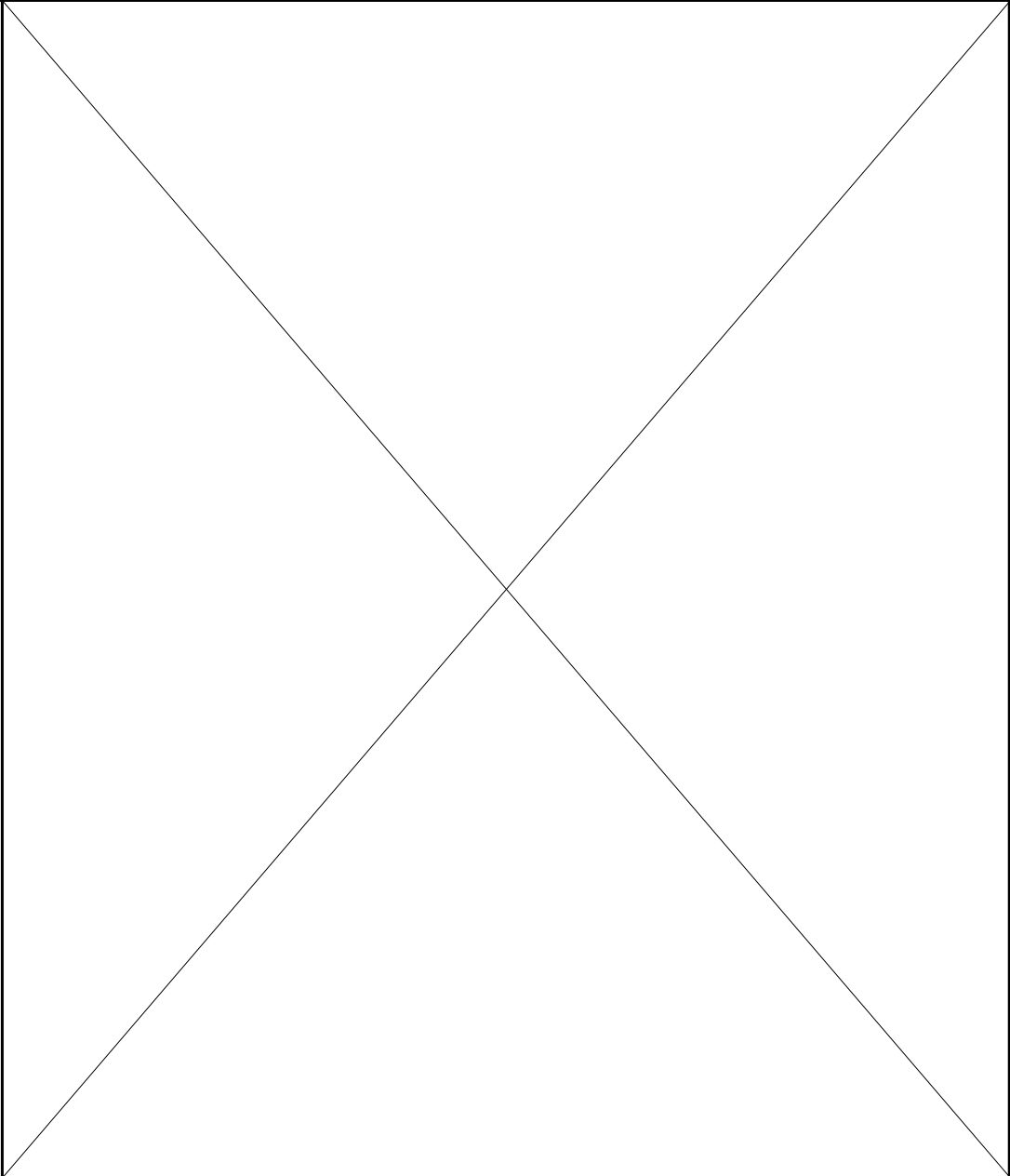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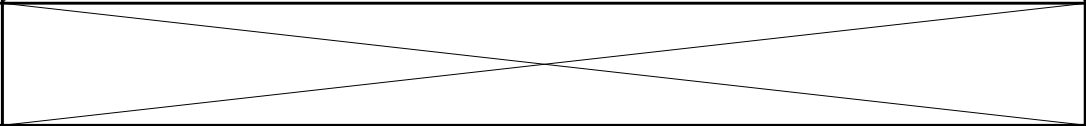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5"></td></tr><tr><td>①</td><td>②</td><td>③</td><td colspan="2">④</td></tr><tr><td>4.3%</td><td>5.2%</td><td>10.8%</td><td colspan="2">79.7%</td></tr></table>						①	②	③	④		4.3%	5.2%	10.8%	79.7%											
	①	②	③	④																							
4.3%	5.2%	10.8%	79.7%																								
본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table><tr><td colspan="5">변별도(a): 0.52</td></tr><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변별도(a): 0.52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변별도(a): 0.52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 colspan="5">난이도(용이도; b): 0.80</td></tr><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난이도(용이도; b): 0.8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난이도(용이도; b): 0.8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62					난이도(곤란도; β): -1.22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2.0	-0.5	0.5	2.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leq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3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9.4%</td><td colspan="2">8.6%</td><td colspan="2">10.4%</td><td colspan="2">71.6%</td></tr></table>									①		②		③		④		9.4%		8.6%		10.4%		71.6%	
	①		②		③		④																			
	9.4%		8.6%		10.4%		71.6%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3					난이도(용이도; b): 0.72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0.98					난이도(곤란도; β): -1.13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4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3.9%</td><td colspan="2">7.9%</td><td colspan="2">71.9%</td><td colspan="2">16.3%</td></tr></table>								①		②		③		④		3.9%		7.9%		71.9%		16.3%																								
	①		②		③		④																																									
	3.9%		7.9%		71.9%		16.3%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8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72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17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1.02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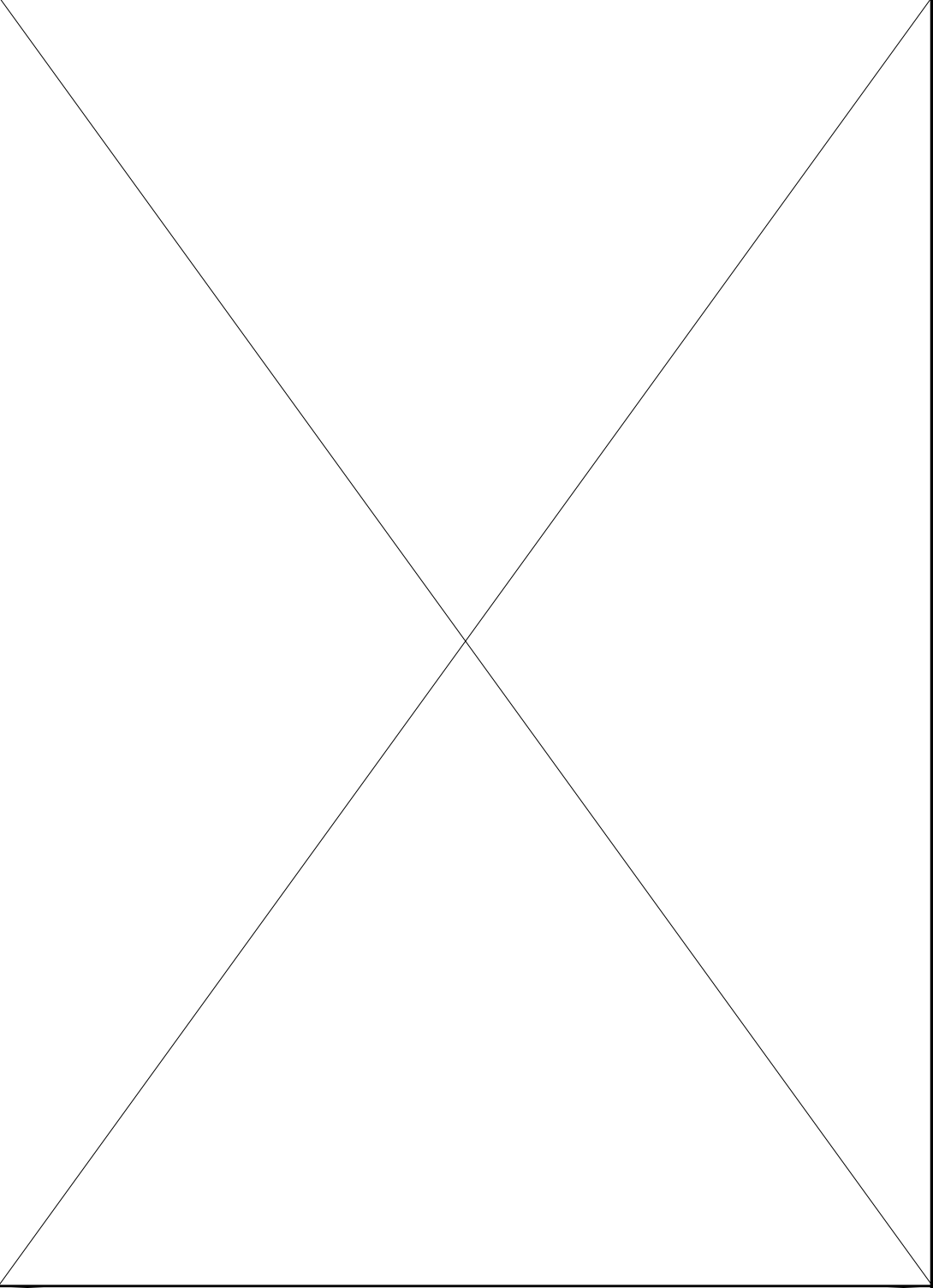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5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7.1%</td><td>19.5%</td><td>62.2%</td><td>11.2%</td></tr></table>				①	②	③	④	7.1%	19.5%	62.2%	11.2%
		①	②	③	④								
7.1%	19.5%	62.2%	11.2%										

	CTT 분석 결과	변별도(α): 0.50	난이도(용이도: b): 0.62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0	난이도(곤란도: β): -0.54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6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6.4%</td><td colspan="2">9.4%</td><td colspan="2">17.8%</td><td colspan="2">66.4%</td></tr></table>										①		②		③		④		6.4%		9.4%		17.8%		66.4%																							
	①		②		③		④																																										
	6.4%		9.4%		17.8%		66.4%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61					난이도(용이도: b): 0.66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82					난이도(곤란도: β): -0.59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7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5.3%</td><td colspan="2">11.4%</td><td colspan="2">12.1%</td><td colspan="2">71.2%</td></tr></table>										①		②		③		④		5.3%		11.4%		12.1%		71.2%																			
		①		②		③		④																																					
	5.3%		11.4%		12.1%		71.2%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1					난이도(용이도; b): 0.71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33					난이도(곤란도; β): -0.9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2.0	-0.5	0.5	2.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8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10.0%</td><td colspan="2">12.7%</td><td colspan="2">59.1%</td><td colspan="2">18.2%</td></tr></table>										①		②		③		④		10.0%		12.7%		59.1%		18.2%	
	①		②		③		④																				
	10.0%		12.7%		59.1%		18.2%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9					난이도(용이도: b): 0.59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12					난이도(곤란도: β): -0.42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9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5.8%</td><td>9.4%</td><td>72.7%</td><td>12.1%</td></tr></table>				①	②	③	④	5.8%	9.4%	72.7%	12.1%
		①	②	③	④								
5.8%	9.4%	72.7%	12.1%										

	CTT 분석 결과	변별도(α): 0.49					난이도(용이도: b): 0.73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3					난이도(곤란도: β): -1.03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0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3.8%</td><td colspan="2">81.4%</td><td colspan="2">7.7%</td><td colspan="2">7.1%</td></tr></table>								①		②		③		④		3.8%		81.4%		7.7%		7.1%																									
	①		②		③		④																																										
	3.8%		81.4%		7.7%		7.1%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5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81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87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 <$</td><td>$\leq \alph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난이도(곤란도: β): -1.22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3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8.8%</td><td>20.3%</td><td>10.2%</td><td>60.7%</td></tr></table>					①	②	③	④	8.8%	20.3%	10.2%	60.7%																												
	①	②	③	④																																						
	8.8%	20.3%	10.2%	60.7%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8			난이도(용이도: b): 0.61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54					난이도(곤란도; β): -0.4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4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70.9%</td><td colspan="2">9.9%</td><td colspan="2">10.6%</td><td colspan="2">8.6%</td></tr></table>									①		②		③		④		70.9%		9.9%		10.6%		8.6%																									
		①		②		③		④																																										
	70.9%		9.9%		10.6%		8.6%																																											
	CTT 분석 결과	변별도(α): 0.60					난이도(용이도; b): 0.71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85					난이도(곤란도; β): -0.76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5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① 7.8%	② 21.2%	③ 19.9%	④ 51.2%

	CTT 분석 결과	변별도(α): 0.42					난이도(용이도: b): 0.51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0.82					난이도(곤란도: β): -0.07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2.0	-0.5	0.5	2.0
		$< a <$ 0.35	$\leq a <$ 0.65	$\leq a <$ 1.35	$\leq a <$ 1.70	$\leq a$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6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8.5%</td><td colspan="2">6.6%</td><td colspan="2">75.5%</td><td colspan="2">9.4%</td></tr></table>								①		②		③		④		8.5%		6.6%		75.5%		9.4%																								
	①		②		③		④																																									
	8.5%		6.6%		75.5%		9.4%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8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난이도(용이도: b): 0.75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1					난이도(곤란도; β): -1.19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7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r><td>69.1%</td><td>8.6%</td><td>8.6%</td><td>13.7%</td></tr></table>				①	②	③	④	69.1%	8.6%	8.6%	13.7%																							
①	②	③	④																																
69.1%	8.6%	8.6%	13.7%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5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 0.1</td><td>$\leq a <$ 0.2</td><td>$\leq a <$ 0.3</td><td>$\leq a <$ 0.4</td><td>$\leq a \leq$ 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난이도(용이도; b): 0.69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 0.2</td><td>$\leq b <$ 0.4</td><td>$\leq b <$ 0.6</td><td>$\leq b <$ 0.8</td><td>$\leq b \leq$ 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48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 0.35</td><td>$\leq \alpha <$ 0.65</td><td>$\leq \alpha <$ 1.35</td><td>$\leq \alpha <$ 1.70</td><td>$\leq \alpha$</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난이도(곤란도; β): -0.77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 -2.0</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leq \beta <$ -2.0</td><td>$\leq \beta <$ -0.5</td><td>$\leq \beta <$ 0.5</td><td>$\leq \beta <$ 2.0</td><td>$\leq \beta$</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0.5	0.5	2.0	$\leq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0.5	0.5	2.0																															
$\leq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8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①	②	③	④
		4.7%	66.8%	24.3%	4.2%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8					난이도(용이도: b): 0.67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15					난이도(곤란도: β): -0.78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2.0	-0.5	0.5	2.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9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12.6%</td><td colspan="2">40.1%</td><td colspan="2">27.6%</td><td colspan="2">19.8%</td></tr></table>										①		②		③		④		12.6%		40.1%		27.6%		19.8%	
	①		②		③		④																				
	12.6%		40.1%		27.6%		19.8%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37					난이도(용이도; b): 0.4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0.74					난이도(곤란도; β): 0.6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0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63.6%</td><td colspan="2">13.6%</td><td colspan="2">14.8%</td><td colspan="2">8.0%</td></tr></table>									①		②		③		④		63.6%		13.6%		14.8%		8.0%															
	①		②		③		④																																	
	63.6%		13.6%		14.8%		8.0%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4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 0.1</td><td>$\leq a <$ 0.2</td><td>$\leq a <$ 0.3</td><td>$\leq a <$ 0.4</td><td>$\leq a \leq$ 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난이도(용이도; b): 0.64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 0.2</td><td>$\leq b <$ 0.4</td><td>$\leq b <$ 0.6</td><td>$\leq b <$ 0.8</td><td>$\leq b \leq$ 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37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lpha <$ 0.35</td><td>$\leq \alpha <$ 0.65</td><td>$\leq \alpha <$ 1.35</td><td>$\leq \alpha <$ 1.70</td><td>$\leq \alpha$</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난이도(곤란도; β): -0.56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 -2.0</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leq \beta <$ -2.0</td><td>$\leq \beta <$ -0.5</td><td>$\leq \beta <$ 0.5</td><td>$\leq \beta <$ 2.0</td><td>$\leq \beta$</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0.5	0.5	2.0	$\leq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lpha <$ 0.35	$\leq \alpha <$ 0.65	$\leq \alpha <$ 1.35	$\leq \alpha <$ 1.70	$\leq \alpha$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0.5	0.5	2.0																																				
$\leq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leq \beta$																																				

[문법·규범 영역]

여기에서는 문법·규범 영역의 개별 문항별 본조사 분석 결과를 문항 카드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 카드에는 각 문항별 평가 요소, 정답 및 해설, 본조사 결과에 대한 난이도와 변별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고전 검사 이론뿐만 아니라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를 모두 제시하였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양태)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 colspan="2">② (정답)</td><td>③</td><td colspan="2">④</td></tr><tr><td>4.1%</td><td colspan="2">84.7%</td><td>7.0%</td><td colspan="2">4.2%</td></tr></table>							①	② (정답)		③	④		4.1%	84.7%		7.0%	4.2%	
		①	② (정답)		③	④														
	4.1%	84.7%		7.0%	4.2%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4				난이도(용이도; b): 0.85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0.1$		$\leq a < 0.2$	$\leq a < 0.3$	$\leq a < 0.4$	$\leq a \leq 1.0$	$\leq b < 0.2$	$\leq b < 0.4$	$\leq b < 0.6$	$\leq b <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9				난이도(곤란도; β): -1.7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문장 성분의 호응)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①	②	③ (정답)	④	
							3.3%	7.7%	86.3%	2.7%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6					난이도(용이도; b): 0.86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1	0.2	0.3	0.4	1.0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52					난이도(곤란도; β): -1.66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0.5	0.5	2.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35	0.65	1.35	1.70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담화 - 의미와 용법(지시)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 (정답)</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69.3%</td><td colspan="2">16.3%</td><td colspan="2">9.5%</td><td colspan="2">5.0%</td></tr></table>							① (정답)		②		③		④		69.3%		16.3%		9.5%		5.0%	
	① (정답)		②		③		④																	
	69.3%		16.3%		9.5%		5.0%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8					난이도(용이도; b): 0.69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64					난이도(곤란도; β): -0.74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4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어휘 - 의미와 용법(한자어)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 (정답)</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2.2%</td><td colspan="2">2.9%</td><td colspan="2">91.2%</td><td colspan="2">3.7%</td></tr></table>							①		②		③ (정답)		④		2.2%		2.9%		91.2%		3.7%	
	①		②		③ (정답)		④																	
	2.2%		2.9%		91.2%		3.7%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4					난이도(용이도; b): 0.91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84					난이도(곤란도; β): -1.86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5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어휘 - 의미와 용법(관용 표현)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 (정답)</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74.0%</td><td colspan="2">10.3%</td><td colspan="2">10.2%</td><td colspan="2">5.5%</td></tr></table>						① (정답)		②		③		④		74.0%		10.3%		10.2%		5.5%	
	① (정답)		②		③		④																
	74.0%		10.3%		10.2%		5.5%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61					난이도(용이도; b): 0.74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98					난이도(곤란도; β): -0.86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6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조사와 어미)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①		② (정답)		③		④			
		2.8%		86.8%		7.0%		3.4%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0					난이도(용이도; b): 0.87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1	0.2	0.3	0.4	1.0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91					난이도(곤란도; β): -1.52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0.35	0.65	1.35	1.70	$\beta <$	-2.0	-0.5	0.5	2.0	
	$<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	$\leq \alpha$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35	0.65	1.35	1.70			-0.5	0.5	2.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7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담화 - 의미와 용법(담화 표지)															
정답	④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td><td>③</td><td>④ (정답)</td></tr><tr><td>9.7%</td><td>14.7%</td><td>11.9%</td><td>63.7%</td></tr></table>							①	②	③	④ (정답)	9.7%	14.7%	11.9%	63.7%
	①	②	③	④ (정답)												
	9.7%	14.7%	11.9%	63.7%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63				난이도(용이도; b): 0.64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1.91				난이도(곤란도; β): -0.48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 <$ 0.35	0.35 $\leq a <$ 0.65	0.65 $\leq a <$ 1.35	1.35 $\leq a <$ 1.70	1.70 $\leq 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8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발음과 표기)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 (정답)</td></tr><tr><td colspan="2">12.4%</td><td colspan="2">14.9%</td><td colspan="2">25.0%</td><td colspan="2">47.6%</td></tr></table>							①		②		③		④ (정답)		12.4%		14.9%		25.0%		47.6%	
	①		②		③		④ (정답)																	
	12.4%		14.9%		25.0%		47.6%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5					난이도(용이도; b): 0.48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27					난이도(곤란도; β): 0.09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9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형태와 표기)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 (정답)</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13.1%</td><td colspan="2">13.1%</td><td colspan="2">65.4%</td><td colspan="2">8.3%</td></tr></table>							①		②		③ (정답)		④		13.1%		13.1%		65.4%		8.3%	
	①		②		③ (정답)		④																	
	13.1%		13.1%		65.4%		8.3%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0					난이도(용이도; b): 0.65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06					난이도(곤란도; β): -0.75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0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형태와 표기)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 (정답)</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8.9%</td><td colspan="2">55.5%</td><td colspan="2">31.1%</td><td colspan="2">4.5%</td></tr></table>										①		② (정답)		③		④		8.9%		55.5%		31.1%		4.5%	
	①		② (정답)		③		④																				
	8.9%		55.5%		31.1%		4.5%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39					난이도(용이도; b): 0.55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0.57					난이도(곤란도; β): -0.42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1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표준어 규정 - 표준어(복수 표준어)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①</td><td>② (정답)</td><td>③</td><td>④</td></tr><tr><td>18.1%</td><td>46.1%</td><td>16.6%</td><td>19.2%</td></tr></table>						①	② (정답)	③	④	18.1%	46.1%	16.6%	19.2%
	①	② (정답)	③	④											
	18.1%	46.1%	16.6%	19.2%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38				난이도(용이도; b): 0.46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1	0.2	0.3	0.4	0.0	0.2	0.4	0.6	0.8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1	0.2	0.3	0.4	1.0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0.53					난이도(곤란도; β): 0.31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2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표준 발음)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 (정답)</td></tr><tr><td colspan="2">5.5%</td><td colspan="2">21.0%</td><td colspan="2">22.5%</td><td colspan="2">51.1%</td></tr></table>							①		②		③		④ (정답)		5.5%		21.0%		22.5%		51.1%	
	①		②		③		④ (정답)																	
	5.5%		21.0%		22.5%		51.1%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3					난이도(용이도; b): 0.51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α): 1.14					난이도(곤란도; β): -0.06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0.00 $< \alpha <$ 0.35	0.35 $\leq \alpha <$ 0.65	0.65 $\leq \alpha <$ 1.35	1.35 $\leq \alpha <$ 1.70	1.70 $\leq \alpha$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3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외래어 표기법(표기 세칙 적용)																																																		
정답																																																			
해설																																																			
본조사 결과	선지 반응 분포	<table><tr><td colspan="2">① (정답)</td><td colspan="2">②</td><td colspan="2">③</td><td colspan="2">④</td></tr><tr><td colspan="2">42.5%</td><td colspan="2">14.1%</td><td colspan="2">14.0%</td><td colspan="2">29.4%</td></tr></table>							① (정답)		②		③		④		42.5%		14.1%		14.0%		29.4%																												
		① (정답)		②		③		④																																											
	42.5%		14.1%		14.0%		29.4%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44					난이도(용이도; b): 0.43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변별도(a): 0.80					난이도(곤란도; β): 0.43																																													
	<table><tr><td>거의 없음</td><td>낮음</td><td>적절함</td><td>높음</td><td>매우 높음</td></tr><tr><td>0.00</td><td>0.35</td><td>0.65</td><td>1.35</td><td>1.70</td></tr><tr><td>$<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td></tr><tr><td>0.35</td><td>0.65</td><td>1.35</td><td>1.70</td><td></td></tr></table>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td><td>-2.0</td><td>-0.5</td><td>0.5</td><td>2.0</td></tr><tr><td>-2.0</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 <$</td><td>$\leq \beta$</td></tr><tr><td></td><td>-0.5</td><td>0.5</td><td>2.0</td><td></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거의 없음	낮음	적절함	높음	매우 높음																																														
0.00	0.35	0.65	1.35	1.70																																															
$<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0.35	0.65	1.35	1.70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0.5	0.5	2.0																																															
-2.0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	$\leq \beta$																																															
	-0.5	0.5	2.0																																																

(3) 배경 변인에 따른 영역별 국어능력의 차이 분석

본 항에서는 배경 변인에 따른 국민의 국어능력의 차이 분석 결과를 다룬다. 각 하위 영역별로 배경 변인에 따른 능력 수준의 차이를, 문항 반응 이론 분석에 따라 추정된 ‘능력 점수(T점수)’에 대한 차이 검정과 ‘수준 등급’(1~4수준)별 인원 비율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속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함은 물론, 국민의 국어능력 추이에 대해 준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거 참조 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에 기반한 4수준(4 scales)의 성취수준 등급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⁶⁾ 본 연구의 원년 연구에 해당하는 2013년 조사에서는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의 경우 등급 구간이 세분화될수록 타당도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수-보통-기초-기초 미달’의 네 수준으로 등급을 설정하였고, 2018년 조사에서는 원년 연구의 설정 방식을 준용하되 용어를 바꾸어, ‘4수준-3수준-2수준-1수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2013년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이어질 차기 조사 결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준거 기반 평가로서 등급화 방식을 계속해서 준용하고 있다.⁷⁾ 본 연구에서 설정한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은 <표 II-36>과 같다.

<표 II-36> 본 연구에서 상정한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

등급	국어능력의 수준
4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
3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상당 부분 (50% 이상 80% 미만) 획득한 수준
2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부분적으로 (20% 이상 50% 미만) 획득한 수준
1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을 미흡하게 (20% 미만) 획득한 수준

6) 이를 위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둘 이상의 범주와 집단으로 분류하는 준거에 해당하는 평가 척도상의 점수인 분할 점수 (cut-off score)를 설정하여 절대적인 능력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할 점수는 추상적인 준거를 가시적인 수치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각 수준의 최소 능력 보유자가 지닌 능력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211).

7) 이는 대규모 능력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PIAAC의 경우, 도달 정도에 따라 ‘1수준 이하(최저)-1수준-2수준-3수준-4수준-5수준(최상)’의 6수준으로 분할하며, PISA의 경우 ‘1b 수준-1a 수준-2수준-3수준-4수준-5수준-6수준’의 7수준으로 분할하며, 미국의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전미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기본(Basic)-숙달(Proficient)-우수(Advanced)’의 3수준으로 분할하고, 국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기초 미달-기초-보통-우수’의 4수준으로 분할한다.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의 조사 결과, 이분 문항 반응 모형의 일종인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추정된 능력 점수(T점수)와 2018년 분석 결과와의 동등화를 통해 판정한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의 분석 대상 5,000명의 능력 점수(T점수) 평균은 49.53점(100점 만점), 표준편차는 9.10이었고, 최솟값 25.20점, 최댓값 67.33점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 읽기 영역의 능력 점수(T점수) 요약

영역	N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읽기	5,000	100	49.53	9.10	25.20	67.33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는 1수준이 513명(10.3%), 2수준이 1,353명(27.1%), 3수준이 2,000명(40.0%), 4수준이 1,134명(22.7%)으로 나타났다.

<표 II-38>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

수준	2024년	
	인원(명)	비율(%)
4수준	1,134	22.7
3수준	2,000	40.0
2수준	1,353	27.1
1수준	513	10.3
계	5,000	100.0

읽기 영역에서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 대학 전공, 월간 독서량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남성(49.55)이 여성(49.50)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p=.86$).

<표 II-39>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성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t-검정 결과		
	남성		여성				
	평균	SE	평균	SE	<i>t</i>	<i>df</i>	<i>p</i>
성별	49.55	9.16	49.50	9.03	-.18	4,998	.86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20대(51.19), 30대(50.75), 40대(49.88), 50대(48.97), 60대(47.4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성이 보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간 차이를 제외한 모든 대응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0>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연령대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연령대	51.19	9.46	50.75	9.41	49.88	9.12	48.97	8.62	47.44	8.56	26.62	4	4,995	<.001

다음으로,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중소 도시(49.72), 대도시(49.56), 읍면 지역(48.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p = .12$).

<표 II -41>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지역 규모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지역 규모	49.56	9.19	49.72	9.29	48.95	8.29	2.10	2	4,997	.12

직업군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정신노동(51.18), 기타(49.08), 육체노동(48.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노동과 기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2>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직업군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직업군	51.18	9.42	48.63	8.62	49.08	9.19	37.16	2	4,997	<.001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대재 이상(51.04), 고졸(48.15), 고졸 미만(45.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모든 대응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3>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학력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고졸 미만		고졸		대재 이상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학력	45.33	7.91	48.15	8.58	51.04	9.24	112.43	2	4,997	<.001

(대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에 한하여) 대학 전공⁸⁾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자연계(51.40), 인문계(51.25), 교육/예체능/기타(48.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alpha<.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인문계와 교육/예체능/기타, 자연계와 교육/예체능/기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4>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대학 전공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인문계		자연계		교육/예체능/기타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대학 전공	51.25	9.16	51.40	9.12	48.84	9.70	9.97	2	2,821	<.001

끝으로, 월간 독서량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7권 이상’(57.26), ‘1~2권’(50.89), ‘3~4권’(50.32), ‘전혀 읽지 않음’(48.66), ‘5~6권’(44.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alpha<.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전혀 읽지 않음과 5~6권을 제외한 모든 대응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5>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월간 독서량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전혀 읽지 않음		1~2권		3~4권		5~6권		7권 이상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월간 독서량	48.66	8.95	50.89	8.91	50.32	10.13	44.86	10.54	57.26	8.55	22.79	4	4,995	<.001

[문법·규범 영역]

문법·규범 영역의 조사 결과, 이분 문항 반응 모형의 일종인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추정된 능력 점수(T점수)와 동등화를 통해 판정한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규범 영역의 분석 대상 5,000명의 능력 점수(T점수) 평균은 50점(100점 만점), 표준편차는 8.59였고, 최솟값 25.13점, 최댓값 64.35점의 범위를 나타냈다.

8)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문지에서 최종 전공을 ‘어문 계열’, ‘인문 계열(어문 계열 제외)’, ‘상경 계열’, ‘사회 계열’, ‘법정 계열’이라고 응답한 이들을 ‘인문계’로, ‘의학/약학 계열’, ‘이공 계열’, ‘자연 계열’이라고 응답한 이들을 ‘자연계’로, ‘사범/교육 계열’, ‘예술/체능 계열’, ‘기타’라고 응답한 이들을 ‘교육/예체능/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II -46> 문법·규범 영역의 능력 점수(T점수) 요약

영역	N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법·규범	5,000	100	50	8.59	25.13	64.35

문법·규범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는 1수준이 756명(15.1%), 2수준이 1,330명(26.6%), 3수준이 1,500명(30.0%), 4수준이 1,414명(28.3%)으로 확인된다.

<표 II -47> 문법·규범 영역의 수준 등급별 인원 분포

수준	2024년	
	인원(명)	비율(%)
4수준	1,414	28.3
3수준	1,500	30.0
2수준	1,330	26.6
1수준	756	15.1
계	5,000	100.0

문법·규범 영역에서의 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 대학 전공, 월간 독서량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남성(50.06)이 여성(49.94)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p=.63$).

<표 II -48>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성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t-검정 결과		
	남성		여성				
	평균	SE	평균	SE	<i>t</i>	<i>df</i>	<i>p</i>
성별	50.06	8.54	49.94	8.65	.48	4,998	.63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20대(51.34), 30대(50.95), 40대(50.65), 50대(49.47), 60대(48.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alpha<.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20대와 30대, 20대와 40대, 30대와 40대 간 차이를 제외한 모든 대응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49>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연령대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F	df1	df2	p
연령대	51.34	8.66	50.95	8.88	50.65	8.56	49.47	8.24	48.07	8.35	23.94	4	4,995	<.001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중소 도시(50.55), 대도시(49.78), 읍면 지역(49.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대도시와 중소 도시, 중소 도시와 읍면 지역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 -50>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지역 규모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지역 규모	49.78	8.50	50.55	8.94	49.21	7.86	8.27	2	4,997	<.001

직업군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정신노동(51.49), 기타(49.57), 육체노동(49.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노동과 기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51>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직업군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정신노동		육체노동		기타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직업군	51.49	8.53	49.21	8.35	49.57	8.81	33.41	2	4,997	<.001

학력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대재 이상(51.47), 고졸(48.56), 고졸 미만(46.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모든 대응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52>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학력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고졸 미만		고졸		대재 이상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학력	46.34	8.43	48.56	8.23	51.47	8.51	111.98	2	4,997	<.001

(대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에 한하여) 대학 전공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자연계(51.74), 인문계(51.64), 교육/예체능/기타(49.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인문계와 교육/예체능/기타, 자연계와 교육/예체능/기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53>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대학 전공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인문계		자연계		교육/예체능/기타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대학 전공	51.64	8.56	51.74	8.14	49.76	9.31	7.03	2	2,821	<.001

끝으로, 월간 독서량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가 ‘7권 이상’(53.48), ‘1~2권’(51.02), ‘3~4권’(50.61), ‘5~6권’(45.68), ‘전혀 읽지 않음’(49.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alpha < .05$ 수준에서의 대응별 차이 검정(bonferroni) 결과, ‘전혀 읽지 않음’과 ‘1~2권’, ‘1~2권’과 ‘5~6권’, ‘3~4권’과 ‘5~6권’, ‘5~6권’과 ‘7권 이상’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54>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월간 독서량별 차이

배경 변인	능력 점수(T점수)										F-검정 결과			
	전혀 읽지 않음		1~2권		3~4권		5~6권		7권 이상		F	df1	df2	p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월간 독서량	49.37	8.60	51.02	8.31	50.61	9.13	45.68	11.41	53.48	6.51	13.34	4	4,995	<.001

(4) 국민의 국어 활동 실태 및 인식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에 비해 배경 변인에 대한 설문 항목을 늘려, 국어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식 환경 및 문식 자원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국어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큰 다양한 국어 활동의 실태 요인과 국어능력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기술 통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어 활동 실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 요인과 학습 요구 분석

- ① 한 달 평균 독서량
- ② 다양한 유형의 매체 사용 빈도
- ③ 직무 내외에서의 인터넷 이용 빈도
- ④ 국어 관련 활동 참여도(관련 하위 영역)
- ⑤ 국어능력의 신장에 필요한 분야

나. 읽기 능력 관련 요인 분석

- ⑥ 인쇄 자료 읽기 빈도
- ⑦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 ⑧ 독서에 대한 가치관(중요성)
- ⑨ 읽기 능력 자가 진단

- ⑩ 1회 읽기 분량
- ⑪ 하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 ⑫ 매체 선호 유형
- ⑬ 독서 문화 경험

다. 문법·규범 관련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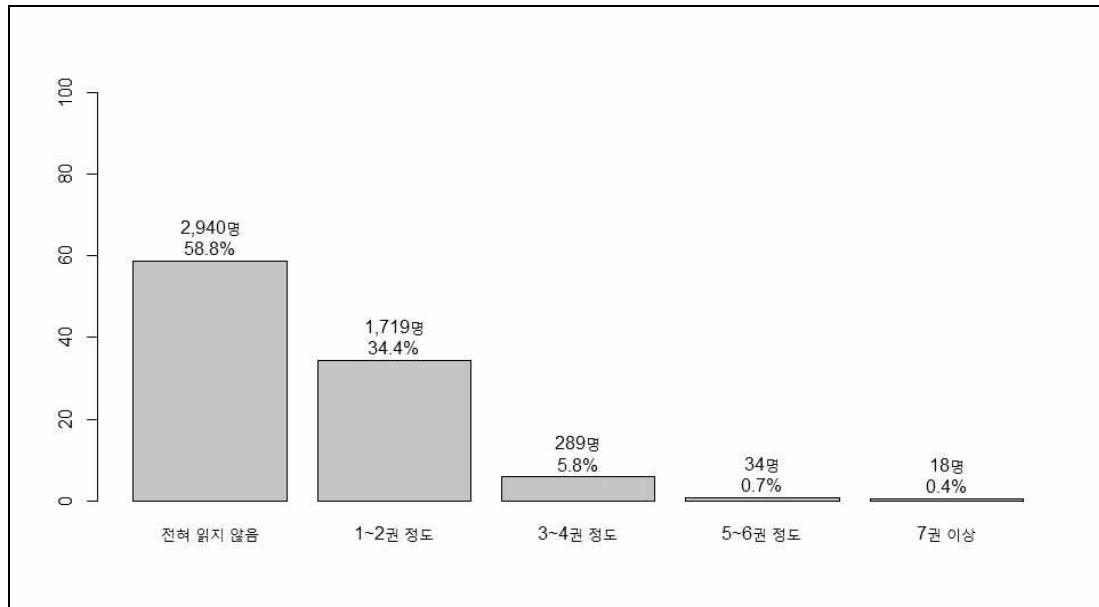
- ⑭ 어문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관련된 정보 탐색 빈도
- ⑮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온라인 가나다’ 서비스 이용 빈도

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 요인과 학습 요구 분석

① 평균 독서량

한 달 평균 독서량을 조사한 의도는 우선적으로는 책 읽기 빈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읽기 환경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또는 개인의 읽기 노력이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전혀 읽지 않음’, ‘1~2권 정도’, ‘3~4권 정도’, ‘5~6권 정도’, ‘7권 이상’의 5등급으로 설정된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 달에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58.8%, 한 달에 책을 1~2권 정도 읽는다는 응답이 34.4%, 한 달에 책을 3~4권 정도 읽는다는 응답이 5.8%, 한 달에 책을 5~6권 정도 읽는다는 응답이 0.7%, 한 달에 책을 7권 이상 읽는다는 응답이 0.4%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인 90% 이상(93.2%)이 한 달에 책을 2권 이하로 읽으며, 무엇보다도 약 60% 정도가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혀 읽지 않는다고 반응한 경우, 일 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묻는다고 해도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월간 독서량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독서량과 국어능력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와 관련지을 때, 읽기와 같은 문식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성인의 문해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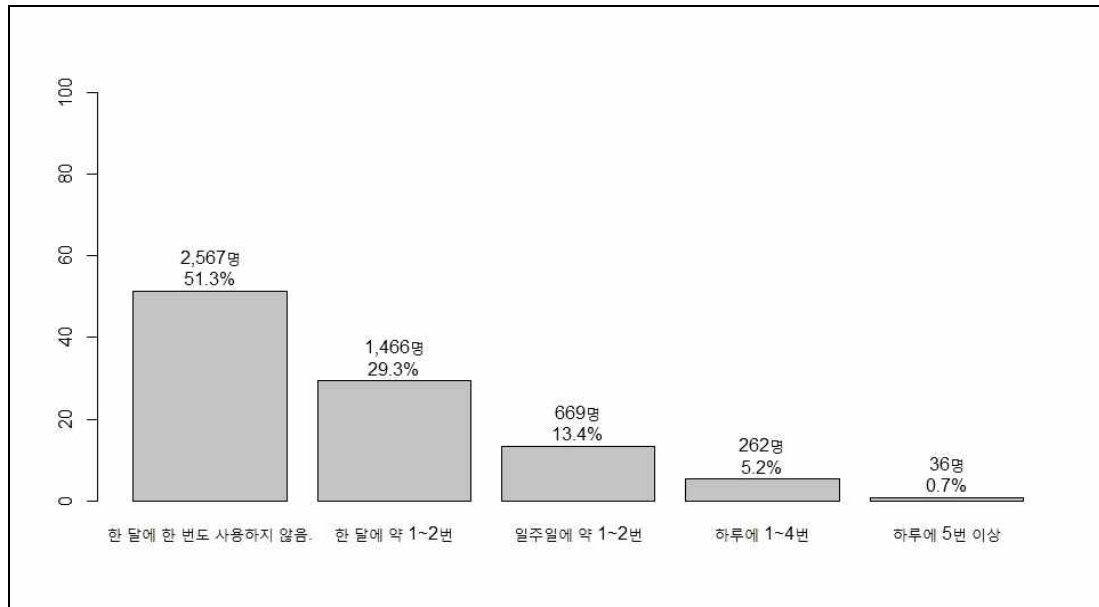
[그림 II-11] 한 달 평균 독서량

② 유형별 매체 사용 빈도

매체 사용 빈도를 조사한 의도는 현재 변화된 문식 환경을 비판적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읽기의 대상이 되는 매체가 종이책 기반 자료에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자료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자 혹은 정책입안자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체를 ‘종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포털(검색용)’,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게임, 웹툰, 웹소설’의 7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한 응답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일주일에 약 1~2번)’, ‘어느 정도 사용한다.(하루에 1~4번)’, ‘매우 자주 사용한다.(하루에 5번 이상)’의 5등급으로 설정된 척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매체 사용 유형에 따른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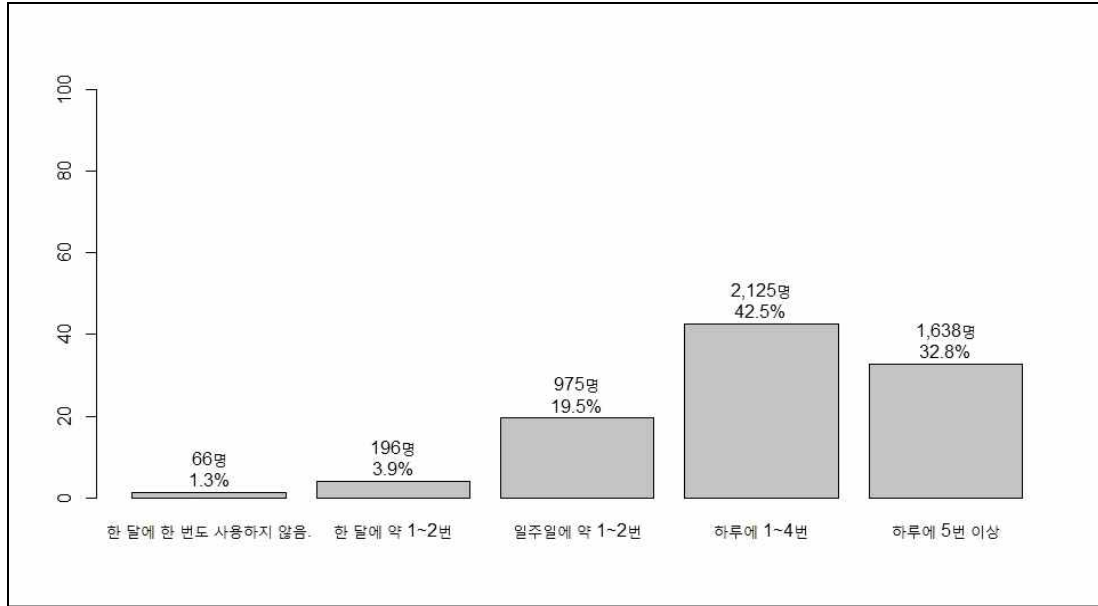
첫째, ‘종이 신문, 잡지’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3%,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9.3%,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3.4%,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5.2%, 하루에 5번⁹⁾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0.7%로 나타나, 대다수인 80% 이상이 종이 신문과 잡지를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응답자가 만 20세~69세의 성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종이로 된 정보 매체(paper based media)를 전혀 다루지 않으며, 성인의 80% 이상 대부분이 종이 신문과 잡지를 한 달에 한두 번 보거나 전혀 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끔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하루에 5번 이상’이라는 항목의 경우, ‘하루에 1~4번 정도’와 선택지 간 차이가 작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그 이상’, 즉 ‘매우 많음~매우 자주’를 나타낸 것이다. 7가지 매체 유형마다 응답 선택지를 다르게 기술하게 되면, 설문지 응답을 판단하는 데에 더 많은 인지적 부담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응답 선택지의 유형을 ‘1회 이상~여러 번’과 ‘일정 횟수 그 이상’으로 통일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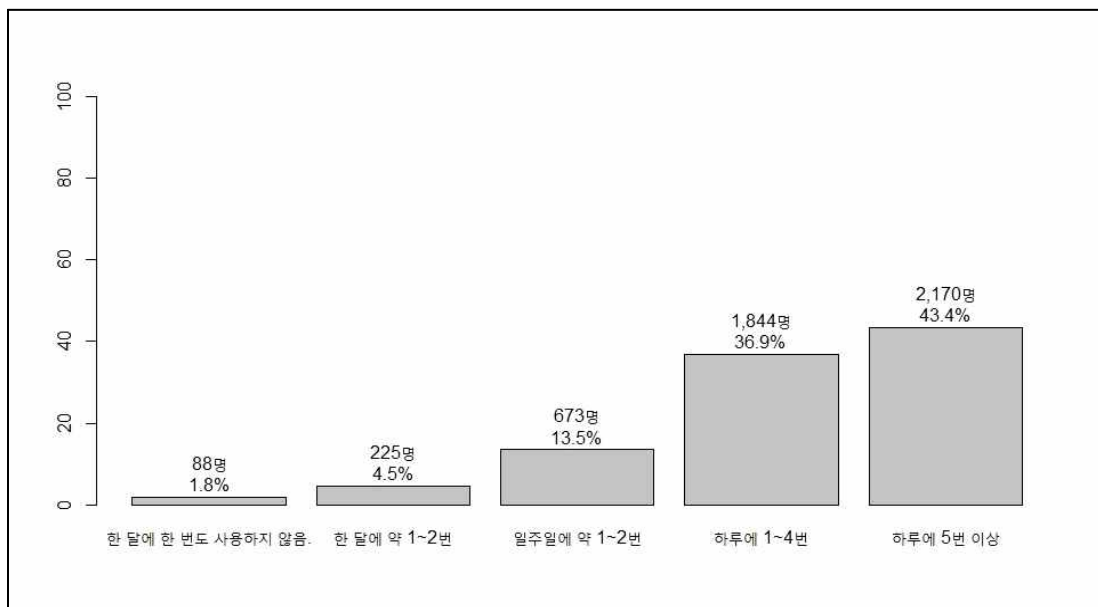
[그림 II-12] 매체 사용 빈도(종이 신문, 잡지)

둘째, ‘텔레비전, 라디오’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3.9%,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9.5%,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42.5%,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5%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하루에 1~4번 이상으로 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연령이 만 20세~69세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구세대 미디어(old media)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일방향성으로 송출되는 대중 매체의 사용 빈도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앞선 조사와 관련짓는다면, 인쇄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를 접하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시청각 양식의 대중매체는 성인(70%)에게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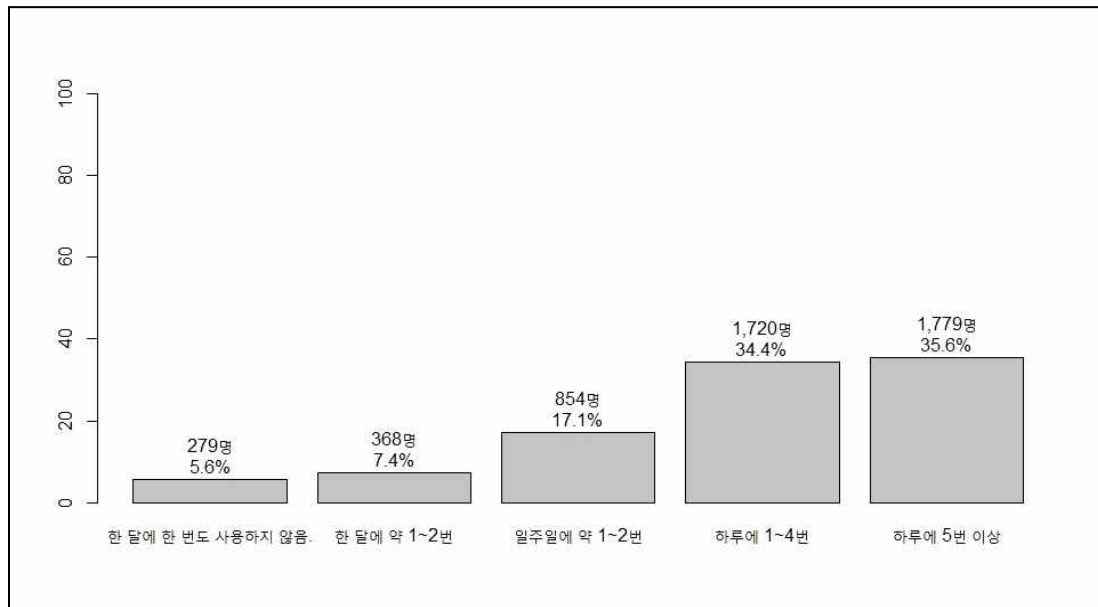
[그림 II-13] 매체 사용 빈도(텔레비전, 라디오)

셋째, ‘인터넷 포털(검색용)’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직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4.5%,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3.5%,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36.9%,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하루에 1~4번과 그 이상으로 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항목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앞서 살펴본 ‘한 달에 책을 거의 읽지 않는 비율’만큼 ‘인터넷 포털 사용’ 빈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4] 매체 사용 빈도(인터넷 포털(검색용))

넷째,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¹⁰⁾’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7.4%,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7.1%,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34.4%,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나, 응답자의 70%가 누리소통망(SNS)과 메신저 서비스를 하루에 1~4번과 그 이상으로 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인터넷 포털 검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사용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높은 빈도로 매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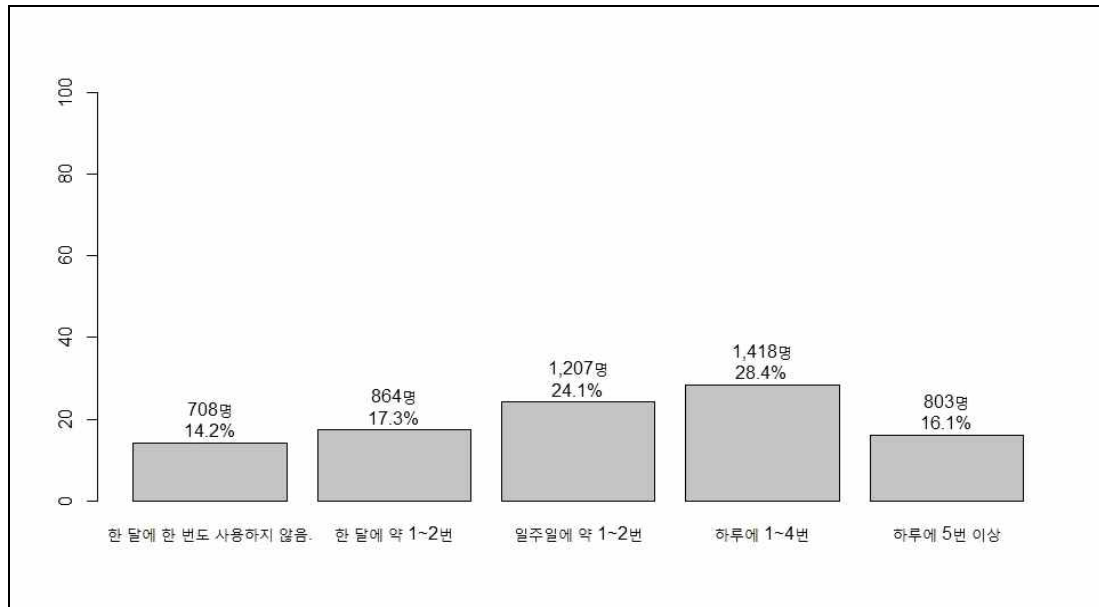


[그림 II -15] 매체 사용 빈도(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2%,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7.3%,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4.1%,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8.4%,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16.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45%가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를 하루에 1~4번과 그 이상으로 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2가지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터넷 포털 검색’이나 ‘누리소통망이나 메신저 서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 문자로 대화하는 것처럼 비교적 쉽고 가벼운 목적의 매체 사용과 달리, 소속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커뮤니티(일명 ‘커뮤’) 활동이나 구체적인 공동체 형성 또는 대인 관계를 염두에 둔 글쓰기와 글 읽기 목적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은 좀 더 인지적 부담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보다 활발한 사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0) 누리소통망이나 메신저 서비스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가리키나 특정 상표 노출로 인해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응답자 중 높은 연령대에 따라서는 설문지 용어가 낯설어서 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추이는 향후 심층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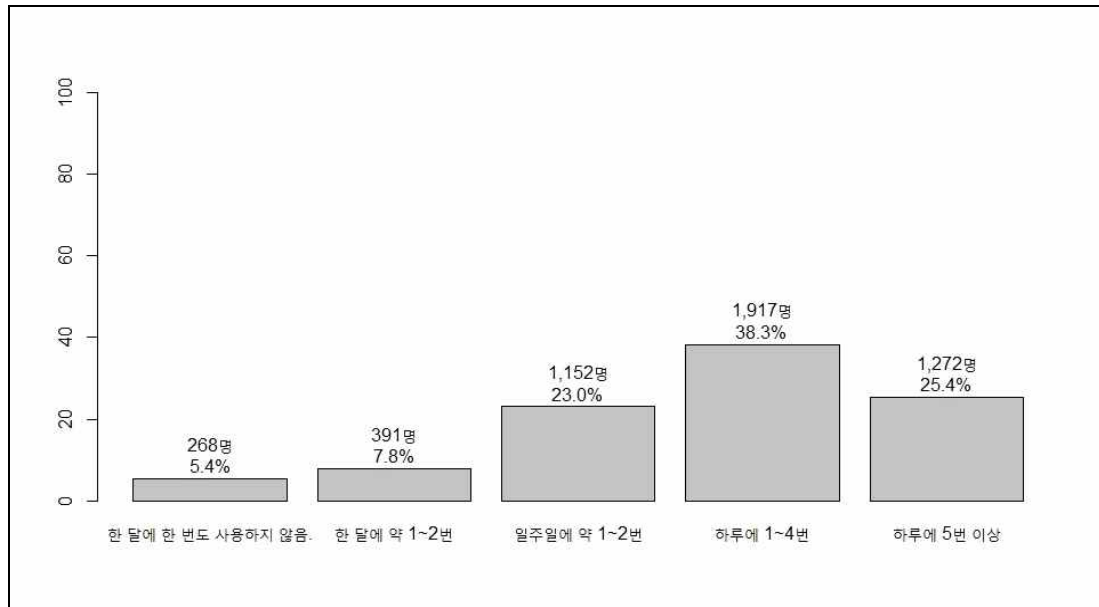


[그림 II -16] 매체 사용 빈도(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여섯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7.8%,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3.0%,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38.3%,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4%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하루에 1~4번 이상으로 꽤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우 유료 구독제로 되어 있으므로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튜브와 같은 무료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는 전체 연령대에서 사용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특히 중학교에서 초등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그 빈도나 사용 시간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¹¹⁾ 본조사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용량 조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지만, 현재 결과로도 문식 환경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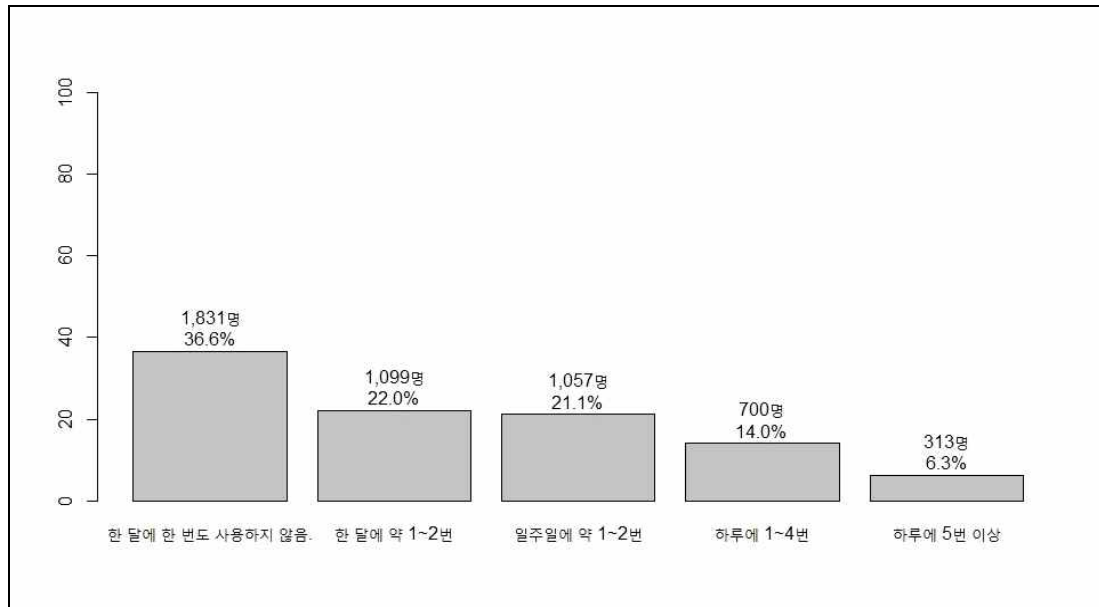
11) 한국언론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97.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초등생(4~6학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관심사를 찾아볼 때의 이용 경로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포털 및 검색엔진, 누리소통망이 각각 95% 이상이며, 그 외 이용자 기반의 지식 생산사이트를 일부 사용한다.



[그림 II -17] 매체 사용 빈도(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끝으로 일곱째, ‘게임, 웹툰, 웹소설’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6%, 한 달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2.0%, 일주일에 약 1~2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21.1%, 하루에 1~4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4.0%, 하루에 5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59%가 게임, 웹툰, 웹소설을 한 달에 1~2번 이하로 매우 가끔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체의 사용 빈도는 앞서 살펴본 다른 매체 사용 빈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매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만 20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응답자가 자주 사용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이 매체 간의 사용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나 한다. 즉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을 온라인상(web)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가 편리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웹툰, 웹소설’ 등에 익숙한 반면, 직업과 가정의 업무로 바쁜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해와 향유에 시간이 필요한 매체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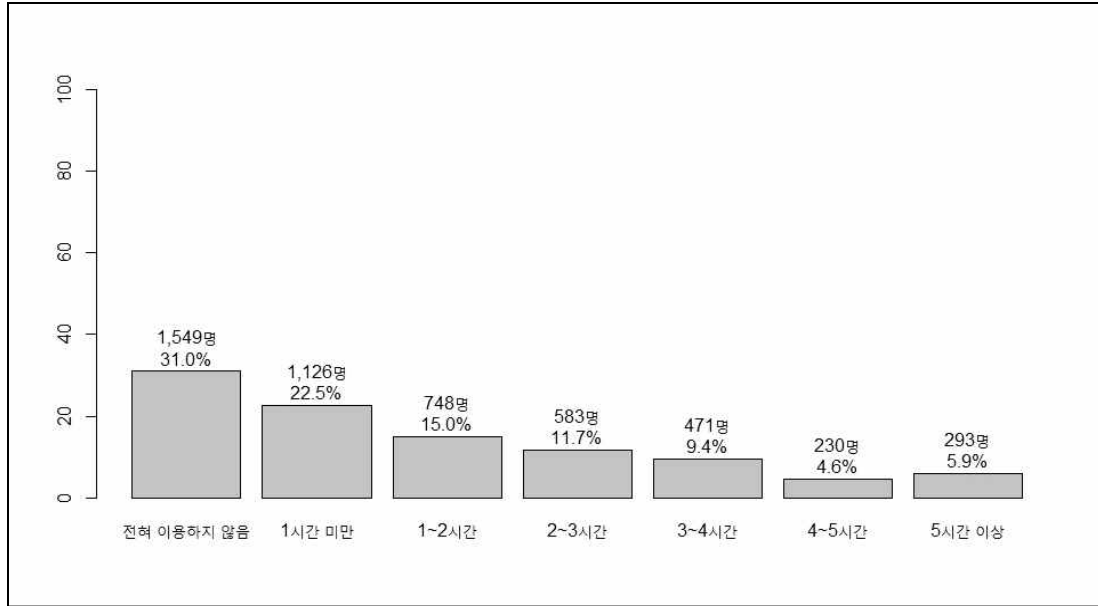


[그림 II-18] 매체 사용 빈도(게임, 웹툰, 웹소설)

③ 인터넷 이용 빈도

국민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를 조사한 의도는 이용 시간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하루 중 인터넷 이용 상황을 ‘직무 내’, ‘직무 외’의 2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상황에서 각각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물었다. 물음에 대한 응답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5시간 이상’의 7등급으로 설정된 척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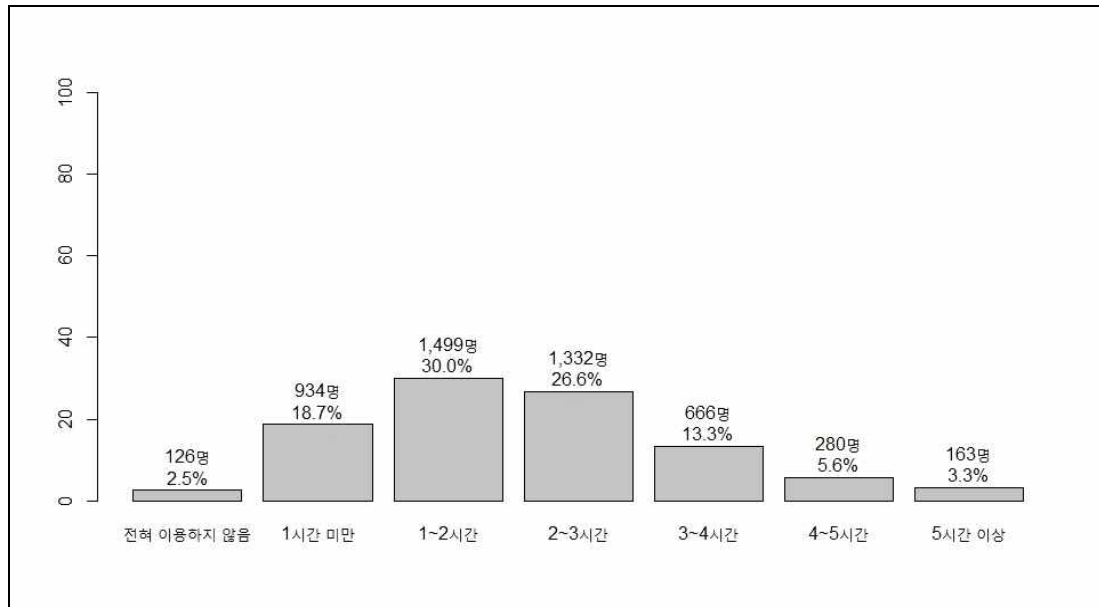
이러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에 관한 물음 중, 먼저 ‘직무 내’ 상황에서의 이용 빈도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31.0%, ‘1시간 미만’이 22.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5.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1.7%,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9.4%,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4.6%, ‘5시간 이상’이 5.9%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9%가 직무 내 상황에서 인터넷을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19]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직무 내)

다음으로 ‘직무 외’ 상황에서의 이용 빈도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2.5%, ‘1시간 미만’이 18.7%,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30.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6.6%,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13.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5.6%, ‘5시간 이상’이 3.3%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57%가 직무 외 상황에서 인터넷을 하루 평균 1~3시간가량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확연히 대별됨을 알 수 있는데, 성인의 경우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 평균 2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반면(69%), 직무 외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며, 하루 평균 3시간 이내로 사용하고 있음(57%)을 알 수 있다.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를 할 때보다는 직무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루 평균 대략 2시간 전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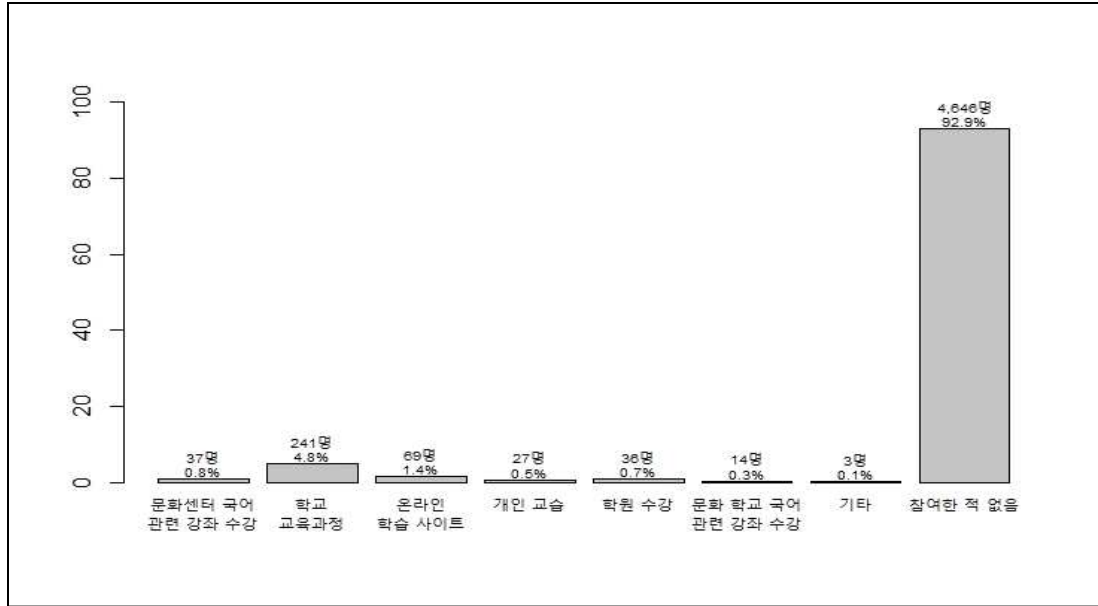
[그림 II -20]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직무 외)

④ 국어 관련 활동 참여도

국민이 국어 관련 학습 활동에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조사한 의도는 국민들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문식 경험을 하고 있으며, 공적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환경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이 어떻게 신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국어 관련 학습 활동의 종류를 ‘문화센터 국어 관련 강좌 수강’, ‘학교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인 교습’, ‘학원 수강’, ‘국어문화학교¹²⁾ 국어 관련 강좌 수강’, ‘기타’의 7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 중 본인이 참여한 적이 있는 것을 복수 응답하도록 물었다. 7가지 활동 중 어디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 ‘참여한 적 없음’에 응답하게 하였다. 아울러, 7가지 활동 중 최소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 한하여,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규범’, ‘기타’의 6가지 중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물었다.

첫째, 7가지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 중 최근 1년간 최소 하나라도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4.8%, ‘온라인 학습 사이트’ 1.4%, ‘문화센터 국어 관련 강좌 수강’ 0.8%, ‘학원 수강’ 0.7%, ‘개인 교습’ 0.5%, ‘문화 학교 국어 관련 강좌 수강’ 0.3%, ‘기타’ 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인 92.9%는 ‘참여한 적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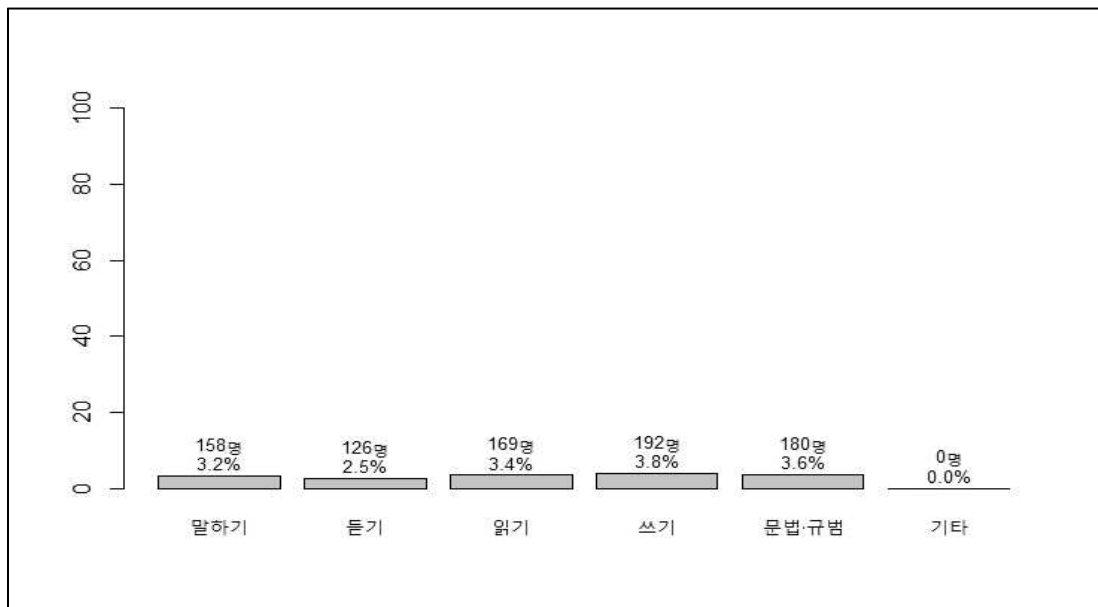
12)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어문 규범, 공공언어, 언어 예절 등 국어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다.



[그림 II-21] 국어 관련 학습활동 참여 경험

둘째, 7가지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 중 최소 하나라도 참여한 이들, 사실상 전체의 7%에 불과한 응답자에게 자신의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응답한 분야는 쓰기 3.8%, 문법·규범 3.6%, 읽기 3.4%, 말하기 3.2%, 듣기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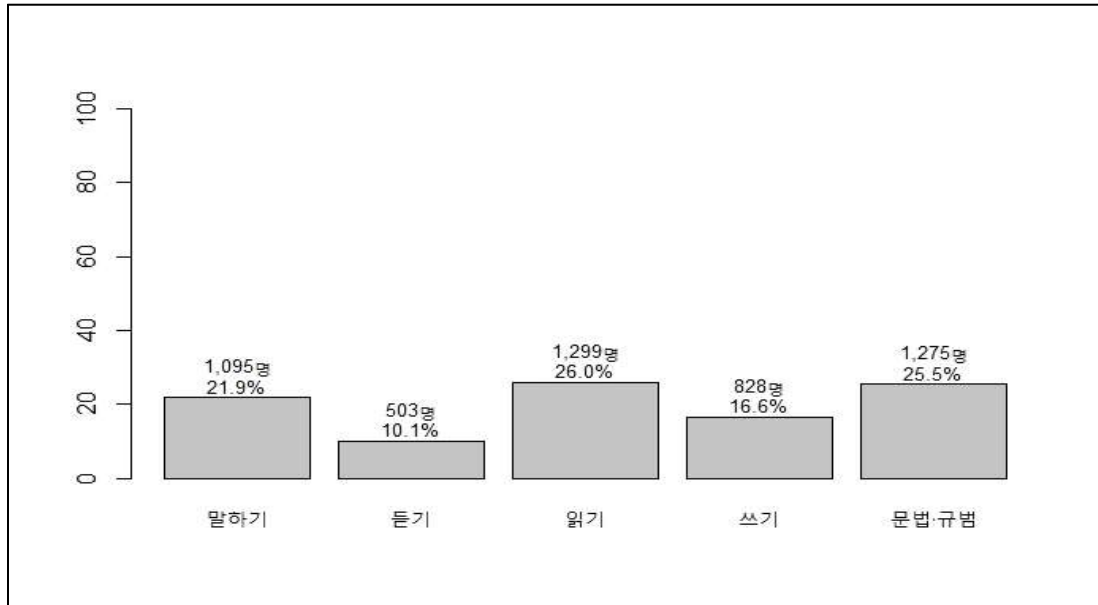
위의 2가지 질문을 종합할 때, 국민 대다수인 97%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고 국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 어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활동들이 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활동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비용이나 시간적 문제 등의 여건상 참여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II-22] 국어 관련 학습활동 참여 분야

⑤ 국어능력의 신장에 필요한 분야

국민이 자신의 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조사한 의도는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감(혹은 효능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실제 국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규범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물었다. 응답 결과는 읽기 26%, 문법·규범 25.5%, 말하기 21.9%, 쓰기 16.6%, 듣기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읽기와 문법·규범 분야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는데, 이는 실제로 생활에서 읽기와 규범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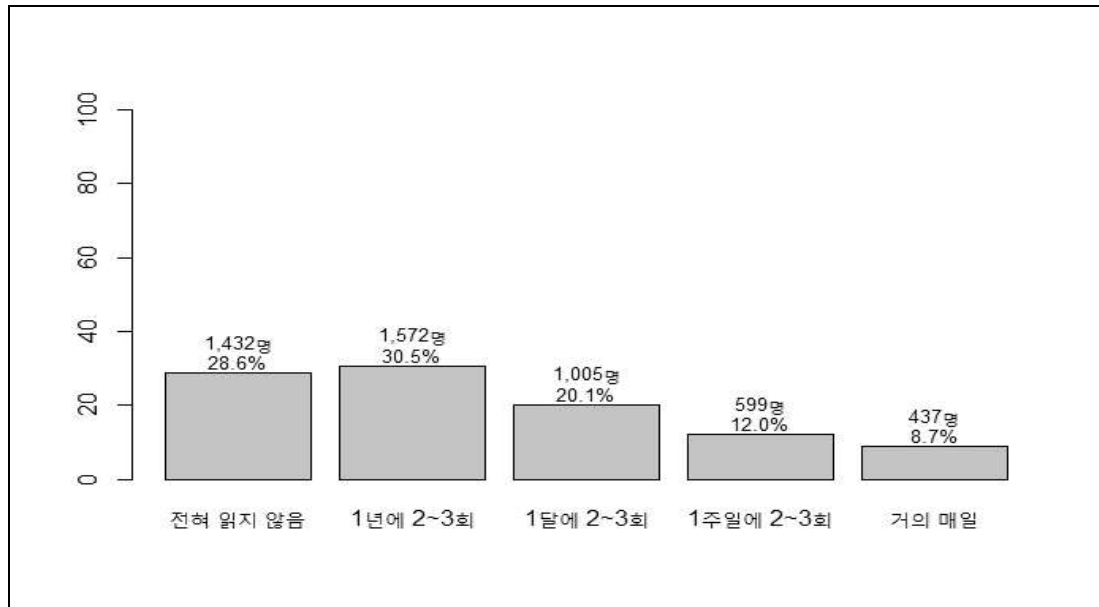
[그림 II-23] 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나. 읽기 능력 관련 요인 분석

⑥ 인쇄 자료 읽기 빈도

글로 된 자료를 읽는 빈도를 조사한 의도는 문자로 이루어진 종이 자료를 접하는 빈도를 파악하여 성인의 문식 환경에서 인쇄(글) 자료가 현재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하루~1년을 기한으로 평균적인 빈도를 응답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전혀 읽지 않음’이 28.6%, ‘1년에 2~3회’가 30.5%, ‘1달에 2~3회’가 20.1%, ‘1주일에 2~3회’가 12.0%, ‘거의 매일’이 8.7%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0%(59.1%)는 글로 된 자료를 읽지 않거나 1년에 두세 번 이하로 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독서량(①) 조사에서 보듯이, 성인의 60%가 한 달 동안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결과와 관련되며, 자주 접하는 매체 유형을 조사한 앞의 결과(②)에서, 성인의 80%가 한 달 동안 종이 신문이나 잡지를 전혀 보지 않거나 한두 번 본다는 응답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육 때 문예라도 문자로 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기회도 급격히 줄고, 책도 전혀 읽지 않는 성인이 전체의 60%에 육박하면서 점차 문자로 된 읽기 자료를 접하는 기회가 줄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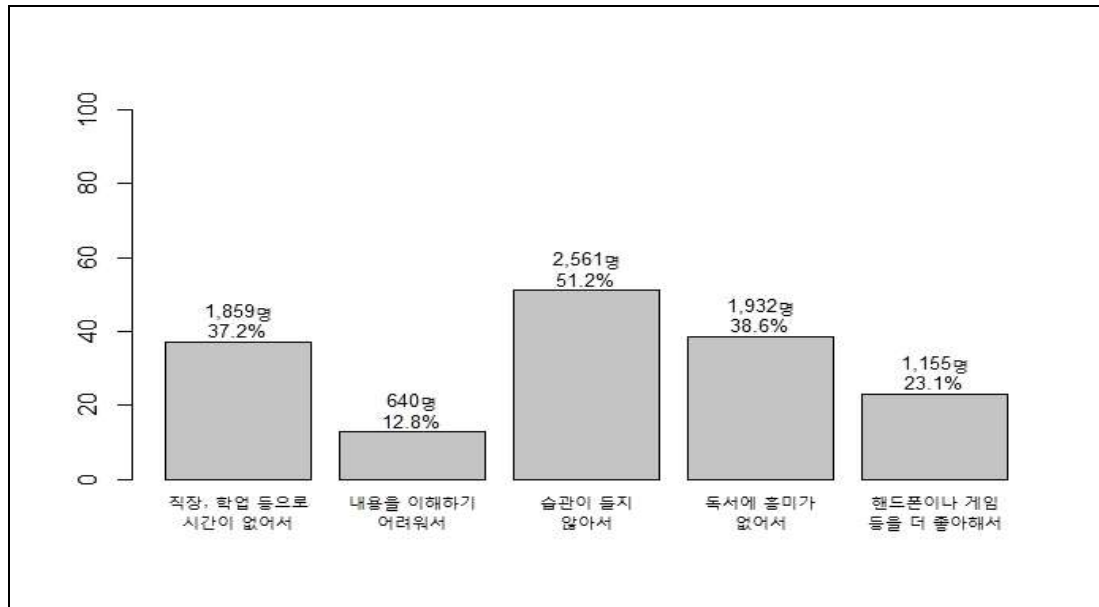


[그림 II-24] 글로 된 자료를 읽는 빈도

⑦ 글을 읽지 않는 이유

자신이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즉 응답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글을 읽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의도는 독서 부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복수 응답의 결과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51.2%, ‘독서에 흥미가 없어서’ 38.6%, ‘직장, 학업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37.2%, ‘핸드폰이나 게임 등을 더 좋아해서’ 23.1%,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항목의 답변과 그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독서 습관이 독서 실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성인의 국어능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독서 흥미가 독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흥미를 돋우고 다양한 매체와 복합양식을 활용한 읽기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이나 학업 등의 시간을 제외한 여가 활용을 위한 독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휴대전화나 게임 등 디지털 매체의 중독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하는 것 등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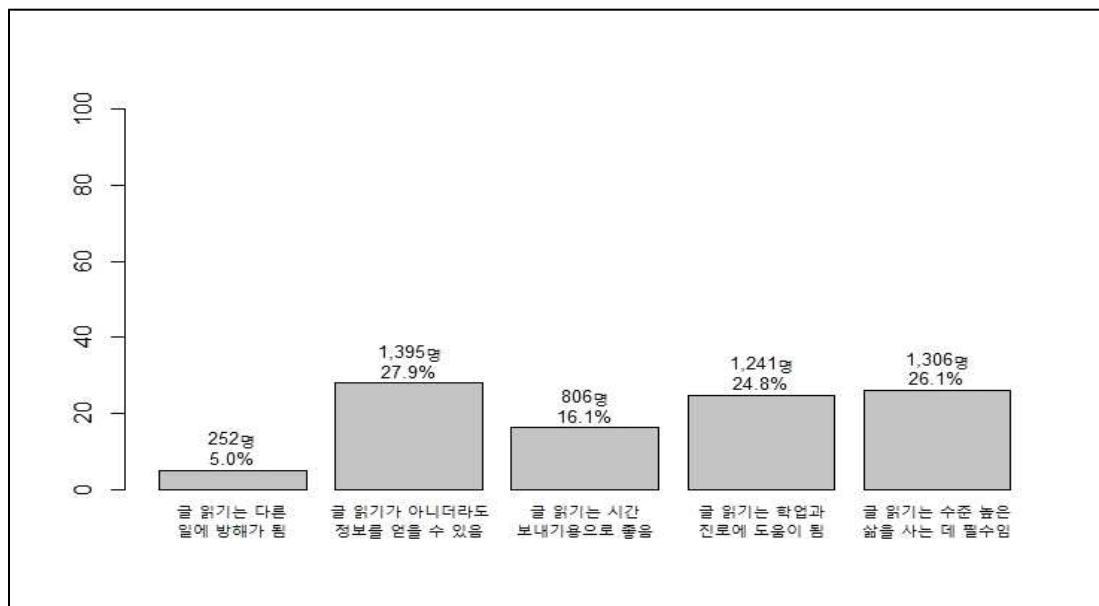


[그림 II-25]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

⑧ 읽기에 대한 가치관(중요성)

읽기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의도는 정의적(affective)인 태도로서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글 읽기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7.9%, ‘글 읽기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데 필수임’ 26.1%, ‘글 읽기는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됨’ 24.8%, ‘글 읽기는 시간을 보내기용으로 좋음’ 16.1%, ‘글 읽기는 다른 일에 방해가 됨’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는 답변이 50.9%이며, 여가를 활용하는 취미용으로도 좋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성인 67%가 읽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32.9%는 읽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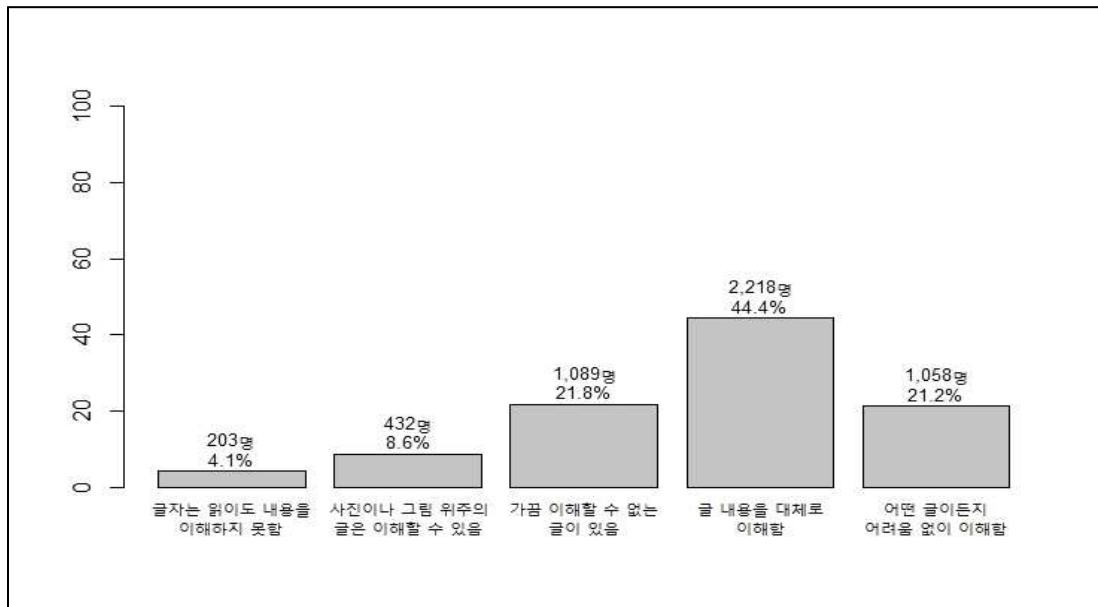


[그림 II-26] 독서에 대한 가치관

⑨ 읽기 능력 자가 진단

본인의 읽기 능력 수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의도는 자기보고식 설문(Self-Reported Survey)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읽기 능력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읽기 효능감(reading efficacy)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글 내용을 대체로 이해함’ 44.4%,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있음’ 21.8%, ‘어떤 글이든지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음’ 21.2%, ‘사진이나 그림 위주의 글은 이해할 수 있음’ 8.6%, ‘글자는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4.1% 순으로 나타났다.

읽기가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약 65.6%이며,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성인의 약 26% 정도가 글 읽기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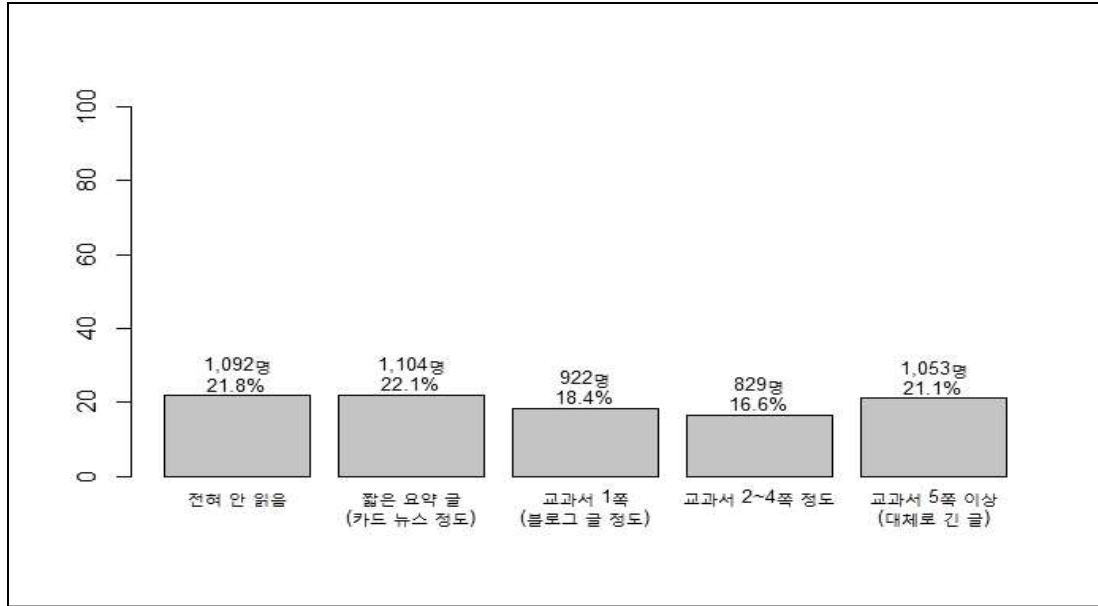


[그림 II-27] 읽기 능력 진단

⑩ 1회 읽기 분량

한 번의 독서 시 읽는 분량에 대해 조사한 의도는 동영상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점차 글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에 따라 문자 읽기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응답별 비율은 ‘짧은 요약 글(카드 뉴스 정도)’ 22.1%, ‘전혀 안 읽음’ 21.8%, ‘교과서 5쪽 이상(대체로 긴 글)’ 21.1%, ‘교과서 1쪽(블로그 글 정도)’ 18.4%, ‘교과서 2~4쪽 정도’ 16.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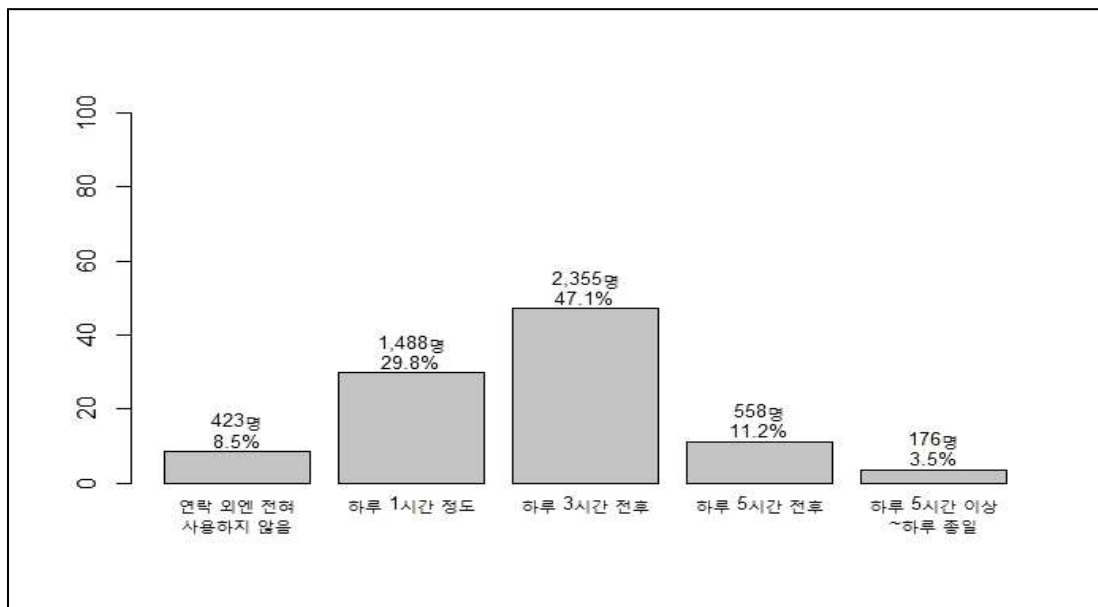
즉 카드 뉴스 길이의 분량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대체로 교과서 4쪽 이내 정도의 짧은 글(짧은 요약 글, 교과서 1쪽·2~4쪽 정도)을 읽는다는 답변이 전체 성인의 57.1%이며, 전혀 읽지 않는다는 답변도 20%를 넘는다. ‘컴퓨터 첫 화면(1 node)에 나타난 글’을 기준으로 할 때, 스크롤바를 한참 내려야 읽는 긴 분량의 글도 있지만, 대부분 몇 번의 스크롤로 읽을 수 있는 글 정도의 분량 이상은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예: Twitter, TikTok, Instagram)의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긴 글보다는 280자 미만의 트윗, 짧은 비디오 클립 등에 익숙해지는 현상이 읽기와 듣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Macwan et al., 2024; Carr, 2010)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I-28] 한 번의 독서 시 읽는 분량

⑪ 하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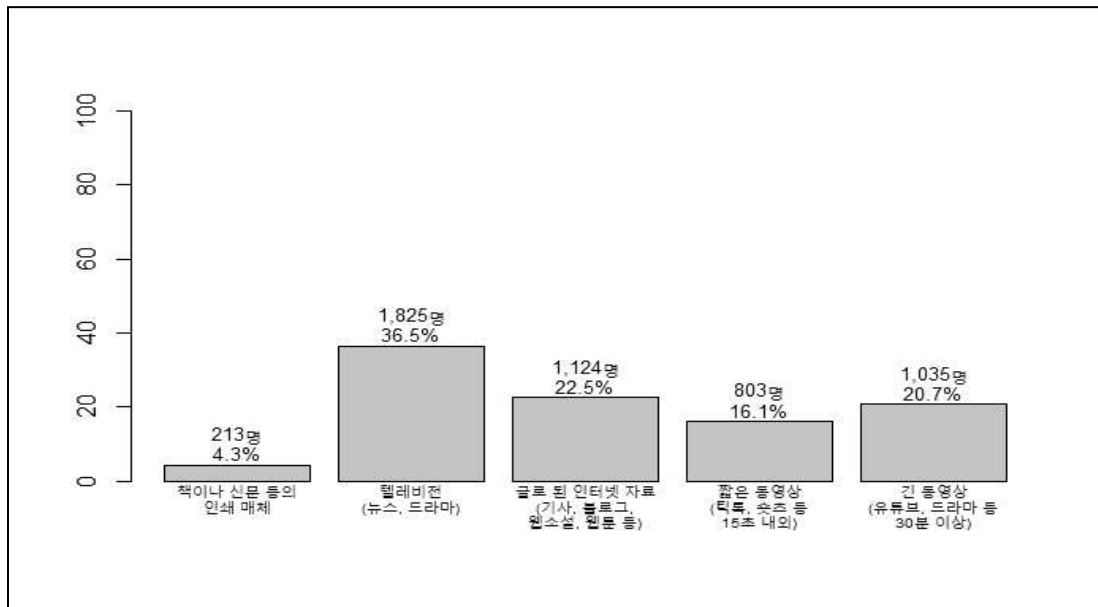
디지털 기기(컴퓨터, 휴대폰 등) 사용 시간에 대해 조사한 의도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시간을 통해 사회와 삶의 문식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응답별 비율은 ‘연락 외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8.5%, ‘하루 1시간 정도’가 29.8%, ‘하루 3시간 전후’가 47.1%, ‘하루 5시간 전후’가 11.2%, ‘하루 5시간 이상~하루 종일’이 3.5%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7%가 디지털 기기를 하루 1~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29] 디지털 기기(컴퓨터, 휴대전화 등) 사용 시간

⑫ 매체 선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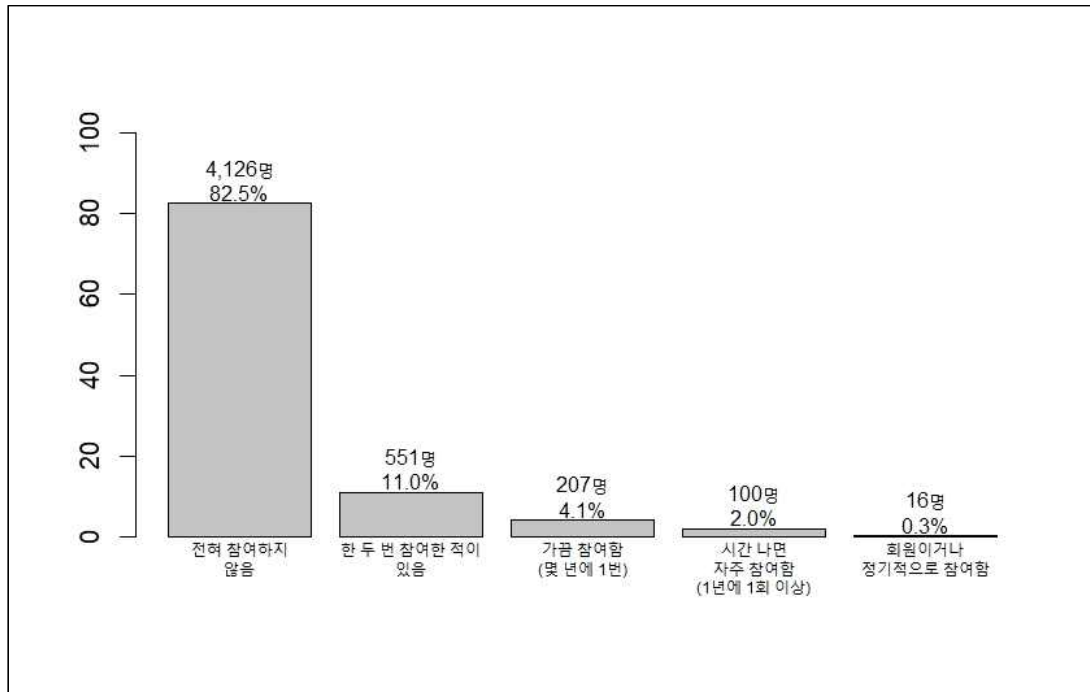
선호하는 매체 유형으로는 ‘텔레비전(뉴스, 드라마)’ 36.5%, ‘글로 된 인터넷 자료(기사, 블로그, 웹소설, 웹툰 등)’ 22.5%, ‘긴 동영상(유튜브, 드라마 등 30분 이상)’ 20.7% ‘짧은 동영상(틱톡, 숏츠 등 15초 내외)’ 16.1%,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 매체’ 4.3%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응답자가 69세까지의 성인임을 감안하면 ‘텔레비전’이 여전히 가장 높으며, 그 외 인터넷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매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30] 주로 보는 매체

⑬ 독서 문화 경험

독서 문화(도서관 행사, 저자 강연, 독서클럽 등)에 대한 참여 경험을 조사한 의도는 독서 문화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이다. 그 결과, ‘한두 번 참여한 적이 있음’ 11.0%, ‘가끔 참여함(몇 년에 1번)’ 4.1%, ‘시간 나면 자주 참여함(1년에 1회 이상)’ 2.0%, ‘회원이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함’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인 82.5%는 ‘전혀 참여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국어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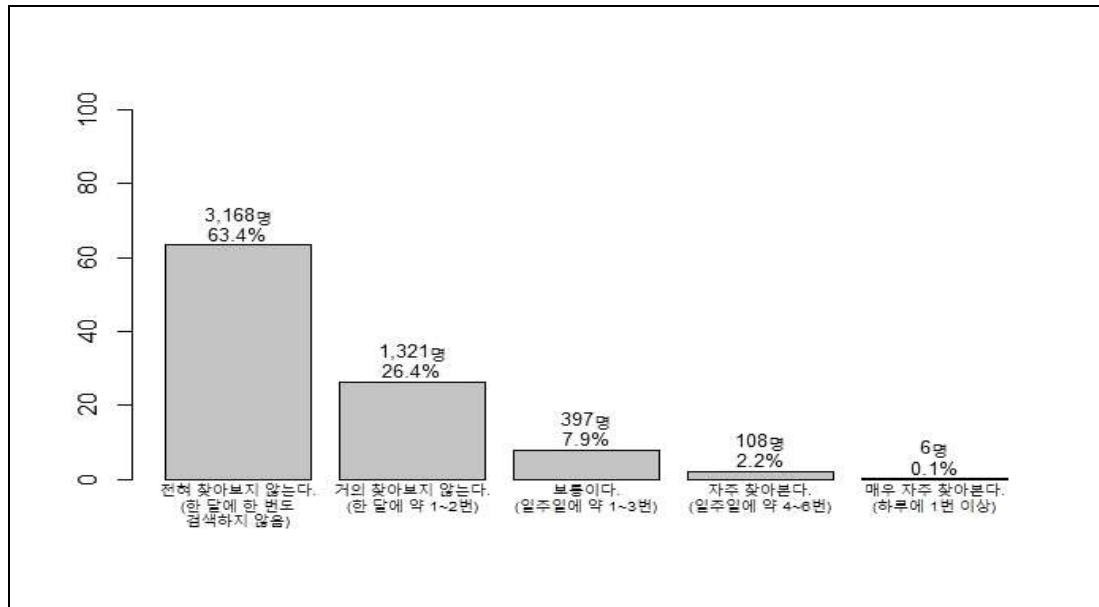
[그림 II-31] 독서 문화(도서관 행사, 저자 강연, 독서클럽 등) 참여 경험

다. 문법·규범 관련 요인 분석

⑭ 어문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관련된 정보 탐색 빈도

일상생활 속에서 문법·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찾아본다.(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찾아본다.(하루에 1번 이상)’의 5등급으로 설정된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정보 탐색 빈도’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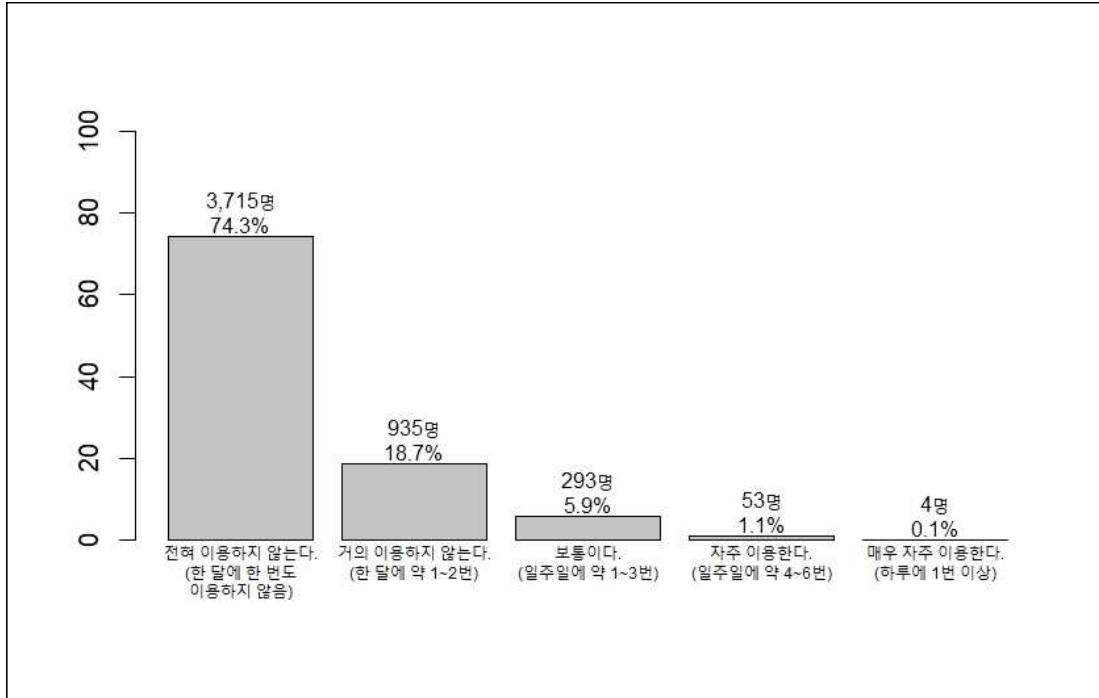
[그림 II -32] 어문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관련된 정보 탐색 빈도

이에 따르면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가 63.4%,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가 26.4%, ‘보통이다’가 7.9%, ‘자주 찾아본다’가 2.2%, ‘매우 자주 찾아본다’가 0.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89.8%는 평소에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찾아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온라인 가나다’ 서비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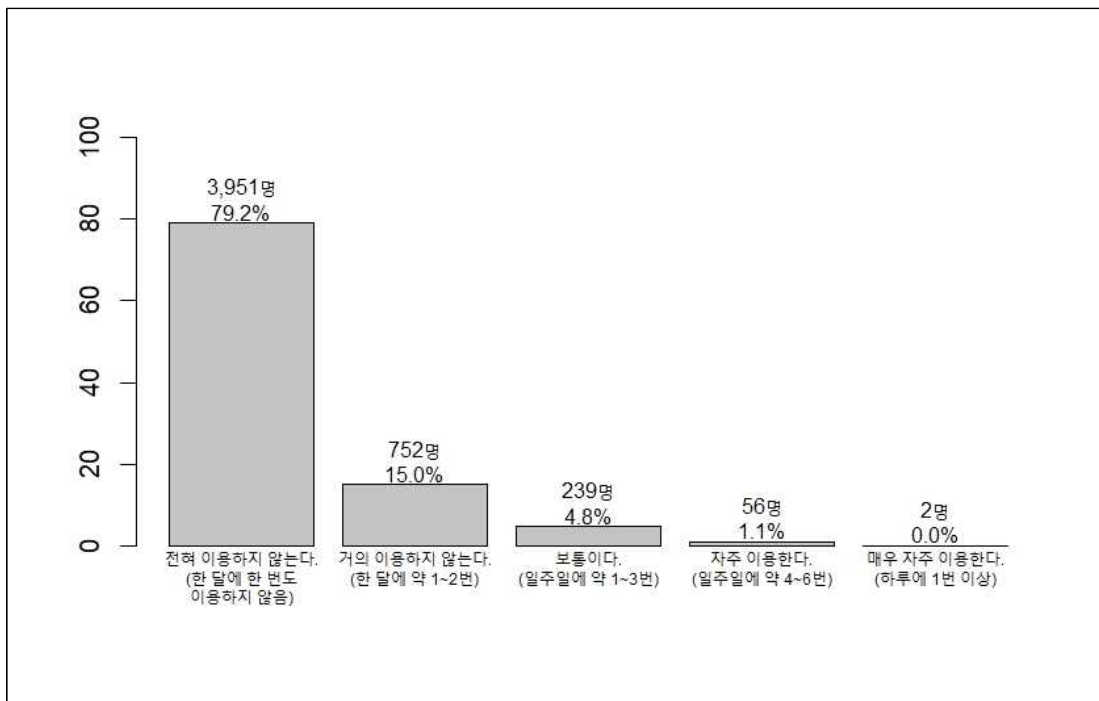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법·규범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 여부 및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이용한다.(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이용한다.(하루에 1번 이상)’의 5등급으로 설정된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리말샘’ 서비스의 이용 빈도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74.3%,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18.7%, ‘보통이다’가 5.9%, ‘자주 이용한다’가 1.1%,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0.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93%는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리말샘’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 -33]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우리말샘’ 서비스 이용 빈도

다음으로, ‘온라인가나다’ 서비스의 이용 빈도에 대해 보인 응답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79.2%,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15.0%, ‘보통이다’가 4.8%, ‘자주 이용한다’가 1.1%,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0.0%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94%는 ‘온라인가나다’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 -34] 국립국어원 제공 ‘온라인가나다’ 서비스 이용 빈도

2) 집합 조사 결과와의 비교

[읽기 영역]

<표 II -55> 조사 방식에 따른 읽기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능력 점수(원점수)						t-검정 결과		
면접 조사			집합 조사					
N	평균	SE	N	평균	SE	t	df	p
5,000	197.93	69.36	50	228.6	66.78	-3.11	5048	<.01

읽기 영역에서는 조사 방식(면접 조사 혹은 집합 조사)에 따른 피조사자의 능력 점수(원점수) 차이가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합 조사 참여자의 평균이 면접 조사 참여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효과 크기 cohen's $d = -0.44$ 로 중간 효과 크기(0.5)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문법·규범 영역]

<표 II -56> 조사 방식에 따른 문법·규범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능력 점수(원점수)						t-검정 결과		
면접 조사			집합 조사					
N	평균	SE	N	평균	SE	t	df	p
5,000	98.46	32.93	50	100.12	26.03	-.45	50.58	.66

조사 방식에 따른 능력 점수(T점수) 차이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집합 조사(100.12)가 면접 조사(98.46)보다 높았으나,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p = .66$).

3)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의 타당성 종합 검토 결과

[읽기 영역]

본 연구에서는 읽기 영역의 평가 방식을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 방식으로 정하고, 조사 도구로 총 27개 평가 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조사 방식을 가형과 나형 시험지를 나눠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읽기 영역의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에 대하여 내린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방식을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 방식으로 정한 점은 전반적인 결과를 보

13) Cohen(1988)에서는 효과 크기(d)가 0.2이면 작은(small) 효과 크기, 0.5이면 중간(medium) 효과 크기, 0.8이면 큰(large) 효과 크기라고 제안한다.

건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읽기 영역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4지선다 혹은 5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국제 및 국내의 술한 공인된 평가들(예: PISA,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도 읽기 영역의 평가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어과 의사소통 영역 중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듣기와 읽기의 평가 시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최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둘째, 조사 도구로 총 28개 평가 문항을 마련하였는데, IRT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각 문항의 변별도(0.71~2.09)는 적절하거나(0.65~1.35), 높거나(1.35~1.70), 매우 높은 것(1.7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난이도(-1.22~0.61)는 쉬운 것(-2.0~-0.5), 중간인 것(-0.5~0.5), 어려운 것(0.5~2.0)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평가 도구의 모습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 피조사자가 한 번에 응시하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28개의 문항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8개 문항이 한 피조사자가 한 번에 응시하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8개 중 16개 문항에 대해 총 피조사자 중 절반만이 응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형(총 20문항)과 나형(총 20문항)을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응시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평균적인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조사자의 국어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사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접 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비록 그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가 지속적으로 면접 조사 방식을 선택해 왔기에 지난 주기와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응시 상황을 보다 엄정하게 통제하여 피조사자가 더욱 집중력 있게 응시하도록 하는 집합 조사 방식을 병행한 후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집합 조사에서의 평균(228.6점)이 면접 조사에서의 평균(197.9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면접 조사 방식을 집합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법·규범 영역]

본 연구에서는 문법·규범 영역의 평가 방식을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 방식으로 정하고, 조사 도구로 총 13개 평가 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조사 방식을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법·규범 영역의 조사 도구 및 조사 방식에 대하여 내린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방식을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 방식으로 정한 점은 전반적인 결과를 보건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법·규범 영역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4지선다 혹은 5지선다의 선택형 문항, 단답형 문항, 서술형 문항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통한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험(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 등)의 경우에는 자동 채점이 용이한 선택형 문항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며, 이러한 방식이 문법·규범 관련 능력의 평가에 적용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둘째, 조사 도구로 총 13개 평가 문항을 마련하였는데, IRT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각 문항의 변별도(0.53~1.98)는 낮거나(0.35~0.65), 적절하거나(0.65~1.35), 높거나(1.35~1.70), 매우 높은 것(1.7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난이도(-1.86~0.43)는 쉬운 것(-2.0~-0.5)과 중간인 것(-0.5~0.5)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개 문항(규범_10, 규범_11)의 변별도가 낮기는 하였지만(각각 0.57, 0.53) 변별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문항의 타당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

럽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이 하나도 없었던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국어 문법·규범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고려하여 쉽거나 중간 난이도인 문항 위주로 조사 도구를 마련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셋째, 조사 방식으로 면접 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비록 그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가 지속적으로 면접 조사 방식을 선택해 왔기에 지난 주기와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응시 상황을 보다 엄정하게 통제하여 피조사자가 더욱 집중력 있게 응시하도록 하는 집합 조사 방식을 병행한 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집합 조사에서의 평균(100.1점)과 면접 조사에서의 평균(98.5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66$). 이러한 결과는 문법·규범 영역에 한하여 지금까지의 면접 조사 방식을 향후 집합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도 주기 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2.5. 동등화 결과 분석

1) 영역별 동등화 결과

국민의 국어능력 추이를 올해 본조사를 실시한 읽기 및 문법·규범 영역을 중심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의 읽기 및 문법 영역(문법·규범 영역으로의 개편 전 영역)과의 동등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동등화는 다분 문항 반응 이론 기반 가교 고정 문항모수 추정(fixed anchor item parameter estimation)에 의한 공통문항 비동등집단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13년에 설정한 기준 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 2018년 조사와 2024년 조사 사이에 영역별 가교 문항이 포함된 점, 응시한 피험자가 다른 점, 이전의 동등화 연구를 실시한 듣기 및 말하기 영역에 적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읽기 및 문법 영역의 동등화를 위하여 설정한 가교 문항은 읽기 영역에서 5문항(전체 문항 중 약 18%), 문법 영역에서 3문항(전체 문항 중 약 23%)이었다.

<표 II-57> 가교 문항

영역	2018 문항 번호	2024 문항 번호	문항 수
읽기	공통 1번	공통 1번	5
	공통 2번	공통 2번	
	공통 4번	공통 4번	
	가형 6번	공통 6번	
	나형 14번	공통 7번	
문법	7번	1번	3
	4번	2번	
	8번	3번	

다음으로 2018년도에 적용된 동등화 방식과 2023년 조사를 포함한 3주기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등화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2018년 조사에서 산출된 가교 문항의 IRT 문항 모수의 값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일관된 동등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문항 모수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기준 설정이 이루어진 2013년 읽기 및 문법 조사 결과와 2018년 조사의 재척도화를 먼저 실시하여 2018년 조사의 문항 모수를 다시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PARSCALE을 통해 읽기 및 문법·규범 영역의 2018년 조사와 2024년 조사의 동등화를 실시하였다.

2) 국민의 읽기, 문법·규범 능력 성취 수준 변화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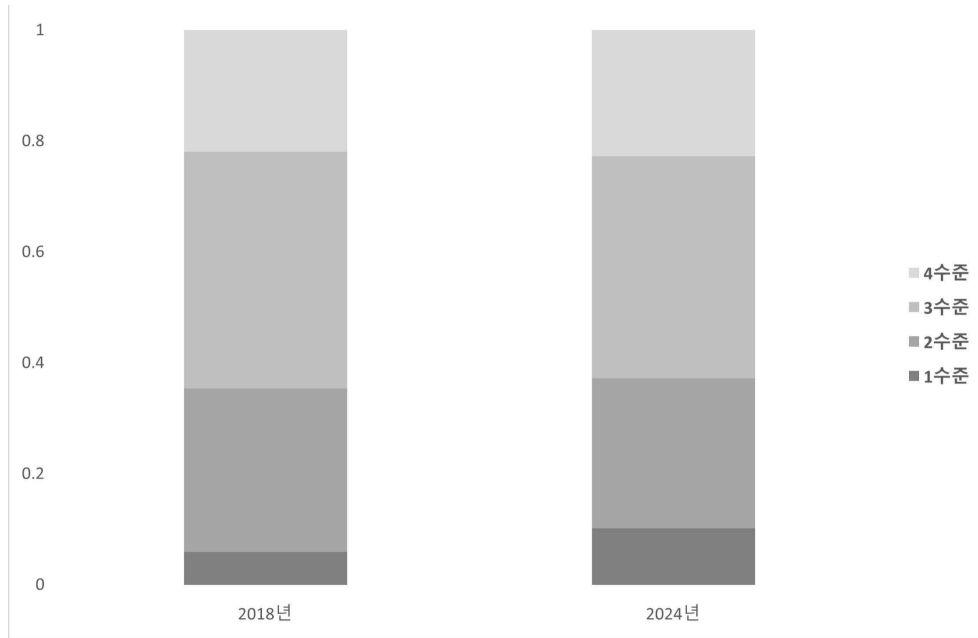
현행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성취 수준은 앵고프 방식을 적용하여 각 조사 영역별로 2013년에 네 개의 수준으로 분할 점수를 산출한 것에 기초한다. 이번 동등화 연구에서는 2018년 본조사 및 2023년에 듣기 및 말하기 영역 동등화에 적용하였던 것과 같이 1~4 수준으로 등급 구간을 나누어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II -58> 2018년과 2024년의 영역별·수준별 인원 및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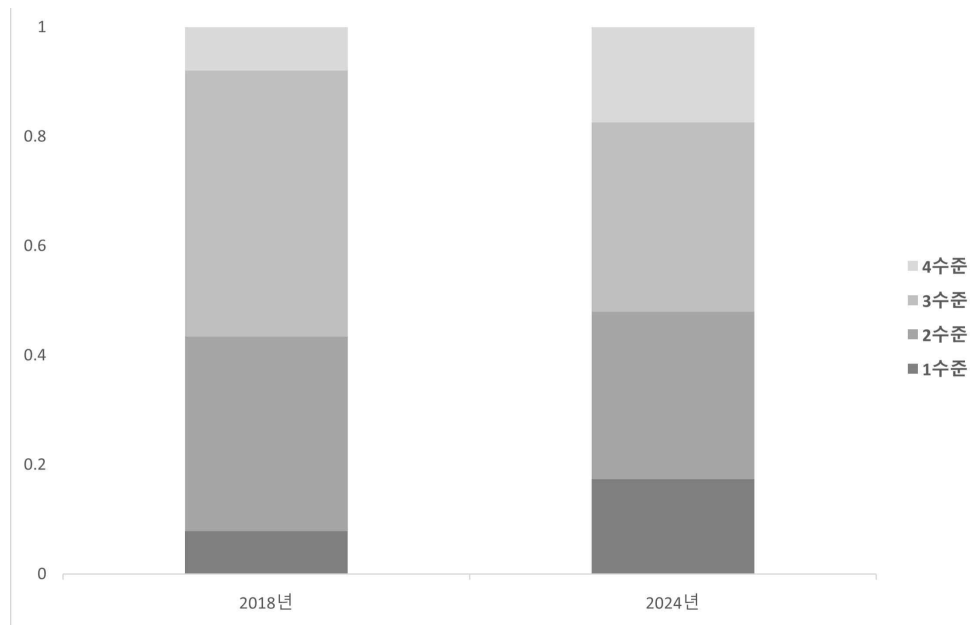
영역	수준	분할 점수 (T점수)	인원(명)		비율(%)	
			2018년	2024년	2018년	2024년
읽기	4수준	59.1	1,092	1,134	21.9%	22.7%
	3수준	49.1	2,132	2,000	42.6%	40.0%
	2수준	39.4	1,477	1,353	29.5%	27.1%
	1수준	39.4 미만	299	513	6.0%	10.3%
	계		5,000	5,000	100%	100%
문법 (2018)	4수준	56.7	343	1,414	6.9%	28.3%
	3수준	48.3	2,461	1,500	49.2%	30.0%
	2수준	39.1	1,798	1,330	36.0%	26.6%
	1수준	39.1 미만	398	756	8.0%	15.1%
	계		5,000	5,000	100.0%	100.0%
문법· 규범 (2024)	4수준	56.7	343	1,414	6.9%	28.3%
	3수준	48.3	2,461	1,500	49.2%	30.0%
	2수준	39.1	1,798	1,330	36.0%	26.6%
	1수준	39.1 미만	398	756	8.0%	15.1%
	계		5,000	5,000	100.0%	100.0%

동등화 결과, 읽기 영역의 경우 2018년 조사 대비 2024년 조사에서 4수준의 비율이 21.9%에서 22.7%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3수준은 42.6%에서 40.0%, 2수준은 29.5%에서 27.1%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수준의 경우에는 6.0%에서 10.3%로 4.3%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규범 영역의 경우 4수준의 비율이 6.9%에서 28.3%로 21.4%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수준은 49.2%에서 30.0%로 19.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 36%에서 26.6%로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1수준의 경우 8%에서 15.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영역의 경우 능력 수준별 비율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은 가운데,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이 2018년에 비하여 비율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띄며, 문법·규범 영역의 경우 ‘우수’에 해당하는 4수준과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의 비율이 늘어나고, ‘보통’에 해당하는 3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하여 전체 수준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문법·규범 영역의 경우 성취 수준의 변화 추이를 해석할 때 2018년 ‘문법 영역’이었던 것을 2024년에는 규범 영역까지 확대하여 ‘문법·규범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 2018년보다 전체 문항 수가 3개 늘어났으며, IRT 문항 곤란도가 종합적으로 2018년보다 높아졌다는 점(2018년 전체 문항 평균: -1.100, 2024년 전체 문항 평균: -0.561)과의 관련성을 심층 연구를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5] 2018년과 2024년의 읽기 영역 수준별 비율 비교



[그림 II-36] 2018년 문법 영역과 2024년 문법·규범 영역의 수준별 비율 비교

2.6. 외국의 자국어 능력 조사와의 비교 분석

1) 읽기 영역 비교 분석

국민의 읽기 능력에 대한 조사는 그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경우에 몇 해 단위의 주기성을 띠고 있어 읽기 능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여기에서는 최근 10년 안팎으로 시행된 국내외 주요 읽기 능력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본조사의 특징을 논하기로 한다.¹⁴⁾

국내의 경우 먼저 ‘202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국립국어원)’를 꼽을 수 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 언어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비해 본 조사는 읽기에 대한 의식(인식)이 아닌 읽기 능력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사한 사항들도 있다. 즉 몇 해를 주기로 조사를 시행하고, 동등화 연구를 통해 비교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여 사회 및 언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국민의 언어의식을 파악한다는 점, 다양한 설문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2021년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쓰기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쓰기 평가 데이터’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남녀 각 150명을 대상으로 하되, 대학생 및 직장인을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구분한 층화 표본 추출의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내 문서 편집기를 활용한 글쓰기를 90분 이내에 수행하였다. 쓰기 과제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며 참여할 수 있는 수준과 난이도로 구성하되, 그 주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롭게 도출하였다. 평가 문항의 유형은 자료 제시 여부 및 제시 방식에 따라 ‘① 쟁점 제시형, ② 복합 자료 제시형, ③ 단일 자료(지문) 제시형’의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① 쟁점 제시형’은 쓰기 주제 및 과제의 수사적 상황을 발문(prompt)을 통해 중립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후 답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쟁점 목록을 제공하는 문항 유형이다. ‘② 복합 자료 제시형’은 하나의 논제에 대해 특정한 관점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복수의 읽기 자료를 지문의 형태로 병렬로 제시하는 문항 유형이다. ‘③ 단일 자료(지문) 제시형’은 논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한 편의 읽기 자료로 제시하는 문항 유형이다. 이 조사는 ‘글쓰기 과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본 조사와 방향이 다르지만, 다양한 유형의 읽기 자료를 독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읽기 지문 설계에 참조가 된다.

한편 본조사는 2013년 및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종단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국어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의 정도와 실태를 조사하여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각각의 조사는 조사 도구의 설계, 조사 결과 등급화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사 도구 동등화를 통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2024년 조사의 기초적 설계는 2018년 조사의 큰 틀을 이어받고 있으나, 조사 영역이 연도별로 분리되고 읽기 영역에서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문항이 늘

14) 이하 국내외 읽기 능력 조사의 주요 사항들은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도 포함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2024년에 조사 도구를 확정하여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어났다는 점 등을 차이로 꼽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읽기 능력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읽기 능력은 급변하는 소통 환경에서 문해력(literacy)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 그리고 그에 입각한 조사들이 널리 시행되었다. 먼저 이 조사들의 지향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문해력이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 대략 20세기 후반부터 문해력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의 문해력이란 단순한 사전적 의미대로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즉, 문해력은 과거의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교육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64년부터 ‘유엔의 10개년 발전계획 비문해 퇴치 선언’을 제시했고, 1975년에 열린 ‘국제 문해교육 심포지엄’에서 문해력을 인간 본래의 권리로 간주하는 ‘페르세폴리스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997년 제5차 ‘국제 성인교육 회의’에서는 ‘함부르크 성인교육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때의 문해력은 성인교육의 권리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된다. 나아가 문해력은 고도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문해력이 높은 개인은 소득 수준도 그에 상응하며(Reder, 2010), 문해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도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Blaug, 1966)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문해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구안하는 현상 또한 활발하게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성인교육 분야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2010년 함부르크 대학(Universität Hamburg)이 만든 ‘레벨 원(Level-One)’이라는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연방 교육연구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 유럽의 문해력 교육 네트워크인 ELINET¹⁵⁾는 문해력 교육 정책의 목표를 경제 인구(64세 이하)로 설정하는 등 문해력 교육에 대한 경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프로젝트’ 사업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OECD는 역량 개념 틀에 대한 연구인 제1기 사업에서 ‘OECD Learning Compass(2018)’를 발표하였고,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국제학생조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해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학생 문해력의 분포를 확인하고 복지 및 인권에 기초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종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정의(Defining the skills citizens will need in the future world of work, 이하 ‘2021 맥킨지 보고서’로 지칭)’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4가지 범주, 13개의 기술 그룹, 56개의 기술(Deltas)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래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크게, 인지 역량, 대인관계 역량, 셀프리더십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다.

한편 OECD는 2010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21st-Century Skills’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래 교육의 목표를 사회감성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 두고 이를 생애 학습(lifelong learning)을 통해 달성하는 데 필요한 3대 핵심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37]에서 보듯이, 기초 문해력(Foundational Literacies)이 있고, 그 아래 ‘문해력(Literacy)’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제를 실현하고 성인 문해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OECD는 2011년부터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를 통해 국가별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국제비교조사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¹⁶⁾

15) The European Literacy Policy Network (<https://elinet.pro/>)



[그림 II-37] WEF의 21세기 능력

이상과 같이 문해력을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며, 단순히 문맹 퇴치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인 역량의 관점에서 비문해(iliteracy) 혹은 저문해(Low Literacy)에 국한되지 않는 수준의 문해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국내의 독서 교육 및 국어 교육 학계와 현장에서도 이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 교육 기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문해력만큼이나, 일반 성인이 더 나은 삶(wellbeing)을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성인 문해력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앞서 살펴본 미래 사회의 역량(혹은 생애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세계 공통의 조사를 통해 관련 문해력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본 조사 역시 다양한 연령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러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해력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은 ‘읽기(reading)’ 영역과 관련된 해외의 조사들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9> 국외의 읽기 능력 조사 도구

평가 도구 명칭	평가 영역 및 요소	조사 대상	조사 방법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1994~1998)	·영역: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16~65세 성인 47,830명	45개 평가 항목에 대한 방문 면접
성인 문해력 조사(NAAL, 2003년)	·영역: 산문 문해력, 문서 문해력, 수리 문해력, 단어 해독 및 인지 능력, 글자와 숫자 이해 능력	16세 이상 미국 성인	방문 면접 (구조화된 질문지)
국제 성인 문해 및 생활능력 조사(ALL, 2003~2008년)	·영역: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 문제 해결, 협동, 정보 통신 기술 문해	층화다단계확률표집을 적용하여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11개국 16~	방문 면접

16) 우리나라는 2011~2012년에 시행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주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 2주기 예비 조사 실시, 2022년에 2주기 본조사 데이터 수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65세 성인 국가별 3,420명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NAEP)	·영역: 수학, 읽기, 쓰기, 과학, 미국사, 사회, 지리, 예술 ·읽기: 내용 이해, 통합과 해석, 비판과 평가 ·쓰기: 설득, 설명, 문학적 글쓰기	인구통계학 및 지리적 대 표로 표집된 미국 4, 8, 12학년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영역: 문식성,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문식성: 단어 및 문장 이해, 해석, 평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적절한 목표 및 계획 수립, 정보 접근 및 활용	24개국 ¹⁷⁾ , 16~65세, 국가별 5,000명(총 166,000명)	컴퓨터 기반 평가, 가정 방문 및 컴퓨터 기반 면담(10년 주기)
국제학업취도평가 (PISA)	·영역: 읽기, 수학, 과학, 디지털 리터러시(2015~) ·읽기: 과정(텍스트 과정, 과제 관리, 유창하게 읽기), 텍스트(출처, 조직과 탐색, 체재, 유형), 상황 ·디지털 텍스트 독해 평가 범 주: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성찰 및 평가	OECD 회원국 만 15세 학생	2015년 이후 컴퓨터 기반 평가(객관식 및 구성형 문항)
온라인 국제읽기발달연구 (ePIRLS, 2016년~)	·영역: 읽기 목적(문식 경험, 정보 습득 및 활용), 인지 유형(정보 확인, 추론, 해석 및 통합, 점검 및 평가)	4학년 학생(5년 주기)	웹사이트 탐색에 대한 선다형 및 구성형 문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2018)가 국제적 차원의 의제(Agenda)를 제안하면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조사가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와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이다.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외국어 자국어 능력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자국어 능력 조사의 사례로 논의한 것도 OECD의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와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였다. 이 두 가지 읽기 평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기 능력의 개념 및 읽기 능력의 하위 구인(construct), 읽기 문항 개발의 방향 등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된 특징은 첫째, 읽기 개념에 ‘행위성(action)’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읽기 구인으로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평가 실행 차원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넷째, 문항 설계 차원에서 맥락 기반 또는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17)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러시아는 조사 후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① PISA(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각국의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국의 학교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발달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육 정보와 교육 격차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이 평가는 각국의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실생활의 비교적 보편적이고 다양한 읽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읽기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점을 평가한다. 그리고 PISA의 평가 틀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읽기관이 담겨 있으므로, 주기별 비교를 통해 읽기 목적, 평가 요소 등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¹⁸⁾

<표 II -60> PISA의 읽기 소양에 대한 정의 비교

PISA 2000	읽기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이해 하고 활용 하며 성찰 하는 것이다.
PISA 2009	읽기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이해, 활용하며, 성찰하고 참여(engagement) 하는 것이다.
PISA 2018	읽기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이해, 활용, 평가(evaluation) 하며 성찰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개인의 목적과 사회 참여’라는 읽기 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읽기 능력은 ‘텍스트의 이해, 활용, 성찰’에 ‘참여(engagement)’와 ‘평가(evaluation)’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engagement’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여 몰입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적 측면(affective domai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evaluation’은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더 뚜렷하게 구현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또한 이러한 지향을 따르는 방향으로 조사 도구를 설계하고 응답자의 문해 능력을 파악해 왔다. 2024년의 본조사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글의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읽기 능력 관련 문항뿐 아니라 가치 평가, 의미의 재구성, 정보의 재조직 등 평가와 재구성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중을 높게 하였다(28문항 중 10문항).

PISA의 평가 틀은 내용(텍스트), 행동(독자), 목적(맥락)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평가를 위한 세부 하위 요소로 세분화되어 있다. 아래의 <표 II -60>은 PISA 2009와 PISA 2018에 개발된 읽기 평가 틀을 차원, 하위 요소, 세부 하위 요소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표 II -61> PISA 주기별 읽기 평가 틀(구자옥 외, 2016: 20)

PISA 2018			PISA 2009/2012/2015		
차원	하위 요소	세부 하위 요소	차원	하위 요소	세부 하위 요소
과정	텍스트 과정	•정보의 위치 파악 •이해 •평가와 성찰	양상	•접근과 확인 •통합과 해석 •성찰과 평가	

18) 박혜영(2017), PISA 읽기 평가 틀의 변화 특징 탐색, 국어교육 157.

	과제 관리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점검 및 조절			
텍스트	자료	•단일 텍스트 •다중 텍스트	텍스트	체재	•연속적 •비연속적 •혼합적 •다중적
	조직과 탐색	•정적 •동적			
	체재	•연속적 •비연속적 •혼합적		유형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유형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상호작용 •교섭			
상황	•개인적 •공적 •교육적 •직업적		상황	•개인적 •공적 •교육적 •직업적	

디지털 매체 읽기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PISA 2018에서는 인지적 읽기 과정을 글 중심의 ‘텍스트 과정’과 과제 수행 관점에서의 ‘과제 관리’의 복합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주체성, 자기 주도성(agency)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ISA 2018에서는 텍스트 범주의 하위 요소에 ‘자료’ 및 ‘조직과 탐색’을 추가하였다. 21세기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단일 텍스트와 더불어 온라인의 다중 텍스트를 읽기 ‘자료’에 포함하였으며, 글 중심의 ‘정적’ 텍스트와 더불어 동영상, 음성,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동적’인 텍스트까지로 텍스트 범주를 확대하였다. 특히, PISA 2018에서는 PISA 2009에 이어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와 같은 전통적인 텍스트 장르 이외에, 독자와 필자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텍스트 장르들을 평가에 적극 활용하였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도 이러한 디지털 매체 환경을 주목하여, 2018년 조사에 포함된 바 있는 ‘디지털 문항’을 2024년 읽기 영역 조사에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태블릿 피시 화면의 실제 터치와 조작, 동영상 삽입 등을 통해 디지털 읽기 행위의 실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배경 설문 조사에서도 디지털 문식 환경에 관한 질문들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식 환경에서의 읽기 태도와 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②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능력검사(PIAAC)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의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가장 유사한 조사이다. 2011년에 1주기(1st Cycle) 평가가 시작되었는데,¹⁹⁾ OECD 24개국, 이후 OECD 비회원국 9개국

19) 1주기 평가는 2008년~2019년에 총 세 번의 데이터 수집 라운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2011~2012년, 두 번째는 2014~2015년, 세 번째는 2017~2018년인데, 총 39개국 국가/지역이 1주기에 참여했다. 현재는 33개 국가/지역이 2주

을 추가로 포함하여, 세계 성인의 직장 과 학업에 대한 기본 능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는데, 2주기(2nd Cycle) 평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사가 미뤄져 현장 조사가 2021~2023년에 이뤄졌으며, 따라서 국내 결과도 2024년 12월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 제까지 PIAAC의 시행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이 맡아 왔다.

주지하다시피, PIAAC은 ‘문식성(literacy), 수리력(numeracy),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의 세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와 함께 포괄적인 배경 설문 조사도 이뤄진다. 배경 설문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및 언어적 배경, 교육 수준, 노동 참여, 고용 수준, 응답자의 직업 구성, 기본적인 문해력, 기본적인 수리력, 성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11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OECD는 국제 능력 평가로 2가지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PISA와 PIAAC이다. PISA가 공교육이 끝나갈 때쯤의 학생들(만15세)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점검과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PIAAC은 공교육을 완료한 만 16세~65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과 경제적, 사회적 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와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국가의 평생에 걸친 교육 체제를 점검 및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점은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유사한 지향이다.

즉 PIAAC은 실행 목적은 물론, 광범위한 연령대의 성인 대상 평가라는 점, 정기적 주기로 시행됨으로써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평가, 정책적 반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정책 일환 평가라는 점에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유사하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성인의 문해력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틀 또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1주기(2011~)에서 2주기(2023~)로 이어지는 동안 세 영역(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의 정의가 조금씩 변화해 왔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 1주기에는 ‘문자로 쓰인 텍스트(written text)’라는 표현이 기본 설정값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게 등장했다면, 2주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 틀(assessment frame)에서 ‘매체(종류)’ 구분란에 ‘인쇄 기반 매체 vs 디지털 매체’의 구분을 두었으나 2주기에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 이는 인쇄나 디지털이나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음을 방증한다. 또한 응시자의 응시 방법(접근 모드)이 컴퓨터 기반(태블릿 제공)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기본 문항(문해력 8문항+수리력 8문항)을 먼저 풀고 난 다음 응시자의 답률에 따라, 3가지 다른 시험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해력과 문제해결력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문해력에 대해 1주기에서는 ‘문해력은 사회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문자 텍스트(written text)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참여하는 능력, 문해력이란 문자로 된 단어와 문장의 해독으로부터 복잡한 문장의 ‘이해(comprehens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함과 같이 2단계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2주기 평가에서는 ‘접근(accessing), 이해(understanding), 평가(evaluating)’로 간명하게 바뀌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을 보면, 1주기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정의했다면, 2주기에서는 ‘맞춤형 문제 해결력(Adaptive problem solving)’으로 능력의 성격이 전환되었고, 그 정의도 1주기에서 ‘문제 해결이란 정보 획득과 평가, 타인과의 의사소통, 실제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디지털 기술, 의사소통 도구와 네트워크 능력을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에 접근 및 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업무 및 시민의 목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2단계로 기술하고 있었다면, 2주기에서는 ‘맞춤형 문제 해결은 해결 방법을 즉시 사용하

기의 데이터 수집을 마쳤고 결과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처럼, 인지와 상위인지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려는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에 요구되는 인지 전략도 '목표 설정 및 진행 과정 점검, 계획, 정보 수집 및 평가, 정보 활용'으로 설정했었으나, 2주기에서는 '정의(Definition), 탐색(Searching), 적용(Application)'으로 간명하게 바뀌었다. 본 조사와 연관이 있는 '문해력' 및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영역의 정의와 평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표 II -62> PIAAC 2주기 평가 틀의 주요 자질(version 2023)

	문식성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정의	■ 문해력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기록된 텍스트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능력		■ 맞춤형 문제 해결은 해결 방법을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인지적, 메타인지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환경과 맥락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해결책을 적용하는 능력	
내용 21)	텍스트 특질	■ 유형(묘사, 서사, 설명, 논증, 지시, 교섭) ■ 형식(연속, 비연속, 혼합) ■ 조직(정보의 양, 콘텐츠 재현 및 접근 장치의 밀도) ■ 자원(단일 텍스트 vs 복수 텍스트)	문제 측면	■ 문제의 형상화 ■ 상황의 역동성 ■ 환경의 특성 ■ 정보의 환경
인지 과정	■ 텍스트 접근(accessing text) ■ 이해(understanding) ■ 평가(evaluating)		■ 목표 설정 및 진행 과정 점검(모니터링) ■ 계획하기 ■ 정보 수집 및 평가 ■ 정보 활용	
맥락	■ 일상적 & 직업적 ■ 개인적 ■ 사회적 & 시민적(civic)		■ 개인적 ■ 일상적 ■ 사회적/공동체적	
과제 난이 도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 텍스트 요인(길이, 텍스트 유형, 내용의 친숙도, 내용 신호 장치의 존재) ■ 과제 요인(본문 길이, 안내의 명시성) ■ 과제별 텍스트 요인(일치 유형,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의 존재)		■ 요인, 관계, 작동(연산)의 수 ■ 작동의 중요성 및 접근성 ■ 문제 요인 간의 상호작용 ■ 동시 해결해야 할(병렬적) 과제 및 목표의 수 ■ 변인 자질들의 수와 관련성 ■ 변화의 중요성(변화되는 경우) ■ 변화 빈도 ■ 교착 상태(impass)의 정도 ■ 정보의 풍부성 ■ 무관한 정보의 비율	

20) OECD(2021), The Assessment Frameworks for Cycle 2 of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19, pp.32~37. "Main features of the assessment frameworks for PIAAC Cycle"

		■ 환경 구조의 부족 ■ 정보 출처 수
접근 모드	■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 컴퓨터 기반(태블릿 장치)+종이 기반 옵션	■ 컴퓨터 기반(태블릿 장치)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대체로 위의 표에서 ‘문해력’ 영역에 가까운데, 디지털 문항들의 경우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과도 관련이 있다.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되 정보 획득과 평가, 의사소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이며, 이는 본조사에서 상정하는 읽기 능력에서도 포괄하고 있다. 한편 ‘문해력’ 영역의 경우, 텍스트의 이해, 평가, 적용이라는 다양한 능력들을 상정하고 있으며, 본 조사 역시 이해와 추론뿐 아니라 ‘평가’와 ‘재구성’을 조사 도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두었음을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또한 PIAAC 문항에서 보듯이 ‘연속/산문 텍스트’, ‘비연속/문서 텍스트’, ‘혼합 텍스트’, ‘복합 텍스트’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제재로 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²²⁾ 과거에도 인간이 접하는 텍스트는 다양한 시각 요소(표, 그래프 등)들을 활용하거나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병치로 구성되는 현상이 빈번하였지만, 특히 디지털 문식 환경의 도래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자 중심의 텍스트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기는 하나, 텍스트가 여러 시각 기호들과 결합하거나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등의 형태로 비선형적인 읽기가 추동되는 양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널리 나타난다. 본 조사의 조사 도구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텍스트 유형들을 포괄함으로써 각 유형에서 작동하는 읽기의 원리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 문법·규범 영역 비교 분석

문법·규범에 관한 국내외 자국어 능력 조사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예비 조사 단계인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3)에서 상세히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조사가 다른 조사와 어떤 변별점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조사의 문법·규범 영역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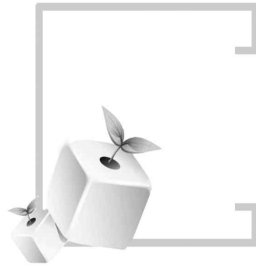
첫째, ‘문법’과 함께 ‘규범’ 영역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문법·규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이는 국어능력인증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영국중등교육수료시험 등 어문 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자국어 능력 조사의 경향을 고려한 결과이다. 나아가 ‘문법’의 하위 범주로 설정되어 있던 ‘규범’ 범주를 영역 층위로 재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이 보다 규범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는 지향을 드러낸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맞춤법’, ‘띄어쓰기’, ‘발음과 표기’, ‘형태와 표기’ 등 비교적 한정적으로 다뤄졌던 어문 규범 관련 평가 요소에 ‘복수 표준어’, ‘표준 발음’,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등 일상의 언어생활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평가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규범’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1) 박주현(2018), 디지털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및 정보 서비스의 방향 탐색- PIAAC와 P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2) 다만 예비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에서 디지털 문항의 수를 2018년에 개발된 2개보다 훨씬 많은 수(6개)를 개발하였으나, 예비 조사 결과 문항 곤란도와 변별도가 상위인 것을 먼저 선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항의 수가 최종 3개로 정해졌다. 이는 디지털 문항의 설계 특성상, 문항의 사이즈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시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 난도(곤란도)가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변별도와 곤란도 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 선정 단계에서 서열이 뒤로 밀려나지 않았나 추측된다. 향후 정책적 결정을 가하여, 디지털 문항에 대해서는 필수 문항 수를 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본조사의 문법·규범 영역은 다른 자국어 능력 조사와는 달리, 오늘날 디지털 매체 환경의 확산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한 상황이나 ‘받은 쪽지함’에서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디지털 매체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법·규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맥락과는 유리된 문법적인 지식을 묻고 확인하는 단순한 조사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문법·규범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조사 문항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성별, 연령, 지역 규모, 직업군, 학력, 대학 전공, 월간 독서량 등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문법·규범 능력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 빈도를 묻는 설문을 통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국민의 문법·규범 관련 언어 활동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 자국어 능력 조사와 비교했을 때 본조사가 지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디지털 매체를 자주,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문법·규범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문법·규범 관련 경험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쓰기 영역 도구 개발 및 예비 조사



3.1. 이론적 검토

1) 1, 2차 국민의 국어능력 쓰기 영역 실태 조사에 대한 평가

(1) 조사 도구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5년 주기의 시행이 정례화된 바 있으나,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연차별로 각기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둔 분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쓰기 영역의 경우 1차(2013년), 2차(2018년)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3차 실태 조사는 2025년에 예정되어 있다. 조사 주기가 길어진 만큼 그사이 변화한 문식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한 조사 도구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쓰기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인지적 부담이 크고,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앞선 1, 2차 실태 조사에서는 3문항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으며, 한정된 문항으로 여러 담화 상황에서의 쓰기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친교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의 세 가지 담화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3차 실태 조사에서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변화된 문식 환경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친교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에 ‘디지털 글쓰기’ 문항을 더하여 총 네 문항으로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1, 2차 실태 조사 도구는 각각 66분(이원화 설계), 70분~116분(삼원화 설계) 동안 조사 대상이 여러 영역에 응답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3차 실태 조사의 경우 각 영역별 조사를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부하를 낮춰 각 문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조사 인원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차, 2차 실태 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표본 수로 시행되었다.

<표 III-1> 1차, 2차 실태 조사의 표본 수

	예비 조사	본조사
1차 실태 조사(2013)	성인 남녀 400명 (20세~59세)	성인 남녀(20세~59세) 가형: 1,416명 나형: 1,500명
2차 실태 조사(2018)	성인 남녀 300명 (20세~69세)	성인 남녀(20세~69세) 통합형: 500명

		가형: 2,470명 나형: 2,500명
--	--	--------------------------

1차 실태 조사에서의 조사 대상이 20세~59세였던 반면, 2차 실태 조사에서는 그 대상의 연령이 20세~69세로 확대되었다. 이에 2차 실태 조사에서는 각 담화 유형의 구체적인 하위 장르 선정에 있어 전문적인 장르 인식을 요하는 담화 유형보다는 보편적으로 전 연령층이 실제 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담화 유형을 통해 자연스러운 쓰기 능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 인원의 경우 2013년 1차 실태 조사의 예비 조사에서 400명, 본조사에서 1,500명('나'형에 해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에 실시한 2차 실태 조사에서는 예비 조사에서 300명, 본조사에서 3,000명('통합형' 및 '나'형에 해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차, 2차 실태 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조사와 본조사에서 모두 층화 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표본 선정 방식과 인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차 조사에서도 예비 조사와 본조사 모두 조사 목적과 조사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1차, 2차 실태 조사에 준하는 표본 집단을 선정한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좀 더 정교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

(3) 조사 방식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차 실태 조사의 경우 숙달된 조사원들이 표집된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로 만나 지면 형태의 조사지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2차 실태 조사 또한 1:1 방문 면접 조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기본적으로 태블릿 피시를 활용한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1차 실태 조사와 차이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응답자가 태블릿 피시를 활용한 조사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종이 설문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차 실태 조사 또한 2차 실태 조사 방식을 원용한다. 그러나 2차 실태 조사의 방식은 조사 환경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내방형 조사를 병행하고, 두 조사 방식의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2차 조사의 경우 쓰기 문항은 응답자가 직접 키보드를 사용해 타이핑을 하도록 했으나, 키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응답자는 종이에 내용을 적은 후 조사원이 사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매체' 변인을 온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변인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쓰기 영역의 경우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쓰기 활동이 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고령층의 매체 친숙도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자판 입력의 방식을 활용해 조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조사 결과 해석 측면에서의 성과 분석

1차, 2차 실태조사의 경우 '세대, 지역, 성별, 직업,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독서량, 인터

넷 이용량, 국어 관련 학습 활동’ 등의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각 영역별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영역 통합형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각 영역에 따라 주목될 필요가 있는 구인이나 결과에 대한 심층적 해석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차, 2차 실태 조사 모두에서 쓰기 영역은 2수준 이하의 비율이 각각 73.7%, 70.8%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하위 요인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깊이 있게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3차 조사에서는 연차적으로 영역을 달리하여 초점화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영역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세밀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5) 5년 주기 국어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연차별 정례화

1차, 2차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 도구 개발 연구’와 ‘조사 연구’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국어 정책을 위한 유의미한 제언을 도출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본 연구의 의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도구 개발 연구 - 조사 연구 - 심층 분석 연구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의 다섯 단계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풍부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연차별·영역별 분할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5년 단위의 주기 동안 각 영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 1차, 2차 실태 조사 성과 분석 및 시사점

	1차, 2차 실태 조사 성과 분석		3차 실태 조사를 위한 시사점
조사 도구의 측면	5개 영역 통합형 조사 도구 설계 - 비동등 집단 설계 방식으로 1시간 내외의 조사 도구 설계 - 피조사자들의 집중도가 저해되는 문제	➔	- 연차별 영역 분할형 조사 도구 설계를 통한 조사 신뢰도 확보 - 쓰기 영역의 경우 2차 실태 조사(2018)와 조사 주기가 길어졌으므로 그 사이 변화한 문식 환경을 반영한 설계
조사 인원의 측면	조사 도구 및 시간을 고려한 층화 표본 추출 방식	➔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조사 방식의 측면	1:1 방문 면접형 조사 - 지면 및 디지털 검사지 병행 사용 - 조사 환경 및 집중도 차이 발생	➔	1:1 방문 면접형 조사와 소규모 내방형 조사 병행 실시 - 쓰기 문항의 경우 매체 환경 변화 및 고령층의 매체 친숙도를 고려한 조사 방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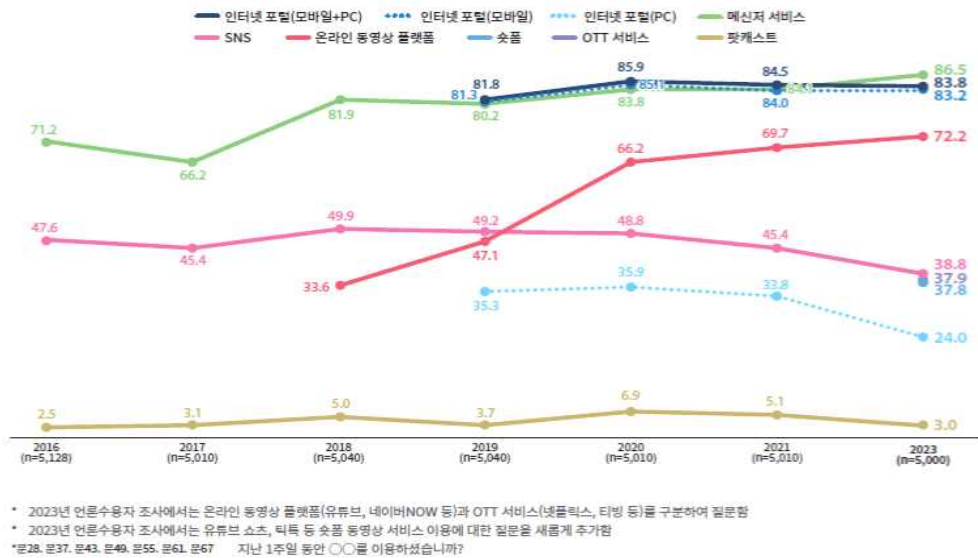
결과 해석의 측면	5개 영역 통합형 조사 도구로 인한 심층 분석의 어려움 - 관련 환류 정책 수립의 한계	➔	- 연차별 영역 분할형 조사 도구 설계 - 영역별 하위 요소의 세분화 및 심층적 분석 - 세밀화된 환류 정책 수립
연차별 정례화의 측면	- 조사 도구 개발 및 시행에만 한정된 연구 시행 - 환류 정책 및 시행의 미비	➔	- 주기 내 5년 동안 지속적인 영역별 조사 시행 - 영역별 심층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의 다각화

2) 국어 사용 환경 및 현황 분석에 따른 쓰기 능력의 범위, 개념

(1) 국민의 쓰기 능력과 관련된 국어 사용 환경 및 현황 분석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여가 시간 주요 활동으로 ‘스마트폰 이용’은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9.6%로 나타난 ‘휴식 활동’(티브이(TV) 시청, 산책 및 걷기 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8년 조사 결과인 14.1%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44.3%로, 2위인 ‘휴식 활동’이 16.3%를 차지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2023년 피시(PC) 인터넷 이용률이 29.2%인 반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식 환경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와 연필, 컴퓨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접근성과 행동 유도성(affordance)을 지닌 스마트폰의 등장에도 국민들의 공적 담론장에서의 실제적인 쓰기 활동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2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중 온라인상 유용한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쓰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90.1%에 달하며,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등에서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쓰는 비율 또한 ‘거의 하지 않음’의 비율이 8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클럽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쓰는 비율 또한 각각 9.5%, 7.3%에 해당하여 높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누리소통망 이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세대에서 ‘읽기’나 ‘반응하기’에 비해 ‘쓰기’의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진보래, 2023).



[그림 III-1] 인터넷 기반 매체 이용률 추이(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다만 스마트폰 활용의 보편화와 함께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6.5%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기반 매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쓰기 상황을 고려할 때,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쓰거나 이를 통해 공적 담론장에 참여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의 소통 구조를 이해하고 쓰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능력 또한 쓰기 능력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쓰기는 전통적인 인쇄 매체 기반의 쓰기와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수용 방식, 소통 방식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지니며 이에 따라 지식, 기능, 태도 등 요구되는 쓰기 능력 또한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식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쓰기 양상과 여기에 요구되는 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도구의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에 따른 쓰기 능력의 범위 및 개념 수립

2차 실태 조사에서는 쓰기 능력에 대해 “목적, 맥락, 독자, 담화 관습 등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아닌 하위 요인 중심의 구체적인 기술 방식을 택한 것이다(장지혜 외, 2020: 159). 그러나 이러한 개념 진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쓰기 능력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쓰기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누리소통망에서의 쓰기는 문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구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통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3의 구술성’(이동후, 2010), 혹은 ‘구술적 문자성’(oral literacy)(이재현, 2012)을 지니는데, 이 경우 단문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효과적인 ‘생성’이나 ‘조직’, ‘표현’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텍스트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탐색·이해·평

가 적용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김종윤 외, 2017: 12)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쓰기 능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OECD(2019)에서는 ‘2030 학습 프레임 워크(2030 Learning Framework)’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였으며²³⁾, 국내의 경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재구성하거나 신설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쓰기 능력의 주요 부분으로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22).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 이 성취기준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쓰기 목적, 독자와 매체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상 독자의 개념 이해하기, 독자 고려의 필요성 인식하기, 온라인 대화, 인터넷 게시판 댓글, 전자 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매체와 예상 독자 선정하기, 독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및 내용 생성하기, 독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등을 학습한다.

[9국03-07]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며 글을 쓴다.

- 이 성취기준은 글을 쓸 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의 특징 및 유형 이해하기,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하기 등을 학습한다.

또한 필자와 독자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가 협력하여 대규모로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온라인 글쓰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자신의 글쓰기 행위를 성찰하는 역량 또한 쓰기 능력의 중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쓰기 능력이란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넘어, 오늘날의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이를 통해 상황 맥락·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소통 문화에 참여하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능력의 개념을 평가 도구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1) 국내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다음은 쓰기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진단 체계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쓰기 능력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이 아닌 실제 수행형 문항을 통해 대규모로 직접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기관 및 민간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23)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aris: OECD.

<표 Ⅲ-3> 국내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도구 명칭	전체 평가 영역 및 쓰기 영역 평가 요소	조사 대상	조사 방법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연구 (2023)	- 영역: <u>쓰기</u> - 요소: 내용, 조직, 표현	전국 대학생 9,000명	사전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집합 참여 및 개인별 참여 병행)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 (2022)	- 영역: <u>쓰기</u> - 요소: 내용, 조직, 표현	만19세 이상 성인 300명 (대학생 및 직장인)	사전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활용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2018)	-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u>쓰기</u>, 문법, 디지털 리터러시 - 요소: 내용, 조직, 표현	층화표본추출에 따른 20~60세 성인 남녀 5,500명	웹 기반 조사 시스템 태블릿 피시 활용 1:1 방문 면접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2013)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u>쓰기</u>, 문법	층화표본추출에 따른 20~60세 성인 남녀 3,000명	가구 방문 1:1 개별 조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영역: 국어(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요소: 교육과정 쓰기 내용 요소 (쓰기 맥락, 글의 유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공유하기, 점검과 조정 등)	표집된 중3, 고2 학생(2024년부터 초3, 초5, 초6, 중1, 중3, 고1, 고2 학년으로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
국어능력인증시험 (ToKL)	- 영역: 언어 기초 영역(어휘, 어법·어문 규정), 언어 기능 영역 (듣기, 읽기, 쓰기), 사고력 영역 (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창의) - 요소: 주제 설정, 자료 수집과 정리, 내용 구성, 내용 전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시험장 내방형 지필 평가

①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연구(2023)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연구’²⁴⁾는 위의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2022)의 후속 연구로,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의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2023년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 채점 기준표를 고도화하고, 설명적 글쓰기 문항의 프로토타입과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설명적 글쓰기의 문항 초안은 다음과 같다.

24)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23),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국립국어원.

문항 1. (인문·예술) 영화관에서의 영화 감상과 OTT 플랫폼에서의 영화 감상

영화 감상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문화 생활이다. 영화를 보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감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 감상을 영화관에 가서 할지, OTT 플랫폼을 통해 할지 고민하는 독자가 다양한 영화 감상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글을 쓰시오. (231자)

[유의 사항]

△ 도입, 전개, 정리의 구조로 완결된 글을 쓸 것(제목을 쓰지 말 것).

△ 분량: 1,000자 내외(±200자, 공백 포함), 시간: 90분

[그림 III-2]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연구 중 설명적 글쓰기 문항 초안

설명적 글쓰기의 채점 준거는 내용, 조직, 표현의 대범주를 설정하고 하위 준거를 개발하였다. 내용 범주는 ‘맥락에 대한 이해,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뒷받침 내용의 충분성’이 하위 준거로 설정되었으며, 조직과 표현 범주는 논증적 글쓰기의 채점 지표와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2022)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²⁵⁾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어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에게 필요한 쓰기 장르 중 논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진단 지표와 평가 준거를 구축하였다.

쓰기 능력은 다양한 하위 구인으로 구성되며, 쓰기 구인은 쓰기 기능, 쓰기 태도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쓰기 기능 및 결과물을 중심으로 쓰기 구인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학 입학 시험 등의 고부담 평가에서 주로 활용된다.

쓰기 평가 문항은 크게 ① 쟁점 제시형, ② 복합 자료 제시형, ③ 단일 자료 제시형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세 개의 유형별 평가 문항의 초안을 개발 후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 및 예비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25)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22),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1번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세를 부과함으로써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로봇세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유의 사항]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결된 글을 쓸 것(제목을 쓰지 말 것). △ 분량: 1,000자 내외(±200자, 공백 포함), 시간: 90분
----	---

[그림 III-3]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 평가 문항 사례

위 문항의 평가 준거는 쓰기 능력 지표를 반영하여 ‘내용, 조직, 표현’의 범주에 따라 개발되었다. 내용의 경우 ‘주장의 적절성, 주장의 명료성’, ‘주장과 이유/근거 연결(추론)의 적절성’, ‘이유나 근거의 충분성, 이유나 근거의 전개 수준’, ‘입장 고려의 수준, (다양한 관점에의) 접근의 다양성’이 하위 구인으로 포함되었다.

조직의 경우 ‘문단 구분의 적절성, 문단 배열의 유기성’, ‘(문단 구성의) 완결성, 통일성, 일관성’이 하위 구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표현 영역의 경우 ‘문장 표현의 자연스러움, 문장 표현의 효과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 준수, 글쓰기 관습 준수’의 하위 구인이 제시되었다. 각 구인은 0점을 제외한 5점 척도(1-5점)로 구분되었다.

③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는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실태 조사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면밀히 기술함으로써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국어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는 2013년, 2018년, 2023년의 5년 주기로 실시되었다. 이 중 듣기·말하기 영역의 조사에 해당하는 2023년 연구를 제외하고, 2013년 및 2018년 연구는 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시행되었다.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디지털의 여섯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집단은 만 20세~69세의 성인 약 5,500명이며, 이 중 쓰기 영역의 3,000개 응답 사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쓰기 영역 세부 요소

영역	중영역	소영역	문항 수	
쓰기	가. 친교적 쓰기	1. 3문장 정도의 글	1	3
	나. 설명적 쓰기	1. 300자 내외의 글	1	
	다. 논증적 쓰기	1. 400자 내외의 글	1	

쓰기 영역은 친교적 쓰기, 설명적 쓰기, 논증적 쓰기의 세 영역이며, 각 영역당 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친교적 쓰기는 사과의 글, 감사의 글, 축하의 글, 격려 또는 위로의 글,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이 해당한다. 설명적 쓰기는 안내문, 설명문, 기사문, 보고서, 공문서, 계약서 등이 있다. 논증적 쓰기는 논설문, 제안서 또는 요청서, 추천서, 건의문 또는 탄원서, 의견서, 비평문, 자기소개서가 제시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3문장 내외의 감사 편지, 300자 내외의 설명문 쓰기, 400자 내외의 논설문 쓰기가 채택되었다.

채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및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력 3년 이상의 국어 교사, 학사 학위를 소지한 경력 5년 이상의 국어 교사로 구성되었다. 채점의 효율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통채점과 무선채점을 혼합하였고, 한 문항에 대해 2인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며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고 신뢰도가 낮은 경우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채점 기준은 원년 연구(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의 평가 기준과 일부 기준들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친교적 쓰기의 ‘내용’ 영역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내용 선정”이 추가되었고, 표현 영역에서는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보완되었다. 독자 고려가 내용과 표현 면에서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논증적 쓰기의 평가 기준에서는 독자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고, ‘표현’ 영역에서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 사용”이 추가적인 평가 기준으로 도입되었다.

④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는 첫 번째로 수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로, 실태조사 연구의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이므로 쓰기 영역의 구분(친교, 설명, 논증)이 동일하며 2018년 연구에서 가교 문항의 동등화 검사를 통해 동형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문항 구성 역시 동일하다.

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준거참조평가이다. 평가 대상은 전체 학생 중 약 3%를 층화 군집 표집하여 추출하며, 평가 프레임은 ‘영역, 역량, 맥락’의 3차원에 기반한다. ‘영역’은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영역을 재구성한 것이며, ‘역량’은 각 교과별 핵심 역량을 재구성한 것이고, ‘맥락’은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상황이다.

국어과의 경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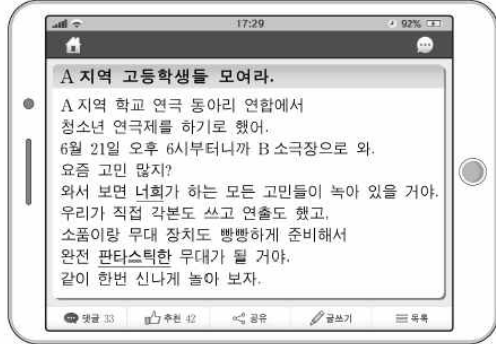
<표 Ⅲ-5>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틀(국어과)

	내용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맥락	담화 텍스트, 문학 텍스트, 비문학 텍스트

측정 대상은 중 3과 고 2였으나, 2024년부터 초 3, 초 5, 초 6, 중 1, 중 3, 고 1, 고 2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2018년의 국어과 평가 문항 중 쓰기 관련 문항의 예시이다.

<표 Ⅲ-6>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서술형 문항 예시

중3	고2
【서답형 2】 <자료>의 대화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쓰고자 한다. 건의할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료>  <조 건> - 바지의 길이와 소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건의할 내용을 쓸 것. <자료>에 제시된 표현을 활용하여 쓸 것. ○ 건의할 내용: _____ _____	【서답형 6】 고등학생을 예상 독자로 쓴 (가)를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하여 (나)로 바꾸었다.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고쳐 ㉠과 ㉡에 쓰시오. (가)  (나) 제12회 A지역 청소년 연극제 A 지역 주민 여러분! A 지역 학교 연극 동아리 연합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연극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으시죠? 오셔서 보시면 (㉠)이/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각본과 연출에도 참여하고, 소품과 무대 장치도 알차게 준비해서 아주 (㉡)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많은 관람 바랍니다. 연시: 6월 21일 오후 6시 ㉠: _____ ㉡: _____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다음 4개 수준으로 구분한다.

<표 III-7> 교육과정 성취수준 4수준

수준	설명
1수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수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3수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4수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억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⑥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능력의 총체적 평가를 위해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전체 문항 수는 90문항이며, 객관식 80문항과 주관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평가 영역은 크게 ‘언어 기초 영역’, ‘언어 기능 영역’, ‘사고력 영역’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언어 기능 영역’은 ‘청해능력’(듣기), ‘독해능력’(읽기), ‘작문능력’(쓰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쓰기 영역의 문항 수는 10문항이며, 이 중 5문항이 주관식이다. 쓰기 영역의 평가 내용은 ‘문장 생성 능력, 단락 전개 능력 등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은 쓰기 문항 중 수행형(서·논술형) 문항 구성의 예시이다.

※ <보기>는 문제와 그에 답하는 한 편의 완성된 글의 서론이다. 이 서론은 주제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사안에 빗대어 도입부를 쓰고 있다. <보기>의 서론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문장을 쓰시오.

<보 기>

[문제] 문화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하여 국내의 문화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 산업 시장만 문을 닫아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내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두 의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밤에 나왔을 경우 오래 견디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양식용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가 늪지와 연못의 생태계를 장악한 사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다. 이것은 비록 자연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 산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내 문화 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우리의 문화를 온실 속에 가두고 그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될 거대한 문화 황소개구리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폐쇄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 산업을 지키면서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_____

[그림 III-4] ToKL 쓰기 문항

예시 문항에서는 ‘밑줄 친 문장’으로 지시된 부분을 다시 쓰도록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보기>와 같이 다시 써 보시오.”처럼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특정 개요를 제시하고 “개요를 통해 결론의 내용을 쓰시오.”와 같은 지시문도 출제된다.

위 예시 문항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ToKL 예시 문항 평가 기준

등급	기준
A	주어진 요구를 제대로 살린 경우
B	요구된 두 문장을 잘 지켰으나 어문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C	요구된 두 문장을 다 쓰지 못하고 한 문장만 쓴 경우
D	요구된 두 문장을 다 쓰지 못하고 한 문장만 쓰고 어문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문항의 조건을 지켰는지, 어문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문항의 예시 답안은 아래와 같다.

빛이 안 드는 땅속에서 살던 두더지가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면 눈이 머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어항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던 금붕어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파닥이다 죽어 가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 답안은 2문장이며, 총 128자이다. 서론의 도입부가 전체 글에서 수행하는 기능(시선 끌기)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유사한 소재를 찾아 유사한 형식으로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2) 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도구 검토

다음은 쓰기 영역 도구 개발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국외 평가 도구들의 사례이다. 실제 수행형 문항을 통한 직접 평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평가’가 아닌 ‘조사’임을 감안할 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나 문항 설계 방식,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평가와 조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지만,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통해 측정의 하위 요소들이나 내용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국내 대규모 조사 도구에서 대체로 ‘내용, 조직, 표현’의 요소를 중심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국외 평가에서도 해당 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호주 OWA와 노르웨이 NSBWT에서는 ‘독자 고려’ 또는 ‘작가-독자 상호작용’을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NAEP의 경우 작문을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상 독자를 설정하여 실제 맥락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SBAC나 IB, 독일 아비투어 등에서 자료 텍스트를 활용한 근거 기반 쓰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나, 이는 고차적인 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학을 위한 평가 상황, 혹은 학문

목적 글쓰기 상황에 부합하며 국민 대다수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쓰기 도구의 개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

<표 III-9> 해외 쓰기 능력 실태 조사 사례

도구 명칭	전체 평가 영역 및 쓰기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대상	평가 방법
국제 성인 리터러시 조사 (IALS)	영역: 산문 리터러시(prose literacy), 문서 리터러시(document literacy), 양적 리터러시(quantitative literacy)	16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방문 면접 조사
성인 리터러시 및 생활 능력 조사 (ALL)	영역: 산문 및 문서 리터러시(prose and document literacy), 문제 해결 능력(problem solving), 수리력(quantitative literacy)	16세 이상 미국 성인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방문 면접 조사
성인 문해력 조사 (NAAL)	영역: 문장 이해력(prose literacy), 문서 작성 능력(document literacy), 수리력(quantitative literacy)	16세 이상 미국 성인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방문 면접 조사
미국 SAT	- 영역: 증거 기반 읽기, <u>쓰기</u> - 요소: 정보와 아이디어, 수사(craft) 및 구조, 아이디어의 표현, 표준 영어 관습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지필 평가 (2023년부터 디지털 평가로 전환)
미국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 영역: 수학, 읽기, 쓰기, 과학, 미국사, 사회, 지리, 예술 - 요소: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언어 사용/규범	인구통계학 및 지리적 대표로 표집된 미국 4, 8, 12학년 학생	태블릿 피시 활용 평가
노르웨이 국가 샘플 기반 작문 시험 (NSBWT)	- 영역: 설득, 설명, 상상 - 요소: 작가-독자 상호작용, 내용, 텍스트 구조, 언어 사용, 표현 역량	노르웨이 국내 62개교 950명 학생	지필 평가

○ 국제 성인 리터러시 조사(IALS)

국제 성인 리터러시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는 국제적으로 성인의 리터러시를 측정 및 비교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조사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행되었다. 22개국의 16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리터러시를 기술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IALS는 이후 ALL 및 PIAAC의 원년 연구가 되었다.

IALS는 ‘산문 리터러시’(prose literacy), ‘문서 리터러시’(document literacy), ‘양적 리터러시’(quanti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을 측정한다. ‘산문 리터러시’란 사설, 뉴스 기사, 시, 소설 등의 텍

스트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의미하며, 문서 리터러시는 취업 명세서, 지도, 표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는 문서에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뜻한다. ‘양적 리터러시’는 주문서 작성, 팁 계산 등 인쇄물(print)에 포함된 숫자를 연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말하는데, 이후 ALL에서 ‘수리력’(numeracy)으로 영역 이름이 변경되었다.²⁶⁾ 예시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 성인 리터러시 및 생활 능력 조사(ALL)

성인 리터러시 및 생활 능력 조사(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 ALL)는 성인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ALL은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2003년의 첫 번째 연구에 버뮤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멕시코 북부(Nuevo Leon)와 스위스, 미국이 참여하였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수행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호주, 헝가리,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새롭게 참여하였다.²⁷⁾

ALL은 16세부터 65세의 표본을 대상으로 리터러시와 수리력(numeracy skills)을 측정하였다. ALL에서 리터러시는 “문자로 쓰인 글을 이해하고 글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으로 정의되었다. ALL의 구체적인 조사 영역으로는 ‘산문 및 문서 리터러시’(prose and document literacy), ‘수리력’(numeracy), ‘문제 해결 능력’(problem solving)이 있으며, 이 중 ‘문제 해결 능력’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도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문 및 문서 리터러시’는 ‘사회에서 기능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종이에 인쇄된 글(printed and written)에 담긴 정보를 사용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산문 또는 문서를 읽고 정보를 찾는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문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만의 짧은 글을 쓰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문서 리터러시’의 경우 ‘쓰는’ 능력은 거의 요구되지 않으며, 문서의 정보를 찾아 단답형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출제되었다.

ALL의 역량 평가는 IALS와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영역별 숙달도(proficiency)는 0점에서 500점이며, 각 점수는 해당 점수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80%임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숙달도를 다섯 레벨로 구분했다.²⁸⁾

<표 III-10> ALL 등급 및 채점 기준

등급	채점 기준
Level 1 (0~225점)	이 수준의 과제에서 응답자는 비교적 짧은 텍스트를 읽고 질문이나 지시문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의어인 단일 정보(single piece of information)를 찾아야 한다. 텍스트에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정확한 정보 근처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Level 2 (226~275점)	이 수준의 과제에서는 응답자가 텍스트에서 단일 정보를 찾아야 하지만, 몇 가지 방해 요인(distracters)이나 그럴싸해 보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낮

26) <https://nces.ed.gov/surveys/ials/measure.asp>

27) <https://nces.ed.gov/surveys/all/>

28) <https://nces.ed.gov/surveys/all/proficiency.asp>

	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할 수 있다. 또는, 응답자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통합하거나 질문이나 지시문에 제공된 기준에 따라 쉽게 식별 가능한 정보를 비교하고 대조할 것이 요구된다.
Level 3 (276~325점)	이 수준의 과제는 대체로 응답자가 텍스트와 과제에 제시된 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거나 유사한 일치(matches)를 찾도록 요구하며, 텍스트의 정보를 찾기 위해 낮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한다. 또한, 응답자에게 표제와 같은 구성 보조 자료가 없는 밀집되거나 긴 텍스트에서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응답자에게 텍스트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방해 요인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 근처에는 위치하지 않는다.
Level 4 (326~375점)	이러한 과제에서는 응답자가 여러 특징을 가진 정보 간 일치(multiple-feature matches)를 찾아야 하며, 복잡하거나 긴 문단에서 정보를 통합하거나 종합해야 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조건부 정보를 고려하여 응답해야 한다.
Level 5 (376점~500점)	이 수준의 과제에서는 응답자가 많은 방해 요인이 있는 밀집된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응답자에게 높은 수준의 추론을 내리거나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부 과제에서는 응답자에게 복잡한 정보를 대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부 하위 문항에서 응답자는 정보를 대조하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응답자는 글을 읽고 짧은 글을 써야 할 수 있으나, 주로 ‘읽는’ 기능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답안의 조직 및 표현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성인 리터러시 조사(NAAL)

성인 리터러시 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NAAL)는 미국의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이다. 미국의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 NCES)가 주관하며, 1992년 NALS 이후 개발된 가장 포괄적인 성인 리터러시 측정 도구이다.

NAAL의 목적은 성인들의 읽기 능력과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 수준 등의 배경 요인과 리터러시의 관계 등 리터러시에 관한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자, 실무자, 정책 입안자,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3년에는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표본 추출 방법은 4단 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NAAL은 성인 리터러시를 폭넓게 기술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이 평가는 성인이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인쇄된 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을 측정한다. 이때 리터러시는 크게 산문 리터러시(prose literacy), 문서 리터러시(document literacy), 수리 리터러시(quantitative literacy)로 나뉜다. 산문 리터러시는 연속적인 텍스트를 검색, 이해,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으로, 사설(칼럼)이나 뉴스 기사, 설명서 등을 읽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서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식의 비연속적 텍스트를 검색, 이해,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며, 지도나 표가 포함된 다양한 문서를 읽는 능력을

측정한다. 수리 리터러시의 경우 주문서 작성, 금액 계산 등 수리력과 관련된 리터러시를 측정한다.

○ 미국 SAT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입 시험이다. 최근 2023년부터 지필평가가 아닌 디지털 평가(digital SAT)로 전환하였으며, ‘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 수학(math)의 두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 체제는 다음 <표 III-11>과 같다.²⁹⁾

<표 III-11> SAT 평가 체제

요소	할당된 시간	총 문항 수
읽기와 쓰기	64분 (32분*2개 모듈)	54개
수학	70분 (35분*2개 모듈)	44개
합계	134분	98분

‘읽기와 쓰기’ 영역은 총 64분으로, 각 32분의 2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와 쓰기’ 영역은 ‘수사와 구조’(craft and structure), ‘정보와 아이디어’(information and ideas), ‘아이디어의 표현’(expression of ideas), ‘표준 영어 관습’(standard english conventions)의 네 개의 내용 영역을 포함한다.

‘정보와 아이디어’는 텍스트 및 그래프에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텍스트 및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수사와 구조’ 영역에서는 이해(comprehension), 어휘, 분석, 종합, 추론 능력 및 지식을 평가한다. 이들 능력은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구문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를 수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제가 유사한 텍스트를 비교하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 미국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NAEP)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는 미국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가장 크고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전국 단위의 평가인데, 이러한 이유로 흔히 ‘국가의 성적표’(The National’s Report Card)라고도 불린다. 국가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며, 미국 교육부 내에 위치한다. NAEP의 결과는 NCES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연구자, 교육자의 교육 개선 연구·정책을 위해 활용된다.

NAEP는 4학년, 8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성취도를 측정한다. 대상 과목에는 읽기와 쓰기, 수학, 정치학(시민학, civics), 경제학, 지리학 등 다양한 과목이 포함된다. 이 중 쓰기 과목의 내용 요소는 다음 <표 III-12>와 같다.³⁰⁾

29) 관련 내용은 Collegeboard의 공식 설명을 참고하였음(<https://satsuite.collegeboard.org/sat/whats-on-the-test>).

30) Driscoll et al. (2011), “Writing Framework for the 2011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표 III-12> NAEP 쓰기 영역 내용 요소

		핵심 특성
쓰기 과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제 (topic)	주제는 - 연령(age)과 학년(grade)에 적절한 실제 세계의 쟁점을 다룬다. -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논쟁적이지는 않아야 한다. - 사고와 쓰기에의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목적 (purpose)	목적은 - 쓰기 과제 안에서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 연령(age)과 학년(grade)에 적절해야 한다. - 쓰기 과제 내에 나타난 독자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세 개의 학년(4, 8, 12)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독자 (audience)	독자는 - 쓰기 과제의 맥락 속에 특정되어 있거나,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 연령(age)과 학년(grade)에 적절해야 한다. - 학습자에게 친숙해야 한다. - 쓰기 과제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쓰기 과제에의 학습자 참여(engage ment)	내용 (content)	학습자는 - 주어진 쓰기 과제의 제한 조건(parameter) 안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 자기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끌어낼 것이다. - 때때로 짧은 산문, 그림, 사진, 표, 차트나 이미지 등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할 것이다.
	사고와 쓰기에의 전략 (approach)	학습자는 -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할 때 쓰기 과제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할 것이다. - 사고를 발전시키고 조직할 때 어떤 사고/쓰기 전략(approach)을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다.
	형식	학습자는 8학년과 12학년의 경우, 그들의 목적과 독자에 가장 적절한 형식을 선택할 것이다. 4학년의 경우, 특정한 형식을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될 것이다.

NAEP는 특히 쓰기 목적과 청중에 맞추어, 특정한 수사적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쓰기 능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1세기의 저자(writer)는 다양한 청중(audience)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저자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작문 맥락에서 글쓰기를 통해 독자를 고려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의 <표 III-12>에서도 나타났듯이, ‘쓰기 목적, 독자’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과 장르적 ‘형식’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EAP 작문 평가는 평가 목적, 작문 정의, 작문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및 요소 간 관계를 설명한 평

가 틀에 기반하여 평가도구를 구성한다. 최근 NEAP에서 작문은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작문관은 작문 행위의 범주화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설명, 설득, 서사’의 범주가 ‘설득 목적, 설명 목적, 경험 전달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평가 목적 역시 ‘작문 목적 및 예상 독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작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작문을 할 수 있는 학생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박혜영 외, 2020).

NEAP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상 독자를 설정하여 실제 맥락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시한다. ‘평가하기, 종합하기, 논쟁하기, 기술하기, 요약하기, 분석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력을 작문 평가 내용 요소로 두고 있다. 2017년 NEAP를 보면, 학생들은 ‘설득 목적, 설명 목적, 경험 전달 목적’의 작문 과제 중 두 개의 과제를 할당받고 각 30분, 총 1시간에 걸쳐 ‘확장된 구성형 문항’에 응답한다.

작문 과제는 단독 과제형과 자료 제시형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쇄물 이외에도 텍스트, 음성, 사진, 비디오,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읽기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학생들은 워드프로세서의 활용, 맞춤법, 철자법에 대해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문법적 정확성보다 실제적 글쓰기 능력에 초점을 둔 평가가 가능하다. 출제 경향은 경험 전달 목적의 글보다 설득, 설명 목적의 글이 출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3> NAEP 평가 준거

영역	평가 준거
내용 생성	글 내용의 복잡도와 깊이
	사고력
	내용의 상세함
	적절한 예시
내용 조직	글의 구조
	응집성과 초점
언어 사용과 쓰기 관습	문장 구조와 표현의 다양성
	단어 선택
	목소리와 어조
	문법 및 언어 규범

평가 준거(채점 기준)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언어 사용과 규범’의 일반 준거를 사용한다. 각 성취수준은 구체적인 행동 기술을 포함하며 배점 기준이 명확하고, 배점별 학생의 응답 반응 예시가 채점자에게 제공된다.

○ 노르웨이 국가 샘플 기반 작문 시험(NSBWT)

노르웨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읽기, 쓰기, 수학, 영어(제2언어)’를 의무 교육을 통해 향상되어야 할 네 가지 주요 능력으로 발표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학생들이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여, 2005년부터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시험을 시작했다. 2005년의 시험은 5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의 교사가 평가하였다. 그러나 평가자 간 신뢰도가 낮아 프로젝트

트가 중단되었다.

2006년 핵심 역량에 대한 개념이 공식화되며 글쓰기가 5개 주요 역량 중 한 개로 지정되었고, 제도교육(의무교육)에서 글쓰기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습자의 역량 및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0년 노르웨이 교육부는 국립 작문 센터(NWC)에 국가 샘플 기반 작문 시험(NSBWT) 및 형성 작문 평가 패키지(FWAP) 개발을 의뢰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가 NSBWT(Norwegian National Sample-Based Writing Test)의 과제, 예시 텍스트, 국가 수준 학습자 작문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016년 실시된 NSBWT는 62개 학교의 95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7개의 작문 프롬프트가 활용되었다. 작문 프롬프트는 설득(3문항), 설명(3문항), 상상(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³¹⁾

[1] 설득	자전거 헬멧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인 중 절반 정도만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세요.
[2] 설명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 또래의 자녀를 둔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 본 적이 없어, 이사할 곳에 대해 미리 읽어 보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할 가족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세요.
[3] 상상	당신은 초능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초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이 그 초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하는 글을 써 보세요. 학급에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NSBWT에서 교사는 먼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15분 동안 학생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한다. 그다음 학생들은 최대 45분 동안 손 또는 컴퓨터로 글을 쓴다. NSBWT는 과제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글을 작성할 때의 실제적인 측면(ex. 작문 센터에 글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침을 함께 제시한다.

평가 척도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³²⁾

<표 III-14> NSBWT 평가 기준

작가-독자 상호작용	작가와 독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가? 작가는 독자의 정보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가?
내용(content)	내용은 과제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 내용은 어느 정도 정교하고 (해석 불가)인가?

31) Skar et al. (2017). The Norwegian National Sample-Based Writing Test 2016: Technical Report. Nasjonalt senter for skriveopplæring og skriveforskning.

32) Skar et al. (2017), The Norwegian National Sample-Based Writing Test 2016: Technical Report. Nasjonalt senter for skriveopplæring og skriveforskning.

텍스트 구조	텍스트가 과제에 지정된 의사소통 맥락과 관련이 있는가? 텍스트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언어 사용	문장 변화와 언어 사용은 적절한가?
표현 역량	문법, 철자법, 구두법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작가-독자 상호작용, 내용, 텍스트 구조, 언어 사용, 표현 역량’의 다섯 기준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언어 사용’과 ‘표현 역량’을 ‘표현’으로 본다면, 한국의 작문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내용, 구조, 표현’의 3요소에 ‘작가-독자 상호작용’이 덧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SAT 및 NAEP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주제, 독자, 작가를 포괄하는 ‘글쓰기 상황’이 작문 평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디지털 리터러시 조사 도구 검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쓰기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요소 및 자가 진단 도구 등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요소로 ‘정보 탐색, 해석과 통합, 평가, 설계, 제작, 공유’(김종윤 외, 2018, 김인숙 외, 2020)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표현 영역과 관련하여 ‘설계(수사적 맥락 고려하기, 배양하기와 창안하기, 조직하기), 제작(배치하기, 형상화하기, 편집하기), 공유(전파하기, 반응하기)’의 요소를 제안한 연구(서수현 외, 2019)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경우 이미 2차 실태 조사에서 1차 실태 조사에서와 달리 디지털 영역을 신설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인터넷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인터넷의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2개의 디지털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항은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도 읽기 능력에 한정된 객관식 문항이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쓰기 평가 도구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선행 도구들을 검토하고 관련 구인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외 조사 도구 중 PISA와 PIAAC은 디지털 문식력을 평가 대상으로 다룬다. 특히 PISA는 2015 조사부터 모든 영역에서 인쇄 기반의 평가를 없애고 디지털 기반의 평가를 실시 중이며, 이 또한 읽기를 중심으로 한 평가 문항이 제시되고 있다.

<표 III-15>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실태 조사 사례

도구 명칭	전체 평가 영역 및 쓰기 영역 평가 요소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디지털 문식력 - 요소: 정보 파악	층화표본추출에 따른 20~69세 성인 남녀 5,500명	웹 기반 조사 시스템 (태블릿 피시 활용 1:1 방문 면접)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영역: 문식성,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24개국, 16~65세, 국가별 5,000명	1:1 방문 및 컴퓨터 기반 면담

	• 요소: 적절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정보 획득 및 평가, 정보 활용	(총 166,000명)	(10년 주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영역: 읽기, 수학, 과학, 디지털 읽기 소양 • 디지털 텍스트 독해 평가 요소: 접근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상황 및 평가	OECD 회원국 만 15세 학생	2015년 이후 컴퓨터 기반 평가(객관식 및 구성형 문항)

①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영역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및 이해 능력이 디지털 사회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떠올랐으며, 디지털 매체가 요구하는 리터러시는 인쇄 매체의 리터러시와 전혀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³³⁾

2000년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PISA, PIAAC 등 해외 언어 능력 평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는 21세기의 핵심적인 언어 역량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2018년 실태 조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문식력)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최초 도입 시기에는 ICT 활용 능력과 동일시되었다. ICT는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기존의 IT가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이었다면 ICT는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 제어 등 새롭게 등장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개념이다.³⁴⁾ 그러나 ICT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여러 출처(source)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ICT와 차이가 있다.³⁵⁾

2018년의 실태 조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 ‘디지털 정보를 검색·평가·통합하는 능력’,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태도’를 제시하였다. 다만 2018년 연구는 디지털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세 가지 요소 중 ‘디지털 정보를 검색·평가·통합하는 능력’에 특히 주목하였다.

②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국제 성인 역량 조사(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는 성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 프로그램이다. PIAAC은 기본적으로 성인의 정보 처리 전략(information-processing skills)을 측정하고, 이러한 전략

33)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34) 현대건설(2023). [스마트 건설 백과사전 Vol.05] 세상을 하나로 잇는 첨단 연결 기술, ICT. 현대건설 뉴스룸. https://www.hdec.kr/kr/newsroom/news_view.aspx?NewsSeq=765&NewsType=BRAND&NewsListType=news_clist

35)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을 집이나 직장,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정보 처리 전략의 영역은 크게 문식력(리터러시, literacy), 수리력(numeracy),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problem-solving)으로 나뉜다.

PIAAC에서는 리터러시를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과 지식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의 문어 텍스트(written text)에 나타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³⁶⁾ 최근 PIAAC의 리터러시 측정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만이 아닌 디지털 텍스트로 확장되어 하이퍼텍스트, 스크롤하기, 링크 클릭하기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PIAAC의 리터러시 평가는 디지털 문식 환경을 반영하여 글의 길이(단일 페이지 vs 다중 페이지), 콘텐츠(내용)가 나타나는 방식(content representation)의 다양성이나 밀도, 접근 장치(devices)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구현한다. 리터러시 영역의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³⁷⁾

Three girls ate the song.	YES	NO
The man drove the green car.	YES	NO
The lightest balloon floated in the bright sky.	YES	NO
A comfortable pillow is soft and rocky.	YES	NO
A person who is twenty years old is older than a person who is thirty years old.	YES	NO

[그림 III-5] PIAAC 리터러시 문항 예시

위 문항에서 응답자는 여러 개의 문장을 보고 자연스러운 문장에는 ‘YES’, 부자연스러운 문장에는 ‘NO’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일상 세계의 상식이나 문장 내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인지적 과제(cognitive task)의 하위 영역 비중이 변화하였다. 리터러시의 인지 전략으로는 이해, 평가, 접근이 있는데, 여전히 문자 텍스트에 대한 문해와 이해(understanding)가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한다는 점은 같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리터러시가 변화하면서 ‘접근’(access) 능력을 강조하며 관련 문항의 비율을 35%까지 높였다. 나머지 20%의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평가 및 성찰 능력을 측정한다.³⁸⁾

또한 PIAAC은 첫 번째 조사(first round)에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 영역을 핵심 정보 처리 역량으로 제시했으며, 두 번째 조사(second round)에서는 이를 ‘적응적 문제 해결 능력’(adaptive problem solving)으로 심화하여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였다. 적응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정의(definition), 검색, 적용이 있다. 과제 측면에서 응답자는 물리적, 사회적, 디지털 자원 등 다양한 정보 자원(information

36) <https://www.oecd.org/skills/piaac/piaacdesign/>

37) PIAAC, Reading Components-sample items
<https://www.oecd.org/skills/piaac/Reading%20Components%20Sample%20Items.pdf>

38) OECD. (2021), The Assessment Frameworks for Cycle 2 of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bc2342d-en>.

sources)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상황과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

③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the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2000년에 시작된 국제적 연구로, 참여국의 15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skills)과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교육 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읽기(reading),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영역의 리터러시(literacy)를 측정한다.

PISA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평가에 포함시켜 왔다. 2009년부터는 '디지털 읽기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 DRA)를 도입하여 디지털 세계에서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인쇄 매체의 읽기 능력으로는 디지털 매체의 읽기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했다. 이후 PISA 2018에서는 2015년의 텍스트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프레임워크를 개선, 학생들의 정보 검색 능력, 출처 평가, 이해를 위한 읽기, 자료 통합 등 읽기의 여러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⁹⁾

<표 III-16> PISA 읽기 과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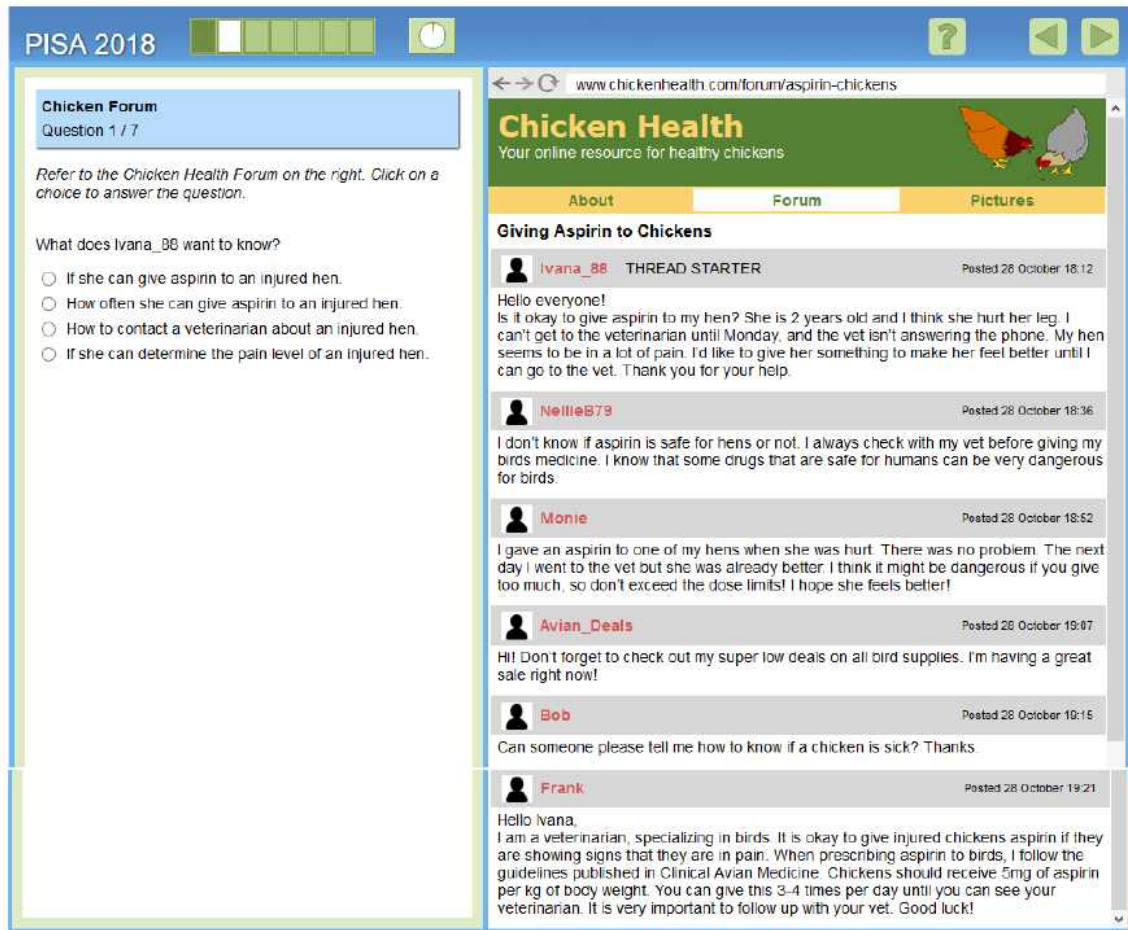
2015 Framework	2018 Framework	
	Single text	Multiple text
Accessing and retrieving	Scanning and locating	Searching for and selecting relevant text
Integrating and interpreting	Literal comprehension	Multiple-text inferential comprehension
Reflecting and evaluating	Inferential Comprehension	Corroborating/handling conflict
	Accessing quality and credibility reflecting on content and form	

다음은 PISA에서 공개한 평가 문항 중 '치킨 포럼'에 관한 문항이다. 해당 문항에서는 학생이 닭을 기르는 가족을 방문하는 시나리오(scenario)를 채택하였다. 이모는 닭의 건강을 다루는 포럼을 소개하며, 해당 포럼이 이모의 닭이 다쳤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이 문항은 개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포럼을 방문하는 개인적 상황을 다룬다.

이 문항은 웹 포럼(web forum)에 나타난 한 개 세트의 여러 게시물들(multiple texts)을 다루며, 원래 인터넷 대화는 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학생에게는 정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화가 제공된다. 또한 텍스트들은 연속적(continuous)이며, 교호적(transactional)이다.

학생은 이 문항에 응답하면서 여러 텍스트들의 복잡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게시물들의 출처와 내용을 평가하며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 문항은 다음 그림과 같다.

39)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83d84cb-en>.



[그림 III-6] PISA 2018 예시 문항

동시에, PISA 운영 위원회는 2018년에 ‘연구, 개발 및 혁신’(The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RDI) 프로그램을 통해 PISA 평가의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이를 통해 읽기, 수학, 과학 리터러시라는 핵심 영역 이외에도, 21세기의 새로운 역량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영역 평가를 개발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영역 중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Learning in the Digital World, LDW) 평가 도구를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식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반복적(iterative)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2025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3.2. 쓰기 영역 조사 도구의 구성

1) 세부 조사 영역 및 요소 설정

(1) 쓰기 영역의 핵심 역량 분석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DeSeCo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역량’ 개념을 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The OECD 2030 Education Project”를 통해 미래 사회에 요청되는 역량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으며, DeSeCo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핵심 역량을 교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체제를 도출하였다. 역량 기반 교육 담론은 전 세계적인 교육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은 역량 개념을 한국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교육의 목적을 역량의 증진에 두는 관점은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도 유지되었다. 역량 함양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가적 교육 정책의 중심점이자 지향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의 6가지이다. 이 중 ‘협력적 소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역량이다.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이전의 ‘의사소통 역량’이 발전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개념이다.

한편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의 6가지 역량을 국어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디지털·미디어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수정한 것이다. 뉴미디어 등 매체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다매체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소양 개념

기초 소양	개념(안)
언어 소양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수리 소양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제시된 바와 같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 기초 소양으로 설정되었다. 이 중에서 언어 소양을 살펴보면,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생산, 공유와 복합양식 텍스트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및 공동체 구성원과의 소통·참여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의 국어능력은 이상에서 살펴본 역량을 중심으로 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쓰기 영역의 역량 역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쓰기 평가에서는 문항 설계를 통해 다음의 역량을 구현하고자 한다.

<표 III-18>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위한 쓰기 역량

평가 하위 요소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25년 예정)		핵심역량
내용 (contents)	• 친교적 글쓰기 • 설명적 글쓰기 • 논증적 글쓰기 • 디지털 매체 글쓰기		
과정 (cognition)	• 쓰기의 기초 - 글자 쓰기 - 단어 쓰기 - 문장 쓰기 - 문단 쓰기 • 계획하기 - 목적, 주제, 독자, 매체 고려하기 - 언어 공동체 및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통일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하기 - 담화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기 • 표현하기 - 정확하게 표현하기 -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기 -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소통하기 - 책임감 있게 소통에 참여하기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설계·제작·공유	• 비판적 사고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대인 관계 역량 • 디지털·미디어 역량

(2)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설정

쓰기 영역의 평가 요소는 그동안 수행되어 온 1차, 2차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서 제시한 쓰기 영역의 기본 평가 틀을 준용하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을 고려하여 협력적 소통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설정한 쓰기 영역의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9> 쓰기 영역의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 요소	문항 수	비고
쓰기	설명적 글쓰기	설명문 쓰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1	1차, 2차 실태 조사 가교 문항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쓰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1	-
	친교적 글쓰기	편지글 (전자우편) 쓰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1	구체적인 상황 맥락(독자, 매체) 제시
	디지털 매체 쓰기 (복합)	모바일 쓰기 (게시글 쓰기, 댓글 쓰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소통	1	- 친교적, 설명적, 논증적 요소 복합 평가 -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복합양식 자료 활용 글쓰기 - 실제적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쓰기 상황 제시

쓰기 영역의 세부 영역으로는 이전 평가 틀과 동일하게 설명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친교적 글쓰기를 설정하였고, 디지털 매체 글쓰기 문항을 추가하여 변화한 문식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매체 쓰기의 경우 실제 쓰기 상황에서 여러 목적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 목적, 설득 목적, 친교 목적’을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문항 내에서 복합양식 리터러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환경에서 실제 독자와 상호교섭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장면을 문항으로 구현하여 쓰기 상황의 실제성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교 문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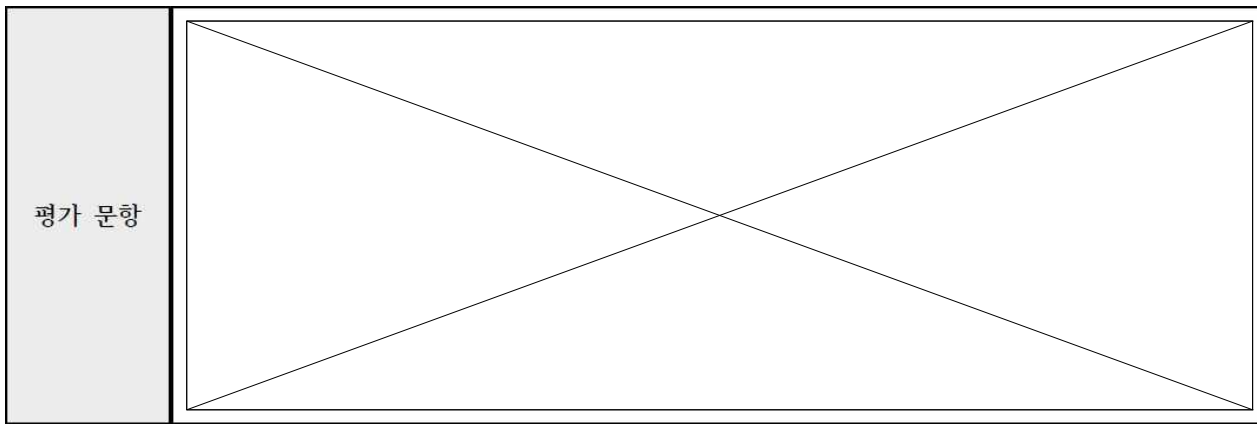
2018년에 실시된 2차 실태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개발된 1차 실태 조사에서의 조사 도구 중 가교 문항으로 선별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규모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다음 표와 같다.

<표 III-20> 2018년 평가 도구 개발

영역	문항 개발 [2배수]	1차 선별 [1.5배수]	2차 선별 [1.2배수]	2018년 실시 [1배수]
쓰기	6(1)	5(1)	4(1)	3(1)

본 연구 또한 위와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 이때, 가교 문항들은 전체 검사 문항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검사 문항의 난이도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기수행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2018년 쓰기 영역 W-2번 문항을 가교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내용’, ‘조직’, ‘표현’의 모든 영역에서 변별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평가 항목 영역에서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교 문항으로 설정하기에 타당한 문항이다.



[그림 III-7] 2018년 쓰기 영역 W-2번 문항

W-2 문항은 2013년 1차 실태 조사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었으며, 2018년의 2차 실태 조사에서도 가교 문항으로 사용된 문항이다. 따라서 W-2 문항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3) 문항 형식

1, 2차 실태 조사에서 쓰기 영역 문항은 수행형(서술형)으로 설계되었으며 3차 실태 조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수행형 문항 형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쓰기 평가에서 선다형 문항에 의한 간접평가 방식이 실제의 쓰기 능력과 상관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이재기: 2005, 박찬흥: 2015, 장성민, 민병곤: 2016). 그뿐만 아니라 간접평가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질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이나 원인의 분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의 쓰기 능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행형 문항을 통한 직접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1, 2차 실태 조사에서 쓰기 영역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수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적절

한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실제의 쓰기 능력’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선거 연령 하향, 감사 인사 등 전 연령층에서 답할 수 있는 과제 상황을 제시하고 전자 우편, 논증하는 글 등 실제 삶의 맥락에서 자주 접하는 장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 맥락 속에서 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때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몰이해나, 혹은 평가의 조건에 대한 주의집중 부재가 문제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개발 시에 유의하였으며, 또한 특정한 배경 지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쓰기 장르의 특성과 조사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3문장 분량의 짧은 글쓰기와 300~400자 분량의 긴 글쓰기로 나누어 출제하여 평가하고, 각 분량을 고려하여 30분의 조사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1~2문장 분량의 쓰기(반응하기)에서부터 400자 분량의 다소 긴 글쓰기까지 나누어 출제하며, 추가된 문항을 고려하여 조사 시간은 40분을 부여하고자 한다.

4) 쓰기 영역 예비 조사 검사지 구성

2023년부터의 본조사는 영역 분할형 평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어능력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평가해야 했던 2018년과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쓰기 영역의 평가를 위한 검사지 구성을 계획해야 한다.

<표 III-21> 쓰기 영역의 문항 형식

쓰기 (W)	가. 친교적 글쓰기	3문장 정도의 글쓰기(수행형)	1	4
	나. 설명적 글쓰기	300자 내외의 글쓰기(수행형)	1	
	다. 논증적 글쓰기	400자 내외의 글쓰기(수행형)	1	
	라. 디지털 매체 글쓰기	2문장 정도의 글쓰기 + 1문장 정도의 글쓰기(수행형)	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에 개발된 조사 도구 중 가교 문항으로 선별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규모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예비 조사에서 신규로 개발되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본조사 신규 문항(3문항)의 2배수이다.

<표 III-22> 쓰기 영역 평가 문항 개발 계획(안)

영역	문항 개발 [2배수]	1차 선별 [1.2배수]	2025년 본조사 [1배수]
쓰기	7(1) (신규 개발 6 + 가교 1)	5(1)	4(1)

* () 안은 가교 문항의 숫자임.

예비 조사의 검사지는 다음과 같이 가형과 나형 총 2세트로 구성된다.

<표 III-23> 쓰기 영역 예비 조사 검사지 구성

	가형	나형	시간
가. 친교적 글쓰기	1	1	5분
나. 설명적 글쓰기	1(가교)	1(가교)	10분
다. 논증적 글쓰기	1	1	15분
라. 디지털 매체 글쓰기	1	1	10분
총계	4	4	40분

5) 쓰기 영역 예비 조사 문항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 - 묘사글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설명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하였다. 화제에 대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상술하면서 300자 내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3	6	10	13	16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논증-가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 수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사례 깊으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논증-나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 수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사례 깊으면서도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tr><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th><th colspan="5">채점 척도</th></tr><tr><th>매우 미흡</th><th>미흡</th><th>보통</th><th>우수</th><th>매우 우수</th></tr><tr><td>내용: 65점 (50%)</td><td>-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td><td>13</td><td>26</td><td>39</td><td>52</td><td>65</td></tr><tr><td>조직: 39점 (30%)</td><td>-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였다. -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td><td>8</td><td>16</td><td>23</td><td>31</td><td>39</td></tr><tr><td>표현: 26점 (20%)</td><td>-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사례 깊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td><td>5</td><td>10</td><td>16</td><td>21</td><td>26</td></tr></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였다. -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사례 깊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였다. -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사례 깊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	--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친교-가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사과문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쓰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친교적 글쓰기 능력(사과)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제와 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짧은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주제와 목적(잘못된 공지에 대한 사과)에 부합하고, 상황(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문제 상황(사과 내용) 설명과 사과 표현 - 책임의 인정이나 문제 발생 원인 제시- 문제 해결 의지 표현/문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의 제시'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효과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친교-나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거절 문자 메시지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쓰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친교적 글쓰기 능력(거절)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하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주제, 목적, 매체, 독자를 고려하여 짧은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 주제와 목적(회식 약속 거절)에 알맞고, 상황(선배를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2점 (30%)	- ‘예비 공표(체면 유지) 및 거절 표현과 이유 제시 - 미안함의 표현 - 대안 제시 또는 마무리’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2	5	7	10	12
	표현: 8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효과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디지털-가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온라인 게시판 글 쓰기 - 반품 요청하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자가 사회적 참여 행위로서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하였다.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소통 공간의 특성과 ‘반품 요청’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table><tr><th rowspan="2">평가 항목</th><th rowspan="2">채점 요소</th><th colspan="5">채점 척도</th></tr><tr><th>매우 미흡</th><th>미흡</th><th>보통</th><th>우수</th><th>매우 우수</th></tr><tr><td>매체 활용: 10점 (20%)</td><td>-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r><td>내용: 20점 (40%)</td><td>- 주제와 목적(불량 상품 반품 요청)에 부합하고, 상황(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td><td>4</td><td>8</td><td>12</td><td>16</td><td>20</td></tr><tr><td>조직: 10점 (20%)</td><td>- ‘문제 상황 설명 - 요구 근거 또는 문제로 인한 손실 - 문제 해결 요청(해결 방안)’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체 활용: 10점 (20%)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내용: 20점 (40%)	- 주제와 목적(불량 상품 반품 요청)에 부합하고, 상황(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0점 (20%)	- ‘문제 상황 설명 - 요구 근거 또는 문제로 인한 손실 - 문제 해결 요청(해결 방안)’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	2	4	6	8	10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체 활용: 10점 (20%)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내용: 20점 (40%)	- 주제와 목적(불량 상품 반품 요청)에 부합하고, 상황(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0점 (20%)	- ‘문제 상황 설명 - 요구 근거 또는 문제로 인한 손실 - 문제 해결 요청(해결 방안)’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	2	4	6	8	10																												

		성을 갖추었다.					
	표현: 10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정중하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디지털-나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온라인 게시판 글 쓰기 - 여행지 소개하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자가 사회적 참여 행위로서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하였다.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소통 공간의 특성과 '여행지 소개'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체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	2	4	6	8
						매우 우수
						10

	활용: 10점 (20%)	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					
	내용: 20점 (40%)	- 주제와 목적(좋았던 여행지 소개)에 부합하고, 상황(익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다른 사람의 담화에 상호작용적으로 반응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0점 (20%)	- ‘추천 여행지 소개 - 이유 - 여행지에 대한 부연 설명’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2	4	6	8	10
	표현: 10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3.3. 예비 조사의 시행

예비 조사 역시 방문 면접 조사와 집합 조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모집단 및 대상 등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4> 방문 면접 조사 및 집합 조사 개요

구분	방문 면접 조사	집합 조사
모집단	만 나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조사 대상	수도권 거주 만 나이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표본 크기	300명	30명
표본 배분	성, 연령대, 지역별 동일 표본 할당	성, 연령대별 동일 표본 할당 (지역은 고르게 조사)
조사 방법	태블릿 피서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일정	2024년 8월 27일 ~ 9월 18일	2024년 9월 4일

1) 방문 면접 조사

(1) 표본 설계

① 모집단 정의

본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이며, 이에 따른 조사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섬 지역, 집단시설(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가구를 제외)으로 설정한다.

② 모집단 층화

예비 조사에서 활용한 모집단 층화 변수와 현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층화는 시도이며, 2차 층화는 경기도 한해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따라서 예비 조사의 층은 서울, 인천, 경기 동부, 경기 읍면부 4개로 구분하였다.

③ 표본 크기 결정

예비 조사임을 고려하여 표본 크기는 수도권 한정 300명으로 설정하였다.

④ 집락 크기 결정 및 집락 추출

예비 조사 역시 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통하여 집락을 추출하였으며, 300명을 4개의 층별로 동일하게 75명씩 조사하기 위해 지역별 7개 집락을 추출하고, 하나의 집락에서 10명~11명의 표본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활용된 28개의 집락과 조사 인원은 아래와 같다.

<표 Ⅲ-25> 예비 조사 추출 집락 및 집락별 조사 완료 표본 수

층 구분	집락(읍면동)	조사 완료 표본 수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4동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제1동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제2동	11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11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1.2동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10
경기 동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1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	11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11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11
	경기도 오산시 중앙동	10
경기 읍면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1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1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1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1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11
합계		300

⑤ 할당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예비 조사 역시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집락 내 개인을 할당 추출하였다. 본조사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5개 변인 및 변인별 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예비 조사임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만 진행하였다.

<표 III-26> 예비 조사 표본 추출을 위한 변인 설정

변인	구분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동부, 경기읍면부)
직업	-정신노동(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육체노동(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 노무 종사자, ⑩직업 군인) -기타(⑪주부, ⑫무직/퇴직/기타, ⑬학생)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⑥ 표본 배분

각 층별로 성별, 연령 구간별,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 할당 표를 선정하며, 직업과 학력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⁴⁰⁾으로 표본 할당 표를 미리 작성하였다. 각 변인별 표본 수는 연구 목적을 감안해 비례 배분이거나 임의 배분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표본 수가 적고 예비 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간별 동일 표본을 할당하였다.

예컨대,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성별과 연령은 20대 남/여, 30대 남/여, 40대 남/여, 50대 남/여, 60대 남/여로 총 40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40개 구간별로 7명 혹은 8명씩 동일하게 표본을 배분하여 성, 연령, 지역별로 고르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방문 면접 조사 표본이 총 300명이며, 검사지 유형은 본조사와 동일하게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두 유형의 검사지가 균등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각각 150명씩 배분하였다. 다만, 지역, 성, 연령별 배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가형과 나형 각각 150명의 표본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300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 III-27> 예비 조사(방문 면접 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구분	가형	나형	합계
쓰기	150	150	300

40) 할당을 고려할 때 성별, 연령, 지역 변인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과 학력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변인은 각 층별 할당 표에 정확히 맞추어 조사하고, 직업과 학력 변인은 할당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Ⅲ-28> 예비 조사(방문 면접 조사) 표본 배분

구 분 (단위: 명)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30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서울	75	7	8	8	7	7	8	8	7	7	8
인천	75	8	7	7	8	8	7	7	8	8	7
경기 동부	75	7	8	8	7	7	8	8	7	7	8
경기 읍면부	75	8	7	7	8	8	7	7	8	8	7

(2) 예비 조사 방식

예비 조사는 태블릿 피시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방문 면접 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기 위해 태블릿 자체 키보드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통한 입력을 우선으로 하나, 타이핑이 불가능한 응답자는 종이 설문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조사 준비 및 실시, 조사원 교육 방법 등의 시행 방식은 본조사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집합 조사

(1) 표본 설계

집합 조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20대 남/여, 30대 남/여, 40대 남/여, 50대 남/여, 60대 남/여의 총 8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로 동일 크기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본 규모가 30명으로 크지 않으므로, 지역과 직업, 학력 변수는 고르게 배분하였다. 집합조사에서도 가형과 나형을 각각 15명씩 배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성, 연령별 표본 배분 시 정확하게 이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총 30명을 조사하였다.

<표 Ⅲ-29> 예비 조사(집합 조사) 검사지 유형별 표본 구성

구분	가형	나형	합계
쓰기	15	15	30

<표 Ⅲ-30> 예비 조사(집합 조사) 표본 배분

구 분 (단위: 명)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30	3	3	3	3	3	3	3	3	3	3

(2) 집합 조사 방식

예비 조사의 집합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와 동일하게 일부 태블릿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를 제외하고 태블릿 피시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다.

집합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담당연구원의 주도로 조사 진행 방법 및 조사 시 유의 사항을 안내 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만, 집합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와의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평가 시간만 안내 후 풀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통제를 하지 않았다.

예비 인원 3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은 예비 인원을 제외한 30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와 같이 예비 조사 역시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진행 일시와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III-31> 예비 조사(집합 조사) 진행 일시

집합 조사 일시	조사 장소	참여 인원
9월 4일 17시 30분 ~ 18시 30분	갤럽 본사 1층 세미나실	17
9월 4일 19시 30분 ~ 20시 30분	갤럽 본사 1층 세미나실	16

<표 III-32> 예비 조사(집합 조사) 진행

내용	소요 시간	비고
참석자 확인 및 접수	30분	-
조사 진행 안내 및 유의 사항 전달	10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원 진행
조사 진행	40분	쓰기 영역 40분
합계	80분	-

3.4. 예비 조사 결과의 채점

1) 채점 설계

채점 설계는 조사 도구를 통해 수집되는 글에 대한 채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특정 피험자에 대한 채점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본 과업에 적용한 채점 설계는 가교 피험자 행렬 표집 설계로 할당 방식에 따라 모든 채점자가 공통의 피험자를 채점하는 가교 채점과 임의로 정해진 복수의 채점자를 할당하는 짝 채점으로 구분된다. 가교 피험자는 예비 조사에서 채점을 1회만 실시하여 채점자 신뢰도 추정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피험자 중 약 20%(유형별 33명)로 하며, 이들이 작성한 글은 각 검사지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채점자가 공통으로 채점을 하였다.

가교 피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에 대한 짝 채점은 채점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채점자를 설정(Osborn Popp et al., 2009; Huang, 2012)하였으며, 이때 채점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점자 배열을 나선형으로 하였다(Moon & Hughes, 2002). 연쇄된 채점자들이 공동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정 채점자에게 할당되는 편향을 막기 위해 채점자 배경(예: 대규모 수행 평가 채점 경험, 전공)을 고려하여 유사한 배경의 채점자들이 연쇄되지 않도록 하였다.

여번	조사	검	구분	24kr01	24kr02	24kr03	24kr04	24kr05	24kr06	24kr07	24kr08
35	면접	가	163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97	면접	가	235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174	면접	가	330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116	면접	가	255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48	면접	가	177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11	집합	가	19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158	면접	가	312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37	면접	가	166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123	면접	가	262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95	면접	가	233 가교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할당
53	면접	가	183 짝	할당	할당						
58	면접	가	189 짝		할당						
177	면접	가	334 짝			할당					
66	면접	가	199 짝				할당				
70	면접	가	203 짝					할당			
54	면접	가	184 짝						할당		
90	면접	가	228 짝							할당	
45	면접	가	174 짝	할당							할당
178	면접	가	342 짝	할당	할당						
71	면접	가	205 짝		할당	할당					
176	면접	가	333 짝				할당				
44	면접	가	173 짝					할당			
72	면접	가	207 짝						할당		
57	면접	가	188 짝							할당	
126	면접	가	266 짝								할당
6	집합	가	13 짝	할당						할당	할당
9	집합	가	15 짝	할당	할당						
122	면접	가	261 짝			할당					
148	면접	가	299 짝				할당				
56	면접	가	187 짝					할당			
134	면접	가	279 짝						할당		
100	면접	가	238 짝							할당	

[그림 III-8] 채점 설계

채점 설계에서 채점 대상 자료인 글은 피험자가 응시한 검사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채점자는 할당된 각 검사지 유형별로 해당하는 가교 문항 및 해당 유형별 문항 전체에 대한 채점을 하였다. 이는 이번 쓰기 예비 조사가 향후 진행될 대규모 본조사의 준비로서 기본 문항 유형에 숙련된 채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채점자 간 일치도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prompts)를 경험한 채점자가 일정 분량 이내의 채점을 수행하였을 때 우수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Moon & Hughes, 2002; Weigle, 1998)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 III-33> 채점 자료 할당

조사	유형	시험자 수 (명)	가교 시험자 (명)	비가교 시험자 (명)	채점자 (명)
예비	가	165	33	132	8
	나	165	33	132	8

2) 채점자 훈련

예비 조사 채점에 참여한 채점자는 총 16명으로, 국어교육 전공(문법, 화법, 문학) 석사과정 수료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 졸업생이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국어교육 전공자를 기본으로 이전에 실시한 2022년 국립국어원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개선 기초 연구’의 1, 2차 예비 조사, 그리고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본조사 채점 등 대규모 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점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II-34> 예비 조사 채점단

채점자 ID	전공	학력
24kr01	문법	박사 졸업
24kr02	문학	석사 졸업
24kr03	화법	박사 수료
24kr04	문학	박사 수료
24kr05	문법	석사 졸업
24kr06	화법	박사 수료
24kr07	문학	박사 수료
24kr08	화법	석사 수료
24kr09	문학	박사 졸업
24kr10	문법	박사 수료
24kr11	화법	박사 수료
24kr12	문학	박사 수료
24kr13	문법	박사 졸업
24kr14	화법	박사 수료
24kr15	문학	박사 수료
24kr16	문학	박사 수료

대규모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 훈련은 채점자 신뢰도 확보와 타당한 채점 결과 산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Moon & Hughes, 2002; 송미영 외, 2009). 채점자들은 채점 수행 과정에서 각 문항 유형별 채점 척도를 기준으로 시험자가 작성한 각 문항별 글에 나타난 각 준거별 수준을 인식하고 알맞게 판정해야 한다. 채점자들은 채점자 훈련을 통해 자신의 채점 수행의 현재적 특징을 파악하고,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온건한 채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Li et al. (2023)에서는 채점자 훈련 과정으로 척도 기술문 읽기, 척도 기술문에 대한 토의, 평가 영역 및 범위에 대한 설명 듣기, 루브릭에 대한 질의 응답 및 논의, 사례 찾기(benchmarking)를 수행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본 과업에서도 채점자 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채점자들이 채점 수행을 위한 지식 형성, 인식 고양, 실천 능력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한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 쓰기 예비 검사 1차 채점 워크숍 사전 채점(가)

B
I
U
↺
↻

사전 채점에는 전체 4개 문항에 대해 각 3건의 응답을 채점합니다. 채점은 메일에 첨부한 채점 루브릭 및 채점 지침을 참조하여 진행해 주십시오. 채점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마쳐주십시오. 각 문항 유형별로 채점을 한 후에는 채점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메모를 남겨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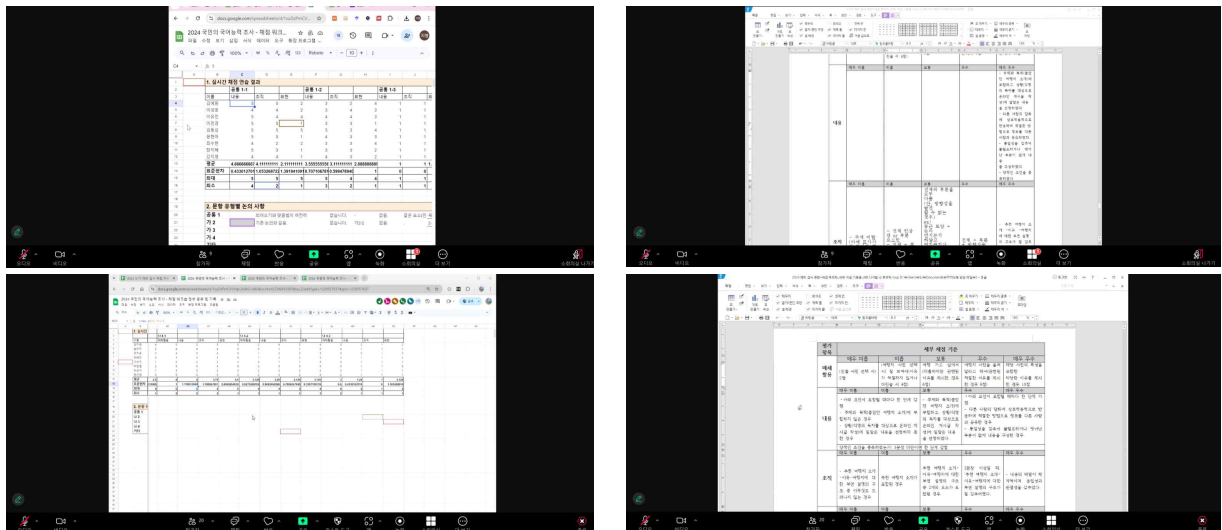
채점자 이름 *

담당형 텍스트

[illegible]

[그림 III-9] 사전 채점 연습

채점 워크숍은 사전 채점 연습 과정에서 발견한 문항 유형별 채점 척도 적용의 어려움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글 자료의 문제를 채점자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최선의 채점 척도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채점 워크숍은 2024년 9월 27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까지 Zoom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사전 채점 연습 결과에 대한 소집단 협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채점 연습, 실시간 채점 연습 결과에 대한 검사지 유형별 협의, 신규 출제 문항에 대한 채점 세부 기준 작성을 진행하였다.



[그림 III-10] 채점 워크숍

채점 워크숍에서 진행한 소집단 협의에서는 사전 채점 과제 수행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서 각 글 사례에 대해 준거별로 가장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채점자를 중심으로 채점 척도 적용에서 고려한 사항이나 판단의 이유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실시간 채점 연습에서는 소집단 협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험자의 글 사례에 대하여 채점을 연습하였으며, 직후에는 소집단에서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아직 채점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문항 유형이나 글 사례에 나타난 특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채점자별로 각 준거와 글 특성에 대한 엄격성 차이를 재점검하였다. 끝으로 채점 워크숍에서는 이번 예비 조사에 새로 출제된 문항 중 신규 문항 유형에 대한 세부 채점 기준안을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쓰기 영역에서 작성하였던 ‘친교’ 문항의 세부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검사지별 담당 채점자 집단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표 III-35> 신규 문항 유형 세부 채점 기준안(가형 디지털 문항)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체 활용: 10점 (20%)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	1	2	3	4	5
내용: 20점 (40%)	- 주제와 목적(좋았던 여행지 소개)에 부합하고, 상황(익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시물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다른 사람의 담화에 상호작용적으로 반응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1	2	3	4	5
조직: 10점 (20%)	- ‘추천 여행지 소개 - 이유 - 여행지에 대한 부연 설명’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1	2	3	4	5
표현: 10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였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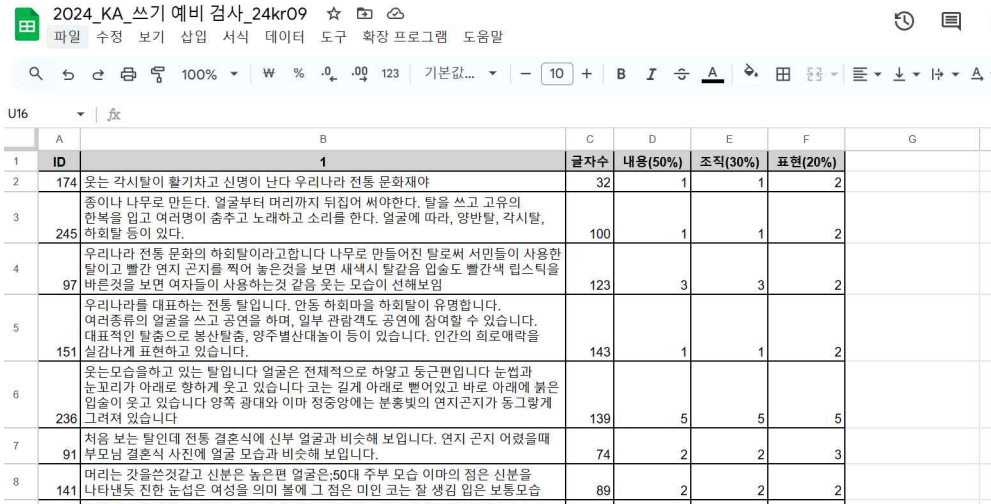
[예시 답안]

<표 III-36> 신규 문항 유형 세부 채점 기준안(나형 디지털 문항)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 통일성이 없거나, 거절의 표현(목적)이 드러나지 않음.		• 거절의 표현이 포함됨.	• 다음 요인이 포함될 때마다 한 단계 가점(+) - 예비 공표, 체면 유지, 거절 이유가 포함됨. - 대안 제시 또는 끝인사가 포함됨.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는가?	3문장 미만이면 한 단계 감점				
	• 타당한 정보를 상상력을 발휘하여 추가한 경우는 인정 • 사과의 인사가 없어도 가점 요소가 있으면 ‘미흡’에서부터 가점					
조직	담화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가? (‘예비 공표 및 거절 표현과 이유 - 미안함의 표현 - 대안 제시 또는 마무리’의 구성이어야 함. 순서는 무방함.)	• 1문장(‘예비 공표 및 거절 표현, 미안함의 표현, 대안 제시 및 마무리’ 등의 내용 미포함)	• 1문장 ‘거절 표현 또는 미안함의 표현’ 포함의 구성 • 2문장	• 2문장 ‘예비 공표 및 거절 표현, 미안함의 표현, 대안 제시 및 마무리’ 포함의 구성 • 3문장 또는 그 이상	• 3문장 이상일 때, ‘예비 공표 및 거절 표현, 미안함의 표현, 대안 제시 및 마무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됨.	• 3문장 이상일 때, ‘예비 공표 및 거절 표현, 미안함의 표현, 대안 제시 및 마무리’ 등 3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이 자연스러움(나름의 논리적 흐름 있음).
표현	적법한 문장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띄어쓰기의 경우 관대하게 보고, 어휘, 구어, 맞춤법만 체크함.)	• 맞춤법이 매우 부적절함(7개 이상).	• 맥락에 부적절한 어휘나, 틀린 맞춤법, 오기가 나타남(5~6개). (예: 안녕하세요.)	• 틀린 맞춤법, 오기가 다소 나타남(3~4개).	• 맞춤법이 비교적 잘 지켜짐(1~2개).	• 맞춤법 오류 없음. • 문장 째를 시문장의 연결과 흐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인 관형어(절) 또는 부사어(절)가 사용됨(효과적인 표현 등).
- 한 문장인 경우 한 단계 감점 - 문장 호응의 오류가 포함된 경우 한 단계 감점 - 띄어쓰기는 감안하지 않으나 오류가 심각한 경우 한 단계 감점						
- ‘내용’과 ‘조직’ 항목이 모두 ‘보통’ 이하이면, ‘표현’ 항목도 보통 이하로 채점할 것(오류 1~2개 보통, 3~4개 미흡, 5개 이상 매우 미흡) - ‘내용’과 ‘조직’ 항목이 모두 ‘우수’이거나 ‘매우 우수’이면, ‘표현’은 틀린 개수대로 채점 -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등의 심각한 비문이 아니라면 어색한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어법이나 어문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급히 쓰느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타기는 허용) * 문제의 정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오답 처리, 오답은 세 항목 모두 매우 ‘미흡’으로 처리						

3) 채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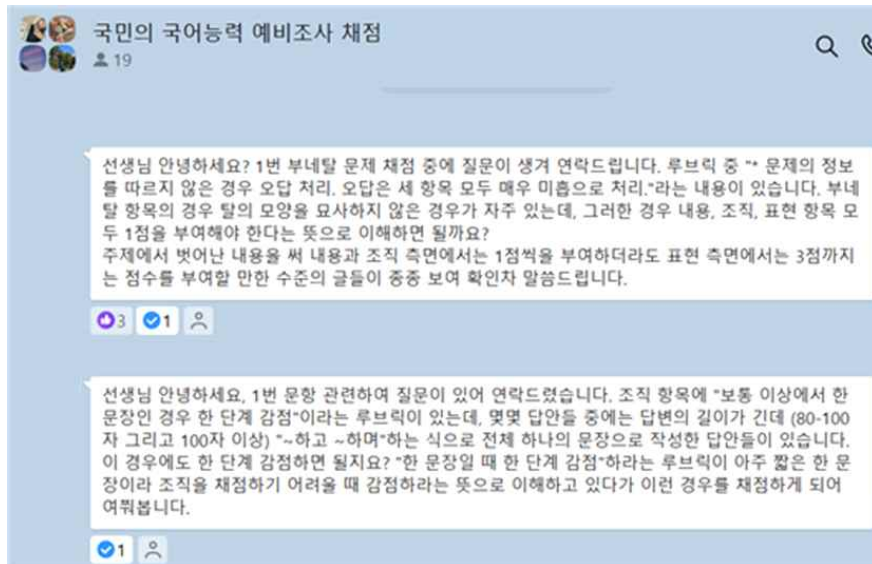
쓰기 예비 조사의 채점은 재택 채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채점자들은 개인별 구글 시트(Google Spreadsheets) 링크에 접속하여 할당된 피험자의 문항별 답안을 확인하고 준거별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채점 화면에는 점수 입력 양식 외에 해당하는 문제와 글, 글자 수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ID	문항	글자수	내용(50%)	조직(30%)	표현(20%)
174	웃는 각시탈이 활기차고 신명이 난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야	32	1	1	2
245	종이나 나무로 만든다. 얼굴부터 머리까지 뒤집어 써야한다. 탈을 쓰고 고유의 한복을 입고 여러명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를 낸다. 얼굴에 따라, 양반탈, 각시탈, 하회탈 등이 있다.	100	1	1	2
97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하회탈이라고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탈로써 서민들이 사용한 탈이고 빨간 연지 곤지를 찍어 놓은것을 보면 새색시 탈같은 압술도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것을 보면 여자들이 사용하는것 같은 웃는 모습에 전해보임	123	3	3	2
15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탈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이 유명합니다. 여러종류의 얼굴을 쓰고 공연을 하며, 일부 관광객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춤으로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놀이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3	1	1	2
236	웃는모습을하고 있는 탈입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하얗고 둥근편입니다 눈썹과 눈고리가 아래로 향하게 웃고 있습니다 코는 길게 아래로 뻗어있고 바로 아래에 붉은 입술이 웃고 있습니다 양쪽 광대와 이마 정중앙에는 분홍빛의 연지곤지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139	5	5	5
91	처음 보는 탈인데 전통 결혼식에 신부 얼굴과 비슷해 보입니다. 연지 곤지 어렸을때 부모님 결혼식 사진에 얼굴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74	2	2	3
141	머리는 깎을것같고 신분은 높은편 얼굴은 50대 주부 모습 이마의 점은 신분을 나타낸듯 진한 눈썹은 여성을 의미 볼에 그 점은 미인 코는 잘 생김 입은 보통모습	89	2	2	2

[그림 III-11] 채점 결과 입력 화면

채점 진행 중에는 채점자들이 발견한 특이한 글 사례나 채점 척도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연구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채점단과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활용하였다.



[그림 III-12] 채점단 모바일 메신저 화면

예비 조사의 채점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채점을 종료한 후에는 채점 자료에 결측이나 다른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글 사례의 문제(예: 검사지 혼합)나 일부 결측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례 중 글 자료 유형 분류가 잘못된 피험자 답안의 경우 폐기하고, 조사 업체에 전달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한 후 담당 채점자와 확인을 거쳐 재채점을 실시하였다.

3.5.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예비 조사에서 수집된 글에 대해 채점자들이 부여한 점수는 고전 검사 이론(Classical Testing Theory) 및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 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의 곤란도 및 변별도 등의 양호도를 확인한다. 고전 검사 이론 분석에서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각 글에 대한 총점,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및 최솟값, 중앙값, 첨도와 왜도 등의 기술 통계 정보를 산출한다. 특히 가형과 나형에 공통 혹은 단독으로 포함시킨 총 7개 문항의 정답률(용이도) 및 변별도를 파악하여 본 검사 문항으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각 문항의 급내 상관(Intra Class Correlation)을 통해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한다.

첨도와 왜도가 정규분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Hair et al.(2022:66)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첨도가 +2보다 크면 ‘매우 뾰족하다(too peaked)’, -2보다 작으면 ‘매우 평평하다(too flat)’라고 간주한다. 또한, 왜도가 -1~+1이면 ‘매우 좋다(excellent)’, -2~+2이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generally acceptable)’라고 간주한다.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정답률(용이도) 및 변별도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은 성태제(2019: 282-284)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정답률이 20% 미만이면 ‘매우 어려운 문항’, 20~40%이면 ‘어려운 문항’, 40~60%이면 ‘중간 난이도 문항’, 60~80%이면 ‘쉬운 문항’, 80~100%이면 ‘매우 쉬운 문항’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변별도가 0.10 미만이면 ‘변별력이 없는 문항’, 0.1~0.2이면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0.2~0.3이면 ‘변별력이 낮은 문항’, 0.3~0.4이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 0.4 이상이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라고 간주한다.

급내 상관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은 Cicchetti(1994:286)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급내 상관 크기가 0.4 미만이면 ‘좋지 않음(poor)’, 0.4~0.6이면 ‘보통(fair)’, 0.6~0.75이면 ‘ 좋음(good)’, 0.75 이상이면 ‘매우 좋음(excellent)’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문항 반응 이론 분석에서는 다국면 라쉬 모형(Many Facet Rasch Model)을 적용한다. 다국면 라쉬 모형은 채점 수행에 수반되는 문항, 피험자, 채점자의 오차 요인을 고려하여 척도 점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모형이며 본 과업에서는 Wind & Hua(2022:240)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피험자, 채점자, 채점 준거, 채점 준거별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을 동시에 고려하는 부분 점수-다국면 라쉬 모형(PC-MFRM)을 적용한다.

$$\log \frac{P_{nmik}}{P_{nmi(k-1)}} = \theta_n - \lambda_m - \delta_i - \tau_{ik}$$

P_{nmik} : 응시자 n 이 채점자 m 으로부터 채점 준거 i 에서 k 점을 받을 확률

$P_{nmi(k-1)}$: 응시자 n 이 채점자 m 으로부터 채점 준거 i 에서 $k-1$ 점을 받을 확률

θ_n : 응시자 n 의 쓰기 능력

λ_m : 채점자 m 의 채점 엄격성(severity)

δ_i : 채점 준거 i 의 곤란도(difficulty)

τ_{ik} : 채점 준거 i 에서 k 점을 받을 확률과 $k-1$ 점을 받을 확률이 같은 응시자의 쓰기 능력. 즉,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rating scale category threshold)

<표 III-37> 채점 결과 분석 방법

이론적 배경	점수	산출물
고전 검사 이론	원 점수	문항별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 첨도, 왜도)
		문항별 양호도(곤란도, 변별도)
		채점자 신뢰도(급내 상관)
문항 반응 이론	척도 점수	채점자 엄격성
		준거의 곤란도
		문항의 곤란도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적합도에 대한 해석 기준은 Aryadoust et al.(2021:30-31)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은 0.5~1.5일 때 적합하고, 1.5보다 크면 부적합, 0.5보다 작으면 과적합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은 -1.96~1.96일 때 적합하고, 1.96보다 크면 부적합, -1.96보다 작으면 과적합으로 간주한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의 단조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Bond & Fox(2007:224)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인접한 두 임계값 간의 차이 크기가 1.4~5.0일 때 단조 증가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1.4보다 작으면 채점 척도가 지나치게 세분된 것으로, 5.0보다 크면 채점 척도가 지나치게 세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곤란도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성태제(2016:46)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곤란도가 -2.0 이하이면 ‘매우 쉽다’, -2.0~-0.5이면 ‘쉽다’, -0.5~0.5이면 ‘중간이다’, 0.5~2.0이면 ‘어렵다’, 2.0 이상이면 ‘매우 어렵다’로 해석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분석

(1) 검사 설계상의 특징

본조사에 적용할 타당하고 믿을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려는 목적에서 본조사에 필요한 문항 수(3개) 보다 많은 수(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 조사에 적용하였다. 2018년도 본조사 결과와의 비교 시 가교 역할을 해 줄 문항 한 개를 2018년도 본조사 문항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형과 나형에 동일하게 포함시키고, 신규 개발한 문항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3개씩 가형과 나형에 나누어 포함시켰다. 이로써 한 사람의 응시자가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형 혹은 나형 검사지 중 하나에만 응시하게 하여 응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표 III-38> 쓰기 영역(예비 조사) 검사지별 문항 구성

검사지	문항 구성			문항 수	응시자 수
	1번(공통/가교)	2~4번(가)	2~4번(나)		
쓰기(가)	포함	포함		4	165
쓰기(나)	포함		포함	4	165

(2) 기초 분석 결과

예비 조사의 문항 반응에 대하여 먼저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문항별로 기술 통계량들(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을 점검하고, 정규성(첨도, 왜도)을 검토한 뒤,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정답률(용이도)과 변별도를 분석하였으며, 채점 일관성과 채점자 간 일치도를 보여 주는 급내상관계수(ICC)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7개 문항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0~3.78, 표준편차는 0.79~1.18, 중앙값은 2.67~3.67, 최댓값은 모든 문항에서 5.00, 최솟값은 1.00~1.67로 나타났다. 평균과 중앙값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중심 경향성은 쓰기_01번(공통)이 가장 낮고, 쓰기_03(나형)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규성을 살펴보면 7개 문항의 첨도는 쓰기_01(공통)을 제외한 신규 6개 문항 반응에서의 첨도(2.03~2.50)가 매우 뾰족한 편이지만(2.00 이상) 모든 문항 반응에서 그 왜도(-0.30~0.32)는 매우 좋은 편이다(-1.00~1.00).

다음으로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정답률(용이도)은 56.0%~75.6%로 나타났다. 쓰기_01(공통), 쓰기_02(가형), 쓰기_02(나형)의 3개 문항이 중간 난이도 문항(40~60%), 쓰기_03(가형), 쓰기_04(가형), 쓰기_03(나형), 쓰기_04(나형)의 4개 문항이 쉬운 문항(60~80%)에 해당한다.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변별도는 0.50~0.80으로 나타났다. 7개 문항 모두 변별력이 높은 문항(0.4 이상)에 해당한다.

끝으로, 채점 신뢰도 즉, 채점자 간 채점 일치도를 나타내는 급내 상관(ICC)은 0.95~0.99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급내 상관이 매우 좋은 편이며, 이는 모든 문항에 대한 채점이 꽤 신뢰롭게 이루어졌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III-39> 쓰기 영역(예비 조사) 문항 반응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문항 번호	N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첨도	왜도	정답률	변별도	ICC
쓰기_01(공통)	330	2.80	1.18	2.67	5.00	1.00	1.87	.15	56.0%	.76	.99
쓰기_02(가형)	165	2.96	.91	3.00	5.00	1.33	2.21	.26	59.2%	.78	.98
쓰기_03(가형)	165	3.04	.87	3.00	5.00	1.00	2.50	.26	60.8%	.50	.99
쓰기_04(가형)	165	3.31	.79	3.13	5.00	1.00	2.47	.29	66.3%	.74	.99
쓰기_02(나형)	165	2.96	1.02	2.83	5.00	1.17	2.03	.32	59.3%	.79	.98
쓰기_03(나형)	165	3.78	.80	3.67	5.00	1.67	2.50	-.30	75.6%	.70	.95
쓰기_04(나형)	165	3.27	.95	3.38	5.00	1.13	2.14	-.08	65.4%	.80	.98

(3)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분석 결과

다국면 라쉬 모형의 공식 중, 채점 준거마다 개별적으로 평정 척도 범주 임계값을 지정하는 부분 점수-다국면 라쉬 모형(PC-MFRM) 공식을 각 문항별로 적용하여 쓰기 영역 예비 조사 문항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쓰기_01(공통)에 대한 응답자 총 330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16명의 채점자 중 대부분인 13명이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자1과 채점자13이 몇 가지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고(MnSq $\geq$ 1.5 혹은 ZStd $\geq$ 1.96), 채점자5가 내적합 평균제곱(MnSq) 기준에서 과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leq$ 0.5 혹은 ZStd $\leq$ -1.96). 이는 향후 이들 채점자들이 본조사 채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채점자 훈련과 함께 특별히 관심 있는 채점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자 엄격성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13명의 채점자들에게서 -1.16~0.89로 나타났다. 채점자15가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4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8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9의 경우 표준오차가 0.3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적합도가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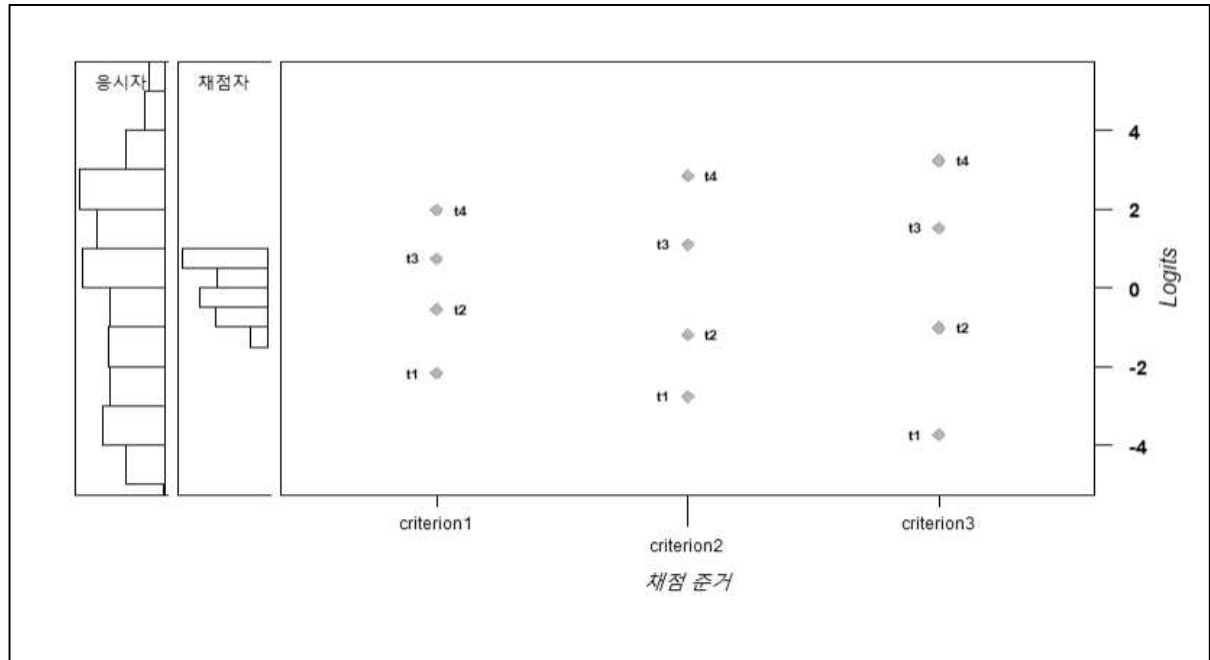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는, 채점 준거1이 0.42, 채점 준거2가 0.66, 채점 준거3이 0.51로 나타나 채점 준거1은 중간(-0.5~0.5), 채점 준거2와 채점 준거3은 어려운(0.5~2.0)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모두 0.05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53으로 나타나 어려운(0.5~2.0)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5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3개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부분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채점 준거1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29, τ_3 과 τ_4 간 간격이 1.24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채점 준거1에서 2점/3점/4점/5점 구별의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3] 쓰기 영역 예비문항 1번(공통)의 라이트 맵

<표 III-40> 쓰기 영역 예비문항 1번(공통)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1	.82	.08	1.61	1.45	2.51	1.74
	채점자2	.51	.08	0.94	0.97	-0.54	-0.11
	채점자3	.64	.08	0.73	0.67	-1.61	-1.33
	채점자4	.89	.08	0.74	0.68	-1.60	-1.12
	채점자5	.86	.08	0.59	0.58	-2.70	-1.88
	채점자6	.29	.08	0.78	0.73	-1.37	-1.31
	채점자7	-.06	.08	0.91	0.99	-0.51	0.02
	채점자8	.06	.08	0.93	0.91	-0.38	-0.33
	채점자9	-.19	.31	0.74	0.79	-1.52	-0.92
	채점자10	-.99	.08	1.06	1.04	0.30	0.29
	채점자11	-.76	.08	0.73	0.70	-1.59	-1.38
	채점자12	-.88	.08	0.92	0.88	-0.40	-0.44
	채점자13	-.06	.08	1.57	1.63	1.90	2.21
	채점자14	-.20	.08	0.95	0.99	-0.26	0.04
	채점자15	-1.16	.08	1.19	1.09	1.04	0.58
	채점자16	.22	.08	1.07	1.06	0.42	0.33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42	.05	.75	.70	-1.46	-1.16
	채점 준거2	.66	.05	.82	.80	-1.16	-.96
	채점 준거3	.51	.05	1.33	1.35	1.44	1.44
문항 곤란도		.53	.05	.97	.95	-.39	-.23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2.17		-.55		.74	
	채점 준거2	-2.76		-1.19		1.10	
	채점 준거3	-3.73		-1.02		1.52	

다음으로, 쓰기_02(가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중 대부분인 6명이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대체로 채점 수행 결과가 모형에 적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채점자1이 모든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고(MnSq $\geq$ 1.5 혹은 ZStd $\geq$ 1.96), 채점자 5가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과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leq$ 0.5 혹은 ZStd $\leq$ -1.96). 이는 향후 이들 채점자들이 본조사 채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채점자 훈련과 함께 특별히 관심 있는 채점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자 엄격성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6명의 채점자들에게서 -1.05~0.42로 나타났다. 채점자7이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2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편차는 대부분 0.08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8의 경우 표준오차가 0.22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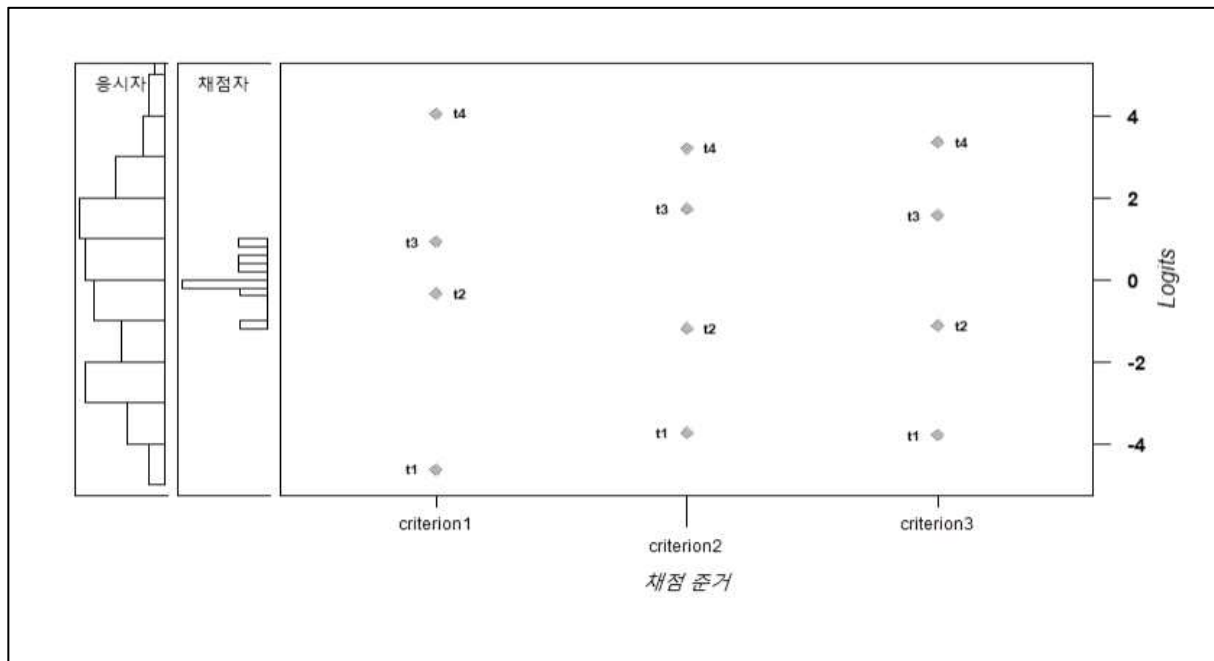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적합도가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준거 곤란도는, 채점 준거1이 -0.32, 채점 준거2가 -0.10, 채점 준거3이 0.35로 나타나 모두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모두 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02로 나타나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3개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부분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채점 준거1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26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채점 준거1에서 2점/3점/4점 구별의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4]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가형)의 라이트 맵

<표 III-41>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1	.96	.08	1.69	1.65	2.88	2.75
	채점자2	.42	.08	1.13	1.17	.67	.78
	채점자3	-.15	.08	.77	.76	-1.36	-1.42
	채점자4	.30	.08	.75	.80	-1.72	-1.35
	채점자5	-.06	.08	.70	.69	-1.99	-1.98
	채점자6	-.30	.08	.80	.79	-1.26	-1.22
	채점자7	-1.05	.08	1.22	1.21	1.20	1.03
	채점자8	-.13	.22	.82	.80	-1.08	-1.10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32	.07	.96	.96	-.34	-.37
	채점 준거2	-.10	.07	.79	.80	-1.40	-1.32
	채점 준거3	.35	.07	1.20	1.19	.74	.76
문항 곤란도		-.02	.07	.98	.98	-.33	-.31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4.63		-.34		.92	
	채점 준거2	-3.73		-1.19		1.72	
	채점 준거3	-3.79		-1.13		1.57	

다음으로, 쓰기_03(가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중 대부분인 6명이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자4와 채점자5가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과적합에 해당하였다(MnSq≤0.5 혹은 ZStd≤-1.96). 이는 향후 이들 채점자들이 본조사 채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채점자 훈련과 함께 특별히 관심 있는 채점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자 엄격성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6명의 채점자들에게서 -0.57~0.34로 나타났다. 채점자3이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2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9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8의 경우 표준오차가 0.2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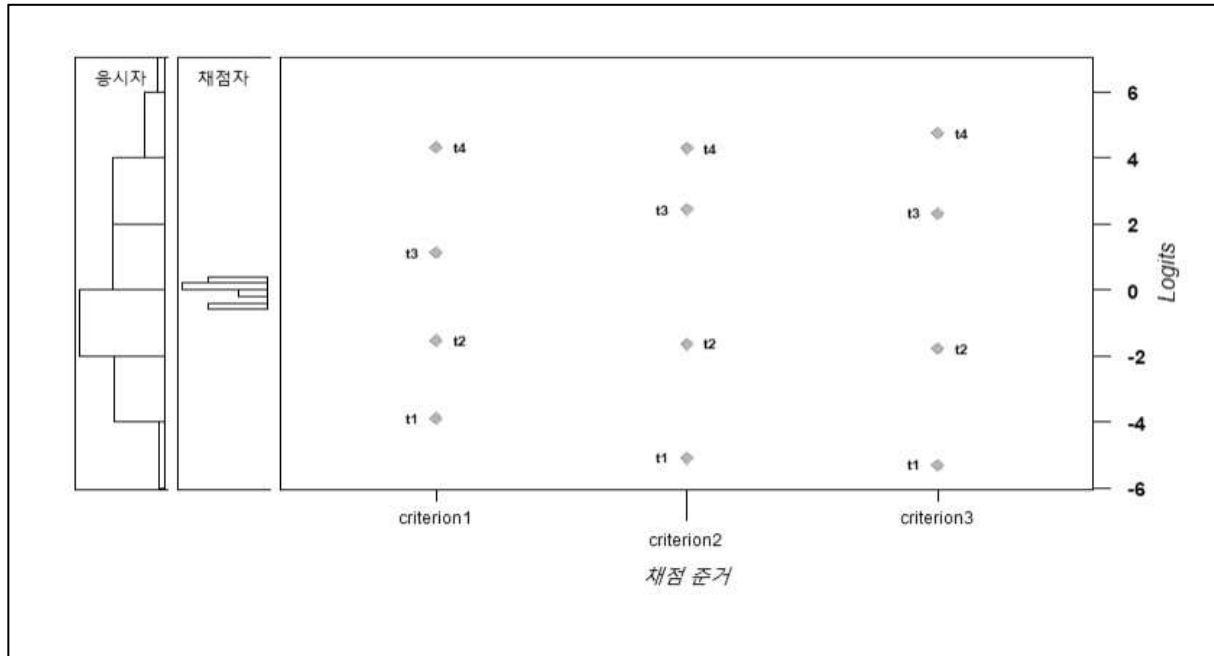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적합도가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준거 곤란도는, 채점 준거1이 0.18, 채점 준거2가 0.35, 채점 준거3이 -0.58로 나타나 채점 준거1과 채점 준거2는 중간(-0.5~0.5), 채점 준거3은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7~0.08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01로 나타나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8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3개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부분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5]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가형)의 라이트 맵

<표 Ⅲ-42>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1	.10	.09	1.36	1.39	1.84	1.92
	채점자2	.34	.09	1.00	.99	.03	.00
	채점자3	-.57	.09	.78	.78	-1.32	-1.32
	채점자4	-.46	.09	.64	.65	-2.32	-2.20
	채점자5	.31	.09	.63	.64	-2.39	-2.24
	채점자6	.18	.09	.81	.79	-1.17	-1.24
	채점자7	-.05	.09	1.06	1.01	.37	.11
	채점자8	.16	.24	.95	.92	-.35	-.46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18	.07	.82	.80	-1.15	-1.25
	채점 준거2	.35	.08	.90	.88	-.76	-.80
	채점 준거3	-.58	.08	.99	1.01	-.08	.02
문항 곤란도		-.01	.08	.90	.90	-.66	-.68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3.91		-1.54		1.13	
	채점 준거2	-5.09		-1.64		2.44	
	채점 준거3	-5.31		-1.77		2.33	

다음으로, 쓰기_04(가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중 대부분인 7명이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자1이 외적합 평균제곱(MnSq)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geq 1.5$ 혹은 $ZStd \geq 1.96$). 이는 향후 해당 채점자가 본조사 채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채점자 훈련과 함께 특별히 관심 있는 채점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자 엄격성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7명의 채점자들에게서 -0.45~0.43으로 나타났다. 채점자7이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4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6으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8의 경우 표준오차가 0.17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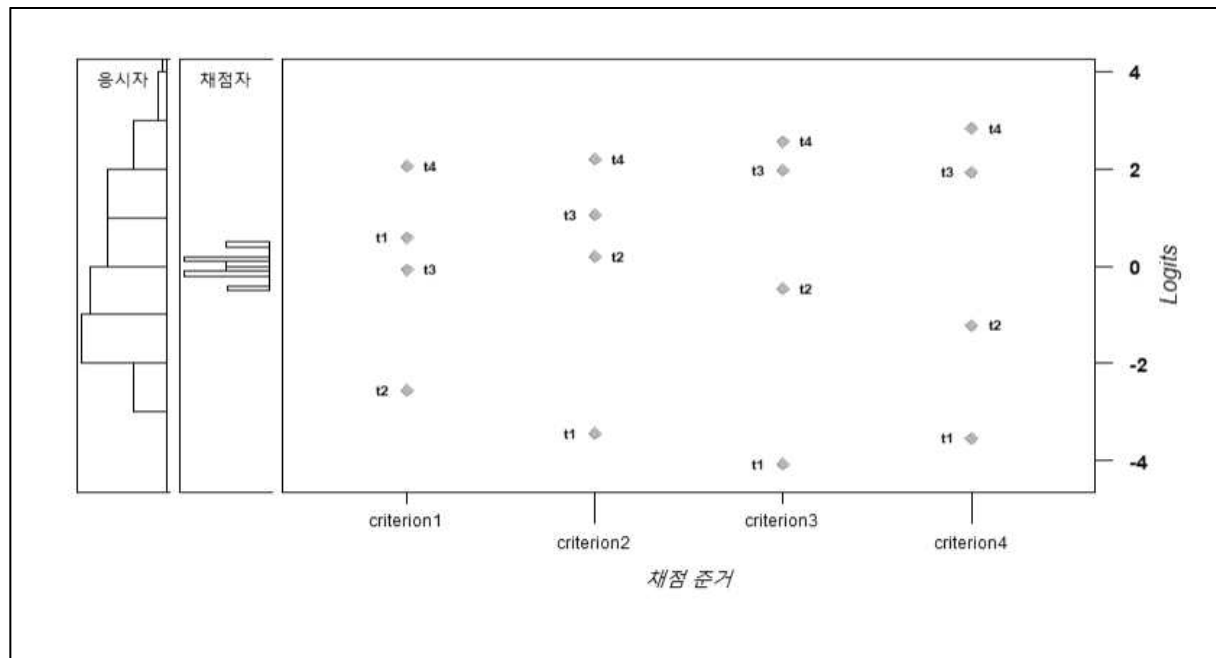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4개의 채점 준거 중 대부분인 3개가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각 채점 준거별 문항 반응 평균값들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채점 준거1이 외적합 평균제곱(MnSq)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geq 1.5$ 혹은 $ZStd \geq 1.96$). 이는 해당 채점 준거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혹은 세부 채점 지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 준거 곤란도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채점 준거2가 -0.33, 채점 준거3이 -0.47, 채점 준거4가 -0.73으로 나타나 채점 준거2와 채점 준거3은 중간(-0.5~0.5), 채점 준거4는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6~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76으로 나타나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6으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총 4개의 채점 준거 중 대부분인 3개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다만, 채점 준거1은 τ_1 이 τ_2 보다 높은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채점 척도를 정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체로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대체로 제 기능을 하는 편이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채점 준거2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0.86, τ_3 와 τ_4 간 간격이 1.15에 그치고, 채점 준거3의 τ_3 와 τ_4 간 간격이 0.59에 그쳤으며, 채점 준거4의 τ_3 와 τ_4 간 간격이 0.90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채점 준거2에서 2점/3점/4점/5점, 채점 준거3과 채점 준거4에서 3점/4점/5점 구별의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6]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가형)의 라이트 맵

<표 Ⅲ-43>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가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1	.04	.06	1.20	1.55	.92	2.08
	채점자2	-.11	.06	.86	.86	-1.08	-1.07
	채점자3	-.04	.06	.78	.81	-1.44	-1.14
	채점자4	.43	.06	.88	1.19	-1.07	-.12
	채점자5	.12	.06	.84	.92	-.90	-.47
	채점자6	.14	.06	.83	.84	-1.09	-.93
	채점자7	-.45	.06	1.16	1.28	.40	.54
	채점자8	-.13	.17	1.00	1.28	-.27	.25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1.51	.06	1.45	1.95	1.84	2.91
	채점 준거2	-.33	.06	.73	.74	-1.61	-1.38
	채점 준거3	-.47	.07	.77	.81	-1.43	-1.14
	채점 준거4	-.73	.07	.83	.86	-1.06	-.83
문항 곤란도		-.76	.06	.94	1.09	-.57	-.11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58		-2.55		-.07	
	채점 준거2	-3.45		.19		1.05	
	채점 준거3	-4.07		-.46		1.97	
	채점 준거4	-3.54		-1.22		1.93	

다음으로, 쓰기_02(나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모두가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

(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 엄격성은, 8명의 채점자들에게서 -0.54~0.68로 나타났다. 채점자11이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14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9의 경우 표준오차가 0.20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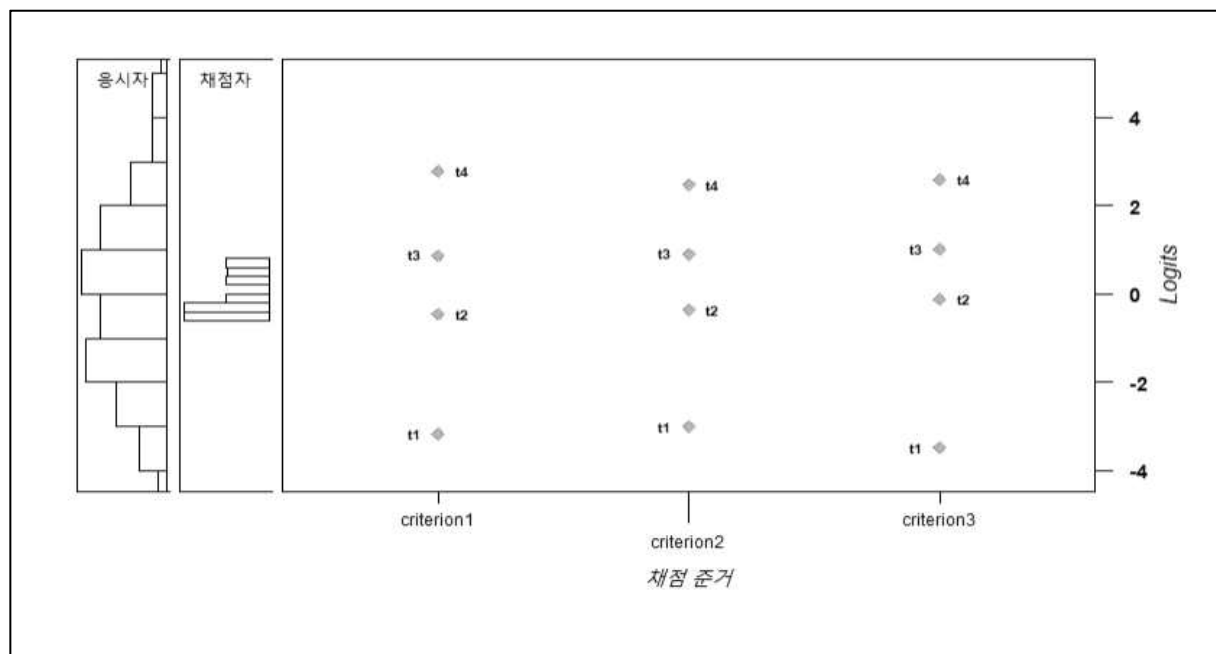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적합도가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준거 곤란도는, 채점 준거1이 -0.11, 채점 준거2가 0.01, 채점 준거3이 -0.14로 나타나 모두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6~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08로 나타나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6으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3개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부분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채점 준거1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33, 채점 준거2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27, 채점 준거3의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14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3개 채점 기준 모두에서 2점/3점/4점 구별의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7]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나형)의 라이트 맵

<표 III-44> 쓰기 영역 예비문항 2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9	-.28	.20	.85	.79	-.88	-1.08
	채점자10	-.20	.07	1.17	1.14	.95	.68
	채점자11	-.54	.07	.78	.74	-1.36	-1.34
	채점자12	.34	.07	.82	.83	-1.14	-1.02
	채점자13	-.04	.07	.93	.94	-.57	-.49
	채점자14	.68	.08	.88	.86	-.68	-.76
	채점자15	-.48	.07	1.39	1.29	1.94	1.25
	채점자16	.53	.07	1.11	1.13	.61	.66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11	.06	1.08	1.04	.35	.11
	채점 준거2	.01	.06	.81	.78	-1.13	-1.18
	채점 준거3	-.14	.07	1.08	1.07	.36	.29
문항 곤란도		-.08	.06	.99	.96	-.14	-.26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3.18		-.46		.87	
	채점 준거2	-3.01		-.36		.91	
	채점 준거3	-3.48		-.12		1.02	

다음으로, 쓰기_03(나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중 대부분인 6명이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점자12가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과적합에 해당하였고(MnSq ≤ 0.5 혹은 ZStd ≤ -1.96), 채점자13이 외적합 평균제곱(MnSq)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 1.5 혹은 ZStd ≥ 1.96). 이는 향후 이들 채점자들이 본조사 채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채점자 훈련과 함께 특별히 관심 있는 채점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점자 엄격성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6명의 채점자들에게서 -1.29~1.83으로 나타났다. 채점자10이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14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8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9의 경우 표준오차가 0.2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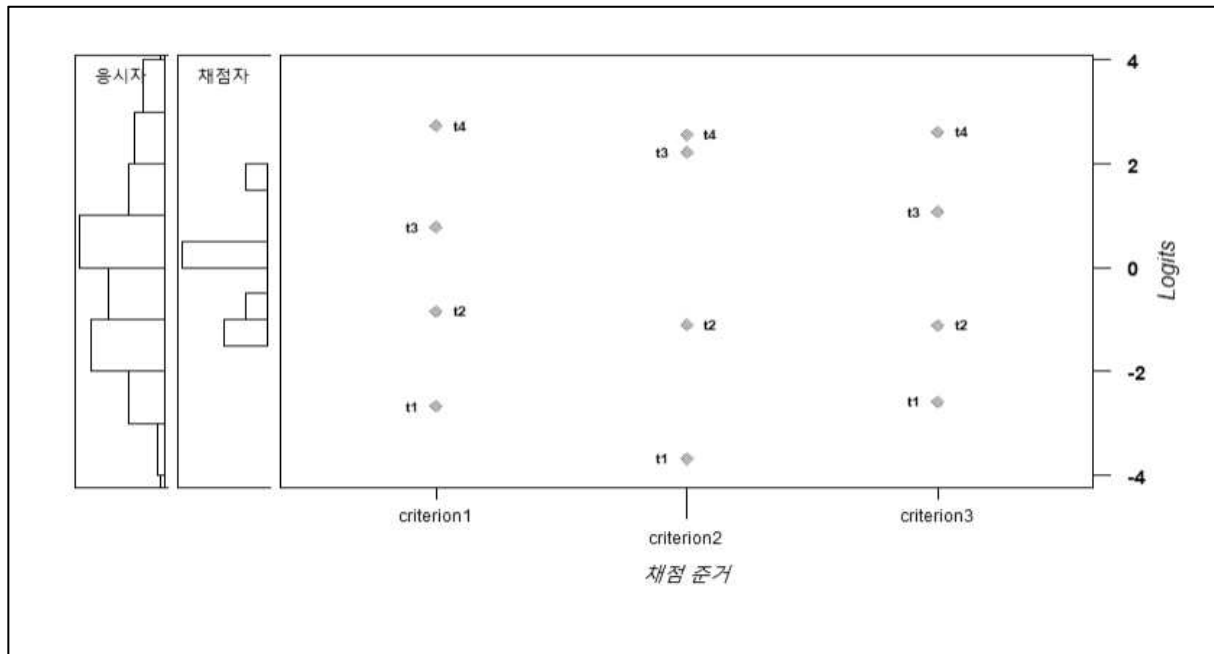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준거 곤란도는, 채점 준거1이 -2.23, 채점 준거2가 -1.62, 채점 준거3이 -1.70으로 나타나 채점 준거1은 매우 쉬운(-2.0 미만), 채점 준거2와 채점 준거3은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모두 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문항 반응 평균값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1.85로 나타나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7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3개 채점 준거 모두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부분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였다. 이는 채점 수행에서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채점 준거2의 τ_3 과 τ_4 간 간격이 0.34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채점 기준2에서 3점/4점/5점 구별의 지침을 보다 더 명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8]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나형)의 라이트 맵

<표 III-45> 쓰기 영역 예비문항 3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9	.17	.21	1.12	1.03	.68	.18
	채점자10	-1.29	.08	.93	1.10	-.50	.10
	채점자11	-.81	.08	.74	.73	-1.53	-1.10
	채점자12	.36	.08	.62	.64	-2.51	-2.13
	채점자13	.48	.08	1.45	1.63	1.92	2.27
	채점자14	1.83	.08	1.03	.99	.22	-.02
	채점자15	-1.01	.08	1.10	1.14	.45	.43
	채점자16	.28	.08	.95	.98	-.25	-.04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2.23	.07	.84	.82	-.94	-.66
	채점 준거2	-1.62	.07	.87	.82	-.83	-.84
	채점 준거3	-1.70	.07	1.27	1.45	1.20	1.38
문항 곤란도		-1.85	.07	.99	1.03	-.19	-.04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채점 준거1	-2.67		-.84		.78	
	채점 준거2	-3.68		-1.10		2.22	
	채점 준거3	-2.58		-1.11		1.07	

끝으로, 쓰기_04(나형)에 대한 응답자 총 165명의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엄격성 추정의 적합도는, 총 8명의 채점자 모두가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 엄격성은, 8명의 채점자들에게서 -0.28~0.43으로 나타났다. 채점자15가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행한 반면, 채점자14가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대부분 0.04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채점자9의 경우 표준오차가 0.12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채점 준거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총 4개의 채점 준거 중 대부분인 3개가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각 채점 준거별 문항 반응 평균값들이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채점 준거1이 모든 기준에서 부적합에 해당하였다(MnSq $\geq$ 1.5 혹은 ZStd $\geq$ 1.96). 이는 해당 채점 준거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혹은 세부 채점 지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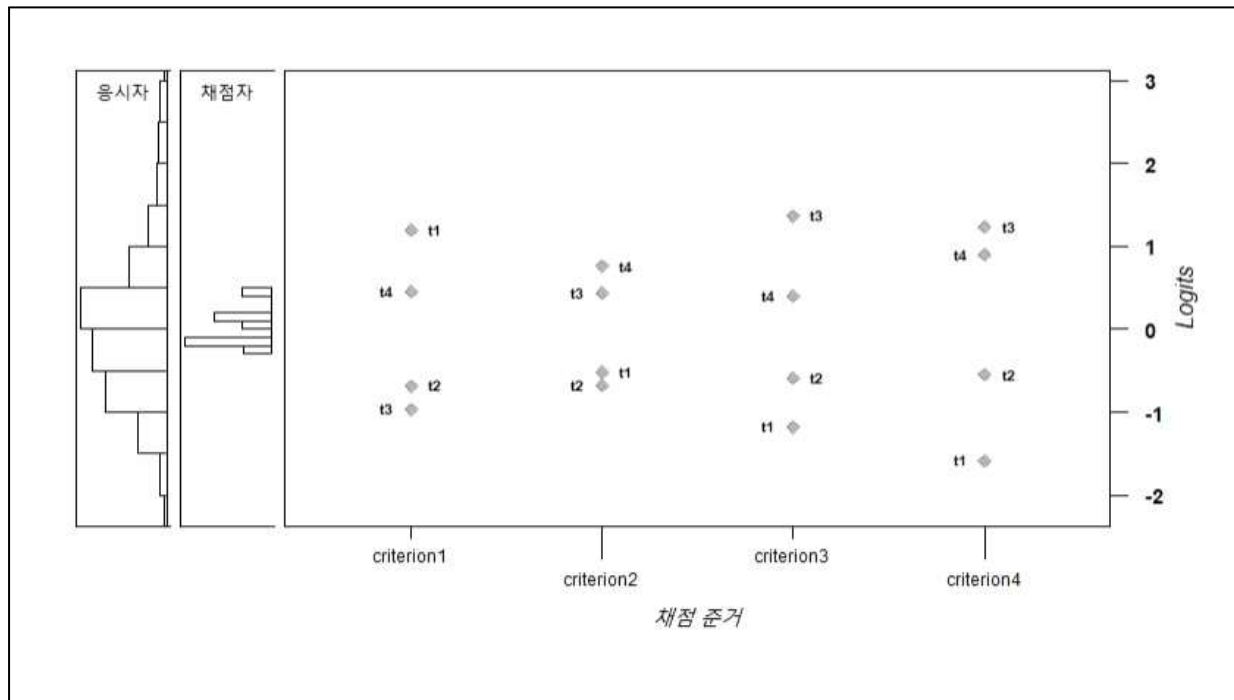
채점 준거 곤란도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채점 준거2가 -0.39, 채점 준거3이 -0.12, 채점 준거4가 -0.66으로 나타나 채점 준거2와 채점 준거3은 중간(-0.5~0.5), 채점 준거4는 쉬운(-2.0~-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4~0.05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문항 곤란도 추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내적합 및 외적합 평균제곱(MnSq)값 기준(0.5~1.5)과 내적합 및 외적합 표준화 Z(ZStd)값 기준(-1.96~1.96)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곤란도는 -0.31로 나타나 중간(-0.5~0.5)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오차는 0.04로 나타나

추정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은 총 4개의 채점 준거 중 대부분인 3개에서 점수 경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지는 단조 증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다만, 채점 준거1이 τ_1 이 τ_2 보다, τ_2 가 τ_3 보다 높은 패턴을 보여주었고, 채점 준거2가 τ_1 이 τ_2 보다 높은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채점 준거3과 채점 기준4가 τ_3 가 τ_4 보다 높은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모든 채점 준거에서 그 채점 척도를 정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계값 간의 간격은 대체로 단조 증가의 패턴으로 보기 위한 권장 기준(1.4~5.0)에 부합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채점 준거2의 τ_1 과 τ_2 간 간격이 0.16, τ_2 와 τ_3 간 간격이 1.12, τ_3 와 τ_4 간 간격이 0.32에 그치고, 채점 준거3의 τ_1 과 τ_2 간 간격이 0.59, τ_3 와 τ_4 간 간격이 0.97에 그쳤으며, 채점 준거4의 τ_1 과 τ_2 간 간격이 1.04, τ_3 와 τ_4 간 간격이 0.34에 그쳐 권장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든 채점 준거에서 채점 척도의 구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9]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나형)의 라이트 맵

<표 III-46> 쓰기 영역 예비문항 4번(나형)의 다국면 라쉬 모형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모수 구분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내적합 MnSq	외적합 MnSq	내적합 ZStd	외적합 ZStd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9	.12	.12	1.10	1.28	.30	.37
	채점자10	-.12	.04	1.13	1.16	.32	-.01
	채점자11	-.19	.04	.98	1.06	-.69	-.75
	채점자12	.07	.04	.86	.91	-1.16	-1.03
	채점자13	.15	.04	.94	1.09	-.60	-.55
	채점자14	.43	.04	1.24	1.39	.82	.81
	채점자15	-.28	.04	1.09	1.14	.29	.20
	채점자16	-.19	.04	.95	.92	-.42	-.75
채점 준거 곤란도	채점 준거1	-.05	.04	1.72	2.11	3.39	3.16
	채점 준거2	-.39	.04	.80	.79	-1.46	-1.41
	채점 준거3	-.12	.05	.77	.74	-1.49	-1.54
	채점 준거4	-.66	.05	.85	.82	-1.02	-1.07
문항 곤란도		-.31	.04	1.04	1.12	-.14	-.21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		τ_1 (1점/2점)		τ_2 (2점/3점)	τ_3 (3점/4점)	τ_4 (4점/5점)	
	채점 준거1	1.20		-.68	-.96	.45	
	채점 준거2	-.52		-.68	.44	.76	
	채점 준거3	-1.18		-.59	1.37	.40	
	채점 준거4	-1.59		-.55	1.24	.90	

3) 배경 변인별 분석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분석 결과로 응시자의 능력 추정치(Z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T점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T점수에 응시자의 거주 지역, 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등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각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별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따른 T점수 평균은 서울 53.15, 인천 53.77, 경기(동) 47.68, 경기(읍면) 45.60으로 나타나 대체로 서울과 인천 지역 응시자가 경기 지역 응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집단 간 차이는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T점수 평균은 남자가 50.49, 여자가 50.08로 나타나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는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연령대에 따른 T점수 평균은 20대가 53.57, 30대가 53.66, 40대가 51.77, 50대가 47.87, 60대가 44.55로 나타나 3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섯 집단 간 차이는 $\alpha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직업에 따른 차이는 정신 노동 54.03, 육체 노동 48.61, 기타 48.55로 나타나 정신 노동 직업군 응시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 차이는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학력에 따른 차이는 고졸 미만이 41.73, 고졸이 47.92, 대재 이상이 53.28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 차이는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표 III-47> 예비 조사 쓰기 영역 배경 변인별 분석

구분		사례 수	기술 통계		차이 검정	
			평균	표준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도
지역	서울	102	53.15	15.97	$F(3, 326)=5.62$	$p<.001$
	인천	75	53.77	14.44		
	경기_동	78	47.68	14.71		
	경기_읍면	75	45.60	15.65		
성별	남자	165	50.49	15.21	$t(328)=.24$	$p=.81$
	여자	165	50.08	15.99		
연령대	20-29세	66	53.57	18.27	$F(4, 325)=4.47$	$p<.01$
	30-39세	66	53.66	13.17		
	40-49세	66	51.77	15.60		
	50-59세	66	47.87	15.92		
	60-69세	66	44.55	12.68		
직업	정신노동	103	54.03	15.50	$F(2, 327)=4.41$	$p<.05$
	육체노동	128	48.61	15.85		
	기타	99	48.55	14.77		
학력	고졸 미만	30	41.73	13.53	$F(2, 327)=9.72$	$p<.001$
	고졸	120	47.92	14.90		
	대재 이상	180	53.28	15.62		
전체		330	50.28	15.58		

4) 개별 문항별 분석(문항 카드)

이 항에서는 개별 문항별 분석 결과에 대한 문항 카드를 제시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 카드에는 각 문항별 평가 요소, 정답 및 해설, 본조사 결과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등을 카드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때, 고전 검사 이론(CTT)과 문항 반응 이론(IRT)에 따른 난이도 및 변별도를 제시하였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1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 - 묘사글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76					난이도(용이도; b): 0.56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53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2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78		난이도(용이도; b): 0.59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td><td>0.1</td><td>0.2</td><td>0.3</td><td>0.4</td></tr><tr><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td><td>$\leq a \leq$</td></tr><tr><td>0.1</td><td>0.2</td><td>0.3</td><td>0.4</td><td>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r><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td><td>$\leq b \leq$</td></tr><tr><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0.1	0.2	0.3	0.4																																						
	$\leq a <$	$\leq a <$	$\leq a <$	$\leq a <$	$\leq a \leq$																																						
0.1	0.2	0.3	0.4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0.2	0.4	0.6	0.8																																							
$\leq b <$	$\leq b <$	$\leq b <$	$\leq b <$	$\leq b \leq$																																							
0.2	0.4	0.6	0.8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02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 -2.0$</td><td>$-2.0 \leq \beta < -0.5$</td><td>$-0.5 \leq \beta < 0.5$</td><td>$0.5 \leq \beta < 2.0$</td><td>$2.0 \leq \beta$</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3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사과문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50					난이도(용이도; b): 0.61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01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4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온라인 게시판 글 쓰기 - 반품 요청하기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74					난이도(용이도; b): 0.66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76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leq \beta <$ -0.5	$\leq \beta <$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2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79		난이도(용이도; b): 0.59	

		<table><tr><td>없음</td><td>매우 낮음</td><td>낮음</td><td>있음</td><td>높음</td></tr><tr><td>0.0 $\leq a <$ 0.1</td><td>0.1 $\leq a <$ 0.2</td><td>0.2 $\leq a <$ 0.3</td><td>0.3 $\leq a <$ 0.4</td><td>0.4 $\leq a \leq$ 1.0</td></tr></table>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table><tr><td>매우 어려움</td><td>어려움</td><td>중간</td><td>쉬움</td><td>매우 쉬움</td></tr><tr><td>0.0 $\leq b <$ 0.2</td><td>0.2 $\leq b <$ 0.4</td><td>0.4 $\leq b <$ 0.6</td><td>0.6 $\leq b <$ 0.8</td><td>0.8 $\leq b \leq$ 1.0</td></tr></table>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08																						
	<table><tr><td>매우 쉬움</td><td>쉬움</td><td>중간</td><td>어려움</td><td>매우 어려움</td></tr><tr><td>$\beta <$ -2.0</td><td>-2.0 $\leq \beta <$ -0.5</td><td>-0.5 $\leq \beta <$ 0.5</td><td>0.5 $\leq \beta <$ 2.0</td><td>2.0 $\leq \beta$</td></tr></table>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3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거절 문자 메시지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70					난이도(용이도; b): 0.76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1.85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예비 조사	W-4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온라인 게시판 글 쓰기 - 여행지 소개하기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예비 조사 결과	CTT 분석 결과	변별도(a): 0.80					난이도(용이도; b): 0.65				
		없음	매우 낮음	낮음	있음	높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중간	쉬움	매우 쉬움
		0.0 $\leq a <$ 0.1	0.1 $\leq a <$ 0.2	0.2 $\leq a <$ 0.3	0.3 $\leq a <$ 0.4	0.4 $\leq a \leq$ 1.0	0.0 $\leq b <$ 0.2	0.2 $\leq b <$ 0.4	0.4 $\leq b <$ 0.6	0.6 $\leq b <$ 0.8	0.8 $\leq b \leq$ 1.0
	IRT 분석 결과	난이도(곤란도; β): -0.31									
매우 쉬움		쉬움	중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beta <$ -2.0	-2.0 $\leq \beta <$ -0.5	-0.5 $\leq \beta <$ 0.5	0.5 $\leq \beta <$ 2.0	2.0 $\leq \beta$					

5) 방문 면접 조사와 집합 조사 결과 비교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현재와 같은 방문 조사 방식에서 향후 집합 조사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지를 예측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쓰기 영역 예비 조사 시 총 330명의 피조사자 중 300명은 방문 조사 방식으로, 나머지 30명은 집합 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 여부를 검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300점이 만점인 쓰기 영역 원점수의 평균은 면접 조사 집단이 177.56, 집합 조사 집단이 226.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t-검정을 수행한 결과 $t(328)=-5.80$, $p<.001$ 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집합 조사 집단의 쓰기 영역 원점수 평균이 방문 조사 집단의 쓰기 영역 원점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방문 조사 방식을 집합 조사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그 조사 결과로서 원점수가 이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표 III-48> 조사 방식에 따른 예비 조사 쓰기 영역 능력 점수의 차이

능력 점수(원점수)						t-검정 결과		
면접 조사			집합 조사					
N	평균	SE	N	평균	SE	<i>t</i>	<i>df</i>	<i>p</i>
300	177.56	43.48	30	226.38	48.37	-5.80	328	<.001

3.6. 쓰기 영역 최종 도구 확정

최종 도구의 확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쓰기 영역을 담당한 공동 연구원들이 협의를 통하여 1.2 배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문항의 문항 구성 및 개별 문항에 관하여 각 영역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한 전문가는 <표 III-48>과 같다.

<표 III-49> 쓰기 영역 자문 전문가 명단

구분	전문가	소속
예비 조사 실시 전	서수현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장성민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예비 조사 실시 후	권태현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장성민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다음 <표 III-49>와 같다.

<표 III-50> 쓰기 영역 최종 선정 문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평가 요소)	선정 문항 번호
쓰기	가. 설명적 글쓰기	설명문 쓰기	1번 (가교)
	나.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 쓰기	2번 (가형)
	다. 친교적 쓰기	편지글 (전자우편) 쓰기	3번 (가형)
	라. 디지털 매체 쓰기	모바일 쓰기	4번 (가형)

예비 조사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후 연구진 내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과 함께 본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선정 및 수정을 논의하였다. 변별도 및 문항 반응 분석을 통하여 문항 완성도를 평가하고, 예비 조사 실시 이후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 문항의 1.2배수에 해당하는 총 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공통(가교) 문항에 해당하는 1번을 포함해 2번 가형, 3번 가형, 4번 가형으로 총 4개이며, 2번 나형을 예비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번 문항 유형의 경우 가, 나형 모두 CTT 기준 중간 난이도(평균 2.96, 정답률 59%)이며 모두 변별도가 높은 수준(가형: 0.78, 나형: 0.79)으로 판정되었다.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 결과에서 척도 범주 임계값을 기준으로 3개의 채점 준거 모두에서 가형 문항이 나형보다 5점 척도의 변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제 문항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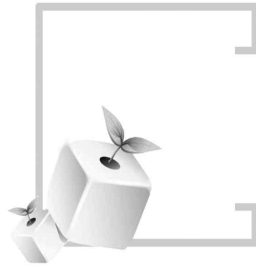
3번 문항 유형의 경우 가형은 평균 3.04(정답률 60%), 변별도는 0.5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나형은 평균 3.78(정답률 75%)이며 변별도는 0.70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정되었다. 두 문항 모두 쉬운 문항이며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 결과에서 척도 범주 임계값을 기준으로 가형 문항이 나형보다 채점 수행에서 1~5점 척도가 잘 구분되고,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어 선제 문항에 포함하였다.

4번 문항 유형의 경우 가형은 평균 3.31(정답률 66%), 변별도는 0.74로 나타났으며, 나형은 평균 3.27(정답률 75%), 변별도는 0.80으로 판정되었다. 두 문항 모두 쉬우며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가형의 경우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 결과에서 척도 범주 임계값으로 보았을 때 1~5점 척도가 잘 구분되고 있어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제 문항에 포함하였다.

다만 선제 문항 중 디지털 문항인 4번 가형 문항의 경우, ‘매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채점 준거1에서 1-2점의 임계치가 2-3점의 임계치보다 높은 패턴을 보여 주었다. 이는 ‘매체 활용 능력’과 ‘쓰기 능력’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 내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글쓰기에서 매체 활용과 관련한 구인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본 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조사 도구 및 채점 준거를 수정하고자 한다.

더하여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번 나형 문항의 경우 평균 2.96, 정답률 59%로 2번 가형 문항과 유사한 난이도와 매우 높은 변별도를 보이며 5점 척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바, 2번 나형 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선제하여 1.2배수 문항에 포함하고자 한다.



제 4 장

제언



4.1. 2025년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시행 방안

1) 조사 도구 구성

2025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2023년부터 이루어진 본조사의 마지막 연차로, 쓰기 영역으로 진행될 차례이다. 조사 참여 인원 규모 및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조사 도구는 단일 유형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항 유형은 쓰기 능력을 직접 평가하기에 적절하며 예비 조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바를 바탕으로, 모든 문항을 수행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조사 도구 구성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자 한다.

<표 IV-1> 2025년 쓰기 영역 본조사의 조사 도구 구성 방식

분류	문항 수	시간
친교적 글쓰기	1	5분
설명적 글쓰기	1	10분
논증적 글쓰기	1	15분
디지털 매체 글쓰기	1	10분
계	4	40분

2025년에 실시될 쓰기 영역 본조사에서는 2024년에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 적용한 것과 같이 쓰기 목적과 매체 특성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고, 대규모 조사로서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본조사 문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2) 조사 인원 및 방식

2025년의 쓰기 영역 본조사 인원은 2023년에 이루어진 듣기, 듣기·말하기, 말하기 영역의 본조사와 동일한 규모를 준용하여, 3,000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언어 사용 관련 영역으로서의 공통적 성격 및 수행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 방식은 이전까지의 기본적 조사 방식인 방문 조사 방식을 유지하되, 2024년 국어능력 실태 조사의 본조사에서 시도한 집합 조사 방식을 차년에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방문 조사로 3,000명을, 집합 조사로는 150명(표본 수의 5%)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 읽기, 문법·규범 영역 본조사에서 방문 조사 표본 5,000명의 1%인 50명을 집합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며, 쓰기 영역 예비 조사에서는 방문 조사 표본 300명의 10%인 30명을 집합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표본의 대표성 점검을 위한 인구 통계비 등을 고려하려면 최소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집합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 예산 및 조사 참여자의 배경변인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성취 수준의 등급화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어능력의 특성과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2025년에 실시 예정인 쓰기 영역의 본조사에서는 2023년의 듣기, 말하기, 듣기·말하기 영역의 본조사와 2024년의 읽기, 문법·규범 영역의 본조사에서의 동등화 연구를 통한 성취 수준 등급화를 일관성 있게 이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2025년 쓰기 영역 본조사에서도 동등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쓰기 능력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의 추이를 4개 등급 수준별 비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쓰기 영역의 동등화 방법은 2023년, 2024년에 적용하였던 것과 같이 가교 문항을 이용한 문항 반응 이론(IRT) 기반의 동등화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2013년에 기준 설정 연구를 통해 확정한 4개 수준에 맞춰 2025년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채점 결과를 재척도화하고, 검사지 및 문항 특성과 배경 변인 특성과 관련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제언 4.2. 참조).

4.2. 본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1) 심층 연구를 위한 제언

(1) 읽기 영역의 배경 변인에 관한 후속 분석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중 읽기 영역은 2013년 1주기, 2018년 2주기, 2024년 3주기까지, 약 5년마다 총 3차례(이하, ‘주기’로 명명함)에 걸쳐 국민의 읽기 능력을 조사해 왔다.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얻은 것은 물론, 조사 도구의 설계, 조사의 시행,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기술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와 과정상의 기술적 개선이 단순 보고서의 기록으로만 남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각 문해력 관련 문항이 대표하는 특성이나 자질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기술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며, 문해력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 내리는 작업부터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기관 등 정책 입안자의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됨으로써, 증거 기반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4장에서는 ‘심층 분석 연구’에 해당할 수 있는 후속 연구 과제들을 일정 부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문식 환경 변화에 따른 읽기 능력 변화 추이 연구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매 차례, 읽기 평가 결과들을 가교 문항들을 통해 동등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성취 수준을 절대적인 지표인 성취수준 준거(criterion)에 따라 등급화 된 4수준으로 분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각 주기의 읽기 능력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 읽기 능력의 변화

수준	2013년(1주기)		2018년(2주기)		2024년(3주기)		분할점수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4수준	662	22.7%	1092	21.9%	1134	22.7%	242.3
3수준	1,110	38.1%	2,132	42.6%	2,000	40.0%	173.3
2수준	882	30.2%	1477	29.5%	1353	27.1%	106.5
1수준	262	9.0%	299	6.0%	513	10.3%	
계	2,916	100%	5,000	100%	5,000	100%	(300점 만점)

이 표로부터 ‘1수준’이 증가했고, 2주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미미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국어능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문점이 도출된다. 첫째, 1수준의 증가의 원인이다. 수준별 ‘우수-보통-기초-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4수준-3수준-2수준-1수준’의 비율을 보면, 1수준, 즉 ‘기초 미달’의 비율(10.3%)이 이전 조사(6%)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10% 이상이 읽기 문항 전체의 1/3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실태 조사나 진단에 목적이 있는 대단위 검사의 문항은 선발 목적의 서열형 상대 평가와 달리,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시험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OECD, 2021:19). 이번 조사에서도 문항 곤란도(난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 전체 28문항 중에 2개뿐일 정도로, 변별도가 높으면서도 곤란도는 보통~보통 이하 수준이 전체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 미달이 4% 이상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3수준의 비율이 약간 줄었다는 것은 2020년~2022년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매 주기마다 읽기 능력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는 20대 청년들의, 2주기와 3주기 간의 점수 분포나 경향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2주기 때 만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던 노인층 인구들이 3주기 평가에서는 연령 상승으로 빠져나가고, 그 아래 연령대를 차지하던 인구들이 노령층(65세~69세)으로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양호해졌다고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어능력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17세~19세의 학생들이 20~23세에 접어든 2023년도에 이 조사가 실시되면서, 코로나를 겪은 20대 초반의 인구가 조사 대상에 유입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각 수준 간 비율을 보면 ‘국민의 국어능력’의 주축을 이루는 3수준(보통)의 감소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1수준(기초 미달)과 4수준(우수)은 증가했으며, 동시에 2수준(기초)과 3수준(보통)은 감소를 보이는데, 이러한 양극화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어지는 심층 분석 연구를 통해 3차례 주기별 평가 결과를 통해 읽기 능력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읽기 영역의 하위 중영역 및 세부 요소별 심층 분석

국제적으로 읽기 능력은 객관식 선다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항 설계에 있어서도 문해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에 중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문항을 개발한다. 3차례 주기별 읽기 평가에서도 읽기 교육 이론과 국제적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틀을 참조하여, ‘정보 확인, 추론, 평가, 재구성’의 중영역과 각 하위 요소로 나누고, 각 하위 요소마다 주요 인지 전략을 배치하

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하위 중영역과 세부 요소에 대응되는 문항들은 어느 특정 영역에
 쏠림 없이 중영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며, 각각의 문항이 각 하위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즉 인지
 적 능력을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IV-3> 1·2·3차 실태 조사의 조사 영역 및 세부 요소

1차(2013) 조사			2차(2018)~3차(2023) 조사			
중영역	요소(읽기 전략)	2013	중영역	요소(읽기 전략)	2018	2023
사실적 읽기	세부 내용 파악 능력	4	정보 확인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의 파악	4	4
	명시적인 중심 내용 파악 능력	2		글의 주요 내용 파악	1	3
	글의 구조 파악 능력	1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파악	2	3
	내용 간 관계 파악 능력	2				
추론적 읽기	비명시적 중심 내용 파악 능력	3	추론	생략된 정보 재구	1	2
	전제나 가정의 파악 능력	2		함축적 의미 파악	2	2
	글 쓴 목적이나 의도 파악 능력	1		필자의 의도 파악	2	2
	생략된 내용 파악 능력	1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1	2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 파악 능력	1				
비판적 읽기	구성의 적절성 파악 능력	0	평가	표현의 적절성 판단	2	3
	표현의 적절성 평가 능력	1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1	2
	내용의 타당성 파악 능력	1				
	내용의 효용성 파악 능력	1				
			재구성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1	2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3	3
전체 문항 수		20	전체 문항 수		20	28

각 주기별로 영역별 문항 반응의 결괏값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이번 주기에서 영역별 결괏값을 상호
 비교하는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명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사실적인 정보 파악 능력에 비해 정보의 적절성
 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비판적 이해 능력은 낮아진대거나, 주기가 진행될수록 추론 능력이나 비판적 이
 해 능력이나 정보의 재구성 능력이 낮아진대거나 하는 등의 추이 변화와 연령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3주기 조사에서는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독서로 가장 많이 접하는 글이 서사적(정서표현)
 텍스트 유형임을 감안하여, 관련 제재들을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인이 사회 생활을 통해
 자주 접하는 다양한 실제적 장르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장르별 읽기 능력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표 IV-4> 2023 조사에서 읽기 영역의 텍스트 유형과 문항 수

텍스트 유형 (수)	정보전달 (24)					설득 (16)				친교 (2)	정서 (7)	
텍스트 종류 (수)	설명문	기사	만화	안내문	지시문	기사	사설	만평	광고문	편지글	수필	소설

		9	5		1	7				2		7	4	1	4			2		6	1
문항 번호	언어자료 평가요소	설문 면면	기사 1	카드 뉴스	만화	누리집	안내문	사진전	지도	성분표	메뉴판	기사2	사설	신문평	공익 광고	블로그	누리집	전자 우편	편지 글	수필	소설

③ 디지털 영역에 대한 분석

본 조사는 2주기(2018)부터 변화하는 문식 환경 속에서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링크와 노드로 연결된 하이퍼텍스트 형태가 구현되었지만, 웹사이트(WWW)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닫힌 인터넷 환경’을 재현하여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2주기 때는 20개의 문자 텍스트 기반 문항과 별개로, ‘정보 확인’ 영역의 디지털 문항 2개를 추가 개발하였고, 문자 텍스트 기반 읽기 평가가 끝난 다음, 디지털 문항 2개만을 별도로 시험을 치게 했다.

그러나 3주기에서는 총 3개 문항을 다시 개발하였고, 2주기 때와는 달리, 전체 읽기 문항 28개와 함께 영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읽기 문항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항도 풀도록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문항을 중영역(‘정보 확인, 추론, 평가’)마다 하나씩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2주기와 3주기 디지털 문항의 원점수와 분할 점수 분석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과 전체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읽기를 비롯하여 쓰기 평가에서도 디지털 도구(태블릿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간의 디지털 문해력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아울러 디지털 문항의 경우, PISA의 시나리오 기반 평가, PIAAC의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락 기반 평가 등 세계적인 추세를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항 형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와 함께 문항 제시 방식이나 문항의 내용 타당도나 기타 적합성 등의 문제를 상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배경 변인에 대한 심층적 조사나 연구

1주기에서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세대, 지역, 직업, 성별, 학력’ 변인만을 물었다면, 2주기에서는 그 외에 ‘전공, 독서량, 인터넷 이용량, 국어 관련 학습 활동’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어능력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3주기인 이번 조사에서는 영역별 관련 변인을 설정하여, 읽기의 경우 9개의 배경 설문을 추가하였다. 응시자가 시험을 다 마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임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명료한 지시문의 질문과 정도성(Likert) 선택지를 마련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표 IV-5> 배경 변인 설문 문항의 내용

읽기		2013	2018	2023
배경 설문 변인	■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세대 ■ 지역 ■ 직업 ■ 성별 ■ 학력	■ 세대 ■ 지역 ■ 직업 ■ 성별 ■ 학력	■ 세대 ■ 지역 ■ 직업 ■ 성별 ■ 학력
	■ 영역 공통 변인		■ 전공 ■ 한 달 독서량 ■ 인터넷 이용량	■ 전공 ■ 한 달 독서량 ■ 인터넷 이용량

			■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 영역, 요구)	■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 영역, 요구)
	■ 영역 특수 변인			■ 읽기 빈도 ■ 읽기 어려움 원인 ■ 읽기 가치관 ■ 읽기 효능감 ■ 읽기 능력(자기 보고) ■ 읽기 분량 ■ 디지털 기기 시간 ■ 매체 유형 ■ 사회적 독서 참여 경험

국제적 평가들, 예를 들면, PIAAC과 PISA를 비롯하여 국내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배경 설문(background questionnaire)이 필수 과정이며, 설문의 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설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환경 맥락 외에 태도나 가치관 등 개인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적인 영역들도 다양하게 조사되게 있어서 본 검사보다 배경 변인 조사가 더 중요한 정보를 보여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PIAAC 2015 결과를 보면, 역량의 수준별로 ‘교육 수준,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이민자 배경’ 등의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이론화했다. 또한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5점 만점에 ‘쓰기(2.9), 문제해결력(2.8)’이며, ‘읽기(2.71)’는 중간 수준, 활용도가 가장 낮은 역량은 ‘수리력(2.51), ICT 기능(2.41)’ 등을 분석하여 제안했으며, 나아가 설문 조사를 통해 역량 수준이 고용률, 임금 수준 등의 노동 시장성뿐만 아니라, 웰빙, 건강, 정치 참여, 타인에 대한 신뢰, 자발적 사회 활동 참여 등 사회적 성과와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향후 실태 조사에서는 배경 변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설명력 있게 구성하여 보다 유의미한 기술과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역시 심층 연구를 통해, 직장 혹은 직군별 읽기 능력의 수준, 읽기 능력과 직종 간의 상관관계,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읽기 빈도 등과 읽기 능력 간의 상관성, 사회적 독서 참여 경험과 읽기 태도 간의 관계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배경 변인들의 결과들은 응시자인 성인들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식 자원(literacy resources)과의 상관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변화된 문식 환경(literacy environment)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과 접근 방식 등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경 변인을 통해 잠재적 읽기 능력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등을 제안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배경 변인들에 대한 연령별, 수준별, 문항별 상관성 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층 연구에서는 집단 특성을 대표하는 응답자를 자원 모집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국어 활동과 관련된 요구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⑤ 국제 자국어 능력 조사와의 비교

국제 자국어 능력 조사와의 비교는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⁴¹⁾가 설계부터 시행까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 자국어 능력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정량적 측면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교육 지표(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를 개발 및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의 정책 검토와 더불어, 각국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⁴²⁾. 이러한 국제적 평가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교육이나 문화 정책이 자국의 경제 발전 논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OECD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 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와 의제(agenda)들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교육과 문화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특히 국제적 평가 도구들은 국가 간 평가와 같은 세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인적 자원들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평가 틀과 도구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만한 높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지표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매우 편리하다.

특히 PIAAC의 경우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규모 표집 조사, 주기적 시행,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평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유사하다. 따라서 단순히 분석 결과의 비교 외에도 평가 도구 설계, 시행, 분석 방법 등의 측면에서 다른 국제 자국어 능력 조사와의 비교에 대한 심층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주기 평가에 참여했던 24개국에 추가로 수집된 국가들(9개국)까지 포함한 제2차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16~65세 한국인의 언어능력은 273점으로 OECD 평균(266점)보다 높았다. 또한, 성인문해능력조사와 마찬가지로 PIAAC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문해력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됐다. 실제 16~24세의 언어능력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핀란드·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25~34세 그룹도 5위에 올랐다. 반면,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순위가 낮아져 55~65세는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를 보면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보다는 고령층의 문해력 저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1) OECD 하위 부서 중 교육역량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에서 담당한다.

42) 한국교육개발원(2023). OECD 교육지표 2023(한국어판) :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3_e13bef63-en. 현재 PIAAC의 2주기 평가 결과 보고서가 12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표 IV-6> 참가국별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결과

	Literacy	Numeracy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Mean score	Mean score	% at Level 2 or 3
<i>OECD countries and economies</i>			
Australia	280	268	38
Austria	269	275	32
Canada	273	265	37
Chile	220	206	15
Czech Republic	274	276	33
Denmark	271	278	39
England (UK)	273	262	35
Estonia	276	273	28
Finland	288	282	42
Flanders (Belgium)	275	280	35
France	262	254	m
Germany	270	272	36
Greece	254	252	14
Ireland	267	256	25
Israel	255	251	27
Italy	250	247	m
Japan	296	284	46
Korea	273	263	30
Netherlands	284	286	42
New Zealand	281	271	44
Northern Ireland (UK)	269	259	29
Norway	278	278	41
Poland	267	260	19
Slovak Republic	274	276	26
Slovenia	256	258	25
Spain	252	246	m
Sweden	279	279	44
Turkey	227	219	8
United States	270	253	31
OECD average	268	263	31
<i>Partners</i>			
Cyprus ¹	269	265	m
Jakarta (Indonesia)	200	210	m
Lithuania	267	267	18
Russian Federation ²	275	270	26
Singapore	258	257	37

Notes: Cyprus, ¹ France, Italy, Jakarta (Indonesia) and Spain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assessment.

이처럼 국제 수준 및 동향과 비교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하지만, 단, PIAAC의 경우는 만 16세~65세까지로 만 20세~6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조사 연령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또 PIAAC의 경우 도달 정도에 따라 ‘1수준 이하(최저)-1수준-2수준-3수준-4수준-5수준(최상)’의 6수준으로 분할하지만, 국내 조사의 경우는 4수준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의 비교이기 때문에 실제 스펙트럼이 넓어 측정 단위가 크고, 그로 인해 다루는 비교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예를 들어 국가 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등), 학제나 직업군 등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의 증거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10년 주기의 평가다 보니 평가 주기가 길고, 평가 결과를 OECD로부터 받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자료의 신뢰성과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도 PIAAC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읽기 능력 같은 경우, PIAAC의 문해력 평가와 평가 틀이 거의 일치하며, 문해력의 추이를 따라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와 국제 자국어 능력 조사 결과의 비교와 종합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의 국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다양한 연령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변인별 격차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탐색

심층 연구를 통해 본 조사에서 상정한 변인들에 대한 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인 분석은 단순히 추정치 아닌 실태 조사 및 다른 연구 결과와의 비교 과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접근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변인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교육적 적용 등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자료를 학계와 공유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 관련 다양한 학회와의 워크숍을 통해 조사의 방향 및 결과 분석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통계 및 교육 정책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심층적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 대상 국어교육이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현실적인 원인과 대처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2) 문법 능력과 규범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분석

2018년 문법 영역 본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2024년 조사에서는 문법 영역이 문법·규범 영역으로 개편되는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조사까지는 규범 영역이 문법 영역의 하위 범주로 위치해 있었으나 이번 조사 때부터 규범을 문법과 대등한 범주로 위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문항 수에서도 변화가 있어, 규범 관련 문항이 증가하면서 전체 문항 수가 기존 10문항에서 13문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2023년 예비 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2023년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번 본조사의 결과는 2023년에 의도한 문법·규범 영역의 개편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추후 이에 대한 후속 분석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기술했다시피 동등화 결과 이번 본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루어진 문법 영역의 조사와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규범 영역의 경우, 문법 영역과 달리 표준어에 대한 앎의 유무가 문항을 맞히는 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의 G-2 문항을 예로 들면, 맥락상 ‘반드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맞히는 데에는 ‘반드시’라는 단어의 의미 및 ‘반드시’가 들어가는 문장 의미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규범 영역의 G-8 문항을 살펴보면,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괴리가 있는 단어, 동음이철어 등이 사용되어 표준어의 형태를 알아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개발된 규범 영역의 경우 규범 영역의 여러 하위 영역, 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을 고르게 묻고 있지만, 올바른 표기형, 발음형을 질문하는 현재의 문항 구조상 결국 대다수의 문항이 특정 어휘에 대해 표준어 어형의 앎의 유무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문법 영역의 하위 영역 중 어휘 영역의 문항과 규범 영역의 문항의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어휘의 관용 표현의 경우, 풀이 과정에서 문항 출제에 사용된 특정 관용 표현에 대한 앎의 유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문항의 성격은 표준어의 어형을 알고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핵이 되는 규범 영역의 문항의 성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범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어휘 능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규범 능력을 협소하게 측정한 것은 아닌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타당도 분석이 후속되어 측정 대상에 대한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문법 영역과 규범 영역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 이번 본조사에서 측정된 문법 능력과 규범 능력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문법 영역과 구별되는 규범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규범 영역의 일부 문항의 경우 어휘 영역과 구별되는 규범 영역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G-12 문항의 경우, 규범 표기형의 발음을 묻는 문제로서,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이므로 조사가 결합한 체언 말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 것이 표준 발음이라는 지식을 적용하여 해당 문항을 풀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항의 정답률은 51.1%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 조사의 응시자들이 자신의 언어생활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언어적 감각 내지는 직관을 활용할 뿐, 규범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규범 능력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표준어의 표기형 및 발음형에 대한 앎의 유무가 아니라 규범 자체에 대한 앎, 또는 제시된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되어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새로운 성취 수준 및 분할 점수 마련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각 수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해 왔다. 2013년 조사에서는 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로 설정하고, 앵고프(Angoff) 방식으로 분할 점수를 도출하여 성취 수준 판정에 사용하였다. 2018년부터는 수준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으로 성취 수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할 점수 판정은 2013년의 결과를 따랐다. 2018년에 설정한 1~4 수준의 성취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7> 등급별 국어능력의 일반적 수준(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212)

등급	국어능력의 수준
4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대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
3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상당 부분(50% 이상 80% 미만) 획득한 수준
2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20% 이상 50% 미만) 획득한 수준
1수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대되는 국어능력을 미흡하게(20% 미만) 획득한 수준

2023년에 이루어진 듣기, 말하기 영역 조사는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동등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2013년-2018년에 대해서도 문항 반응 이론 동등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2018년의 수준 분할 점수를 새로이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2018년 조사와 2023년 조사 모두가 2013년 조사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진 앵고프(Angoff) 분할 점수 판정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⁴³⁾ 이러한 방식은 2024년에 이루어진 읽기 영역, 문법·규범 영역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2025년에는 쓰기 영역 본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한 회기 분량의 전체 영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3~2025년에 사용한 영역별 문항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듣기·말하기, 읽기, 문법·규범, 쓰기 영역에 대한 새로운 성취 수준 및 분할 점수 도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듣기·말하기 영역은 2023년에 신설된 영역이라 분할 점수 도출을 새로이 해야 하고, 문법·규범 영역도 기존의 문법 영역에서 ‘규범’이 확대된 것으로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다른 영역 역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문항을 영역 내에 포함하면서 검사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 조사에서 이루어진 분할 점수 판정을 활용한 것과는 별개로, 2023~202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앵고프 방식을 사용하여 새롭게 분할 점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 산출한 분할 점수는 2023~2025년 조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성취 수준을 나누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고, 2025년 이후 이루어질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와의 연계 근

43)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3),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025년 이후 이루어질 조사의 경우 2013년과 시간 차도 크기 때문에 2013년의 분할 점수를 계속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2025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를 도출해 두어야 2025년 이후 국어능력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타당한 연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 읽기 교육 정책에 관한 제언

① 읽기 교육에 대한 정책적 보완

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읽기 영역의 수준 등급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8> 읽기 능력 1~2수준의 비율

수준	2013년(1주기)	2018년(2주기)	2024년(3주기)
	비율(%)	비율(%)	비율(%)
4수준	22.7%	21.9%	22.7%
3수준	38.1%	42.6%	40.0%
2수준	30.2%	29.5%	27.1%
1수준	9.0%	6.0%	10.3%
1+2수준	39.2%	35.5%	37.4%
계	100%	100%	100%

이를 보면 읽기 능력 1수준과 2수준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대처가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특히 1수준의 비율은 2주기에서 줄었다가 3주기에서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읽기 능력이 ‘보통’ 수준 이하인 ‘기초’와 기초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초 미달’ 수준의 비율을 합하면 37.4%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앞서 살펴본 PIAAC과의 국제 비교를 참조할 때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중상위권(약 15위)에 속하지만, 실제 이번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볼 때에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성인 5명 중 2명이 능숙하게 잘 읽지 못한다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읽기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2수준 이하의 연령별 비율을 볼 때, 2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의 교육을 재점검하고 학습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정책과 국어교육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를 제기한다.

또한 2018년 2주기 조사부터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60대 이상(60세~69세) 연령대의 국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한 국민의 읽기 능력이 다소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읽기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책은 전 연령대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에 속한 국민들이 읽기를 중심으로 한 문해력 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② 사회 취약 집단에 대한 문해력 교육 지원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읽기 능력에 있어 2수준 이하, 즉 ‘기초~기초 미달’ 수준의 집단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적·교육적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구통계학적 배경이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상정한 변인별로 우선적으로 정책적·교육적 대처가 요구되는 2수준 이하 집단의 비율을 제시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대별, 지역 규모별, 직업군별, 학력군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 직업군별로는 육체노동과 기타, 학력군별로는 고졸 미만에서 2수준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교육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60대 집단과 고졸 미만 집단의 경우, 2수준 이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영역 공통 배경 변인(전공, 독서량, 인터넷 이용량, 국어 관련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영역 특수 배경 변인(읽기 빈도, 읽기 어려움, 읽기 가치관, 읽기 효능감, 읽기 능력, 읽기 분량, 디지털 기기 시간, 매체 유형, 사회적 독서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2수준 이하의 비율을 심층 분석하여 2수준 이하의 문식 활동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 문식 활동의 경향성이 읽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으로, ‘읽기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51.2%)’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높은 응답은 ‘독서에 흥미가 없어서(38.6%)’였다. 이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학습자가 흥미 있어 하는 책을 읽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즉 자기 선택적 독서(self-selected reading environment)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의 사교육에 몰두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여, 초등 입학 때부터라도 체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흥미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읽기 교육 정책을 통해, 주도적인 평생 학습자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게임이나 온라인 시청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 누구나 독서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이끄는 것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읽기에 흥미가 없다(38.6%)’와 비슷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차지한 ‘직장, 학업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37.2%)’를 통해 실제 읽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시간 부족으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20대~50대까지의 연령대별, 다양한 직업군별로 읽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연령대별 직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예컨대 직장 독서 또는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업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 수준에 따른 배경 변인들의 요인 분석을 통해 변인과 읽기능력 간의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어능력이 저조한 집단을 대상으로 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일반 국민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민의 국어능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국어능력 함양에 있다. 따라서 국어능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교육 정책의 수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영역별로 교육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학력자의 60대 인구 유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계층적 특성이나 사회적 요구는 이전과 달라졌다. 따

라서 단순히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를 통해 읽기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인쇄 매체 기반의 읽기 자료와 디지털 매체 자료를 구분하여 매체 간 읽기 능력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측하기로는 60대 노령층의 경우 인쇄 매체 기반 읽기 능력에서는 예상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터넷 또는 디지털 기반 읽기 상황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읽기 능력을 장르별로 분석하여, 60대 이상 노령층에는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20대~30대 직장인에게는 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사회 정서 문해력(social & emotional literacy) 프로그램이, 40~50대 직장인에게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비하고 전문 분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비판적 문해력(critical literacy) 프로그램 등 학습자 목적 지향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단순히 ‘국어’와 관련된 학문적 탐구나 ‘국어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이론의 보급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 확장을 통해, 문해력 신장을 위한 실재적이고 실천적이며 효과성 높은 다양한 문해력 프로그램(연수, 포럼, 워크숍 등)을 개발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연구 기관에서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격 변화를 통해 결국에는 국어 문화가 진작되며, 일반 국민의 국어능력도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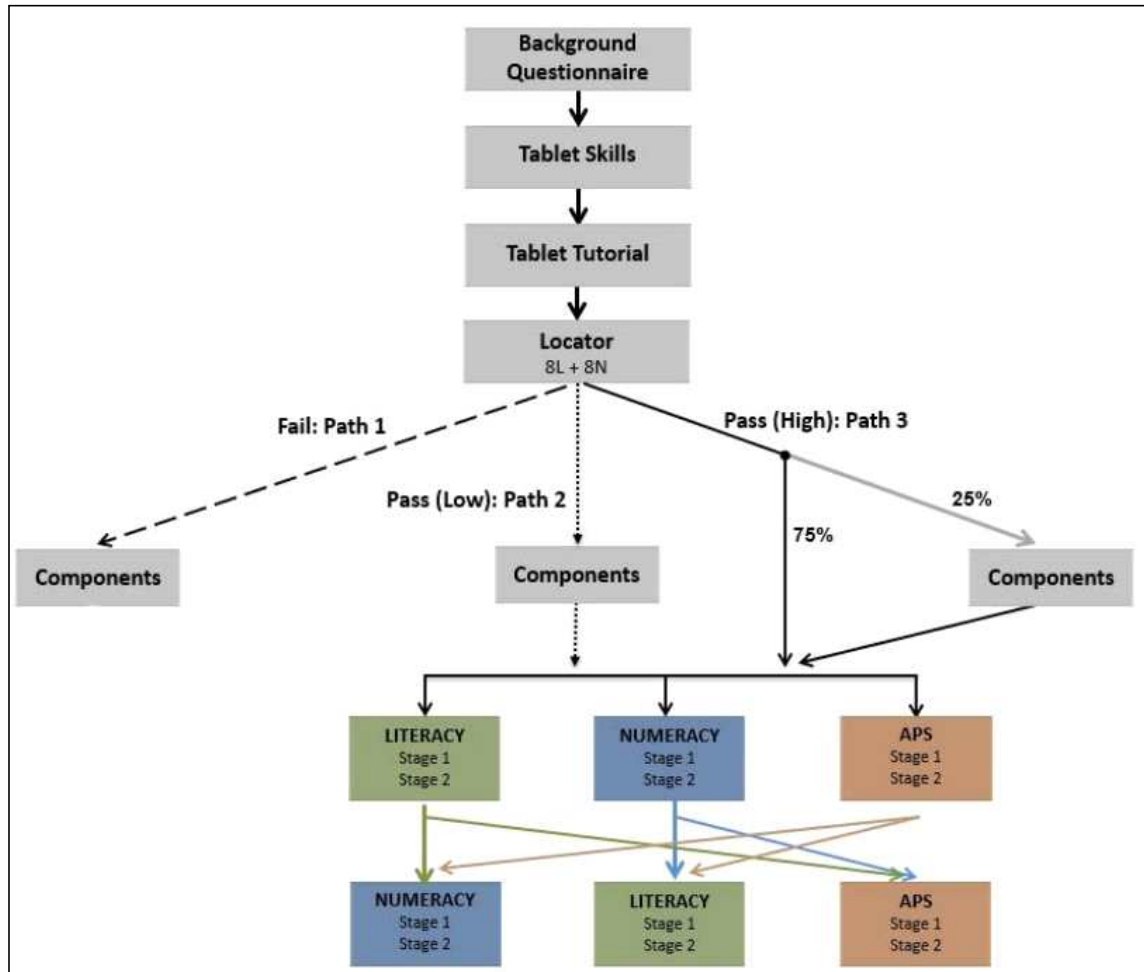
④ 읽기 영역 조사 방식의 검토 및 개발 방안 연구

이번 3주기 읽기 평가는 문항 개발 단계에서 총 56문항의 읽기 문항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1차 선별 작업을 통해 최종 문항 수의 1.2배수인 34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예비 조사에 시행하였다. 이후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변별도와 곤란도를 중심으로 문항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문항 28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3단계의 문항 개발 및 선정 과정에서 읽기 연구 팀은 읽기 문항이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양만큼 제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2주기를 실시할 때에도 공유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3주기 평가를 계획할 때는 개별 응시자가 읽기 영역에 개발된 모든 문항을 다 풀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읽기 영역 검사 문항을 최종 문항 28개를 모두 넣을 수 없었다. ‘문법·규범’ 영역의 13개 문항과 함께 시험을 치러야 하고, 배경 설문 응답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이상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고부담 시험이라고 하는 대입수학능력시험과 시간이나 문항 수 면에서 거의 비등할 정도인데, 성인 응시자인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시험 조건들이 국어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시험 문항 수가 많을수록 인지적 부담이 커지고, 면접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공간에 있어야 할 응시자의 심리적 부담도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다. 이로 인해 1주기 조사부터 실시된 ‘가’형과 ‘나’형으로 동등화된 분할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응시자가 치러야 할 문항 수를 적정 수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PIAAC의 2주기(2022~2023) 평가 틀(The Assessment Frameworks for Cycle 2 of the PIAAC)이 보고서로 제시되었는데, 2주기부터는 놀랍게도 맞춤형 평가⁴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PIAAC 2주기의 주요 연구 설계를 보여 준다.

44) PIAAC의 경우 문해력(읽기 능력) 외에, 수리력, 문제해결력을 모두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개선하고자 맞춤형 문항 설계가 개발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또한 고부담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르지만, 지난 1주기에서는 응시자에게 25~50 US달러 정도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림 IV-1] 2주기 PIAAC의 평가 설계(Assessment Design: PIAAC Cycle 2)

그림에서 보듯이, 응답자는 다음 순서로 평가를 수행한다. 면접관이 CAPI 방식(mode)으로 진행하며 배경 설문지를 관리한다. 배경 설문지는 모든 응답자가 답변하는데, 이 중에는 전자 장치(electronic device)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도를 다루는 일련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배경 설문은 약 25~45분이 소요되는데, 시간 제한이 없으며 평균 30분 정도 예상한다. 배경 설문이 끝나면 ‘직접 평가’에 들어가는 데, 면접관이 제공한 태블릿 장치에서 응답자가 완료한다. 평가 완료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60분이나 PIAAC은 시간 제한이 있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완료 시간은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평가의 절차는 학습자 맞춤형 설계(adaptive design)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한 다음, 2단계에서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의 3영역 중 2개 영역을 선택하게 된다. 각 영역의 문항은 80개씩 개발되어 있고, 평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으로 자동 배정된다. 먼저 1단계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의 지표(locator) 문항 각각 8개씩을 풀었을 때, 정답률에 따라 2단계에서 ‘미달 경로(Fail Path), 낮은 경로(Low Path), 높은 경로(High Path)’ 중의 하나로 자동 연결된다. 이때 평가의 각 단계에서 높은 추정 능력을 가진 응답자는 낮은 추정 능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평균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렛(testlet, 소검사 단위, 이하 ‘테스트렛’으로 부름)에 할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응답자가 모든 테스트렛을 할당받지 않더라도 예상 숙련도에 가까운 테스트렛을 할당받음으로써 응시자의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배경설문지, 구인 측정값, 응시자의 지표 결과 등의 모든 정보는 응시자에게 가장 적합한 테스트렛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며, 자동으로 채점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평가 애플리케이션은 응답자에게 두 번째 테스트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된다.

이상으로 PIAAC 2주기에 적용된 학습 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평가 설계 원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험 앱 프로그램(test application)을 사용하여, 지표(locator) 진단 단계에서 응시자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공함으로써 응시자가 모든 문항을 풀지 않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평가의 효율성과 타당도를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읽기 영역 시험에도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맞춤형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도구 개발 과정이 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다음 주기의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⑤ 조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플랫폼 개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경우, 홈페이지(<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piaac.html>)를 통해 해당 조사를 홍보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보다 체계적인 플랫폼으로 재구성 및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하고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정책 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어 문화를 향유하고 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문법·규범 교육 정책에 관한 제언

국어교육의 문법 교육 영역의 교육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통교육과정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 개정 및 2022 개정에서 문법 지식을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줄곧 강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의 문법 영역, 규범 영역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기준>

[10공국1-04-03]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상기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의 문법 영역과 관련하여, 문법 요소에 대한 문법적 앎이 언어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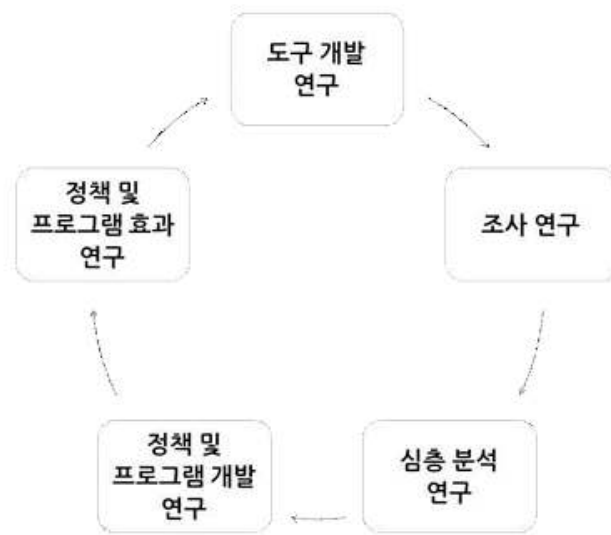
과정에 걸쳐 연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에서의 규범 영역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교육 내용으로 줄곧 수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국어 문법교육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의무 교육을 받은 학습자상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의 경우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규범에 맞는 표기나 발음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의 총칙을 명시적으로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학습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향후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가 거듭될수록 국민의 국어능력으로 측정되어야 할 문법 능력 및 규범 능력이 다소 조정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인 대상 문법 및 규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등학교급의 문법교육과 연계하여 보충·심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어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휘의 경우, 어휘에 대한 앎의 유무가 문항의 정답률을 좌우한다. 같은 형식으로 출제된 문항이더라도 어떠한 어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국어능력을 측정함으로써 향후 국어 정책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성인이 알고 있어야 할 어휘의 양과 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초·중등학교 교육에도 환류될 수 있으며, 의무 교육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하는 학습 어휘의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조사-심층 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순환 체계 구축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는 5년을 주기로 대규모 표집을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진단하고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 국민의 국어능력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 연구’ - ‘조사 연구’ - ‘심층 분석 연구’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의 다섯 단계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⁴⁵⁾

45)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그림 IV-2] 국민의 국어능력 연구 단계 모형
예시(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473)

2022년 이루어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개선 기초 연구에서도 2018년의 제언을 이어받아, 연차별로 각 영역의 국어능력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점을 살려 영역별 조사 후 마지막 해에 ‘조사 결과 종합 및 심층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⁴⁶⁾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심층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6)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2),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개선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구자옥, 김성숙, 이해원, 조성민, 박혜영(2016),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예비검사 시행 기반 구축(RRE2016-2-1),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2),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개선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구본관)(2023), 2023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김종철)(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성규)(2006), 국어능력 조사 방법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장소원)(2012),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17),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18),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22), 인공지능 활용 국어능력 진단체계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민병곤)(2023),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국립국어원.
- 김성훈(2022), 문항 반응 이론 검사 동등화, 공동체.
- 김인숙, 서수현, 김종운, 옥현진(2020), 증거 중심 설계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 한국교육방법학회 32(3), 437-459.
- 김종운, 서수현, 김지연, 조병영, 김인숙, 옥현진(2018), 디지털 리터러시 인지적 영역 평가 요소 개발, 청람어문교육 66, 133-166.
- 김종운, 서수현, 김인숙, 조병영, 김지연, 유상희, 김희동, 오은하, 옥현진(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람어문교육 62, 7-39.
- 김혜정(2024), 읽기관의 변화와 읽기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탐색, 독서연구 71, 9-42.
- 박주현(2018), 디지털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및 정보 서비스의 방향 탐색-PIAAC와 P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61-89.
- 박찬흥(2015), 쓰기 간접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중등 성취도 평가 쓰기 선다형 문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6, 37-66.
- 박혜영(2017), PISA 읽기 평가 틀의 변화 특징 탐색, 국어교육 157, 259-283.
- 박혜영, 천해주, 김영서, 김주환(2020), 미국의 초·중등 작문 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탐색-국가 및 수준 표준화 작문 평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44, 73-107.
- 성태제(2016), 문항 반응 이론의 이해와 적용 제2판, 교육과학사.
- 성태제(2019), 현대교육평가 5판, 학지사.

- 송미영, 김수진, 김희경, 남명호(2009).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서답형 평가의 채점 일관성, 교육 평가연구 22(3), 827-846.
- 서수현, 김지연, 옥현진(2019). 중학생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표현 영역 성취기준 연구, 작문연구 41, 161-190.
- 이동후(2010).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언론정보연구, 47(1), 43-76.
- 이재기(2005). 국어 영역간 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국어국문학, 139, 115-148.
- 이재현(2012). 글쓰기 공간으로서의 SNS: 재매개, 환유, 에크프라시스: 재매개, 환유, 에크프라시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8(1), 323-351.
- 장성민, 민병곤(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작문 영역 평가의 타당성 검토-선다형 점수와 수행형 점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29, 163-209.
- 장지혜, 서보영, 김종철(2020). 2018년 국가수준 성인의 쓰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5(1), 155-204.
- 박혜영(2017). PISA 읽기 평가들의 변화 특징 탐색, 국어교육 157, 259-283.
- 박혜영, 천해주, 김영서, 김주환(2020). 미국의 초·중등 작문 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탐색-국가 및 주 수준 표준화 작문 평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44, 73-107.
- 성태제(2016). 문항 반응 이론의 이해와 적용 제2판, 교육과학사.
- 성태제(2019). 현대교육평가 5판, 학지사.
- 송미영, 김수진, 김희경, 남명호(2009).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서답형 평가의 채점 일관성, 교육 평가연구 22(3), 827-846.
- 서수현, 김지연, 옥현진(2019). 중학생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표현 영역 성취기준 연구, 작문연구 41, 161-190.
- 장지혜, 서보영, 김종철(2020). 2018년 국가수준 성인의 쓰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5(1), 155-204.
- 진보래(2023). SNS 이용과 삶의 만족도: 읽기, 쓰기, 공유, 반응의 차별적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19호, 230-258.
- 한국교육개발원(2023). OECD 교육지표 2023(한국어판) :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Aryadoust, V., Ng, L. Y., & Sayama, H. (2021). A comprehensive review of Rasch measurement in language assessment: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research. Language Testing 38(1), 6-40.
- Blaug, M. (1996). Lite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School Review 74(4), 393-418.
- Bond, T. G., & Fox, C. M. (2007). Applying the Rasch Model: Fundamental Measurement in the Human Sciences (2nd ed.), Mahwah: Erlbaum.
- Carr, Nicholas G. (2010).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 W. W. Norton & Company.
- Cicchetti, D. V. (1994). Guidelines, criteria, and rules of thumb for evaluating normed and standardized assessment instruments in psychology. Psychological assessment, 6(4), 28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Abingdon, England:

Routledge.

- Driscoll, D. P., Avallone, A. P., Orr, C. S., Crovo M. (2011), "Writing Framework for the 2011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22),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Thousand Oaks: Sage.
- Huang, J. (2012), Using generalizability theory to examine the accuracy and validity of large-scale ESL writing assessment, *Assessing Writing* 17(3), 123-139.
- Li, L., Hu, J., Dai, Y., Zhou, P., & Zhang, W. (2023), Depth-Perception-Based Representation in Holistic Rating on ESL Essay Writing, *Reading & Writing Quarterly* 40(3), 211-235.
- Lumley, T. (2002), Assessment criteria in a large-scale writing test: What do they really mean to the raters?, *Language Testing* 19(3), 246-276.
- Macwan1, C., Chandni J.V., Jignesh V.(2024), Exploring the influence of reels and short videos on the reading and listening habits of generation Z: A comprehens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Practices (IJBMP)* 2(3), 309-333.
- Moon, T. R., & Hughes, K. R. (2002). Training and scoring issues involved in large-scale writing assessment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21(2), 15-19.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aris: OECD.
-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Paris: OECD.
- OECD (2021), *The Assessment Frameworks for Cycle 2 of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OECD Skills Studies, Paris: OECD.
- OECD (2023). *PISA 2025 Learning in the Digital World Assessment Framework - Second Draft*.
- Osborn Popp, S. E., Ryan, J. M., & Thompson, M. S. (2009), The critical role of anchor paper selection in writing assessment,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22(3), 255-271.
- Reder, S. (2010), *Adult Literacy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Report, in Washington, DC.
- Richard, L. S., William M., R. Lyman O., Kenneth G. G. (2012), 김영원, 류제복, 박진우, 홍기학 (역),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교우사.
- Skar, G. B. U. (2017), *The Norwegian National Sample-Based Writing Test 2016: Technical Report*, Nasjonalt senter for skriveoppl ring og skriveforskning.
- Weigle, S. C. (1998), Using FACETS to model rater training effects, *Language testing*, 15(2), 263-287.
- Wind, S., & Hua, C. (2022), *Rasch Measurement Theory Analysis in R*, Boca Raton: CRC Press.
- Zhao, C., & Huang, J. (2020), The impact of the scoring system of a large-scale standardized EFL writing assessment on its score variability and reliability: Implications for assessment policy makers,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67, 100911.

[검색 자료 사이트]

국제 성인 리터러시 조사(IALS) <https://nces.ed.gov/surveys/ials/measure.asp>

성인 리터러시 및 생활 능력 조사(ALL) <https://nces.ed.gov/surveys/all/>

미국 SAT <https://satsuite.collegeboard.org/sat/whats-on-the-test>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https://www.oecd.org/skills/piaac/piaacdesign/>

[스마트 건설 백과사전 Vol.05] 세상을 하나로 잇는 첨단 연결 기술, ICT. 현대건설 뉴스룸.
https://www.hdec.kr/kr/newsroom/news_view.aspx?NewsSeq=765&NewsType=BRAND&NewsListType=news_clist

ELINET(The European Literacy Policy Network) (<https://elinet.pro/>)

<Abstract>

The 2024 National Assess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the survey tools developed in 2023 to conduct a survey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the reading, grammar and norms domains. The results and analysis aim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ormulating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reading, grammar and norms abilities of the public. Additionally, tools for the upcoming 2025 surveys in writing domain have been developed, and a preliminary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propose implement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domain, focused on reading, grammar and norms domains in this particular study. The grammar and norms domain is a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grammar sec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normative language use skills in the linguistic practice. The survey instrument for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the foundational research and preliminary survey conducted in 2023, but was selected based on expert advice and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urvey, including the discrimination and difficulty of the questions, the response rate, and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y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expanded the survey background variables to examine the Korean language ability in more depth.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related to demographic information, common background variables and domain-specific variables were set, which were modified from the variables set in the 2018 and 2023 surveys. The common background variables include major, amount of reading, media usage, time spent on the internet, and learning activities and area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For the reading domain, reading frequency, reading experience and values were added, and for the grammar and norms domain, the frequency of searching for grammar norms and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ervices including dictionaries were added.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over a two-month period from July to September 2024, using a one-on-one door-to-door interview survey of 5,0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20-69 years living in 17 cities across the country. Two-stage stratified sampling and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were used to select participants, utilizing demographics to ensure representativeness of the survey popul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50 people were added to the collective survey. As such,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in the main

survey was 5,050, but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s is based on the responses of 5,000 respondents to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opulation, and the responses of 50 respondents from the collective survey are used for comparison with the door-to-door interview method.

The average score by domain was as follows: reading 197.93 (out of 300, standard deviation 69.36), grammar and norms 98.46 (out of 150, standard deviation 32.93). Distribution by proficiency was as follows: for reading, 22.7% (1,134) at Level 4, 40.0% (2,000) at Level 3, 27.1% (1,353) at Level 2, and 10.3% (513) at Level 1. For grammar and norms, 28.3% (1,414) were at level 4, 30.0% (1,500) were at level 3, 26.6% (1,330) were at level 2, and 15.1% (756) were at level 1.

By variable, in reading domain, the difference by gende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fference by age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higher age groups tending to have lower proficiency scores. The difference in proficiency scores by size of residential are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occupation, reading proficiency scores were highest for mental labor, followed by other, and then manual labor, and thes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ducation, proficiency scores were in the order of college or higher, high school diploma, and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and thes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monthly reading, those who answered “7 or more books,” which is the maximum amount, had the highest proficiency score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grammar and norms domain, gender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alysis by age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nd toward lower proficiency scores for older age groups. By the size of the residential area, the proficiency scor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small cities, large cities, and rural area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mall cities and large cities and betwee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but not between large cities and rural areas. By occupation, the proficiency scores were in the order of mental labor, other, and physical labor,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education, the proficiency scores were in the order of college or higher, high school diploma, and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and thes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monthly reading, those who answered “7 or more books,” which is the maximum amount, had the highest proficiency score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ain survey was designed to be able to compare results across years based on the

equating of the 2013 and 2018 survey tools. Therefore, test equating was used to compar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2018 and 2024. The results show that in reading, the proportion of students at Level 4 increased slightly from 21.9% to 22.7% in the 2024 survey compared to the 2018 survey, while Level 3 decreased slightly from 42.6% to 40.0% and Level 2 decreased from 29.5% to 27.1%. Level 1 saw an increase of 4 percentage points, from 6.0% to 10.3%. For grammar and norms, Level 4 increased by 21.4 percentage points, from 6.9% to 28.3%, while Level 3 decreased by 19.2 percentage points, from 49.2% to 30.0%. Level 2 decreased from 36% to 26.6%, and Level 1 increased from 8% to 15.1%.

In addition, this study developed a survey tool and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of the writing domain to be conducted in 2025. For the consistency of the assessment, we inherited the design of the previous 2013 and 2018 surveys, but focused on modifying and elaborating the assessment tool to increase the content validity of the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linguistic practices 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language proficiency. Accordingly, the survey tool's validity was enhanced by adding questions that reflect the changing literary environment, which is being reorganized around smartphones. The preliminary survey for the writing domain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24, with 330 adult men and women aged 20-69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300 were surveyed in one-on-one door-to-door interviews and 30 were surveyed in a collective survey. The preliminary survey, like the main survey, was based on five common variables: gender, age, region, occupation, and education, and the sample was drawn to ensure that each variable was represented in proportion to the actual population distribution.

Unlike the reading or grammar and norms domain, the writing domain collects test results in the form of written responses. Therefore, the rating design was refined, including detailed rating criteria and a spiraling design of scorers. We also enhanced rater training to minimize the personal impact of raters, such as pre-rating exercises and rating workshops, and improved rating reliabilit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eliminary survey tool were assessed by analyzing the difficulty (ease), discrimination, rater consistency, and inter-rater agreement of each item.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urvey were used to supplement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survey by utilizing the results of workshops for experts and researchers based on the preliminary survey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i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 plan was developed for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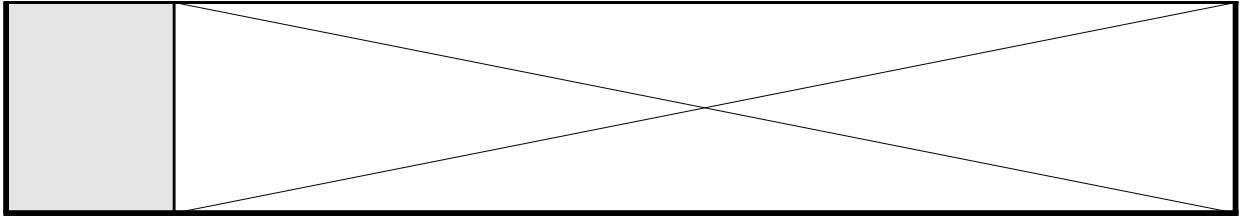
implementation of the main survey, taking into account the validity of the assessment and the fatigue of the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24 main and preliminary surveys, this study draws primary finding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survey in writing domain and for further in-depth analytical research in 2025. It also suggested a detailed analysis of background factors, policy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and ongoing management of assessment data through a database.

Key-word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national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ading ability, grammar and norms ability, writing ability, digital literacy.

<부록> [붙임 1] 본조사 문항 최종본: 읽기 영역, 문법·규범 영역
[읽기 영역]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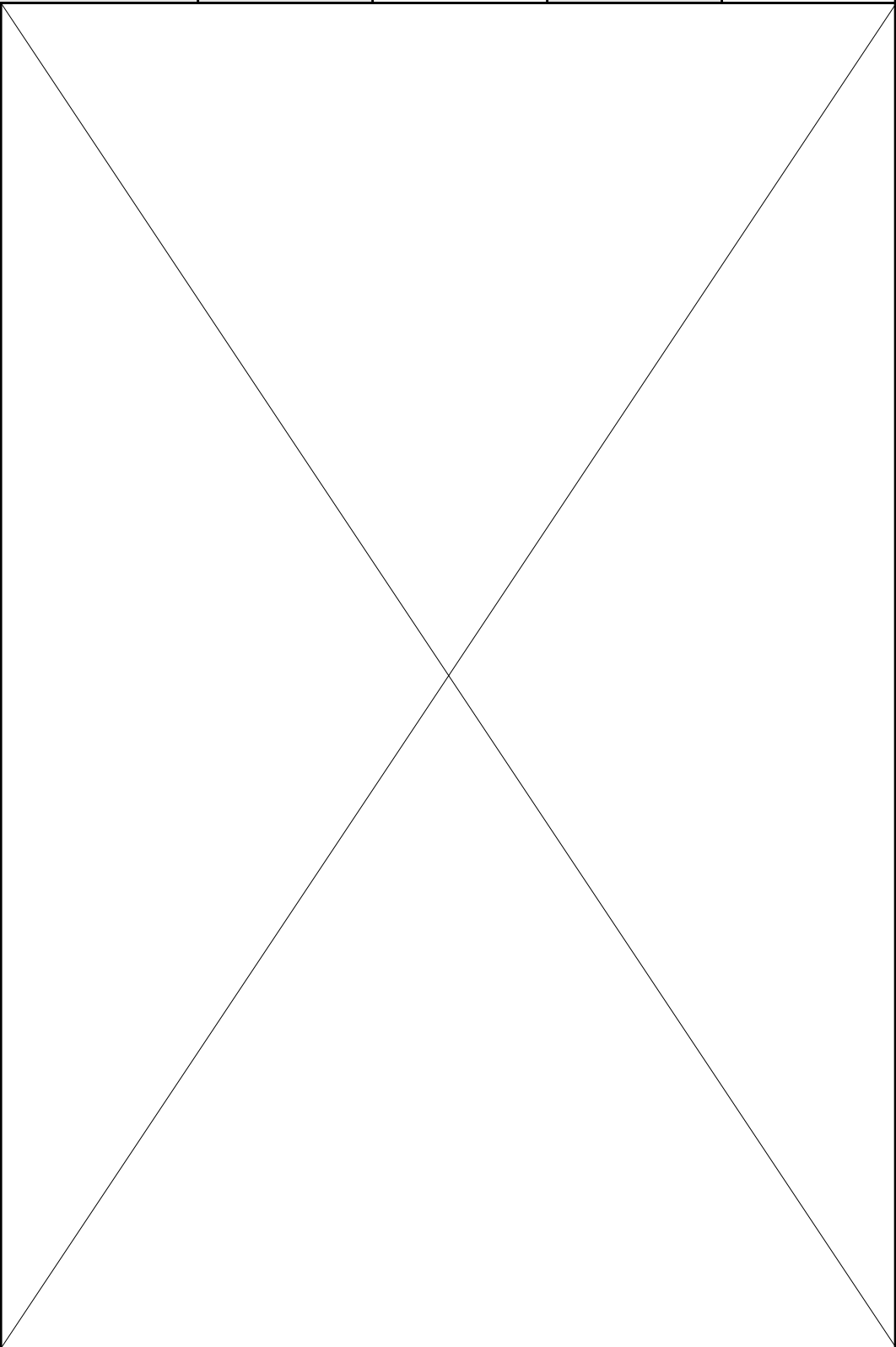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3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4(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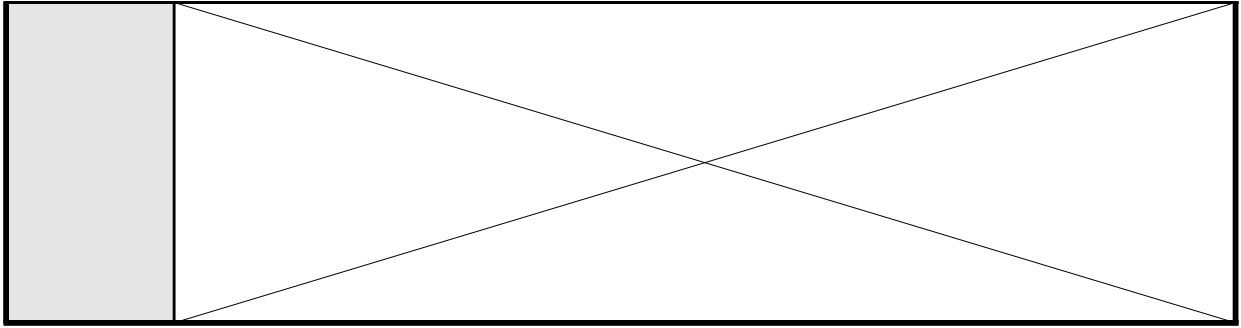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5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6(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7(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인물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8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9(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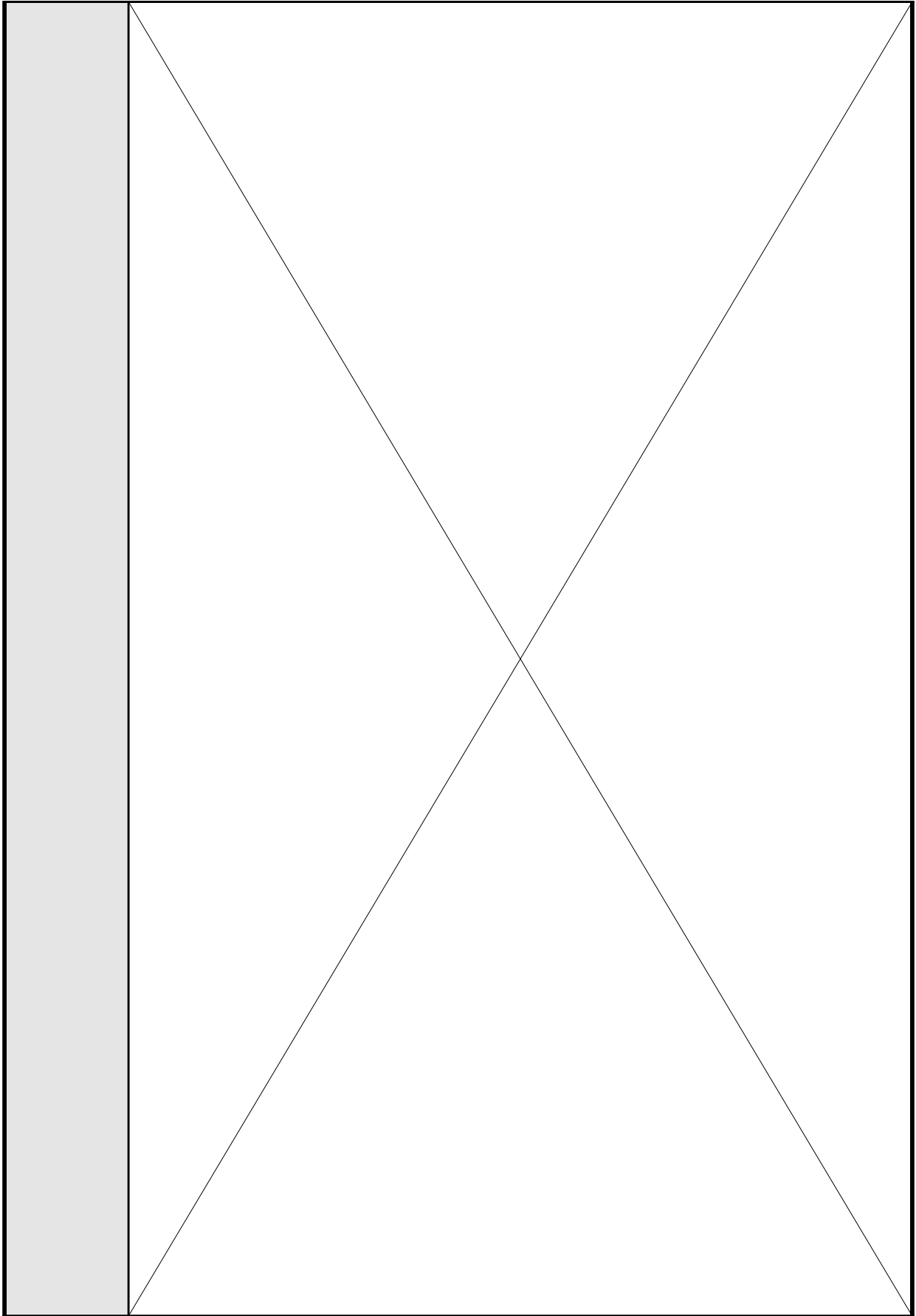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0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생략된 정보 재구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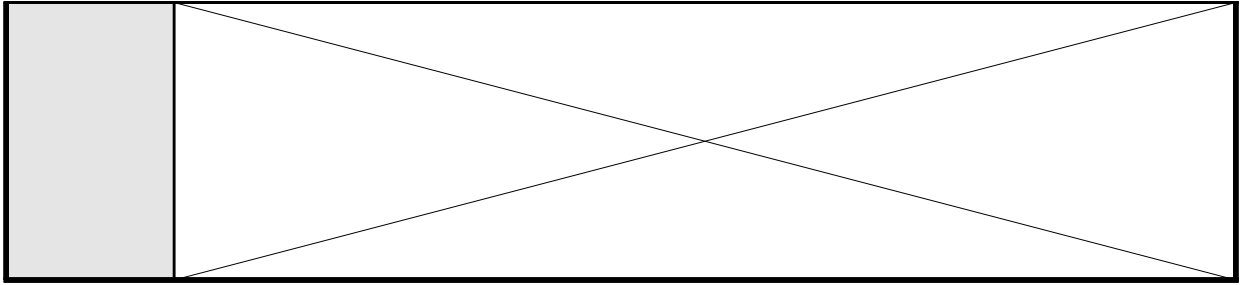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1(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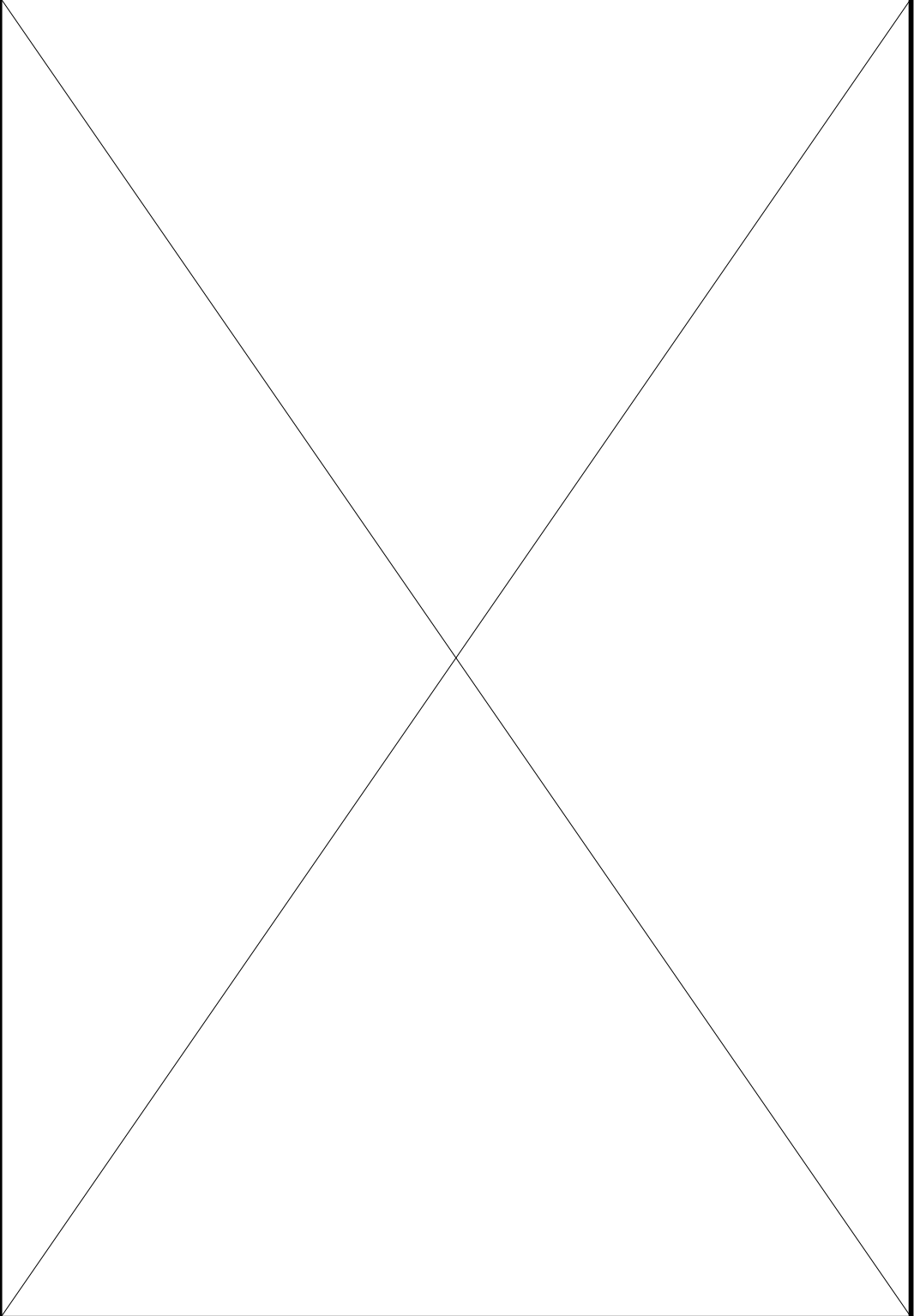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생략된 정보 재구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2(디지털)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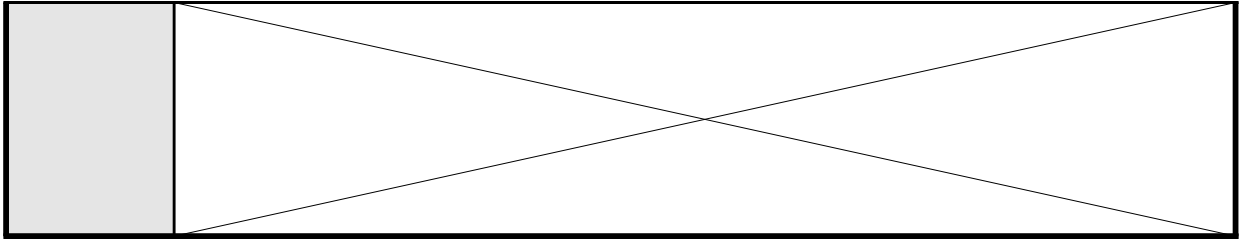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3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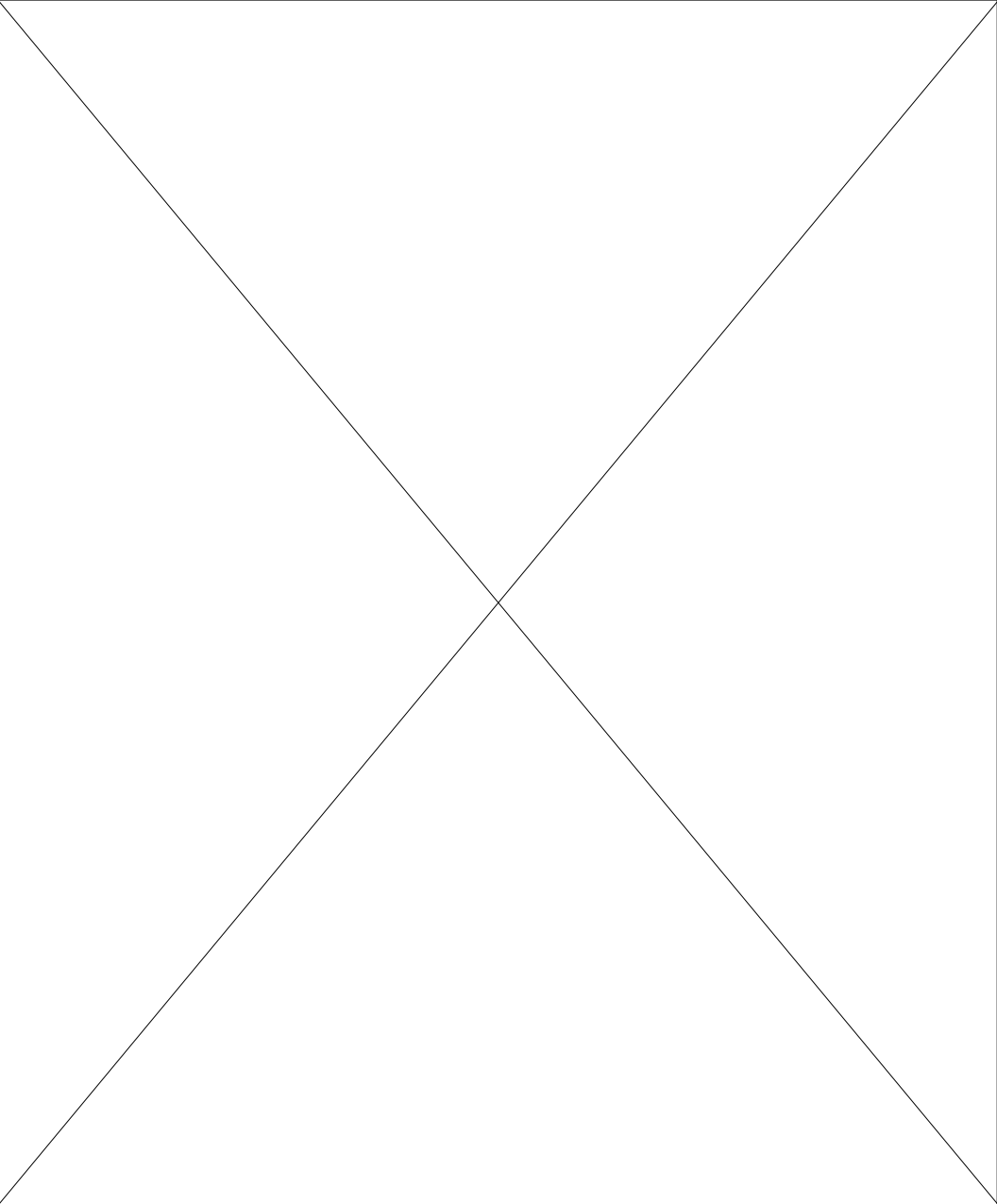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4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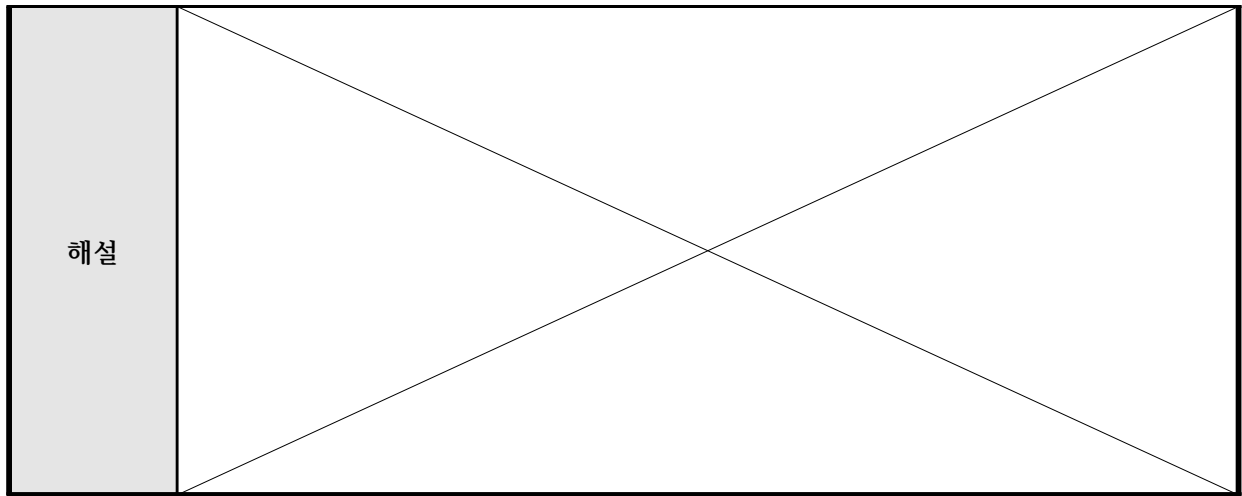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5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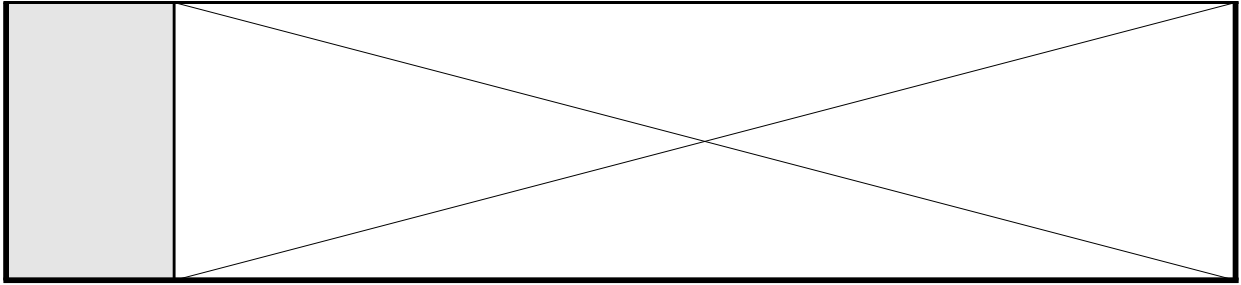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6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7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8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9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사회적 신념 혹은 가치 판단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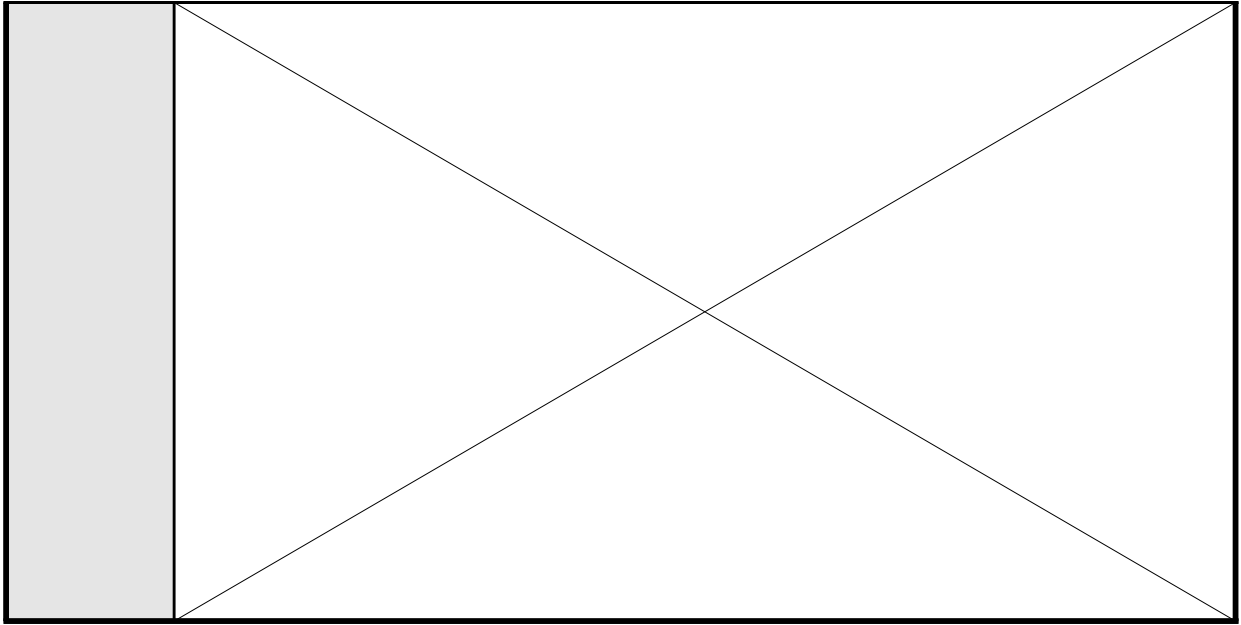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0	검사지	가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3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구조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4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화제, 핵심어 등 특정 정보 파악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5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정보 확인 -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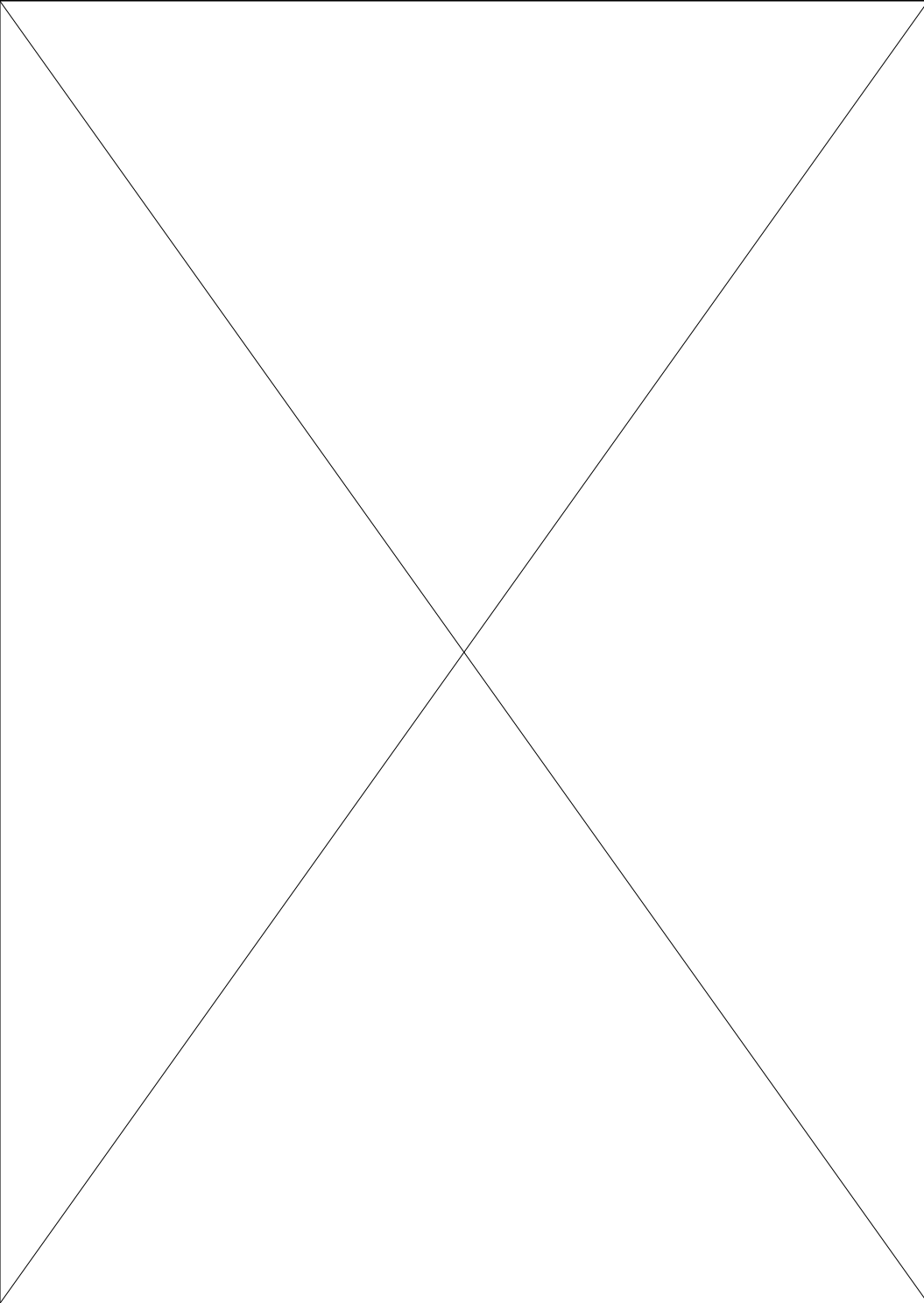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6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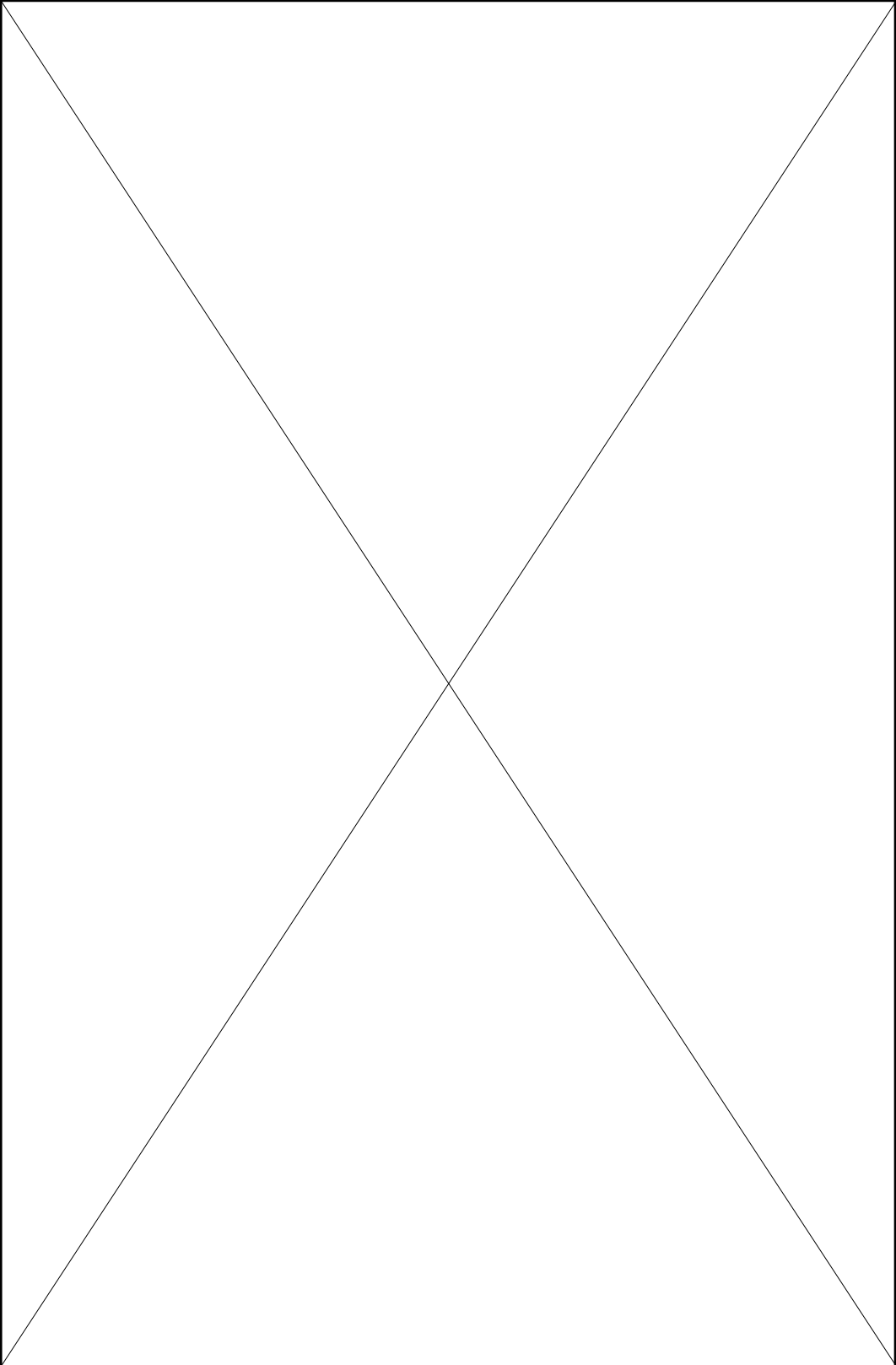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7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추론 - 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추론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8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19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반응 및 의미의 재구성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R-20	검사지	나형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읽기 - 재구성 - 상황에 맞는 정보의 재조직
정답	
해설	

[문법·규범 영역]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양태)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2(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문장 성분의 호응)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3(가교)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담화 - 의미와 용법(지시)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4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어휘 - 의미와 용법(한자어)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5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어휘 - 의미와 용법(관용 표현)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6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문장 - 의미와 용법(조사와 어미)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7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문법 - 담화 - 의미와 용법(담화 표지)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8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발음과 표기)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9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형태와 표기)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0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한글 맞춤법 - 맞춤법(형태와 표기)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1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표준어 규정 - 표준어(복수 표준어)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2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표준어 규정 - 표준 발음법(표준 발음)			
정답				
해설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본조사	G-13	검사지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규범 -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외래어 표기법(표기 세칙 적용)			
정답				
해설				

<변인별 설문 문항>

(1)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련 변인

● 해당되는 항목에 V나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변인	발문 및 내용			
1.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인천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2. 읍면동 코드		3. 지역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4.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5. 나이	●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연령대) =>응답자에게 노출되지 않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6.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직업 군인 ⑪ 주부 ⑫ 무직/퇴직/기타 ⑬ 학생			
7.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재학 ⑦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교 재학 ⑨ 대학교 졸업 ⑩ 대학원 재학 ⑪ 대학원 졸업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 공통 배경 변인

● 다음의 배경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7. 최종학력이 ⑧⑨⑩⑪인 경우에 질문) 귀하의 최종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어문 계열 ② 인문 계열(어문 계열 제외) ③ 상경 계열 ④ 사회 계열
 ⑤ 법정 계열 ⑥ 의학/약학 계열 ⑦ 이공 계열 ⑧ 자연 계열
 ⑨ 사범/교육 계열 ⑩ 예술/체능 계열 ⑪ 기타 ()

2. 귀하께서는 한 달 평균 몇 권의 책(종이책, 전자책)을 읽습니까?

- ① 전혀 읽지 않음 ② 1~2권 정도 ③ 3~4권 정도
④ 5~6권 정도 ⑤ 7권 이상

3.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매체를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매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2번)	어느 정도 사용한다. (하루에 1~4번)	매우 자주 사용한다. (하루에 5번 이상)
종이신문, 잡지	①	②	③	④	⑤
텔레비전, 라디오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포털(검색용)	①	②	③	④	⑤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①	②	③	④	⑤
게임, 웹툰, 웹소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모바일 포함)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직무 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무 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현재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참여했던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교양 글쓰기 강좌 수강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1) 귀하가 참여한 국어 관련 학습 활동 형식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문화센터 국어 관련 강좌 수강 ② 학교 교육과정
③ 온라인 학습 사이트 ④ 개인 교습
⑤ 학원 수강 ⑥ 문화 학교 국어 관련 강좌 수강
⑦ 기타() ⑧ 참여한 적 없음

(5-2) (앞 문항 ①~⑦응답자만) 귀하의 국어 관련 학습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규범 ⑥ 기타()

(5-3) 귀하의 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골라 주십시오.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규범

(3) 읽기 영역 배경 변인

1) 귀하께서는 글로 된 자료(책, 디지털 문서 등)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전혀 읽지 않음	1년에 2~3회	1달에 2~3회	1주일에 2~3회	거의 매일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 자신의 생각만큼 충분히 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직장, 학업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독서에 흥미가 없어서	핸드폰이나 게임 등을 더 좋아해서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글 읽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 읽기는 다른 일에 방해가 됨	글 읽기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글 읽기는 시간 보내기용으로 좋음	글 읽기는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됨	글 읽기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데 필수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읽기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글자는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사진이나 그림 위주의 글은 이해할 수 있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있음	글 내용을 대체로 이해함	어떤 글이든지 어려움 없이 이해함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 보통 한 번 독서하실 때 읽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 읽음	짧은 요약 글 (카드 뉴스 정도)	교과서 1쪽 (블로그 글 정도)	교과서 2~4쪽 정도	교과서 5쪽 이상 (대체로 긴 글)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의 디지털 기기(컴퓨터, 휴대폰 등)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연락 외엔 전혀 사용하지 않음	하루 1시간 정도	하루 3시간 전후	하루 5시간 전후	하루 5시간 이상 ~하루 종일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주로 보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 매체	텔레비전 (뉴스, 드라마)	글로 된 인터넷 자료 (기사, 블로그, 웹소설, 웹툰 등)	짧은 동영상 (틱톡, 숏츠 등 15초 내외)	긴 동영상 (유튜브, 드라마 등 30분 이상)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독서 문화(도서관 행사, 저자 강연, 독서클럽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음	한두 번 참여한 적이 있음	가끔 참여함 (몇 년에 1번)	시간 나면 자주 참여함 (1년에 1회 이상)	회원이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4) 문법·규범 영역 배경 변인

1) 귀하께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십니까?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검색하지 않음.)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찾아본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찾아본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우리말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이용한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이용한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참고 사항>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 대사전으로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말샘: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이다.

2-2) 귀하께서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가나다’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2번)	보통이다. (일주일에 약 1~3번)	자주 이용한다. (일주일에 약 4~6번)	매우 자주 이용한다. (하루에 1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참고 사항>

- 온라인가나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어 생활에서 생기는 궁금한 점 따위를 문의하면 답변해 준다.

[붙임 2] 예비 조사 문항: 쓰기 영역

① 1배수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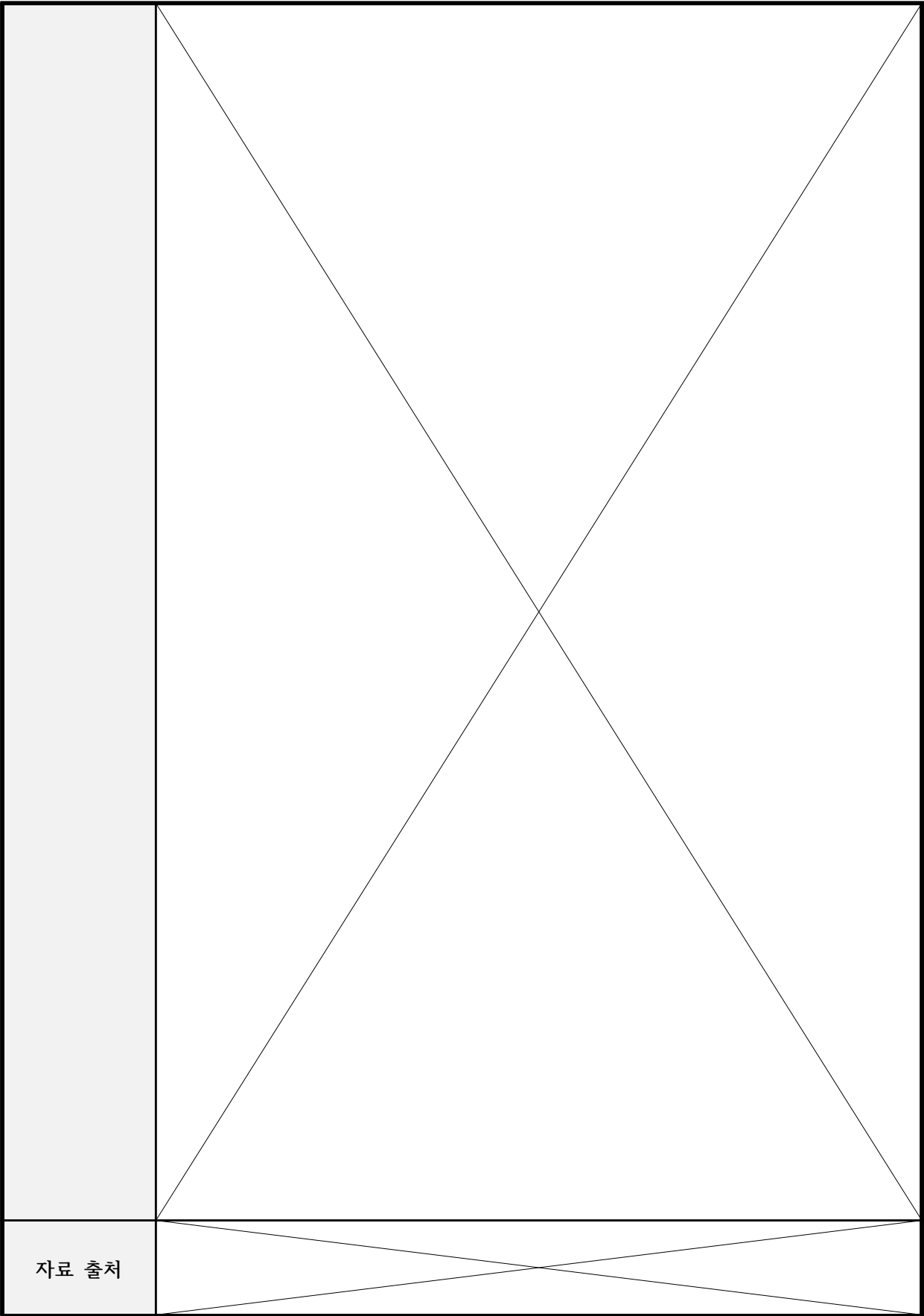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공통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설명적 글쓰기 - 묘사글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설명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하였다. 화제에 대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상술하면서 300자 내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40점 (50%)	- 설명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8	16	24	32	40
	조직: 24점 (30%)	- 설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5	10	14	19	24
	표현: 1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3	6	10	13	16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논증-가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 수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사례 깊으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였다. -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사례 깊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친교-가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친교적 글쓰기 - 사과문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쓰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친교적 글쓰기 능력(사과)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제와 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짧은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20점 (50%) 조직: 12점 (30%) 표현: 8점 (20%)	- 주제와 목적(잘못된 공지에 대한 사과)에 부합하고, 상황(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 '문제 상황(사과 내용) 설명과 사과 표현 - 책임의 인정이나 문제 발생 원인 제시- 문제 해결 의지 표현/문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의 제시'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2	5	7	10	12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고 효과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	2	3	5	6	8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디지털-가
평가 문항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온라인 게시판 글 쓰기 - 반품 요청하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자가 사회적 참여 행위로서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하였다.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소통 공간의 특성과 ‘반품 요청’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매체 활용: 10점 (20%)	-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복합양식적 특성(이미지 및 텍스트 항목)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내용: 20점 (40%)	- 주제와 목적(불량 상품 반품 요청)에 부합하고, 상황(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4	8	12	16	20
	조직: 10점 (20%)	- ‘문제 상황 설명 - 요구 근거 또는 문제로 인한 손실 - 문제 해결 요청(해결 방안)’의 구조가 잘 갖추어졌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2	4	6	8	10
	표현: 10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독자를 고려하여 정중하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였다.	2	4	6	8	10

② 예비 문항

2024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문항 정보		논증-나			
평가 문항								
자료 출처								
평가 요소 텍스트 정보	논증적 글쓰기 - 논설문 쓰기							
출제 의도	해당 문항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 수 있는지, 400자라는 다소 긴 분량을 통해 단락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사례 깊으면서도 개성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평가 항목	채점 요소(2018 채점 요소 일부 수정)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65점 (50%)	-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들었다. - 통일성을 갖추어 불필요하거나 벗어난 부분이 없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 양적인 조건을 충족하였다.		13	26	39	52	65
	조직: 39점 (3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문단을 구분하였다. -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 내용의 배열이 체계적이며, 응집성과 완결성을 갖추었다.		8	16	23	31	39
	표현: 26점 (20%)	- 문장이 자연스러우며, 어휘 사용이 적절하다. - 맞춤법(띄어쓰기 포함)과 글쓰기 관습을 지킨다. - 사례 깊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0	16	21	26

--	--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미현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김민정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구본관(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공동연구원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김혜정(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강민규(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조진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성석(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소영(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장지혜(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성준(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박종관(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장호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백형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다연(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재(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안이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정민(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진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지서영(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혜린(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김고은(㈜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수행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4년 11월 30일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인 쇄: 가람문화사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4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